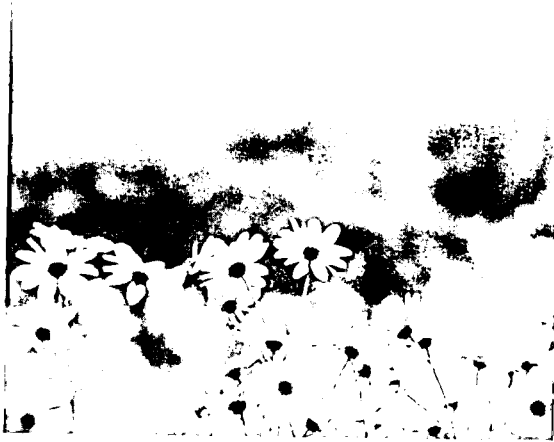


제8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실바람에 실은 희망

- 산 문 집 -



통일교육원

| 발간사 |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크게 발전되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등 복잡하고 예민한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사회의 여론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참여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비전은 국민들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언제' 보다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며, 속명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중하면서도 용기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문제의 다른 한 당사자인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제의식이야말로 우리의 통일과정을 보다 순조롭고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에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입니다.

여덟째를 맞이한 올해는 전국 총 9,885교, 540,576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288명의 입상작품을 모아 2권의 책자(운문집, 산문집)로 엮어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집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북한·통일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0월

통일교육원장 박성훈

산문집

제8회 학생풍인급짓기대회 입선작

실바람에 실은 희망

차례

서울특별시 9

- 내가 꾸는 꿈 / 11
- 나는 깊이 소망한다 / 13
- 할머니의 고향 / 16
- 소중한 나의 마음을 담아 통일 / 19
- 한반도의 칠조망이 기두어지는 그 날까지 / 21
- 통일을 위한 한 걸음 / 24
- 내가 본 북한 / 26
- 가깝고도 먼 민족의 소망, 통일 / 28
- 우리의 소원, 통일 / 31

부산광역시 33

- 통일이 오면 / 35
- 남북이 나아가야 할 길 / 37
- 1+1= 하나 / 40
- 우리는 하나 / 43
- 사라진 일기 / 45
- 통일이 되고 난 후 / 47
-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친구들에게... / 50
-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 52
- 하나된 국가를 부르는 그 날까지 / 54

인천광역시 57

- 세계속의 통일한국 / 59
- 하나됨을 위하여 / 61
- 이산가족의 소망 / 64
- 소망을 담은 편지 / 67
- 하나됨을 위하여 / 70
- 소망을 담은 편지 / 72
- 이산가족의 소망 / 74
- 우리가 손잡는 그 날까지 / 76
- 이산가족의 소망 / 80

대구광역시 83

- 통일 / 85
- 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 87
- 할아버지의 눈물 / 90
- 지우고 싶은 칠조망 / 93
- 북한청소년에게 고향 / 95
- 언제나 함께하는 그들의 뒀 / 98
- 백두산에 가요 / 101
-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 103
- 방향 잃은 풍향계 / 106

광주광역시 109

- 손 잡는 남과 북 / 111
- '가족' 이란 이름 '겨레' 라는 이름 / 113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의 자세 / 115
- 백두산 간접 체험기 / 118
- 자주 통일 / 121
- 호랑이가 포효할 그 날을 위해 / 124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126
- 꿈은 갈라지도 하나인 우리 / 128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130

대전광역시 133

- 할아버지의 고향 / 135
- 통일의 목걸이 만들기 / 138
-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 141
- 통일 기념박물관을 찾아서 / 144
- 할아버지의 무덤 / 147
- 하나를 위하여 / 151
- 할머니의 안경 / 154
- 통일의 전제조건 / 157
- 국제정세와 남북통일 / 160

울산광역시 163

-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 165
- 시린과 아픔의 벽을 넘어 / 167
- 꼬레 두 꾸르 / 169
- 그리운 고향땅 / 172
- 끝없는 민족애가 들끓으리니 / 174
- 아버지의 다리 / 177
- 통일의 그 날까지 / 181
- 우리는 한민족 / 183
-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186

경기도 189

- 연어를 기다리며 / 191
- 북한을 다녀와서 - 꿈☆은 이루어진다 - / 193
- 통일의 추억 / 200
- 할아버지와 통일동산 / 203
- 통일이여 어서 오라 / 205
- 한민족 한 핏줄 / 208
- 외교관 정남희씨 / 212
- 장두홍 할아버지의 이력서 / 214
-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통일 / 217

강원도 221

- 한마리의 새가 되어 / 223
- 동생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 / 226
- 큰 댁 갔던 날 / 229
- 노루의 비명 / 232
- 마음까지 하나되어 / 234
-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 238
- 내 작은 소망 / 241
- 통일은 멀지 않았다 / 243
- 통일, 우리 민족의 영원한 소원 / 246

충청북도 249

-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 251
-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들 / 253
- 남한에서 온 놀새 떼입니다 / 256

- 한 반자국만 / 259
- 내 어린 날의 꿈 / 261
- 피비우스의 띠 / 263
- 손을 뻗으면 잡힐것 같은데 / 266
- 마음으로 이루는 통일 / 268
- 만약에 내가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 270

충청남도 275

- “콩콩따리 콩콩따, ‘통일’ 콩콩따” / 277
- 하나라는 이름으로 / 280
- 통일은 차이의 인정에서 부터 / 284
- 하나되는 그 날 / 290
- 믿음으로 하나되는 움직임 / 293
-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 / 297
- 작은 통일 / 300
- 진달래 피는 마을 / 303
- 외한아버지의 소원 / 306

경상북도 309

-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 311
- 사진속의 금강산 / 313
- 지나치 버린 참새처럼 / 315
- 아! 금강산 / 318
- 한아버지의 눈물 / 322
- 칠새를 아니? / 325
- 통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 / 329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332
- 우리의 통일 / 335

경상남도 339

- 백두산 / 341
- 통일의 길 / 345
- 백두산 / 348
- 백두산까지 / 351
- 백두산 / 354
- 혼신일체 / 358
- 통일친구 두산이에게 / 360
- 통일을 위한 날개짓 / 362
- 다시 올라가자 / 367

전라북도 369

- 북한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 371
- 할아버지의 소원 / 373
- 6월에 그리는 통일의 꿈 / 376
- 금강산을 다녀와서... / 380
-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 / 382
- 하나가 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 / 386
- 손 내밀어 주는 마음 / 389
- 우리 모두의 소원 / 391
- 맑게 웃음 지을 날을 기다리며... / 394

전라남도 397

- 작은 실천은 통일의 열쇠 / 399
- 못 지킬 마지막 약속 / 401
- 그리운 그 산! 그 땅! 그 품! / 405
- 내 작은 힘도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리라! / 412
- 꽃게탕 나눠먹어요 / 414
- 이제 통일 노래 그만 부르고 싶다 / 417
- 하나되길 바라며... / 420
- 할아버지의 고향 / 422
- 꿈속의 결혼식 / 425

제주도 429

- 사랑의 손뼉 / 431
- 하나되는 그 날을 위하여 / 433
- 통일을 위해 벅은 허무는 지혜 / 436
- 노무현 대통령께 / 439
- 삼판선에 피는 꽃 / 442
- 할아버지의 집 / 445
- 꿈의 꽃 / 448
- 하나되어 부르는 노래 / 451
- 손가락 꼬옥 걸고... / 454

● 선물특별시

- 내가 꾸는 꿈 / 11
- 나는 깊이 소망한다 / 13
- 할머니의 고향 / 16
- 소중한 나의 마음을 담아 통일 / 19
- 한반도의 천조망이 거두어지는 그 날까지 / 21
- 통일을 위한 한 걸음 / 24
- 내가 본 북한 / 26
- 가깝고도 먼 민족의 소망, 통일 / 28
- 우리의 소원, 통일 / 31

내가 꾸는 꿈

덕수초 6 최은선

설레임 반. 궁금함 반으로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들어섰다.

통일전망대에 오면 이북 땅이 보인다니 부모님의 말씀에 설레이는 마음을 추스르며 통일전망대에 왔다.

높은 전망대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넓은 땅들.

내가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엄마께서 내 곁에 다가오시더니

“저기 보이는 게 이북 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북 땅이라니... 저렇게 가까운데...

나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놀라움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데도 오도갈 수 없는 우리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바로 앞에 펼쳐진 강과 북녘 땅을 뚫어지게 바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뿐.

그렇게 오래도록 먼 산만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통일이 되어 가족들과 금강산에도 가고 온 국민이 기뻐하게 될 그런 상상을...

“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웬지 기분이 좋네요.”

가족들과 그렇게 금강산 구경을 하고는 산에서 내려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다. 그런데 한참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주위의 숙박집도 방이 없었다.

우리가족은 낭패한 표정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릴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 혹시 잠잘 곳을 찾으십니까?”

그 남자는 참 선하게 생겼는데 이북 말인지 서울 말씨인지 싶어서 서투른 서울 말씨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그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 아저씨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내 또래 정도 되는 여자 아이와 아직은 코흘리개 나이 정도 되 보이는 어린 남자 아이가 우리를 배시시 웃으며 바라보았다.

곧, 우리는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동일이 되는 바람에 생사도 알 수 없었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동이 트고… 날이 밝자 우리 일행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제 동일도 되고 했으니 자주 놀러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을 돌아왔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애, 너 아까부터 여기서 꿈쩍도 않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니?”

“어…엄마! 아저씨는요? 금강산은요?”

“아니, 무슨 소릴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어서와.”

난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꿈이었던 거구나… 하지만 꿈이라 하기엔 너무 생생하였다. 마치 내가 동일이 이루어진 그 미래에 잠시 다녀오기라도 한 것처럼…

난 차에 올라타기 전 처음 만나 본 이북 땅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다시 만날 수 있게 될거야. 멀지않은 미래에 내가 그 땅을 밟아 볼 수도 있을거야. 난 그렇게 믿어.’

난 돌아오는 차안에서 동일을 이루어 행복해질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동일은 꼭 이루어질거라고 굳게 마음속으로 확신해 보았다.

우리의 아픔의 상처인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던 삼팔선을 없애고 대신 평화라는 붓대로 아팠던 상처 모두 감싸 안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깊이 소망한다.

불암중 3 이유진

‘철마는 달리고 싶다’고 외치며 쓸쓸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열차가 50여년의 긴 휴식을 마치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교류의 일환인 경의선 복원공사가 거의 완공이 된 것이다. 철도가 서울에서 개성까지 달리게 된 것은 단순히 휴전선을 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0여 년 전 우리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서로의 목에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내일이면 3주년이 되는 6·15정상회담 이후 물려오는 화해협력의 물질을 이어나가야 한다.

6·15정상회담 이후 8·15광복절에는 50년 만에 혈육을 찾은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어렸을 적 마지막으로 본 자식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만난 자식들의 모습 등 모두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다.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단은 혈육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수십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과 단일민족국가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평화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이자 목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다.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어떤 외국인은 자신의 자식이 한국에 간다고 하자 언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 나라라며 자식의 한국행을 반대했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 또한 북한의 발언 하나 행동 하나에 초조해하고 불안감에 떠든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삶의 평화를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누려야 한다.

또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룸으로써 분단비용을 통일국가의 복지에 사용해 복지선진국 될 수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통일을 하게 되면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든다고 통일을 반대한다. 어렸을 적 나도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통일을 반대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는 손해비용보다 훨씬 적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새로운 미래 국가상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평화로써 통일을 이룩해 낸 우리 국민을 세계는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어 내야한다. 독일의 경우 분단도중 서신, 방송교류와 서동의 지역 교류 등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많은 부작용을 겪었다. 또 북부의 경우 얼마 전 결혼하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노력해도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분단은 자그만치 50년이다. 지금 당장 남북의 주민은 언어면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꼼꼼하고 완벽한 준비가 통일 이후의 평화도 이룩할 수 있다.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이 동시 입장을 한 것처럼 활발한 문화교류도 필요하다. 스포츠는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단결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처럼 함께 대회에 참가하고 남북 단일팀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동시에 한반도를 온전히 한 마음으로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역사학자가 함께 모여 고조선이래의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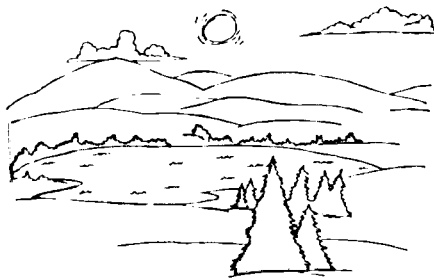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퍼주기 식 물자도움은 결코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없다. 과연 우리가 보낸 물자가 다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됐을까? 고기를 잡아주는 도움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남북한 합작사업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기르는 학교설립도 북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물질적 나눔은

정치 사상적 갈등을 완충시켜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같음을 기뻐하고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의 협력을 서까래로 삼고, 지난 월드컵 때 보여준 우리 국민의 엄청난 잠재력을 주춧돌로 삼아 통일이란 목표를 이루어 내야 한다. 남북한의 주민이 따로가 아닌 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서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열린 민족주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 관계를 추구하는 자세 또한 통일 한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한 평생을 조선의 독립과 남북이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 통일국가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김구 선생은 항상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다.

후전선에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대화와 화해, 협력을 통해 이룩한 통일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가길 나는 깊이 소망한다.



할머니의 고향

진명여고 1 류서현

할머니께선 봄이 오면 겨우내 뒷마당 음습한 응달계에 묻어 두었던 김장독을 부시면서 몇날 며칠을 향아리 가득 물을 부어 우려내셨다. 좁은 공간에 놓여 있는 향아리들은 막 달에 이른 임신부처럼 배를 들이밀고 있었기에 지나다니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우리도 남들처럼 김치 냉장고를 사든지 이게 뭐야?”

할머니 살림방식의 촌스럽고, 궁상스러움에 화가 나서 눈만 뜨면 접하는 광고에 새로 등장하는 가전제품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직 살림을 물려받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놀려 사는 어머니에게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김치 맛은 땅에다 묻는 것이 최고지비..”

관심이 가까우신 할머니께선 절대로 신식 살림살이에 수궁하지 않으셨고 예전 북에서 피난 오시기 전, 그 때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고집하셨다. 어머니님 그런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여간 마음 고생을 하신게 아니었다.

따뜻한 봄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자 향아리 속에 담긴 물에선 양념 울퉁내낸 냄새가 우러나오는지 집안 가득 큸큸한 냄새가 진동했다. 난 코를 찡그리며 질색을 해댔고 교복에 냄새가 밴다고 어머니께 난리를 쳤다. 안그레도 할머니 서슬에 늘 주눅이 들어있던 어머니 그러는 내가 몹시도 서운했던지 그 날 따라 유난히 화를 내셨고 나는 어머니가 야속해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뽀로통하니 학원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고 밖에 조금씩 봄이 와 있었지만 집안은 냉기가 돌았다. 할머니 나이를 잊고 집안 일에 부산을 떠신 탓인지 그만 몸살에 걸리셨고 어머니 한약을 지어와 달이셨다. 약달이는 냄새는 김치독 우려내는 냄새 보단

조금 덜했지만 이미 예민해질 대로 민감해진 후각은 모든 냄새를 파악하려 작심한 듯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다.

‘내가 미치고 말지…’

난 공부를 핑계로 독서실에 주로 머물렀으며 아예 집에 있는 시간은 잠잘 때 외엔 거의 없었기에 할머니와의 접촉은 뜸해졌다. 특히 집에만 들어서면 풍겨오는 이상하고 묘한 냄새… 난 이 냄새가 싫었고 할머니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더 더욱 견뎌왔다. 어머니는 늘 소화불량과 두통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탁 티놓고 식구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셨다. 드센 할머니 앞에서 젊은 며느리의 잔병치레는 고부지간의 분화만 드러낼 뿐 따사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는 시어머니가 아님을 알았었기에 제대로 진찰한 번 받지 못하고 자신의 병을 자가 진단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대학만 가면 독립을 하리라는 열망은 커져갔고 얼마 안되는 용돈조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을 정도로 결심은 차돌처럼 단단해져 갔다.

토요일 오후,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중간고사 준비로 마음이 초조했다. 생각만큼 공부는 되지 않는데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 서둘러 독서실에 가려고 문제집을 챙기고 있는데 마당에서 부시럭 대는 소리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행귀도 남아있는 음식의 곰삭은 냄새… 그 냄새가 퍼져왔다. 내다보니 할머니께서 된장을 담고 계셨다. 소금물을 거르고 매주를 닦아내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어머니 어딜 가셨는지 보이질 않았고 할머니 혼자서 이것 저것 장만하느라 힘이 드신지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몸살을 털고 일어나신 지 얼마 안되는데 또 왜이리시나 싶어 마당으로 나갔다.

“할머니 뭐하세요? 아프다면서…”

할머니 일을 해야 병이 도망간다면서 계속 몸을 분주히 움직이셨다. 난 할수 없이 할머니를 거들어 소금물을 체에 걸러 항아리 가득 부었다. 소금물 위에 누렇게 뜬 매주를 보며, 만족한 표정으로

“내레 피난 올 때 쯤 아까웠던거이 뭐 인줄 아네?”

“남들이 들으면 그 까지꺼 깻구 뵘 기러나 하갓지만... 된장, 고헤장 담아 놓구 설랑 뵘 번 먹지두 못 하구서리 그대루 두고 온 게 못내 아갓드구만...”

어머니가 된장을 사다 먹자고 할 때마다 기겁을 하시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 그랬구나. 할머니 아직도 고헤 땅 뵘전 장독대에 두고 온 장 향아리들을 아직도 품고 계시는 것이었다. 통일이 되서 언젠가 고헤 땅에 돌아가면 잠깐 마실 갓다 돌아온 아낙네처럼 노랗고 달게 익은 된장 향아리를 얻어 당신의 손맛이 뵘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주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음식거리를 장만할 때마다 냄새난다고 투덜거렸던 내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손에서만 나오는 그 된장의 맛! 인공적으로 어떤 감미료를 첨가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 맛을 편리함과 바꾸려했던 내 알팍한 마음이 부끄러워 할머니께 괜히 통방을 주었다.

“엄마 오면 하지...”

아마도 할머니 밑바닥 궁핍했던 시절을 겪으실 때마다 고헤 땅에 두고 오신 된장 향아리의 풍요로운 장맛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건디며 사셨는지 모르갓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 세대는 통일이 뵘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리운 가족끼리 만날 수 있고 즐거운 날이면 둘러 앉아 보글보글 된장찌개라도 끓여 놓고 맛난 음식을 서로 권하며 술잔이라도 나누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통일조국이 아닐까 싶다.

오늘 저녁은 할머니께 된장찌개 끓여 달라 해서 배 터지게 밥을 먹고 싶다.

소중한 나의 마음을 담아 통일

염리초 6 이정원

꽃내음이 물씬 풍기고 서늘한 바람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이곳 통일 전망대에 와 있다. 저 쪽에 화사한 초록빛을 자랑하는 나무들 사이로 북한이 보였다. 아주 희미하게…… 북한의 어떤 아이도 날 보고 있을까? 슬퍼진다. 같은 민족을 이렇게 희미하게 봐야 한다니 비참하기 짝이 없다.

북핵문제로 떠들썩한 요즘 북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조금이나마 생겼다. 나도 그랬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왜 통일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전쟁, 그리고 헤어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아픔을 모르죠.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꼭 평화가 오기를 손꼽고 있어요.”라고 말이다.

우리는 2002년 6월 우리 민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고 최초로 4강에 오르는 기쁨을 맛왔다. 그 때 우리는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아픔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저기 보이는 북한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누군가 왜? 라고 물으면 난 대답할 수 없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은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북한이 보이는 곳에는 항상 철조망이 있다. 여기 역시 철조망이 있다. 그런데 나는 철조망 사이로 빨간 꽃이 피어나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 보았다. 그 빨간 꽃은 장미였다.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38선을 지우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북한 쪽으로 평화로운 새 한 쌍이 날아갔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았으면 한다.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날아가는 저 새를 말이다.



한반도의 철조망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태릉중 3 김선화

우연히 TV채널을 돌리다가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한참 동안 TV를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내 남동생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내 동생의 손에는 '통일 글짓기' 라고 쓰여 있는 원고지와 연필이 들려 있었다.

"누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어데까지 통일을 하지 못했어? 통일이 되면 누나랑 나랑 금강산으로 소풍도 가고 좋은 텐데 말이야."

천진난만한 내 동생의 질문이 내 귀에는 그저 안타깝게만 들렸다. 왜 통일을 하지 못했냐는 그 질문에 나는 잠시동안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 꼭꼭 숨어있는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의 상자에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을 왜 하지 못했는지, 통일을 왜 해야하는지 모른 채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길들여져 통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역시 동생의 질문의 상자를 연 어 줄 희망의 연석을 찾지 못했다.

그 때 마침 TV에서는 아프리카 난민 돕기 성금이 8천만 원이 넘었다는 진행자의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왜 우리는 한 핏줄로 형제의 인연을 맺은 북한의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인 아프리카나 후진국에 보내줄 성금을 모으느라 형제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일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북한까지 미치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직

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하는 불안감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집착에 휩싸여 통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자신의 사상과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다가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 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의 이념도 영원히 조화를 이루지 못해 통일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의 길로 빠질 것이다.

푸른 바다를 휘어 감고 한민족의 조상 단군 아래 오순도순 형제애를 지켜오던 우리는 언젠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면서 남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헤어진 지 어언 50년이 되어 가면서 생각, 문화, 언어조차 달라졌다. 하지만, 통일의 소원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같을 것이다.

분단의 아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었다. 바로 '이산가족'이라는 비극의 명칭을...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산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북에서 혼자 건너오신 우리 할머니의 웃음소리도.....

나의 어렸을 적 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 동안의 할머니의 가슴 저편에 깊이 박혀있는 응어리를 뽑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할머니는 어렸을 때처럼 자신의 다리를 나의 베개로 내어 주시고는 옛날이야기와 함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신다.

"선화야, 그 때는 할머니도 선화처럼 참 예뻐단다. 그리고나서 네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지. 할아버지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참 훌륭한 분이셨단다. 그 때 6·25전쟁만 터지지 않았더라도....."

할머니의 말소리가 떨리는 동시에 그동안의 서러움과 원망이 가득한 탄식의 눈물이 강처럼 무심히 흘러간 세월을 원망이라도 하듯이 할머니의 주름이 자글자글한 불을 타고 흘러 내렸다. 그러면 나는 할머니께 희망의 대답을 건넨다.

"할머니, 걱정하지마. 내가 커서 꼭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통일을 할 거야. 그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결혼식 해드리고, 신혼여행은 금강산으로 보내드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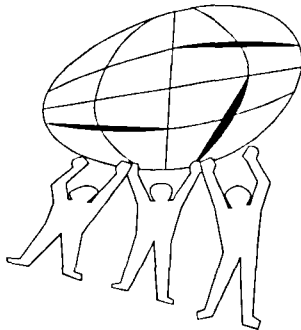
그 말을 건네면 할머니의 눈에 맺혀 뽀얗게 시야를 가리던 탄식의 눈물도 어

느새 꼬리를 감추고 할머니에게 통일이 된 환한 희망의 세상을 선사해 주고 떠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통일이 되는 그 날, 우리 집 가족사진에 흰히 비어있는 할머니의 옆자리를 채워 줄 할아버지를 만나, 완성된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우리 집을 떠올렸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성과 우리의 크나 큰 노력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기적도 마술처럼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점점 과학의 발달로 이미 사회에 큰 자리를 잡아버린 정보화 시대와 세계의 변화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지금은 ‘휴전선’이라는 물질적 이념에 의해 나누어져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해하며 하루 빨리 통일을 해서 찬란한 우리의 오천년 역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희망의 날개를 펴고자 한다.



통일을 위한 한 걸음

해화여고 3 김성은

이라크전이 종결되면서 세계의 관심은 북한의 핵문제에 다시 쏠리고 있다.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되었던 이라크 정권의 말로를 보며 북한은 긴장하고 있고, 남한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평화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 남·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며칠 전 현충일에 일본을 방문했던 노대통령의 발언 중 “통일은 천천히 되어도 좋다.”는 말이 있었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통일은 결코 안 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는 통일이 가져오는 사회의 혼란을 우리는 앞서 통일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준비된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성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대신 적절한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여 북한이 국제 사회에 조금 더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통일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통일을 외치고 있지 지난 반세기동안 다른 곳을 향해왔던 그들의 생각과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이가 없을 것이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서 언젠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될 그들을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언어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통일교육이 학교와 진담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예산을 GDP의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북한에 총을 겨누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데 사용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들과 우리의 경제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 북한에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 개방 요구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경제 침체와 주민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의 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남북한 경제 모두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각종 민간단체 차원의 북한 돕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국의 관계자간의 일처리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해 난황에 부딪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비정부 기구가 주가 되는 활동에는 공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보다 북한에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또한 우리의 일반 국민과 북한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어 세대가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하게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기기 위해 매일 흙을 옮겨 끝내는 산을 옮겼다는 중국의 옛 이야기가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역량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분단 현실이라는 거대한 산도 정부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모이고 위와 같은 정책을 꾸준히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산을 없애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던 지난 6월처럼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그와 같은 감동을 또 한번 누리게 될 그 날을 위해 노력하자.

내가 본 북한

문교초 6 최미현

통일전망대에 와서 북한의 모습을 감상하게 되었다. 유난히 북적대는 이 곳과는 달리 북한은 평화롭고 한가롭게 느껴졌다. 비록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지 있지만 내 눈에는 금방이라도 농부 아저씨가 지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무심코 북한이 궁금해졌다.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곳을 왜 빠져 나오려고 할까 의문이 생겼다. 우리들이, 내가 모르는 어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저기 저편 북한에서도 나 같은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까 싶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 가 보았다. 6·25 사변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 즉 철조망이 보였다. 수술 후에 케맨 듯 앙상하게 눈에 띄었다. 조금 흉물스러워 보였다. 이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어 철조망 대신 오색 풍선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시 새가 되었음 한다. 저 북한이 어떤 곳인지 마음 편안히 여행을 떠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늘 궁금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두발로 직접 북한에 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닐까? 결국 나는 북한 전시실에 오게 되었다. 발걸음 닿는 대로 둘러보다 보니 학교와 안방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공통점을 느끼게 되었다. 안방에는 김정일, 김일성 사진이 아주 위엄 있게 걸려있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태극기가 아니라 그 두개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북한 1학년들이 공부하는 곳에 앉아보니 색다른 느낌이었다. 북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앉아서 그런 것일까? 나는 무심코 책상 위를 보았다. 국어 교과서와 수학 교과서, 그 주변에 연필, 펜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통일이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말 같은 것이 다르다고, 무엇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린 절대 남이 아니다. 얼마 후면 평양냉면을 맛 볼 수 있고 금강산, 백두산으로 북한 어린이들과 손잡고 봄 소풍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같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운동회 때 함께 줄다리기할 하는 것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통일은 멀지 않다. 언젠가는 진정한, 참다운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태어날 것이다.



가깝고도 먼 민족의 소망, 통일

청담중 2 김숙한

50년 전, 두 토막난 코리아. 세계에 하나뿐인 분단국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북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있거나 통일을 염원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부모님께서서는 이런 나를 보시며 실제로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 시대에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라고 하고 모두 괴물이나 되는 것처럼 배웠다고 하셨다. 그 때에 비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인형을 들고 다니는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학교에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한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아마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 때였던 것 같다. 북한과 남한에 수 많은 이산가족이 있고 그들 중 극히 소수만이 만남을 가졌으며 이 모든 것이 반세기 전에 일어난 6·25 전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 때 이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전쟁 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나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나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마음이 아팠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때 이제 통일이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한 번 나누기는 쉬워도 붙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금방 친해진 것 같았다가도 갑자기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가족과 가깝고 먼 친척 모두 남쪽이 고향이라 아무도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몇 년 전까지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분이셨다. 그러다가 외국어 통일 가이드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 통일 전망대가 관광 장소로 유명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통일 전망대에 가시고, 일반인들은 출입하기 힘든 관문점에도 가신 적이 있다. 어머니께서는 설명을 하시면서도 그다지 통일에 대해 생각지 않으셨는데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일본인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거꾸로 깨달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벌써 몇 차례나 가진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통일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0~20대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사실 6·25 전쟁이 약간 멀게만 느껴지고 관계가 없으니 되건 말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통일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경제, 교육, 사회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당장에 의사소통부터가 잘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고 해도 차근차근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오히려 점점 미루다가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면 지금의 우리를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도 반세기나 흘러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만약 반세기가 더 흘러 통일이 된다면 아마 거의 다른 민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노려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되던 병역 문제도 통일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요즘 병역의무 때문에 한국인이 되기를 거부한 유명가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병역 의무가 생겨난 것일까? 통일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고 모두 전쟁의 위협 없이 발뺌고 폭 잘 수 있게 된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토록 소원하던 통일을 보지 못한 제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들, 전쟁으로 고귀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거나 불구가 되신 남북한의 군인들, 명절이나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강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갈 수 없어 통일 전망대에 와서 눈물을 머금고 절을 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 음식쓰레기를 둘 곳이 없어 걱정인데, 북한의 어린이들은 못 먹어서 비쩍 말라 땅에 흘린 것들을 주워 먹는다. 어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둘로 갈라져 외국인들도 갈 수 있는 그 곳을 죽어서 혼백이 되어서나 갈 수 있으려나?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모두 손잡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국민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통일된 독일은 통일하기 위해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부분에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 결국 이루어내고 말았다. 우리도 힘을 합쳐 어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남한의 어린이와 북한의 어린이가 만나 환한 웃음을 짓는 그 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손 모으고 간절히 소망한다. 통일의 그 날까지!



우리의 소원, 통일

한양사대부여고 2 김희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장너머로 피어있는 장미를 보니, 어릴 적 할아버지와 추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난 이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애는 이름이 뭐예요?”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화단에 온갖 꽃들을 키우셨다. 자연스레 나 역시도 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중 장미꽃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다른 꽃들보다 물도 더 주고, 거름도 더 주었었다.

“장미? 우리 손녀딸은 빨간 장미를 좋아하나 보구나. 장미꽃은 예쁘긴 하지만 이 할아버지 눈에는 슬프게만 보이는구나.”

그때는 너무 어려서인지 장미가 슬프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큼 키가 훌쩍 커버린 지금, 핏빛을 담은 6월의 붉은 장미를 바라보는 내 눈은 그때의 할아버지의 눈을 닮아 있었다.

그동안 내게 있어서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 이산가족의 상봉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두 손을 꼭 낀 채 눈물만 흘리던 이산가족들, 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그들은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50여년이란 긴 세월을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 그런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내 마음에까지 와 닿은 것이다.

‘누가 그들의 얼룩진 마음을 씻겨주고 눈물을 마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 깊게 패인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이뤄져야 한다. 통일만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이 한 지붕 아래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그날이 오면, 한반도는 평화와 사랑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된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반세기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수업시간에 배운 북한 단어 몇 가지만 보더라도 외국어인양 생소하고 낯선 것들이 많다. 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의 울타리 안에서 사상 및 생활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독일 역시 베를린 장벽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벽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 남북 교류를 자주 갖고, 우리 모두가 한민족, 한 동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서로의 다른 점을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들었군요?’ 한 탈북자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눈초리들이 견디기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요즘의 우리들을 보면 집단 따돌림이라 하여 ‘왕따’라는 말이 있다. 단지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이다. 따돌림으로 인해 상처받는 친구는 생각도 않은 채 말이다. 만약 통일된 후 학교에서 옆에 앉은 북한친구가 말투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에게 왕따란 이름표를 달아줄 것인가? 똑같은 상처를 입혀줄 것인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우리의 소원인 통일로 향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가끔씩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셨었다. 통일이 되면 손 꼭 잡고 금강산에 오르자며 할아버지와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까지 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 다음에 나 혼자만이라도 할아버지의 소원이자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보면 불수록 아름답다는 금강산에 올라 통일된 조국의 기쁨의 노래를 쓰고 싶다.



● 부산광역시

- 통일이 오면 / 35
- 남북이 나아가야할 길 / 37
- 1+1= 하나 / 40
- 우리는 하나 / 43
- 사라진 열기 / 45
- 통일이 되고 난 후 / 47
-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친구들에게... / 50
- 조금만 배리하고 이해한다면 / 52
- 하나된 국가를 부르는 그 날까지 / 54

통일이 오면

동래초 4 강민지

“아니? 탈북자들이 12명이나 서울로 왔군…”

신문을 보시면서 아빠가 중얼거리셨다.

“아빠, 탈북자가 뭐예요?”

“응 탈북자는 북한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못 이겨 휴전선을 넘어 탈출한 사람들이란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안하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까지 해야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

며칠 전 난 짝지와 심하게 다툰 뒤 휴전선처럼 선을 그어 책상을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는 서로가 절대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며 으르렁거렸다. 다른 친구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며칠동안 말도 없이 지냈다.

과학시간이었다.

그날 따라 과학 준비물을 들고 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다른 친구에게 빌려 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자기 쓰기도 모자란다고 안된다고 대답하였다. 수업 종이 울리는데……, 그 때 말도 않던 동준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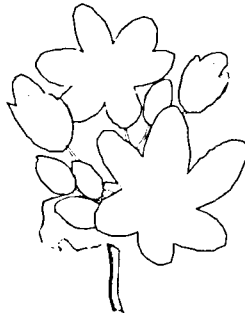
“강민지, 내가 빌려줄게 짝지 좋다는게 뭐냐? 너랑 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야. 우리 이제부터 그어 놓은 선 지위버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마음일 뿐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과학시간에는 동준이 덕분에 선생님께 칭찬까지 들어가며 수업을 무사히 마쳤다. 그래서야 난 동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동준아, 내가 속이 좁았어.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화해를 하고 생각해보니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북한이 떠올랐다. 같은 민족이면서 생각이 달라서 계속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며 여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불안하게 하는 북한……. 며칠간의 싸움에도 짝과 나는 무척 불편했는데 53년동안 갈라져 있는 우리 남한과 북한은 정말 힘들고 불편하지 않았을까?

도덕시간에 배운 북한의 생소한 말들도 오랜 기간 헤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다 텔레비전에서 본 북한의 사람들이 촌스러워보였던 것도 서로 왕래가 없었던 50여년의 세월탓이리라. 나는 나와 동준이처럼 남·북한이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해를 해서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유도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우리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자유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힘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도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음식을 먹기 싫다고 버리고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해 본다.



남북이 나아가야 할 길

동신중 3 오성택

몇 해 전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일은 남녀노소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나에게도 감격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반백년 동안을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50년 만에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모습은 내 뇌리에 강하게 쫓혔고 아직까지도 그 날의 감동적인 기억은 생생하다. 이렇게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은 제2차 제3차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실형민의 극소수뿐이며 설사 상봉하였다 하더라도 상봉기간은 너무도 짧아서 50년 동안의 가슴에 사무친 피붙이의 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한을 다 풀지도 못한 채 곧 떠나야 했다. 헤어지는 버스의 차창을 사이에 두고 통곡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또 다른 슬픔을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그 일은 고향이 이북인 할아버지께서 여러번 이산가족 신청을 했었지만 한 번도 뵈이지 못한 것을 비판하여 임진강 다리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으로 가길 바라면서 북한 땅이 눈앞에 보이는 임진강 다리에서 떨어지신 것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 차츰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추진하되 더 많은 분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츰 발전시켜 나가고 대화의 폭도 넓힌다면 평화통일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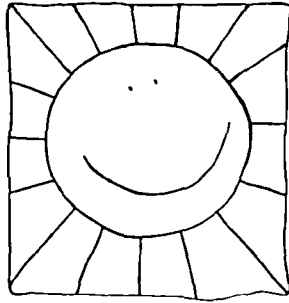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대화의 폭을 남북정상회담으로만 국한 시키지 않고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로 까지 승화시켰다. 그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남북 단일 탁구팀이었다. 당시 우리의 남북단일 여자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거두었고 그 이후로도 스포츠에서의 남북교류는 계속되어 왔고 마침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북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하였고 이로써 남북관계는 한층 두터워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명 '햇볕정책'을 실시하였고 그로인해 남북한의 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졌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햇볕정책을 실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아 남북관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던 남북관계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개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북한은 DMZ구역을 넘어 오는 등의 도발행위로 우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즈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나온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반대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 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미국에서조차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압력을 넣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악의 축의 하나라고 경고하며 북한을 경계하는 가운데 얼마 전 이라크와 전쟁을 해서 이라크의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락시켰고 북한과의 전쟁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나돌았다. 지금 남북한은 아슬아슬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남과 북 그리고 미국사이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관해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위기의 측면을 달리고 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우리의 몫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자 아픔이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들에게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숙원이 있다.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화적인 통일이 우리의 몫인 것이다.



“1+1=하나”

부산여상 3 정아영

내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한 가지 있다. 작년 6월, 뜨거웠던 월드컵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내가 사는 곳 부산에서는 36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제14회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었다. 환달한 성격 덕분일까? 아니면 호기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기수단을 신청하게 되었다.

규모가 큰 대회인 만큼 여러 사람들이 다들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해야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단지 성공이란 두 자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 아니, 적어도 나 스스로가 몸소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 5개월 정도 연습했었나?

그때는 정말이지...,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꼬리표처럼 달아놓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이 배로 늘어난 것 같다. 한번은 총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각국 기수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를 받기는 태어나서 그 날이 처음이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땅덩어리 안에 두 나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6·25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분단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달리 평화회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횟수도 급속하게 발전된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시드니 올림픽 이후, 남북한 동시

입장과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43개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기수단으로서 참가하게 되었던 아시안게임이었다. 어찌면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더 취재열기가 고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전후세대라서 북한이나 통일 따위엔 무관심했었다. 전쟁의 고통도 모를뿐더러 전쟁이란 단어는 국사 책에서나 나올법한 단어라고 단정지을 뿐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통일을 안 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작정 통일을 해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날 나는 식이 끝날 때까지 기를 들고 서있어야 했는데, 내 앞으로 지나가는 북한측 선수단과 손을 꼭 붙잡고 한반도기를 힘껏 흔드는 남측 선수단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되었다. 난생 처음 북한사람을 보았다는 기쁨과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두 눈이 마주칠 때마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를 들고 서 있는 동안 나로 하여금 흥분의 도가니로 끌어당기기엔 이미 충분했었다. 제일 마지막에 남북한 동시입장이 이루어 졌는데, 안내자가 “코리아”라고 외치는 그 순간...,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대~한민국”의 리듬에 맞춰 “우리는 하나다”라는 멘트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울어 버렸다.

그랬다. 우리는 하나였다. 겉모습은 비록 각자일지라도 속은 하나였던 것이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만경봉호를 타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라는 말을 외치며 손을 흔드는 남북한 사람들을 TV로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시안 게임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고 어느덧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며칠 전, 집에서 DVD를 시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게 되었다. DVD를 보면서 문득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았다. 영화 초반부터 시작되는 의문의 총격전, 피비린내 나는 초소 현장과 총탄에 번잡이 된 시체를 보면서 북한 이미지를 나쁘게 손상시키는 영화라면서 무척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뒤이어 밝혀지는 진실은 너무나도 우습고 인

간적인 이야기였다. 초코파이 하나에 울고 웃고,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며, 감회에 젖고..., 정말로 사람 사는 모습을 듬뿍 지닌 영화였다. 비록 영화라서 과장된 부분과 실제와는 다른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영화감독이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생각을 메시지로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작년 6월의 함성이 뜨거웠던 월드컵 때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꿈인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

장전초 6 이수진

봄 바람이 향긋한 꽃 내음을 한아름 싣고 나의 코 끝을 살랑 살랑 간질일 무렵이면 미국에서 우리 가족을 따듯이 맞아 주시던 김 장로님의 충혈된 눈과 코 멍멍이 목소리가 기억난다.

김 장로님께서서는 6·25전쟁때 미국으로 건너 오셨다고 하신다. 그런데 미국으로 오던 도중 동생을 잃어 버리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미국에 갔을 봄 무렵, 나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서운 것이라고는 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라크 전쟁을 TV로 보았을 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내 눈으로 푹푹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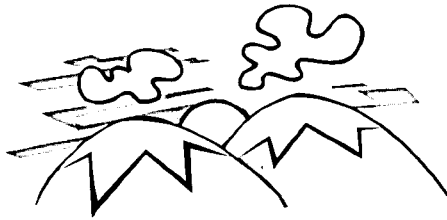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모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도 다시는 이 땅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뜻을 펼쳤지만 우리 모두 그 뜻을 뽄뽄뭉쳐 어느 나라에게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아시안 게임때 농구 경기를 북한 응원단을 우리팀을 응원해 주고, 우리는 북한팀을 응원해 주었다. 그 모습은 어느 무엇의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힘차 보였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편지', '우리들의 목소리 녹음하여 정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에는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북한 친구들이 이 밥을 먹고 고마워

할 모습을 떠올리니 참 기뻐다. 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다. 한 민족, 한 핏줄, 한 형제이다. 우리 모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한과 북한의 허전하고, 섭섭했던 공간을 채하지 않게 좁혀 나아가자.

이 땅에서 김 장로님의 울음 소리는 이제 그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인 애국가를 불러보자. 나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하나의 애국가를 당당하게 부를 날이 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기쁜 마음으로 북한 친구들과 다정히 손을 맞잡고…….



사라진 열기

동신중 3 이원희

나는 지난 6월의 합성을 기억한다. “오, 필승 코리아!”를 힘차게 외치며 우리나라를 열광케 하였던 한일 월드컵도 이제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진정 우리를 그토록 신나게 했던 축구의 실태는 영 말이 아니다. 월드컵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새 관심을 돌려버려 축구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월드컵 때의 사라진 열기처럼 느껴졌다.

TV에서는 연일 북한의 잘못된 것만 밝혀내어 보도하는데 급급하여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임을 알고 우리라도 북한을 감싸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해에, 나는 금강산을 다녀왔었다. 매바위 부근을 지난 때에 한 아저씨가 금강산 관광가이드에게 말하길,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하는 물음에 가이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 거기서 나는 그 두 분이 너무나 다정스러워 보여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몇 달 전 경의선 철도를 남북이 서로 연결시키는 공사가 시작 될 때, 남과 북이 이렇게 경계를 비롯한 문화, 사회, 정치 등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으니 통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좋은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되기 위해서는 조율사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나는 통일도 피아노와 같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작은 문제라도 서로 만나

서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할 때야말로,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이 되었다. 그러나 세밀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굵직굵직한 문제들만 논의하여 사회에 일대 혼란을 주었다. 그 예로 주거문제를 들 수 있는데, 나누어지기 전의 집문서를 근거로 통일 후에 자기 집이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인 경계만을 허물었을 뿐이다. 독일은 지금도 오시, 배시하며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혹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심각하게 떠올랐다.

곧 남북 장관급 회담도 열린다고 하던데, 제발 서로 뜻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고치고 또 고쳐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자동차처럼, 우리 민족도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몇 십 년이 지나, 한반도기를 달고 입장하는 축구팀은 어떨까? 한번 보고 싶다.



통일이 되고 난 후

해화여고 2 문정윤

2057년 지금 내 나이는 72살이다. 나는 손녀와 함께 평양에 놀러왔다.

“할머니, 여기가 평양이야? 이야~ 근데 좀 이상하네”

내 손녀는 서울과 사뭇 다른 평양의 모습에 신기해했고 나 또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평양을 바라보며 슬며시 눈을 감고 옛일을 회상했다.

1986년 나는 분단국가라는 슬픈 현실 속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었기에 2학년 때까지 북한을 적으로 알았고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빨갱이었다. 매년 6월 달 째 되면 전쟁에 대한 드라마를 했고 그런 드라마에선 수없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세상물정 하나 모르던 나는 빨갱이가 뭐냐고 어른들께 여쭙보았고 북한 사람들을 빨갱이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또 왜 북한 사람을 빨갱이라 하냐고 물었더니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국기엔 빨간색이 들어가고 그것을 홍(紅)기라 하여 빨갱이라 한다고 하셨다. 그때까진 나는 그 뜻이 나쁜 뜻인지 몰랐다. 우리 국기 또한 붉은색이 들어가고 공산주의가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 쯤인가? 사회시간에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서야 빨갱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음을 알았다. 그것을 알고나서 나는 기분이 꽤 불쾌했다. 단지 사상이 다를 뿐인데 사람마다 생각도 생활도 다 다른데 그렇다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적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단어를 배우기 전에 통일이 되었던더라면..., 그리고 나는 많은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알게 될까봐 걱정을 했다. 비록 단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속엔 나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중 2때였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한국 전쟁 50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뉴스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 중 하나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50년 동안 고생만 해가면서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그 할머니의 남편은 결혼을 해 버렸고 계속 미안해 하시는 할아버지께 “난 여자고 당신은 남자잖아요. 그리고 난 자식도 있구요 당연히 많이 외로웠을테죠.” 하면서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해 주셨다. 아마도 50년이라는 그리움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넘겨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몸이 너무 불편해 한국에 오자마자 병원에 실려갔어도 어떻게든 자식을 보기위해 반쯤 쓰러져가는 상태로 아들을 만나는 모습 등 가슴 아픈 사연은 너무나 많았다. 그 중 성치 않은 몸으로 자식을 보기 위해 오직 통일만을 기다리며 50년 동안 정신력으로 버텨온 많은 할머니께 지금도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통일이 된 상태라면 아마 이런 고통은 덜 하겠지? 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50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다. 그 무렵 나는 초등학교 때 뉴스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등 간첩선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이전 보도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로써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산가족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슬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아니 나쁜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02-03년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때의 수많은 사랑의 희망은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었다. 물론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존재인지는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민족의 문제를 다른 나라와 의논하고 핵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감시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같은 민족의 문제라면 또 한번의 회담을 갖고 핵 보유의 국제

적 정당성 위배에 대해 대화하고, 또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같은 민족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다른 나라와 의논해 북한을 괴롭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02 아시안 게임때 남과 북이 같이 입장함으로써 또 한번의 감동과 통일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그런 일이 터지는지 많은 사람이 오직 통일만을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방해물이 많은지... 통일은 현실 속에서는 존재 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님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렇게 또 몇십년동안 남과 북은 서로 웃으며 울며 화내는 등 많은 일이 있었고 50여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일이 일어났다. 통일이 된 것이다. 뉴스에선 긴급속보로 방영되고 전국 여기저기에서는 기쁨과 축하의 폭죽도 터트렸다. 사람들은 '당연히 기쁘죠,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때도 이런 기쁨이었겠죠?, 속이 탁 트이네요.' 등의 말로 기쁨을 표현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서러웠는지 쉽없이 눈물만 흘리거나 춤으로 그 기쁨을 대신 표현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통일이 되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데 1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태어나면서 내가 이 평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아켜보니 눈물이 한줄기씩 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직접 한국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평양에 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를 생각하니 웬지 모를 설움이 북받쳤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통일이 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 뎀 고통뿐이었다. 하지만 이젠 많은 사람들이 웃는다. 이젠 즐거움과 행복만이 남았다. "할아버지, 이젠 통일이 되었어요. 제가 평양 땅을 밟고 서 있어요."

통일이 되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왜 그 길은 그렇게 멀어만 보이는 것인지... 우린 언제쯤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친구들에게

남천초 2 이유진

북한 친구들아 안녕?

난 남한에 살고 있는 유진이야. 6·25전쟁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 6·25전쟁만 터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야.

내가 살고있는 남한은 정말 환상적이고 멋지단다.

광안대교, 해운대 해수욕장들이 멋지고 시원하단다. 광안대교는 밤이되면 색깔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단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바닷물은 짜지만 시원하고 상쾌하단다.

아시아 게임때 북한의 예쁜 언니들이 신나게 응원을 해 주었지?

하지만 북한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남한이 쌀과 비료를 많이 주지. 그렇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굶어 죽고 힘들어 해.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이 와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남한에 있는 한라산을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단다.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겠어. 우리나라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 너희들도 어른들께 여쭙어 보고 나도 어른들께 여쭙어 보아서 같이 통일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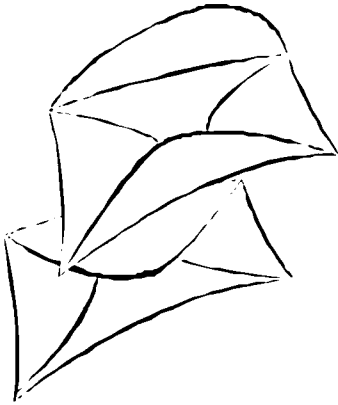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같이 여행도 하고 우리들의 학교 교과서도 비교해 보고 너희 북한의 대표음식 냉면도 먹어보고 싶단다. 너희 북한의 있는 것 모두 다 해보고 싶단다.

보지 못해도 상상하는 편지를 쓰니까 너무 좋아. 앞으로 이런 편지 많이 주

고 받자. 통일이 되면 너희 북한의 도서관에 가서 북한 말도 많이 배워서 다음에 적는 편지는 너희 북한의 말로 적을 거란다. 애들이 내가 오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해, 사랑해.

2003년 6월 7일 토요일

북한을 가고 싶어 하는 남한의 부산에서
유진이 씀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주감증 1 최현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 시대이다. 요즘 세상은 또 한번의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계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칭하는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이라크. 지금 핵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 북한과 친형제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는 전쟁의 긴장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통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북한을 잘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잘못 했다' 라는 말만 해댄다면 안 될 것이다. 왜 만드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물어보고 생각하며 대화를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 북한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총과 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의 통일의 길은 더 멀어져만 갈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무기부터 들이대는 것은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북한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이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되는 이상, 우리가 설득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커다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제 구호 기금단체에서는 북한을 식량 보급국 1위로 꼽았다고 한다. 얼마전, 북한이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남한이 미국이 말한 추가적 조치에 동의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협박과 쌀 40만 톤을 요구하였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와중에도 쌀을 요구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때

문에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했던 협박에 대한 말을 문서로써 해명하였으니 쌀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이 해명한 말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하기 전까지는 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핏줄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차마 저 많은 아사자들을 외면 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식량지원도 거의 두절된 상태이다. 이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게 너무 끌려가기만 하라는 건 아니다. 북한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들어주되,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까다롭게 임하여, 북한이 문을 개방하고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어제는 현충일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기리는 날이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걸어온 날을 되돌아보는 날이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어언 53년이다. 요즘 북한이 서해의 NLL을 침범하는 등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뭉뚱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 있으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착공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1000만 이산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북한과의 거리를 좁혀나간다면 언젠가는 손을 맞잡을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호의 기적소리를 들었다. 이제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안전벨트를 매고 침착하게 달려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된 국가를 부르는 그 날까지

덕문여고 2 박선미

“애국가 제창”

저 짧은 한 문장에 담긴 아픈 현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를 불러보세요.' 라는 질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국가를 지니고 있지 않다. 늘 부르게 되는 애 국가가 국가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민족의 터전인 한반도의 허리가 아직 잘린 채 있기 때문이다. 분단된 반쪽짜리 내 나라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50년 넘게 반쪽의 역사를 남북으로 나누어 가져온 우리나라 현실의 반영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민족분단 이래 우리나라는 분단을 이유로 비극의 길을 걸어 왔다.

내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의 슬픔이 가장 단적인 예이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 본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 체험세대도 실향민의 가족도 아닌 나까지도 울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그들의 눈물 자체가 조국 분단에 얽힌 한이었고, 기억 속 모습조차 어렵פות한 가족의 얼굴을 더듬는 그들의 손끝은 반 백년 세월을 헤어져 지낸 혈육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었다. 이들은 한민족의 아픔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이자 하루 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크나 큰 이유이다.

통일의 필요성은 비단 이산가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 한국을 이룩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내 평화의 존속,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문제에도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의 폐해는 형언할 수 없으리 만큼


엄청난 것이다. 최근 북한의 NPT탈퇴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이미 세계는 한반도를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쟁은 무고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로 전쟁 발발 후의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 질 것이다. 빗방울이 바다를 이루는데 기여하듯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의 위험을 억누르는 통일 한국의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 단군의 피를 이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름에 분단의 현실은 불명예스러운 오점이다. 짧지 않은 시간 단절된 채 살아온 덕에 남북한을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조금 더 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는 한민족의 열을 담은 뜨거운 피조차 식어 결국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가지게 되는 지금, 이제는 비로소 하나라는 마음을 일깨우고 함께 세계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반세기만에 만난 혈육을 부둥켜안는 이산가족의 모습도 겨레의 면전에 충을 겨누고 철조망을 지키며 20대 청춘을 바치는 우리 아들들의 모습도,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어느 음악밴드의 모습도, 이 모든 뼈저리게 아픈 모습들은 한 칸에 묻어 두고, 이제 희망만이 남은 미래 통일 한국을 향한 항해를 시작할 때이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릴 쉽지만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오랜 시간 바라오던 통일로의 바람이 이루어져 하나 된 국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시도 통일의 염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의 이유는 민족 분단이 내 나라의, 내 민족의, 우리 이웃의, 그리고 나 자신의 아픔이고 한이라는 것에 있다. 통일을 바라는 소원은 남의 것이 아니다.

한민족 분단의 비극적인 역사는 이제 매듭지어져야만 한다.



● 인천광역시

- 세계속의 통일한국 / 59
- 하나됨을 위하여 / 61
- 이산가족의 소망 / 64
- 소망을 담은 편지 / 67
- 하나됨을 위하여 / 70
- 소망을 담은 편지 / 72
- 이산가족의 소망 / 74
- 우리가 손잡는 그 날까지 / 76
- 이산가족의 소망 / 80

세계속의 통일한국

승학초 6 심지선

2013년 8월 11일

나는 아침에 귀여운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눈을 비비며 기분 좋게 일어났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햇살도 더욱 따스하게 지붕 미끄럼을 타 내리고, 꽃들도 더욱 예쁘게 인사하는 듯 했다. 그렇다. 오늘은 바로 '통일 기념일' 이라서 난 많이 들떠 있었다.

밥을 먹고 새로 사귀 북한 친구 정희와 같이 문학경기장에 갔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개미 떼처럼 몰려있었다. 이곳에서 운동회를 한다니, 조금 떨렸다. 대결은 북:남으로 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의 개인달리기가 있었다. 나도 달렸는데, 북한 아이들이 너무 빨라서 2등을 했다. 아쉬웠지만 북한 아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 다음엔 북한 친구들의 합창이 있었다. 그 피꼬리 같은 목소리들……. 난 그 합창을 '천사들의 합창' 이라고 일컬어 주고 싶다.

북한 친구들이 너무 잘하자, 우리 남한팀에서도 질 수 없다 하고 열심히 준비한 부채춤을 추었다. 땀병에서 하느라 힘들었지만, 북한친구들 모두 낯을 놓고 보아서 기운이 솟았다.

그 뒤로 박 터뜨리기, 춤 경연대회 등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계주를 하였다. 나는 여러 달리기 대회에 나가 상을 탄 적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추천으로 계주에 나갔다.

하필 맨 마지막 주자일게 뭐람. 또 뒤에서 달려오는 아이도 북한 아이보다

세 걸음 뒤쳐서 달려오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바톤을 받자마자 막 달렸다. 북한 친구를 따라잡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병정 같은 조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선 새 땀알간 피가 흘러내리고, 옷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었다. 그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앞서 달리던 북한 친구가 되돌아와 손을 내민 것이었다.

넘어졌을 때는 아프고 부끄러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보니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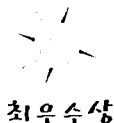
나는 그 애의 어깨에 의지하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같이 끌었다. 응원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들려왔다. 남·북이 통일 한 건 1년 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 비로소 통일된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결과는… 나도 잘 모른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길 생각으로만 열심히 했는데 계주를 하고 나니 그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즐기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다.

나는 몇 년 전, TV에서 남·북 가족상봉 장면을 많이 보았다. 물론, 부둥켜 안고 울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크게 외치는 사람들도 보았다. 나도 그 땐 이해가 안갔다. 다들 왜 그러는지…, 지금도 살기 좋은데 그걸 왜 망치려 하는지… 하지만 통일이 된 후 느꼈다. 가족간의 사랑, 그리움을 다 표현하지 못해 눈물을 흐렸던 것이고, 그 큰 애국심으로 갈라진 휴전선을 깨달려고 했던 것이다.

아직 우리 통일한국은 통일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이겨낼 것을 난 믿는다.

이젠 남·북이 통일 됐으니 모두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 됨을 위하여

남동중 3 이한나

“오늘은 종이비행기를 접을 거예요. 다들 나와서 색종이를 한 장씩 받아 가도록 하세요. 모두 종이비행기를 예쁘게 접어서 소원을 빌도록 합시다.”

유치원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린 아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꾸깃꾸깃 솜씨 없게도 접혀진 종이비행기를 내려다보던 아이는 고개를 가웃했다.

‘무엇을 빌까?’ 노란 유치원 모자를 만지작거리던 아이의 눈에 게임 CD가 게가 들어왔다. 유리벽 너머로 화려한 케이스 안의 게임 CD가 불빛에 반짝였다.

‘게임 CD를 갖게 해 달라고 빌까?’ 전부터 눈독을 들였던 CD였다. 하지만 아이는 곧 고개를 돌렸다. 갖게된 뒤에 듣게 될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한참을 터벅터벅 걷던 아이가 걸음을 멈췄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리듯 피자 가게 앞에 선 아이가 입맛을 다셨다.

‘피자를 먹게 해달고 빌까?’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피자 정도는 조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로수를 친구삼아 뛰어가던 아이의 눈에 빈 놀이터가 보였다. 한적한 놀이터 그네에 올라 시간을 보내던 아이는 갑자기 그네놀이에 싫증을 느꼈다. 아이는 종이비행기를 손에 들고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예쁜 종이비행기구나.”

종이비행기를 요리조리 뜯어보던 아이가 고개를 돌려 지팡이를 손에 든 노인이 씨익 웃음을 지었다.

“뭘 하고 있니?”

“... 생각 중이었어요.”

약간 경계하듯이 짤막한 목소리로 대답한 아이가 다시 시선을 종이비행기로 돌리자 노인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벤치에 앉았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니?”

“무슨 소원을 빌까 하고요.”

“그것 참 고민 되겠는걸.”

썬 목소리로 깔깔 웃던 노인이 다시 아이에게 물었다.

“집에 안 가니?”

“가봤자 있는 건 잔소리쟁이 아줌마뿐이에요.”

투덜거리던 아이가 뿔뿔뿔뿔한 눈동자를 또로록 굴리더니 약간 머뭇거리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집에 안 가고 뭐해요?”

“나도 생각 중이었단다.”

“무슨 생각이요?”

“집 생각…”

“집 생각을 왜 해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는 아이를 보고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못 가니까.”

“왜 못가요?”

“어른들이 못 가게 한단다.”

잠시 노인의 얼굴을 뻘히 쳐다보던 아이가 말했다.

“나쁜 어른들이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잖아요, 할아버지 집인데 왜 못 가게 해요?”

“어른들이 하는 일은 항상 복잡하단다. 하지만 언젠가 꼭 가게 될 거야.”

“거짓말.”

노인의 말을 들은 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은 항상 거짓말만 해요, 우리 엄마랑 아빠도 일찍 들어온다면서 매일

달님이 뜰 때쯤에 들어오는 걸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요. 전부!”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던 노인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어른들은 거짓말쟁이지.”

“난 어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당찬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갑자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 따윈 되지 말아라. 거짓말쟁이 어른 따위는…”

아이가 빙긋 웃었다. 노인도 진음이 된 듯 웃었다. 한참을 웃던 노인이 그러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 집에도 꼭 너만한 동생이 있었단다. 지금은 나같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지. 어렸을 적엔 참 귀여웠는데, 그 앨 못 본지 벌써 50년이 지났구나. 그래, 벌써 50년이 지났어.”

쉴쉴한 목소리로 중얼거린 노인을 올려다보던 아이가 물었다.

“동생 보고 싶어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보고 싶지. 내 동생도 보고 싶고, 우리 집 들에 피었던 붉은 꽃도 보고 싶고, 뜰 안의 흙도 만져 보고 싶고…, 내 집에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구나.”

노인의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 정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든 노인의 얼굴을 보며 빙긋 웃음지은 아이가 손안에 가둬 두었던 종이비행기를 내보였다. 자신의 손을 떠나 위태롭게 날아가는 종이비행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크게 소리쳤다.

“할아버지를 집에 보내주세요! 동생도 보게 해 주시고, 붉은 꽃도 보게 해 주시고, 뜰 안의 흙도 만져 보게 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듯 흔들리던 종이비행기가 갑자기 높이 떠올랐다. 높이 솟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종이비행기를 보는 노인의 얼굴엔 희미한 웃음이 머금어져 있었다.

이산가족의 소망

선화여상 3 김윤정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생각하면 이 노래와 함께 가장 먼저 불러보는 이름이 있다. 바로 할머니. 항상 어디서든 노래하는 자리면 쓸쓸한 표정으로 항상 이 노래를 부르시곤 하시던 할머니.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다정했던 나의 할머니.

할머니는 82세 되던 2001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아파하고 슬퍼하던 분이셨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애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던 할머니의 어머니, 오빠가 북한에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산가족이었던 할머니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리고 통일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기는 커녕, 통일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국가의 혜택으로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입고 싶은 것 등 우리가 원하면 나쁜 것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통일이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이 혹시 사소한 일로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또한 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통일을 원치 않았었다. 그러나 이산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이며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내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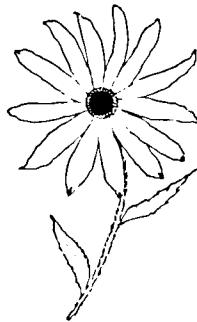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희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대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의

할머니, 이모들이 오셔서 연일 눈물로 지새우시고 슬피하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렵듯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적어도 죽음이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뜻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아플 때면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않고 허영게 타들어간 입술로 나를 돌봐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와 막상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어린 나였지만 어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때 어머니는 기적처럼 회생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변함없이 가장 큰 조연자로서 넓은 그늘로 나를 지켜 주고 계신다. 그 때 일을 되돌아보면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할머니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 오빠와 50여 년 동안이나 생이별을 하신 채 생사도 모르고 사셨으니 그 슬픔이 오죽하셨을까! 오죽하면 아무 때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셨을까? 자신의 혈육을 휴전선 사이에 두고 직대시해야 하는 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반세기를 지내셨을까? 2000년 8월, 이산가족이 상봉하던 날, 텔레비전을 보시던 할머니께서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나도 할머니의 마음에 동화되어 슬프게 울었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머니의 슬픔, 어머니의 병환으로부터 출발했던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텔레비전을 통해 금강산을 보고 파란 불씨로 변했다. 금강문, 옥류동, 연주담, 상판담 등 맑고 아름답고 신비한 금강산의 구룡폭포 코스를 지켜보며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텔레비전에서 문예회관 교예공원 관람까지 보니,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처럼 그 가능성 때문에 마음이 몹시 들떴었다. 특히 마지막에 ‘하나’라고 쓴 자막을 보여줄 때, 우리는 정말 한 민족, 한 뿌리로써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통일’이란 이 단어는 내 마음속 깊이 새겨줘야 할 나의 흠덩이가 분명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바로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오빠 그

리고 그들의 자손들... 결국은 모두가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 이라고 했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통일이 되면 7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 것이고, 두 동강 났던 나라가 본래대로 합쳐지면 국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 인재들도 많이 배출 될 것이다. 그러면 작고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겪는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평화의식을 함양하며, 남북한 신뢰회복과 상호이익 도모를 위한 화해·협력의식을 배양함으로써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할머니께서는 비록 통일이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머지않아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에 차 있다. 난 그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때까지 끊임없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반쪽인 한 민족, 한 뿌리를 찾는데 주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쳐 본다.



소망을 담은 편지

용현남초 3 안서영

“**은**다고 옛사랑이 오리오 만은, 눈물로 달래 보는 구슬픈 인생...”

내가 7살 때, 나에게는 이상한 노래를 매일 불러 주셨던 절대로 잊지 못할 나이 많은 친구가 있었다. 간판도 없고 조그마한 구둣방에 똑딱이 할아버지가 사시고 붕어빵을 사 먹으러 갈 때마다 구둣방은 우리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똑딱똑딱!” 소리가 나면 어느 새 멧진 구두가 똑딱하고 나와서 내가 할아버지께 붙여 드린 별명이다. 내 부츠의 고장난 지퍼를 고쳐주시더니 그냥 가라고 하시면서 돈을 안 받으시는 분이였다. 엄마께서는 미안해 하시면서 할아버지께 꿀을 사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더 미안해 하셨다. 그 뒤로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늘 혼자 계시는 똑딱이 할아버지, 전쟁 때문에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불쌍했다. 그리고 전쟁 때 폭탄이 터져서 한 쪽 귀는 고막이 터져서 듣지도 못하셨다.

이산 가족 상봉을 TV로 보시면서 우실 때도 많았다. 일요일마다 통일 진망대에 가서서 나도 따라 갔지만 솔직하게 똑딱이 할아버지께서 놀이기구도 없고 재미없는 곳을 왜 가시는지 이상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냥 가족들을 죽기 전에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내가 조금만 컸어도 할아버지께 위로라도 해 드렸을 텐데..., 위로는커녕 장난만 쳐서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나는 가끔씩 편지 심부름도 했다. 그런데 주소도 이름도 없는 그냥 ‘똑딱이’ 라고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주소가 없잖아요.”

“언젠가 가겠다. 또 누가 아네. 답장이래도 온지…”

당연히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답장을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바보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불쌍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둑방에서 매일 들려오던 이상한 노래 소리도 안 들렸고 문이 닫혀 있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똑딱이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걸까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장난만 친 것이 미안해서 편지를 썼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날도…, 일주일동안 구둑방은 불이 까맣게 꺼져 있었다. 사과를 꼭 해야 되는데….

마침 엄마께서 맡겨놓은 구두를 찾으러 갔다가 할아버지께서 아프신 것을 알았다. 허리도 더 구부러지셨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겨우 문을 열어 주셨다. 아프다고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막 쏟아졌다. 약을 지어먹었는데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죽기 전에 우리 식구들 보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구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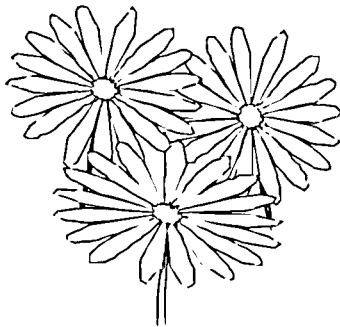
서랍에서 오래 된 가족사진과 저급통장을 엄마께 주셨다. 살아있는 동안 금강산에 꼭 가려고 모으신 돈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엄마께서는 집에 돌아와서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전쟁은 칼과 총으로 사람의 목숨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50년을 넘게 가족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슴에 커다랗게 아픈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다.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과 북이 3·8선을 그어 놓고 살아야 한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다.

며칠 후, 똑딱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께 쓴 편지도 드리지 못했는데 말이다. 나는 그 때 처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것인지 알게 되었다. 구둑방은 없어졌고 우린 이사를 했다. 난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를 잊지 못한다. 똑딱이 할아버지는 나에게 마음속을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엄마께서는 그것을 ‘그리움’ 이라고 하셨다. 나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지만 가슴속에서 할아버지

가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 하셨는지 조금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주소도 없지만, 이름은 '뚝딱이 할아버지께' 라고 써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할아버지,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요.
통일이 되면 저도 금강산에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죠?
고쳐주신 부츠도 잘 신고 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내 마음속에 뚝딱이 할아버지는 영원히 친구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혼은 벌써 가족들과 함께 금강산에 구경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 뚝딱이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던 노래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것만 같다. 할아버지, 통일이 될 날을 기도하면서 답장 꼭 기다릴게요.



하나됨을 위하여

관교여중 1 유선경

옛날 중국 진나라의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올랐다. 배가 떠나려 할 때 어미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며 강기슭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배가 강나루에 닿자 어미 원숭이는 배 안으로 뛰어 들었으나 곧 죽고 말았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배를 갈라보니 새끼 원숭이를 잃은 슬픔으로 창자의 마디마디가 끊어져 죽었다. 그 후로는 '단장'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고통이야말로 단장의 고통과 같지 않을까?

오늘 남북한은 50년간 중단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을 다시 연결하는 연결식을 갖는다. 또한 사스 때문에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을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강산 관광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같이 놀던 친구를 만난다거나, 나서 자란 고향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고향을 간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 북한이 고향인 분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 연결식을 갖는 철도를 통해 남과 북에서 자라고 만들어진 농산물과 공산품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거래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이대로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 했다라며 따지지 말고 그냥 남북한 7천만 겨레가 부둥켜안고 한바탕 울음으로 한바탕 잔치로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통일과 평화는 두 가지가 한 개의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 가지를 함께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평화는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달라도 서로 싸우거나 헐뜯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한편 통일은 내 방식이든, 내 방식이든 아니면 제3의 방식이든 서로가 갑론을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든지 한 쪽이 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하는 통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될 말이다. 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한다. 수 많은 생명이 숨지고 이산 가족과 전쟁고아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다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화를 통한 통일 방법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사는 모습이나 생각 등을 서로가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한간의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 스포츠나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여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식량과 전력을 한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해야 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북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수록 통일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야단스럽게 다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세계에 상대방을 헐뜯어 대지 말고, 목소리는 낮추고 생각을 깊게 하여 양보하고 합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육지의 끝인 진라남도 해남군에 가면 '토말비'라는 기념비가 있다.

거기에는 "태초에 땅이 생성되었고, 인류가 발생하였으며, 한거레를 이루어 국토를 그은 다음 국가를 세웠으니..., 거레여! 여기 서서 저 광막한 대자연을 굽어보며 조국의 무궁을 기원하자." 고 기록되어 있다. 거레여! 우리 함께 하나 된 조국의 무궁함을 기원하자.

소망을 담은 편지

- 故 윤영하 소령께 -

송도고 2 이희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령님께서 나온 자랑스러운 송도인 이희인 이라고 합니다. 송도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기엔 이제부터는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에 미쳐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는 월드컵 보도 후 서해교전에 대한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 한창 혼이 빠져있을 때라서 서해교전에 대한 보도는 쉽사리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음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언덕에 당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서해교전 참전, 故 윤영하 소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서해교전 전사자 중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저희 학교에서는 선배님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 선배라는 점을 알고 나서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돈을 아껴 모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돈이 모였을 때 이것을 선배님의 아버님께 드리는 성금 증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신의 영혼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지 비가 올 것만 같은 하늘은 파란 파스텔로 색칠해 나가 듯 파랗게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나 월요일 아침 조회시간은 학생들에게는 지겨움과 귀찮음의 대상임

니다. 물론 선배님도 그러셨겠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학생들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아침조회를 맞이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조회가 끝나고 성금을 당신의 아버지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조회 내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정말로 진정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놈을 이 학교에 보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마음속으로 당신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도 당신의 아드님 같은 훌륭한 분이 저희학교 선배님이라는 짐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난 선배님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쪽의 군인에 대항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 기반에는 운영하 선배님, 당신이 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전사자 분들도요……. 한 사람의 희생이 거대한 사회의 움직임, 통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는 어렵겠지만,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요? 하루빨리 당신의 희생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나뭇잎 하나하나가 씩어 거름을 만들어 나무를 만들 듯이 당신의 죽음도 통일이라는 나무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도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운영하 소령님, 하늘나라에서 통일 된 한국을 보시며 웃음 지으시길 소망합니다. 故 운영하 소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6월14일

송도고등학생 이희인이 하늘나라의 운영하 선배님에게로…….

이산가족의 소망

인천연성초 4 유가현

“아이고 강연아, 이리 좀 와봐라.”

우리 증조할머니께서는 올해 나이가 107세 이시다. 6·25전쟁 때 꽃띠 처녀인 외할머니를 데리고 이곳 인천으로 피난을 나오셨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때 돌아가셨는데 산소가 없으시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시길

“밤에 가족들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나갔는데 바닷가에서 빨갱이들 총에 맞았다. 그런데 시체가 그만 바닷물에 휩쓸려 가버렸지 뭐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할머니, 아까부터 뭐, 빨갱? 아니 빨갱이, 빨갱이 그러시는데 빨갱이가 뭐예요?”

“아, 글썄 그 놈들이 팔에 시뻘건 친을 두르고 나타나면 다 시뻘건 색으로 보이니까 빨갱이지.”

우리 외할머니의 친척 분들께서는 6·25전쟁 때 피난을 나오시지 못하셔서 지금 북한에 계신다고 한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분들과 다시 오순도순 사시는 것이 우리 증조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소망이라고 한다.

우리 외할머니께서

“에휴, 시집 올 때 가져온 색동저고리며 비선이며 하나 입어보지 못하고 피난 왔는데 이렇게 영영 못 돌아갈 줄이야……. 그 놈의 전쟁만 아니었어도 고향에서 평평거리며 살았을 텐데…….”

하시며 아쉬운 말씀을 하신다.

“아이구, 그 때는 대포 한 알이 떨어지면 집이며 나무며 다 날라갔고, 바다만 한 웅덩이가 생겼단다.”

놀러온 이모할머니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피난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몸이 자주 아프시다. 아니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신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할머니의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6·25전쟁은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나 보다. 우리 동네에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다. 그곳에 가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6·25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죽은 시체들,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 끝없이 밀려오는 피난민 행렬,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엔군 아저씨들……. 내가 그 때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 때 그 모습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만큼 잘 살게 된 것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모습을 보았다.

“쉬-이이익 핑!”

컴퓨터 게임을 하듯 소리도 없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최첨단의 전쟁이었다. 전 세계가 텔레비전을 보며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전쟁을 해야만 평화가 오는 것일까? 어쨌든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두 동강이다. 북한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마음대로 갈 수 없다니…….

우리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이 온까? 우리 할머니의 소원은 고향에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원이 꼭 이루어져서 내가 모시고 가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손잡는 그날까지

부평서중 2 황형준

지잉!

작게 울리는 전자파 소리에 얽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눈을 벽시계로 옮긴다.

새벽 5시경…

난 피곤한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내려온다.

난 누가 이 늦은 새벽시간에 TV를 켜는지 예상하고 있다. 거실로 나가니 역시나 아버지께서 앉아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처럼 아버지 손에는 작은 흑백사진 한 장이 들려 있다.

“이번엔 뽕히셨어요?”

난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물었다.

“아직 명단자가 다 나오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너의 할아버지를 만나긴 힘든 것 같아…, 이미 많은 명단자들이 지나쳐 갔거든…”

아버지는 자기 손에 들린 때문고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시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TV에는 이산가족 명단이 뜨고 있다. 하루 세 차례 새벽 4시, 오전 12시, 오후 9시에 뜨는 명단들을 아버지는 한 차례도 빠짐없이 보신다.

혹시나 아버지 자신과 할아버지의 명단을 보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서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6·25전쟁 때 헤어지셨다. 그 땐 아직 어리셨던 아버지께서 많은 피난민들 속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아 남으로 떠밀려 오신 것이다. 그 일이 어언 50여 년 전이다.

이산가족 상봉의 명단자들이 나오는 뉴스 프로그램이 끝났다.

… 이번에도 기회가 없다.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신다.

“회사 갈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좀 더 자거라.”

…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

오전 11시.

난 회사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난 생각한다.

할아버지…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한 분이다. 그래서 그럴까? 솔직히 난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산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할아버지와 난 갈라진 것이다. 하지만 난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만나서 울고 싶다. 난… 깊은 내면속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르릉~ 따르릉~

난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울리는 전화소리에 전화기를 든다.

“아빠다! 전…전화가 왔어. 할아버지를 찾았고 오늘 저녁 8시에 통일 평화관에서 만날 수 있단다.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할꺼다. 어서 회사에서 나오너라!”

난 서둘러 통화를 끝내고 회사를 나온다. 너무 기쁘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던 내가 이렇게 기뻐하다니…, 분명하다… 난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

주르륵~

내 눈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녁 7시 30분, 통일 평화관 앞.

버스를 타고 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아버지는 한 마디의 말도 없으셨고 잠에 빠져 드시지도 않았다. 많은 긴장이 되었던 것이리라.

우리는 통일 평화관 안을 5분 가량 돌아다니며 우리를 할아버지에게 안내해

줄 사람을 찾았다. 아버지께서 초조해 하신다.

저 쪽 계단 옆으로 긴 테이블이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안내자일 것이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을 처음으로 볼 안내자들이다.

우리는 서둘러 안내자들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자 안내자 한 명이 일어서며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안내자의 얼굴색이 좋지 못하다.

‘무… 무슨 일이 있나!’

난 조용히 속으로 궁금함을 제기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떤 작은 방에 안내된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끝이 흐려진다…, 무슨 일일까?

아버지와 난 조용히 방안에서 기다린다. 시간이 지난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한 걸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얀 관을 끌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돌아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지신다.

하얀 관 뚜껑이 열리고 누군가가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누워있다.

누굴까? 나의 할아버지이신가? 정말… 그런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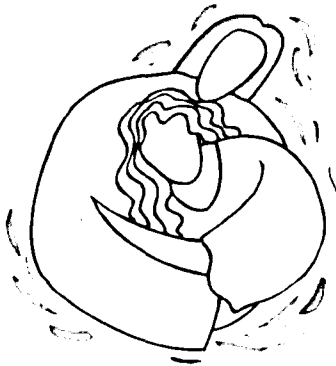
“난… 난… 말이요…”

흐느끼신다…. 아버지께서 흐느끼며 관을 이끌고 온 사람에게 말한다.

“… 항상 아파왔소. 매일같이 내 영혼이 남과 북을 가르는 날카로운 철조망을 넘으며 몸이 찢겨지고 쏟아지는 듯한 총알에 내 영혼에 구멍이 나도 난 영혼만으로도 아버지를 만났소. 웬지 아시오? 난 느끼고 싶었소. 아버지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서로 느끼며 피가 도는 따뜻한 손을 잡고 싶었던 말이요.”

아버지가 지금 잡는 할아버지의 손, 관 속에 배치된 할아버지의 싸늘한 손. 아버지는 눈물을 떨구며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신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시며 말한다.

“내겐…, 큰 아픔이 남겠지만, 난 기다리겠소…, 우리 모두가 손잡는 그날까지…”



이산가족의 소망

- 임진강 건너편 할머니의 고향을 바라보며 -

학익여고 2 김혜은

사실 저는 통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통일교육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뉴스로 접했을 때 어린 마음에 북한은 우리와 다른 무서운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꽃제비 아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이제 보니 나 홀로 남았다.
낙엽 따라 떨어진
이 한 목숨 가시밭을 헤치며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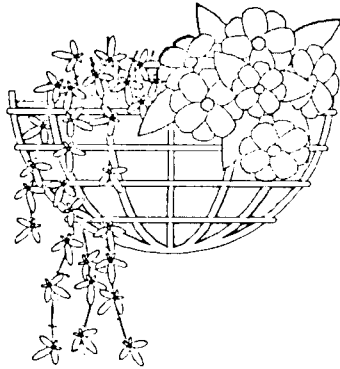
라는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왔고 이제 흘릴 눈물도 없으려면 치절한 울음 바다를 보며 우리는 하나임을 소리 없이 느꼈습니다. 그곳 사람들 역시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든을 넘기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꼭 방문하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그저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작년에 쓰러지신 외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예 포기하신 듯하지만 어떻게 하면 외할머니의 고향을 찾아드릴

수 있을까 하고 단순하게,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혼자 계시지만 외할아버지와 인생을 시작하신 사연 많은 곳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전쟁 중에 갖은 고생하시며 피난 나오신 이야기를 듣다가 아픔과 그리움이 저에게도 전해져 괜스리 쓸쓸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처럼 마냥 즐거워하며 듣던 그 이야기가 외할머니의 한처럼 느껴진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도 가는 오늘, 할머니의 고향을 아직 임진각 망원경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고 북 핵문제니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니 주한미군 문제니 시끄러운 현실이지만 할머니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같은 땅을 둘로 가르고 있는 원한 어린 155마일 철창과 지뢰밭을 감동의 꽃향기로 녹여 내어 못 다 나눈 혈육의 정을 하루 빨리 나누어야 하는데... 외할머니의 고향 방문은 어찌 보면 큰 소원이지만 외할머니의 인생에서는 정말 작은 소원일 것임에 저는 통일이라는 감상에 젖어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6월. 2002년 6월은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한민족의 해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통일에 대한 화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의 밭에 감동의 꽃으로 그려봅니다. 꿈은 이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봅니다. '오라! 이 강변으로 우리는 만나야 할 한 핏줄' 이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시대에 꿈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거시적인,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통일이라는 현실 앞에 소극적이거나 한 걸음 다가서야겠습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 남·북의 통일이라는 큰 물체가 어둠거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북녘동포 돕기, 점심 한 끼 굶기를 외칠 때 외면뿐만 아니라 비난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상처 났던 자리에 딱지가 앉으면 간지러워 긁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남·북 문제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시대적 사명은 있습니다. 어찌면 생전에 외할머니의

고향방문은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할머니의 고향을 꿈속에 그려보며 통일은 우리시대의 소명임을 깨닫습니다.





● 대구광역시

- 통일 / 85
- 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 87
- 할아버지의 눈물 / 90
- 지우고 싶은 칠조망 / 93
- 북한청소녀에게 고함 / 95
- 언제나 함께하는 그들의 넋 / 98
- 백두산에 가요 / 101
-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 103
- 방향 잃은 풍향계 / 106

통일

두산초 4 조한결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한 마리 샀다.

집에 가지고 갔더니 장난꾸러기 오빠가 빨리 키워서 동닭을 해 먹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래 살도록 병아리 이름을 장수로 부르자고 했다. 나는 병아리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오빠와 나는 이처럼 생각이 달라서 자주 싸운다. 일부러 약 올리느라 그럴 때도 있지만 나는 양보하기 싫어서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한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오빠에게 한 대 맞기도 한다. 그러면 영영 울며 달려든다. 그러다 보면 엄마까지 나서고 온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이라크와 미국도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왜 터졌을까? 피 흘리고 죽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어른들은 왜 하는 것일까? 오빠와 나처럼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일까? 한 쪽이 너무 욕심 부려서 일까? 집안에서 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뭔가 뜻이 맞지 않으니 나중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빠와 내 싸움은 끝나고 나면 큰 문제는 남지 않는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진다. 하지만 나라끼리 싸우면 그 뒤에는 여러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이별을 했어도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다. 남북한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자주 하지 못한다. TV에서 이산가족이 만날 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헤어진 부부도 있었다. 평생을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할 말도 잊은 채 쓰다듬으며 울고, 얼싸안고 또 울었다. 헤어질 시간에 모두 차를 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도 울었다.

시드니올림픽 때는 남북이 공동 입장했다고 말해 줬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선수들과 힘을 합쳐 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금강산 등산로 확장 뉴스가 나왔을 때에는 산을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무척 기뻐했다. 철도가 생겨 모두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기라도 했으면 싶었다. 소를 많이 싣고 북한으로 가는 걸 봤을 때는 통일이 곧 될 것 같기도 했다.

통일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남북공동선언문이란 걸 보았다. 그 맨 첫 머리의 말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다. 55년만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아직은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주 만나 대화를 해서 조금씩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어른들끼리 한 약속이니 잘 될 것으로 믿는다.

선생님께서서는 한국전쟁이 쉬고 있는 상태 같아 언제 다시 터질지도 모르니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 하셨다. 그런데 나는 너무 놀기를 좋아한다. 어질러 놓고 뒷정리를 하지 않아 어머니께 혼날 때도 있다. 양보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이산 가족들이 오래 기다린 것처럼 참고 내 할 일을 한다면 통일을 위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열차를 타고 북한 친구를 만나서 “안녕, 나는 대구에서 온 한결이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기도 할 것이다.

오늘은 오빠에게 한 가지라도 양보해야겠다.

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범물여중 2 최은하

여기가 38선입니다.

제작년 여름 방학, 우리 가족은 정작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민족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휴전선을 향해 북으로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칠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를 처음 맞이한 것은 38선 팻말이었다. 오기 전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던 38선이라는 것이 크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길목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만큼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우리 한민족을 갈라놓은 첫째 번 가시밭인 38선을 알리는 팻말이 이렇게 초라하게 서있는 걸 보니 50년이란 긴 세월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잊게 했다는 걸 느꼈다.

다음에 본 건 백마고지 전투지였다. 들어가면서부터 희고 높은 탑이 세워진 걸 보고 흥미로웠는데, 사실 이 탑은 한국전쟁 당시 죽은 수많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을 기리는 탑이었다. 30만발의 폭탄이 산의 높이를 1m나 낮게 했다고 하니 그 날의 치열한 혈전이 다시금 느껴졌다. 이 곳은 인민군과 국군이 태봉국 궁예의 흔적이 남은 칠원평야를 놓고 무려 24번이나 싸운 한민족간의 전쟁이 치러진 곳이었다. 또 한번 실망한 곳이었다.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 겨우 땅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죽여 가며 싸웠다니…….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날날이 보여준 치참한 전쟁의 상처는 백마고지 위에서 보이는 민족의 한을 담고 원망스레 흘러가는 임진강에 던져져 우리의 가슴에 못박힌 듯 남았다.

다음 목적인 철의 삼각 전방대에선 정말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

다. 전망대에는 최첨단 시스템이 있었는데 우리와 북한의 경계, 현재까지 발견되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발견될지 모르는 땅굴들과 무려 145km라는 넓은 상층로 한민족을 가르고 있는 DMZ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의 수난을 생생히 보여주는 기계였다. 그 시스템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뒤 500원을 넣고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천천히 눈에 갖다 대었다. 조그마하지만 사회자 아저씨는 그것이 그저 북한의 생활 모습 중 만분의 1도 안 보여주는 부분이라 했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그저 우리를 공격 할 것으로만 보였던 그런 우리의 반쪽인 북한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깬다 무시해 버리는 팻말이 나의 눈앞에 선명히 비치었다. '우리는 남조선과 다시 하나 됨을 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저 우리를 현대화된 기계들 속에 감정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물로만 보고 있지 않는지. 새삼 북한을 잊고, 무자비하고 비열한 북한만을 생각해온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나는 나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나의 현실만을 보고 있었다. 우리 남한만이 그저 통일을 원하고 우리만 그저 소를 주고 쌀도 주는 것을 보며 우리만 그렇게 목칭을 높여 가며 외치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정작 한민족 전체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바라고 있는 걸까? 연민의 마음으로 월정리역에 서 있는, 50년 전만 해도 남북을 자유롭게 달렸을 경원선 열차를 보며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곳은 그저 북쪽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려던 나의 고쳐먹은 생각을 다시한번 무너뜨리는 곳이었다. 제 2땅굴에 도착한 나는 무려 145km의 비무장 지대를 뚫고 전쟁으로써 한민족을 통일시키려는 북한의 무자비함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한다. 그들은 적화통일을 원한다.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보고자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또다시 실망하고 말았다.

'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지하 50m까지 내려가는, 한번에 무려 3만 명의 군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정교히, 그리고 들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남한 침공을 위해 파 두었던 그 땅굴 안

에서, 더 이상 민간인은 물론 경계를 지키는 군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남방 한계선을 끝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할 때 벽에 쓰여 있던 팻말이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 우리와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걸까?

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진정한 통일과 조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다. 하지만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자주 뜨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생각해 볼 때면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입장만을 부여해 주는 것도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그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편견을 가진 채 살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의 워싱턴에 갔을 때, 한국 전쟁기념관의 상징물인 한국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동상들의 뒤편 벽에 새겨져 있던 클리포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헤어져 있던 시간동안 흘린 눈물만큼 값진 것이 아닐까.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한 무고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6월이 오고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잠든 국립묘지를 생각하며, 월드컵의 함성으로 뜨거웠던 민족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6월. 한민족의 평화로운 통일, 적이 아닌 적인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이해해 주며 무력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우린 같은 민족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서로가 되길 바란다. 통일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된 나라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와 하나가 만나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그 날까지.

할아버지의 눈물

외룡고 2 공민정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는 통일,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 어쩌면 이미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였다는 것조차 먼 과거의 일 째로 치부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이든지 나에게 통일은 간절한 소망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가 할아버지의 눈물을 본 뒤부터 더욱 더 간절하게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 때는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평안도가 고향이신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금강산 관광을 한번 다녀오시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고향을 코앞에 두고 가지 못하면 더욱 그리울 것'이라며 마다하셨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춰지는 금강산 가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하염없이 바라 보셨다. 고향 지척에 있는 산을 관광 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프셨는지 나는 그 때 할아버지 눈에 잠깐 맺히는 눈물을 보았다.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나는 몇 번 더 할아버지의 눈에 살짝 맺히는 눈물을 볼 수 있었지만, 그 때에 처음으로 보았던 할아버지의 눈물은 잊을 수 없다.

처음으로 남북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이 있던 그 날, 나의 할아버지는 신청을 하시고서도 기대는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섭섭한 마음은 감추기 어려우셨는지 그 날 저녁, 친구 분과 함께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셨다. 그리고서는,

“민정아, 할아버지는 북한 정권이 싫어서 어린 나이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만, 고향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하면 안타깝기만 하단다. 아직도 하나뿐인 누이동생은 아리따운

여학생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다 되었겠구나. 살아있지만 하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살았는데…… 그게 벌써 50년이구나.”

그 뒤부터 몇 번 더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는 살며시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다. 벌써 2년여가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뭉클 해진다. 언젠가 우연히 호적 등본을 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낯선 이름이 있었다. 궁금해서 여쭙어보니,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증조할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돌아가셨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북에 계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차마 하실 수 없다고 하셨다. 어쩌면 이젠 여든을 바라보는 걸코 작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할아버지를 지탱해주는 힘은 북에 두고 온 고향과 가족을 만나겠다는 그 의지와 소망 때문일 것이다.

설날,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고, “올해는 면회소만이라도 생기겠지요.”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히히, 그렇겠지.” 라고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고향 땅을 그리워 하셨고, 북의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셨다. 덕택에 나의 할머니께서는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북 한음식을 한두 가지는 꼭 만드셨다.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혼자 점심을 드시고 있을 때였다. 나는 처음 보는 음식이라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라고 여쭙어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이거는 ‘김치말이’ 라는 건데, 할아버지 고향에서는 이렇게 먹었어. 한번 먹어볼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방금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먹지는 않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점차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통일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한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수많은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언젠가 북한

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란 문제로 한창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같은 나라 돕는 것이 무슨 문제될 일이겠느냐 하시며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씀하셨다.

“민정아, 한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총부리를 겨누며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한민족간의 전쟁은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 된다. 한 민족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겠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남북은 분명 한 민족, 한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북한의 힘든 경제 사정에 너무나 가슴 아파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는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을 잠시나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돕는 것은 구멍 난 물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대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씩 하나씩 서로가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도 쫄쫄 닫아만 두었던 문을 열 것일 뿐더러,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이간질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경의선 철도건설이나 비무장지대 진입 등 이미 여러 가지 통일을 위한 일들이 차츰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위한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모아진다면 그것은 곧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난 평생을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어떠한 심정인지,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통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그리움을 환짝 웃음으로 피어나게 한 통일이 하루빨리 왔으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는 오늘도 그 날을 간절히 염원한다.

지우고 싶은 철조망

구암초 4 김명신

물끄러미 신문을 봅니다. 나를 쳐다보는 쾅한 눈, 앙상한 몸, 뼈가 드러나는 여윈 얼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은 사진 속의 북한어린이가 나를 원망하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같은 민족인데도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도 된 듯 그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나의 옷, 우리 집 음식을 가져다주고 싶은데……, 분명 그 곳은 그리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족이 피서를 간 곳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였습니다. 약간의 절차의식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기를 마치고 안보 교육도 받았 습니다. 좀 지루하긴 했지만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냥 들떠 있었 습니다. 약간의 절차를 밟은 후 우리 가족은 군인아저씨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통일 전망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의 공기는 너무 맑았고 나무들은 더없이 울창하고 푸르렀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다람쥐, 새들이 너무도 평화스러웠습니다. 다람쥐와 새들, 온갖 짐승들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고모할머니는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하실까요? 어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고모할머니는 열아홉 어린 나이로 시집을 가 아들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 고모할 아버지가 북한 의용군에 의해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 가족은 통일이 되어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어언 반세기, 지금은 일흔다섯의 고모할머니는 요즈음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북한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을 글썽이신답니다. 고모할머니의 청춘

과 고생은 무엇으로 보답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 아들이 아빠 있는 곳으로 가자고 조를 때면 물끄러미 지도만 보셨다고 합니다. 지도만 보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지요.

어머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흰 건물의 통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해금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르른 바다는 너무나 고요했고 남북의 아웅다웅 다툼을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언제쯤이면 해금강의 넓은 가슴을 본받아 서로 이익만 챙기려 하지 않고 남북이 부둥켜안을 수 있을까요?

끊어진 동해 북부선 철도길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나는 금방이라도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 험벗고 굶주린 친구들에게 작으나마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전망대 이층 건물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르른 날씨 덕분에 북한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북한 땅은 외계인이나 사는 이상한 곳이라 여겼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아저씨들의 모습도 우리가 들어올 때 본 군인아저씨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군데군데 처져있는 철조망만이 좀 보기 흉할 뿐이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 철조망을 지우고 싶습니다.

문득 망원경 속에 그려진 북한 어린이의 표정 없는 얼굴, 그들의 모습에 웃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같이 손잡고 뛰놀며 즐거워 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모할머니의 마지막 소망인 끊어진 철도를 타고 그 곳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북한 청소년에게 고함

아양중 2 김새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청소년 여러분.

저는 남한의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규모가 큰 5대 광역시 중 하나인 “대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올해로 15살이 되어, 남한의 교육과정으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느 여학생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막 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얻은 분이시거나, 혹은 한창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계신 분 인수도 있겠지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넓고 넓은 우주의 땅고 많은 은하계 중 태양계의 세 번째 지구 행성에 사는, 지구인이자 같은 아시아인, 같은 한반도,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와 풍습을 가졌는데도 코가 크고 눈이 파아랗다는 백인보다, 까만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흑인들보다 더욱 더 머나멀고 금지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6·25 전쟁과 실항의 아픔과, 이산의 아픔을 모르는 세대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길지 않은 50년 세월,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남한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2000년이 열리고 나서야 무르익기 시작한 남·북한의 화해의 분위기……. 그러나 지난해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지속되어 왔을 북한 핵무기 문제로 외교전선이 그리 밝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 핵무기 일이 미국의 오판이었기를, 잘못된 정보였기를 내심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나눈다면 좋으련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2003년 5월1일~5월3일 2박 3일 동안 저희 학교는 일상공부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배움을 얻기 위해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일정에는 우리나라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전망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발걸음을 옮겼던 그곳. 그러나 전망대에 오르니 갈 수 없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계실 북녘 땅이 보였습니다. 그 때 그곳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왜 그리도 슬픔과 설레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던지요……. 눈요기 밖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 숨이 막힐 것처럼 감탄을 자아내는 파아랗고 맑은 바다 위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이 그어져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겠지요. 동일전망대에서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은 북녘의 땅. 파아란 바다와 멀리서나마 보이는 금강산을 가슴속에 새기며, 어찌면 멀고도 가까운 북녘 땅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동포들을 가슴속에 새기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는 저 북녘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혹 여러분께서는 얼마 전 남한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개최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을 기억하시는지요? 북한응원단의 미모와 정돈되고 멋진 응원으로 인해 남한의 큰 돌풍이 그 당시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서 비록 말의 억양이 남한과 비슷하지 않아 조금은 낯설긴 했지만, 분명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동포들과 남한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도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의 정은 쉽게 떨려야 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아시아와 붙어 있는, 그러나 머나먼 유럽대륙. 이 유럽대륙에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을 이루어 현재는 단일국가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당시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독일의 통일을 가장 부러워했던 이들은 아마도 우리 남·북 국민들이었을 것

입니다.

1990년 독일통일이후 지구상에 남은 단 하나의 분.단.국.가 남·북이 갈라진지도 반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통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많이 힘들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 남·북한 국민 모두 하나로 뜻을 모아 통일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비록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서로 협력하여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만물의 기운이 풍성한 봄입니다. 아냐, 이젠 봄은 저물고 여름이 피어오른다고 해야 할까요? 남한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봄 동안 환짝 어우러졌다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북녘은 어떤가요? 아마 남쪽보다 약간 기온이 낮으니 아직까지 봄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백두산에 어우러져 있을 무궁화를 생각하니 북녘의 산천이 물씬 그리워집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겠지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통일(統一),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북의 국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청소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두 손을 잡고 만날 그 날까지 남한을 그리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북녘을 늘 그리워 할테니깐요…….



언제나 함께 하는 그들의 넋

상인고 1 김은송

작년 이맘 때, 한반도를 강하게 흔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월드컵, 미군 장갑차 사건, 그리고 서해 교전. 이 3가지 사건이 평소엔 조용하기만 했던 6월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좋은 것만 기억하는 동물이라 2003년 현재, 미군 장갑차 사건이나 서해 교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 장갑차 사건이야 추모 집회가 열려 잊고 지내는 우리를 각성하게 만들지만, 서해 교전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잊혀진지 오래다. 정작 잊지 말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가 월드컵 열풍에 젖어 있을 때, 서해 저 편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 사이의 가장 치열한 전투로 평가되는 서해교전에 관한 TV 뉴스를 보면서 나는 제2의 순국선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경악을 했다. 그리고 50여 년 전의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찌 보면 그 슬픈 뉴스를 볼 수 있는 것도 과거의 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피가 흐르고, 소름끼치는 총성이 귀속을 멍하게 했던 때, 모두들 피난으로 바쁠 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전쟁터로 나섰을 그 분들, 우리는 늘 도덕 시간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용감하게 나설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을 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용기는 없다. 나 역시 그 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치긴 하지만 내가 막상 그 때의 상황에 놓여진다면, 난 죽어도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곳에 뛰어 들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들의 희생 덕에 살아남은 자들의 여유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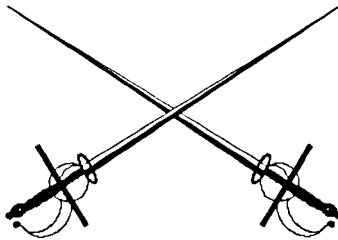
약 2년 전, 자주 타지 않던 버스를 불일이 있어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난생 처음 보는 신분증 같은 것을 운전기사에게 보여주시고는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 신분증을 주머니 속에 넣으실 때에서야 그 신분증이 국가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걸보기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을 때,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내 귓가에 들어왔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양반이 아직까정 저래…….” 아저씨는 말 끝을 얼버무리셨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뒤에 있을 말을 짐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멧찍은 듯이, 어찌 보면 많이 겪어 본 상황인 것처럼 먼 산을 보셨는데, 내 눈에는 그 상황이 묻구나무서기름 하여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저씨가 말씀하신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나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본 장면은 전혀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6·25전쟁 50주년을 기리는 뜻에서 제작된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의 후손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엔 그 분들의 후손이라 하면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조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 받고 있는 현실에 화가 치민다고 하셨다. 이런 풍토에서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려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울분을 토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친일파의 후손이 나라를 상대로 조상의 소유였던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까지 가는 마당에 진정으로 기를 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무시 받고 산다는 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독한 개인주의에 길들여져 나라 전체가 위협에 빠져도 나

와 내 가족만이 살면된다 라는 생각이 만연한 시대이다. 이런 개인주의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긴 했다지만,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끔 기반이 되어 준 사람들을 잊고 지낸다면 우리는 꺾데기뿐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충일이 되어야만 충혼탑을 찾고, 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있을 때에만 겨우 순국선열의 넋을 되새기고, 그들의 의로운 피를 교과서 속에만 묻고 사는 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우리의 이런 생활이 남북 냉전 체제를 만들어 냈고, 서해 교전을 초래했고, 통일을 미뤄 온 것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 순국선열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 어느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잡는 그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국민들의 한은 깨끗이 씻겨질 것이다.



백두산에 가요

-통일된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학남초 6 권정현

“아빠, 백두산엔 호랑이 살아?”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동물원을 다녀온 내 남동생 기수가 호랑이가 또 보고 싶은지 아버지께 물었다. 이 말에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국엔

“있을까? 없을까?”

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셨다. ‘곤란하셔서 그런가?’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기수는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아빠, 우리 일요일에 백두산 가자! 응?”

라고 아버지께 졸랐다. 또 곤란해지신 아버지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기수를 보며 차근차근 왜 백두산에 갈 수 없는지 설명하셨다. ‘기수가 사연이 많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역시 동생은 여전히 때쓰며 백두산에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설명하고, 타이르셔도 막무가내로 나가는 기수였다.

“백두산도 우리나라라며? 근데 왜 못 가?”

내가 듣기엔 충분한 설명인데 기수는 어리기도 하고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나에겐 통일을 하는데 찬성해야 할 이유가 또 생긴 것이다. 순진한 고집쟁이 내 막내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백두산에 호랑이가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도 통일을 하는데 찬성해야 할 이유라

면 이유다.

사실 기수 때문에 백두산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무 백두산에 가 보고 싶다. 중국을 통해서 가는 백두산이 아니라, 한반도를 가로질러 북한 사람들과 인사라도 나누며 가는 백두산여행이 더 멋질 것이다! 언제쯤이면 그렇게 백두산에 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봐도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아버지께서

“그래! 주말은 너무 빠르고 이번 여름방학 여행은 백두산으로 가자!”

라고 동생을 달래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수는 너무 너무 좋아서 디지몬 카드 대신 백두산 호랑이 사진을 모으고 다녔을 것이다. 언제쯤이면 그런 날이 올까? 통일이 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지금 북한에선 우리를 상대로 하는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준다고 와있다는 미군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작년에도 미군의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깔려서 사망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촛불시위도 했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깔라진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산가족이 만나서 흐느끼는 모습을 볼 때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난리를 칠 때도, 미군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은 날에도 깡마른 북한의 주민들이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도, 6월이 되어 민족의 아픈 과거를 돌아보는 날에도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하나 쌓여만 간다.

장사꾼들이 매달 만들어 놓은 무슨 무슨 데이가 아니라 민족이 함께 만든 ‘통일의 날’은 얼마나 값질까? ‘통일데이!’ 반세기 전의 갈라진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통일’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거치지 않아도 일본을 거치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는 한반도, 감히 백의민족의 털 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통일된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상원중 3 조경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그토록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류를 하고 싶어했던 까닭을. 왜 멍청하게 북한에 당하고만 있는지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고 '아...' 라는 작은 감탄사와 함께 그토록 북한과 교류를 하고 싶어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통일을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드라마에 나와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슬픈 영화나 감동적인 영화를 본 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그 어떤 눈물보다도 깊은 인상을 주었고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쏟아내는 할머니의 눈물, 그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흔적이며 그리움이었고, 아들에 대한 반가움이었으며, 또 다시 헤어지게 될 운명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어떻게 지냈냐며 보고 싶었다고, 잘 키우어서 고맙다고,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진실의 눈물은 진한 감동을 자아내는 끝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 계속 물어오는 할머니의 밝은 얼굴을. 어떤 말을 해야하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변했을까를 물어오는 할머니의 긴장된 얼굴과 떨리는 음성을. TV로 보았던 할머니의 그 밝은 미소는, 제가 보아왔던 그 누구의 미소보다 아름다웠고 진실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여러 대의 비스가 눈앞에 멈춰서고, 그토록 보고왔던 자

신들의 혈육이 눈앞에 보이는 꿈만 같았을 그 순간, 할 말을 잃은 채 주저앉아 평평 울어대던 그들의 그 안타까운 눈동자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통일을 원치 않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통일이 되어 무얼 하냐고, 더 불편하기만 할 뿐,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간절히 통일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아서 안 된다고, 천사 같은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의 눈물은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50년간 떨어져 살아온 탓에 많이 다른 우리의 언어와 생활 모습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들의 그 환희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 썩어야 아무렇지 않다고.

고향을 그리는 이들에게 고향을 내어주고, 못다 준 혈육간의 정을 나누고픈 이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고. 우리는 많이 행복했으니, 혈육생각에 행복하지 못했을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자고.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조차도 알지 못하다가, 오십이 다 된 나이에 자신의 어머니를 낫설게 쳐다보는 불쌍한 아들에서부터, 애타게 찾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식을 듣는 안쓰러운 형제, 갓난아기 때 떼어놓은 자신의 자식을 미안함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응시하는 눈물을 머금은 어머니, 다정했던 형제의 뜨거운 포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밥을 먹으면서도 '내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드실까' 하는 생각에 아픈 마음으로 숟가락을 놓았을 테고, 기뻐서 웃음을 짓다가도 '내 아들도 함께 기뻐했으면...' 하는 생각에 금방 눈물을 글썽였을 테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다가도 '형은 그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을 텐데...' 하며 이사를 포기했을 테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다가도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아 줄 텐데...' 하며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떨어진 채 50년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통일은 그 50년간의 사랑의 결실을 맺어줄 열매입니다. 그만큼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미안해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그들이 그리워하지도, 아파하지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남겨진 그리운 혈육이 없고 보고픈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조상을 가진 한 민족이고, 따라서 그들 또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행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보고픈 어머니를 만난 아들의 해맑은 미소와 고향을 찾으려 준비를 하는 이들의 그늘 없는 웃음도 보고 싶고, 그리운 아들을 만난 부모의 들뜬 함성을 듣고 싶고, 하나로 통일된 완전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고 싶습니다. 행복해 하는 그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이제 우리도 통일을 했다고 당당히 외국인들에게 외쳐보고 싶고, 이제 우리나라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없다고 당당해져 보고도 싶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세계적인 행사에 남한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된 나라에 소속된 우리의 선수들을 보고도 싶습니다.

처음 사귀게 될 북한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냐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이만큼 보고 싶었는데, 너희는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싶었냐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저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문화, 같은 삶을 살자고.

통일이 된다면, 더 많은 곳을 여행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며,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 질 것입니다. 갑작스레 통일을 한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도록, 서서히 가까워져 끝내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할 적에 '대한민국이 통일한 날'을 외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통일은 이산가족을 둔 그들만의 소원이 아닌, 우리의 소원이니까요.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끝내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의 답가가 꼭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에게 북한과 남한이라고 불리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향 잃은 풍향계

청구고 2 손성찬

매년 맞이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올해에는 1주년을 맞는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서 엄숙함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환호와 기쁨은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드컵에서의 열기는 동네 골목길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게임기를 가지고 놀던 동네 꼬마 아이들이 요즘 축구공을 가지고 여럿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면 월드컵 4강의 성과에 월드컵 8강에 진출한 북한의 저력을 더하여 최고의 축구 강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다가올 통일된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학교를 돌아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서로 다른 생김과 성격, 서로 다른 능력과 취미를 가진 선생님과 학생이 모여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작은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만남의 시작이며 나눔과 챙김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일된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폭 넓고 성숙된 인격체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께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가하셨다가 전사하

거나 다치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대가가 고작 몇 푼의 지원금이 전부라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현충일을 휴일로만 알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충일에 TV를 보니 고속도로가 놀러가는 사람들로 인해 많이 막힌다는 얘기를 듣고 무언가 우리가 방향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없었다면 그들도 자유로운 세상에 살지 못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아이를 미국에 가서 낳아오는 사람,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외국의 시민권을 받아오는 사람. 이렇다면 굳이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찌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사고, 사대주의적 사고……, 우리는 마치 방향을 잃은 풍향계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애국이고 호국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호국용사들에게 감사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이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과학이라든가 기술 분야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방향을 잃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자신이 사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뭔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장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지금의 나라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이 바라던 것이요,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현충일 하루만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국토를 하나로 합쳐야 하며 서로 단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이 나라의 방향일 것입니다. 풍향계의 방향은 그러해야만 합니다.



● 광주광역시

- 손잡는 남과 북 / 111
- '가족' 이란 이름, '겨레' 라는 이름 / 113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의 자세 / 115
- 백두산 간접 체험기 / 118
- 자주 통일 / 121
- 호랑이가 포효할 그 날을 위해 / 124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126
- 몸은 갈라져도 하나인 우리 / 128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130

손잡는 남과 북

일동초 6 조민재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오늘까지 왔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끊겼던 길들을 다시 잇고, 스포츠와 여러 문화를 나누며 진정한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9살 땐가 10살 땐가 어린 나를 울리는 일이 있었다. 우리의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했던 것을 녹화중계로 방송했는데, 그 때 맨 마지막에 가수들이 차를 타고 평양을 나오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별인사 하는 걸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인데 이념 차이 때문에 갈라져 으르렁 거러야 하나 생각하며…….

나는 7천만 온 국민이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면 첫째, 백두산과 금강산에 가고 싶다. 멋있고, 보면 감동의 물결이 흐른다는 오도근 선생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이다. 둘째, 원조 평양냉면을 맛보고 싶다. 평양 옥류관 냉면을 먹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조금이나마 북쪽의 학생들에게 돈을 대주고 싶다. 이유는 충분치 않겠지만, 우리는 한 민족, 한 겨레이니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넷째, 북한의 이름난 문화재를 찾아 여행하고 싶다.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멋있는 유물, 유적들을 하나하나 직접 내 눈으로 감상하고 싶어서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른 우리나라와는 상관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 때문에 땅이 나누어져 서로 미워한다는 것도 모르고, 96년에 잠수함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들어왔을 때, 난 '북한 나빠,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려고.' 라고 말했

었다.(내 육아일기에 써어있는 사실)

통일하면 세금이 올라가고, 우리만 골치 아프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나 말고도 온 겨레의 생각일 것이다. 물론 북쪽이 우리처럼 발달하고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엄청난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한반도가 21세기가 되도록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족이 두 동강난 가슴 아픈 상처의 땅으로 남아있게 놓아둘 수는 없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게 5년? 10년? 30년? 아무도 내다볼 수 없다. 통일이 되면 더 못 살까? 더 잘살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도랑의 살얼음판 건듯 조심조심 다가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몸을 말린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몇 년 전에, 광주비엔날레에서 북한의 미술작품을 한 번에 모아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림들을 유심히 보니까, 힘이 있고 소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50년 동안이나 분단되어 말이랑 음식만 다른 줄 알았더니 그림까지도 너무 다르다니.....

결론을 내자면, 통일은 해야 된다. 뭐 하러 해야 되냐를 떠나서 숙명처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언어, 음식, 그림, 그 외 여러 기타 등등의 차이를 이겨내고, 7천만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휴전선의 철조망이 뜯어지고, 비둘기들이 하늘을 날며 평화의 나날이 오는 그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가족’이란 이름, ‘겨레’라는 이름

주월중 3 조보미

낮은 목소리들이 조용히 오갔다. 때때로 그 소리는 높아졌다가도 이내 잠해졌다. 다시 높아진 소리에 내가 잠에서 깬 때에는 길푸른 새벽이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석에 누우신 터라 내 이름을 다정히 부르신 적도, 그 흔한 개나리꽃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조차도 없는 할아버지께서 타계하신 날이었다. 서운한 내 마음을 아셨는지 눈도 못 뜨시는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꼬옥 쥐신 채 임종을 맞으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날 새벽, 나를 깨운 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어른들의 -이기심- 소리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각의 이 소리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상엔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잠들기 위해 노력했다. 꿈속의 할아버지를 그리며…….

그 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도 큰댁에 가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사 때면 저녁 늦게 잠깐, 아주 잠깐만 들렀을 뿐 3~4일이나 되는 황금연휴동안 나는 온종일 TV앞을 지키거나 엄마, 아빠와 함께 외식을 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기도 했다. 교회에 다니는 나에게 제사상에 절을 해야하는 곤란한 상황도 없고, 하루 종일 음식 장만에 힘들이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식혜와 고기전이 그림고, 고모부의 녀살 좋은 웃음과 함께 기분 좋게 쥐어지는 배춧잎 한 장이 그림고, 사촌동생의 귀여운 재롱도, 큰엄마가 바리바리 싸주시는 김치도 자꾸만 그리웠다.

그렇게 시간은 그리움 속에 자꾸만 흐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새하얀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그 날도 우리 가족은 저녁 늦게서야 집을 나섰다. 큰집은 이미 할아버지 사진이 올려있는 상에 음식이 가득하고 향도 엄숙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상 앞에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았다. 1년에 딱 한번 있는 -친척 모두가 모이는- 소중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큰댁의 공기가 무겁고 탁하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 큰아빠께서 아빠에게 술잔을 기울이셨다.

“어이, 오랜만에 속마음 좀 털어 놓자고, 아버지 보는데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몇 년 동안이나 콕콕 막혔던 대화의 벽이 뚫리고 자꾸 얽히기만 했던 오해의 실타래도 풀렸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떠나 '가족'이라는 따스한 이 단어 하나로 말이다.

남한과 북한. 현재 유일한 분단국. 세계촌 이라는 말이 무의미하게도 한겨레가 끊어진 나라. 철저히 대립되는 경제, 사상도, 막대한 통일비용도 한겨레의 하나 됨을 향한 열망을 막진 못하리라.

이젠, 아빠에게 술잔을 먼저 내미시던 큰 아빠의 손처럼 따뜻하고 큰 배려와 애정이 필요하다. 속마음 좀 털어놓자던 대화의 자세가 필요하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한 포용력과 큰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되었는지, 누가 전쟁을 일으켰었는지 따위의 시시비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통일하고자 하는지, 누가 더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는 지이다. 빈번해지고 있는 남북의 대화와 여러 시책들로 서로의 마음을 녹이고, 녹이 순 칠조망 없이 다가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의 자세

고려고 3 이현명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독립의 날 이후, 좌우익의 대결 양상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전 민족적 요구가 크게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적 의지는 6·25동란을 겪으면서 좌절되었고 그 뒤로 분단 질서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희미해졌다.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 조국통일은 관념적인 이상에 불과한 미래의 꿈인 듯이 말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통일을 왜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통일회의론, 통일무용론까지 들먹이게 되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던 분단 1세대의 의지는 분단 2세대, 3세대에 이르러 이토록 희미해지고 만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차츰 희미해져 간다면 머지않아 통일은 민족의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더 이상 민족 감정에만 호소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구호처럼 외치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고찰해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다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의 허브지점이라는 점에서 세계 열강들의 많은 간섭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우리의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나라들도 있는 형편이다. 조국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치적 위상 또한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조국통일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긴장

을 완화시킴으로써 세계평화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통일 회의론자들은 통일의 가장 주요한 역기능을 남한에게 진가될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같은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경제적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단에 기인한 양국의 과도한 군사적 인력과 비용이 민족 경제발전애 이용되고 후생부문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할 경제적 이윤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남·북 몇 백만의 인적자원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나 산업인력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외국 자본이나 기술의 유치인환,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자원을 이용한 제품 가격의 경쟁력 확보,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물류적 비용 감소 등은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를 안겨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할 이유가 민족적 감정의 호소에 의해서건 또는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실리 때문이건 간에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함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국 통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조국의 분단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국분단은 미·소의 분할 점령과 우리의 자주적 독립 역량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외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은 냉진체제에서 벗어나서 상호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들이 많으므로 그들이 어떤 면에선 통일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여

통일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폐쇄된 북한 체제를 국제 사회로 이 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 소련을 비롯한 중국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이념의 한계를 자각하고 서서히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직까지도 폐쇄적인 체제 수호를 고집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크게 뒤처져 있다. 우리는 북한이 점진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평화 우호적인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이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는 인고의 작업이다. 바람직한 통일과정은 통일 후의 민족의 청사진을 상정하고 그에 맞추어 남·북이 함께 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21세기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북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통일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선 ‘시너지적 상승을 의미하는 결합’으로서 우리 민족을 21세기 세계 중심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다.



백두산 간접 체험기

살레시오초 6 이시영

작년 여름에 어머니께서는 백두산을 다녀오셨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다. 중국 연길의 연변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어 토론자로 참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속마음은 그 학회의 참석보다는, 이후의 백두산 방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중국 여행을 기쁜 마음과 설레이는 기대로, 어린 동생과 나의 어머니 중국여행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수님들과의 동참길에 오르신 것이라 하셨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백두산 직접 방문 체험기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우리의 강산 백두산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소개 해 보겠다.

지리적인 위치로 보게 되면 백두산은 광주에서 위로 거슬러 서울을 거쳐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비록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름을 나뉘어져 있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광주에서 서울을 거쳐 똑바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 땅을 밟고 그래서 백두산을 직행할 수 있어야함이 지극히 마땅한 생각이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오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오가야 하는 것이며 빙 둘러서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낭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다시 머릿속에 그려지는 백두산의 그림을 들어가 보면, 나의 어머니가 연변에서 8시간의 버스를 타고 백두산을 방문하셨던 날은 기가 막힌 그 정경을 두루 다 볼 수 있게 날씨가 맑고 화창했다고 한다. 안내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멋진 날씨는 한 달에 기껏 사나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백두산 관

광객들이 백두산의 최고로 멋진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일행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정상의 날씨가 좋은 거라는 농담을 했다고 할 정도로 날씨의 변덕이 심하다고 했다. 그 만큼 탁 트인 환한 백두산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얘기다. 설사 그런 행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단 5분, 10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백두산 정상의 날씨가 불과 몇분 차이로 시시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5분전에 장렬한 태양 빛의 여름 날씨가 5분 후에 갑자기 물려든 컴컴한 구름들과 함께 급방 겨울로 바뀌어지면서 그 위대한 장관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의 어머니는 파랗다 못해 시커먼 백두산 천지도 육십껏 보고 느낄 수도 있었고 천지의 물도 손으로 느껴보기까지도 하셨다고 했다. 한 가지 더 더욱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곤충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어머니 목덜미를 물어서 너무나도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다. 이름도 모르는 그 벌레에 물려서 큰 병 얻게 될까봐 엄청 걱정했었다고 하시면서 북한 벌레도 미인은 알아보는 모양이야 하는 농담을 하셔서 실컷 웃기도 하였다.

날씨가 화창하여 방문객의 구경이 한창이게 되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 기념품을 팔려는 상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그 기념품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중국산 부채와 열쇠고리, 백두산의 그림이 그려진 수건들이라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상인이었다면 아주 호뭇한 기분으로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신다.

또 백두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면 북한의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도 눈에 띄어서 망원경으로 열심히 그들의 모습을 쫓아보면서 뭘지 모를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고 하신다. 나의 조국, 같은 핏줄의 나의 국민일텐데 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가득 느꼈다고 하셨다. 그 말 씬을 들었을 때에 나도 같이 감격과 감동, 그 뿐만 아닌 억울함, 안타까움, 분

노들의 이지러운 감정들이 다 함께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랬다. 아니, 감동스러운 마음보다는 분노와 억울함과 같은 좋지 않은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분단조국이란 말인가? 내 민족, 내 핏줄이 서로 다정하게 손잡고 흐뭇한 웃음을 지을 수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펐다. 맞다. 바로 그러한 감정들이 어머니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눈물로써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인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였다.

어머니, 이 다음에 백두산 방문은 저도 꼭 데리고 가 주세요. 따갑고 가려웠다고 하셨지만 그 곤충에게 한번 물려보고도 싶고, 이름 모를 들꽃들도 따 보고도 싶고, 파랑다 못해 까매 보였다는 친지도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고, 더 더욱 보고 싶은 것은 나와 한 핏줄인 북한 농민들의 모습이랍니다.

어머니, 우리 이 다음에 가게 된다면, 아니 갈 때에는 꼭 빙 둘러 남의 나라 통하지 않고 토끼의 꼬리에서 출발하여 전주를, 청주를, 천안삼거리를, 그리고 서울을 지나 똑바르게 직진하여 토끼머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날은 꼭 올 거라 믿어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분명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주 통일

문흥중 3 김민지

햇볕 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당시에 지향했던 정책이다. 이 정책은 말 그대로 남한이 북한 쪽에 햇볕을 비추며,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거의 조건 없이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는 구호물자 등을 많이 보내고, 여러모로 많이 도우며,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으로 바뀐 뒤, 북한의 핵 문제가 터지고, 현 정부가 대북 송금 문제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사이가 예전보다 악화되었다. 대북 송금 문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북한 측에서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꼭 조사해야만 하느냐는 게 북한 측의 의견이다. 내 생각도 그렇다 먼 훗날 들어갈 통일 비용을 미리 쓴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텐데 꼭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너무 문제를 삼는 것 같다. 물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북한을 지원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이 한 민족을 도왔던 것인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 한 형제를 도와주고 싶어서 다른 형제들 몰래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그것을 문제 삼으면 되겠는가?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핵문제이다. 그 동안 중단했던 핵개발을 북한이 계속한다고 하자 제일 먼저 미국이 반발했다. 미국과 UN 무기시찰단까지 무시하며 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나의 입장에서 분노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미국이 당사자인 우리나라를 빼고 미국, 북한, 중국 삼자회담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잘 못된 것 같다. 이것은 강대국의

횡포다. 오히려 외세가 빠지고 북한과 남한이 머리를 맞대고 풀이 나가야 할 속제가 아닌가 싶다.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이라 부르는 것조차 우습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이렇게 한결음씩 멀어져만 가는 게 안타깝고 두렵다. 서로 뭉쳐서 통일에 관해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처럼 서로에게 불만투성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이어지고 있는 철도,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북 철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완성이 된다면 우리는 남·북한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고 교류가 잦아질 것이다. 게다가 이산가족들이 계속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이 활발해지고 있지 않은가.

처음 이산가족을 상봉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았는가?

처음 금강산 관광선에 발을 내 던던 그들의 표정을 보았는가?

같은 민족끼리, 아니 가족끼리 50년 만에 만나서 울고, 같은 나라의 산에 가면서 눈시울 붉히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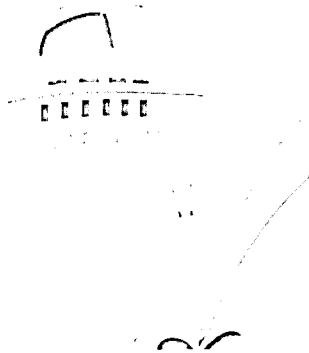
나는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사진 한 장이 있다. 바로 독일인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진이다.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하루빨리 그런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지만 무조건 통일을 빨리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통일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미국, 일본 등 외국세력이 우리나라에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옛날 신라시대 때,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리고 통일을 했다. 그러나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 적이 되어 싸웠다. 이처럼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결국 그 나라와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항상 국사에서 삼국통일에 관하여 배울 때면, 의의는 삼국통일에 있지만 결합은 외세의 힘 즉 당나라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듯 아무리 훌륭한 통일이라 하더라도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되면 후세에 계속 걸함을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세가 개입이 된다면, 그 외세의 이익이 반영된 통일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최

대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력을 길러야하고, 국력을 기르려면 자신의 위치에
서 최선을 다하는 일 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통일에 관해 공부하고 힘쓰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
며,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최선을 다
한다면 스스로 국력은 길러질 것이고, 자주적인 통일도 가까워 질 것이다.

역시 귀결은 ‘국력은 힘이다.’



호랑이가 포효할 그 날을 위해

석산고 2 김광균

우리는 김구 선생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점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산가족 상봉을 기억하고 계실 것 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계속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산가족 상봉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 이산가족 상봉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50년만의 만남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통일이 꼭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하는 아는 형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북핵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저는 형에게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대답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나 같으면 싸우겠다고, 그리고 북한과 통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기에….

그랬던 제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사실에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엄청난 군사 자금과 긴장한 청년들의 노동력을 다른 데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굉장히

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은 엄청난 군사력 증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끊어졌던 철도 연결,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정상 회담 등이 근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포효하는 한 마리 호랑이가 세상을 향해 미소지을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문정초 5 성다운

4교시 음악시간이었다. 오늘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배울 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여러분, 누구나 한번쯤은 이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들어봤는지 말해 볼 사람?"

여기저기에서 손들이 올라갔다. 아이들의 대답은 이런 것들이었다.

"텔레비전에서요."

"테이프에서요."

등 대답은 각양각색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는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곡되었다고 설명해주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머리에서는 갑자기 의문이 떠올랐다. 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 통일을 이렇게도 간절히 염원해야 할까? 생각하는 사이에 음악시간이 흘러갔다. 노래소리가 커질수록 내 의문도 같이 부풀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인터넷으로 6·25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김일성 수령이 침범해왔다고 한다. 김일성 수령이 먼저 침범하여 일으킨 전쟁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휴전에 접어들어 갈 수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는 6·25, 그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해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과궁, 쿵! 땅, 땅!" 전쟁터에서 울려퍼지던 커다란 대포소리와 총소리. 여기 저기에 쓰러져 있는 전사자와 부상병들이 눈에 선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

적했다. 이렇게 끈직한 전쟁을 어른들은 왜 선호했을까? 왜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대신 피비린내가 풍기는 전쟁터를 대신 선택했을까? 아마도 욕심 때문이었을 것 같다. 자기가 제일 높아지겠다는 욕심, 자기주장이 최고로 옳아 질 수 있는 권력욕심 때문에.

얼마 전 MBC '책, 책, 책을 읽읍시다.'의 선정도서인 '달님은 알지요'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그 책의 주인공의 할머니는 무당이다. 그 할머니께서 원래 무당이셨던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 시집을 오셨다. 그런데 갑자기 6·25가 일어나 전쟁 중 난리 통에 남편을 잃어버려 헤어지게 되고 북한에 있다가 남편인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탈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할아버지가 목으셨던 여관주인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갔다는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된 할머니는 눈 덮인 산속에 쓰러졌는데 무당에게 발견되어 그 무당의 신딸이 되었고, 그 무당이 죽자 뒤를 이어 무당이 되었다. 도시로 돈 벌러 가겠다는 아들이 장난감 회사의 사장이 되어 나타나자 할머니는 아들과 손녀와 함께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북한에 있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할아버지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산가족들을 위해 굶을 하셨다.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굶을..., 평생에 마지막을 하는 굶이었다.

솔직히 나는 6·25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단순히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 얻은 지식뿐이다. 하지만 그런 지식조차도 전쟁의 참혹함이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웬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자라 오면서 우리 집안에, 우리 친척 중에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즉 이산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 글짓기가, 그리고 6·25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벌써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 동안의 기나긴 분단을 우리는 지내왔다. 우리의 호랑이 한반도는 지금도 배를 감싸 쥐고 아파하고 있다. 자, 우리 모두 마음껏 소리쳐 불러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몸은 갈라져도 하나인 우리

양산중 1 류민지

내일은 6·15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딱 3년이 되는 날이다. 남한의 정상인 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정상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와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역사적인 날이다. 이 6·15남북정상회담은 그 당시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 같다.

6·15남북정상회담 후에 우리는 많은 교류가 오고 갔다. 이 교류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6차례씩이나 있었고, 금강산관광이 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너무나 작다. 또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떠한 사건들 때문에 도중에 멈춰버린 아쉬운 일들이 많다.

왜 어째서 한겨레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면 더 나아가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북한이 너무 못 살아서 우리와 한 나라가 되면 우리도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만 버리고 같이 통일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은 더 통일을 이루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통일은 서로의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만이 통일의 한줄기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한 나라의 정상이 두 명이라는 것, 국명이 두개, 국기도 두개, 2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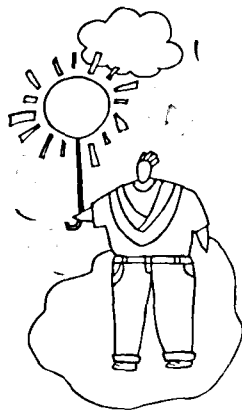
여러 가지 것들... 왜 이런 것들은 잘 타협되지 못한 걸까? 모두들 자기들것만 중요시 하는 걸까?

아니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보면 문득 이산가족이 떠오르기도 한다. 남북한이 갈라질 때부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들과 헤어져버린 사람들...

나는 나의 가족들과 1년만 떨어져 있어도 괴롭고 가족들의 얼굴이 그리울 것 같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산가족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다. 그리고 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 같다.

만일 내가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더 공통점을 만들어 대화와 타협으로 빨리 통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통일을 빨리 추진 못 할 수도 있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 갈라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루어진 일 문제 발생없이 통일을 빨리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서석고 2 박인호

남과 북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과 이산가족의 상봉, 이탈리아와 한국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새삼 느끼며, 통일의 날을 꿈꾸게 된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서해교전과 같은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이 민족 화합에 우려를 낳기도 한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장 가슴에 상처를 입은 이들은 아마도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잃은 이산가족들일 것이다. 임진강의 건너편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통일의 염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된다.

세계의 평화는 온 인류의 바람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보다 훨씬 강력하고 거대한 무기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남북 분단은 이러한 전쟁의 위험성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거쳐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해 왔고,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반세기 남짓한 분단의 역사는 우리의 민족 화합의 실패와 외부 강요로 인한 부끄러운 역사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다양한 방면에서 수많은 모순과 갈등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런 모순들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가며 민족공동체 형성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발전과

변영을 위해서 과도한 분단 비용을 생산과 복지를 증대하는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분단이 계속된다면 경쟁력이 약화되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분단이 주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통일의 어려움과 잘못된 통일 정책이 가져오는 악영향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통일을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또, 민족의 발전과 변영을 기약하는 방법이어야만 한다.

또 통일의 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태로는 통일은 매우 어렵다. 민족의 발전을 위해 또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야겠다.

많은 자금과 평화적인 통일 방법으로 민족 통일이 된다고 해도 반세기 남짓한 분단으로 인한 언어, 문화적 이질감은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우리말의 '괜찮습니다.'의 뜻을 가진 '일 없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매우기분이 상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하여 정책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6·25전쟁의 비극과 민족 분단의 아픔을 몸소 느끼지 못한 젊은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며, 통일은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은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통일이 자신과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그 날을 위하여...

● 대전광역시

- 할아버지의 고향 / 135
- '통일'의 목걸이 만들기 / 138
-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 141
- 통일 기념박물관을 찾아서 / 144
- 할아버지의 무덤 / 147
- 하나를 위하여 / 151
- 할머니의 안경 / 154
- 통일의 전제조건 / 157
- 국제정세와 남북통일 / 160

할아버지의 고향

대덕초 5 김주희

“음……,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저녁을 물리고 신문을 보시던 엄마의 말씀에 난 무엇을 보고 그러시나 어께 너머로 넘겨다 보았다. 신문에는 남북 사이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된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뭘가요. 엄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요?”

“엄마가 너만하던 때에, 엄마는 북한사람들이 뿔 달린 마귀같이 생긴 줄 알았던 적도 있었단다.”

남북이 완전히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던 때이고, 반공이 국가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이던 때이니,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때라고 하셨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때를 생각해보면 엄마 말씀대로 정말 지금은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라는 사실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얼마 전에 나는 통일 전망대를 다녀왔다. 내가 사는 동안, 통일하기 전까지는 못 볼 것만 같은 북한의 땅을 볼 수 있었다. 북한 땅을 보았을 때, 나는 너무 들뜨는 기분이었고, 지금 당장 북한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가로막힌 철조망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보기에는 몇 줄의 낡은 철사 줄일 뿐이지만,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높고 안타까운 벽이었다.

북한의 개성을 봤는데, 안개가 껴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파트들이 보였다. 나는 개성을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우리 친할아버지의 고향

은 개성이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중학생이실 때, 부모님, 두 누님과 함께 다섯 가족이 월남하셨다. 지금도 할아버지 사촌께서는 개성에 살고 계실거라고 믿으신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해주신다.

“송도 중학을 지나고, 이수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면, 바로 첫 번째 집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집이란다.”

60년 전 일을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몇 년 전에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나는 3년 전에 살았던 우리 동네 길 이름 하나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데 참 신기하였다.

“할아버지, 60년이 넘은 옛날인데,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내 고향인데.”

“하지만, 60년이나 지났는데 개성이 아직도 60년 전 그대로일까요?”

“나는 그대로일 거라고 믿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개성이 바뀐 것과 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고향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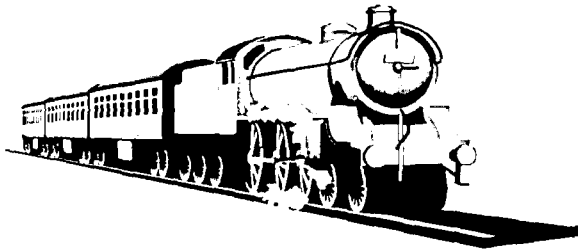
“고향이 그렇게 그리우시면 금강산 관광이라도 가보세요.”

“고향도 아닌데 거기는 뭘…….”

말끝을 흐리시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눈앞에 아직도 선하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해서 통일하는 그날이 오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함흥냉면, 평양만두, 아바이 순대를 대접해 드릴 수 있을텐데……. 아마도 할아버지께서는 나보다 100배 더 좋아하실 것이다. 행복해 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본다.

지금 할아버지 사시는 곳에서 개성까지는 승용차로 한 시간도 채 안 걸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밖에 안 걸리는 고속철도까지 만들고 있는 지금, 왜 그 가까운 거리를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경의선 철도가 연결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나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하루빨리 대화가 진행되고,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에 할아버지 고향에 꼭 함께 가고 싶다. 설사, 할아버지와 함께 갈 수 없다 해도, 내가 사는 동안 통일이 되어서 할아버지 고향에 꼭 가보고 싶다.



‘통일’의 목걸이 만들기

대덕중 2 김철본

얼마전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통일을 주제로 한 포스터 작품들을 보여 주신 적이 있다. 포스터 하나하나가 저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히 내 시선을 끄는 작품이 있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과 함께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였는데, 그 두 개의 구슬을 미처 꿰지 못한 흰 실이 구슬 사이를 비껴 지나가고 있었다. 아마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 마크에서 따 왔을 것이고, 빨간 구슬은 북한을, 파란 구슬은 남한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이다. 또, ‘구슬’을 꿰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비유적으로 돌려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관해 생각해 보고 소망도 펼쳐 보았지만, 그 포스터를 보고 나서 나는 통일에 관련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통일은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와도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해 값진 보배를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50여 년 전, 대한 독립이라는 기쁨과 함께 그림자처럼 한반도에 따라 들어온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또 한번의 쓰라린 아픔을 안겨다 주었다. 지금까지도 한 민족을 둘로 나누고 있는 휴전선은 한반도의 허리만 잘라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정작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갈라놓은 것은 휴전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벽’인 것 같다.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거의 교

류도 없다시피 지내오면서, 또 6·25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지고 그 빈자리를 불신과 경계심이 채워가고 있는 듯하다. 먼 옛날부터 쪽 하나로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동질감도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의 길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3년 전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반갑게 악수를 나누던 모습, 작년 가을의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에서 응원단이 내려와 우리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해주었던 일 등, 남북간의 다양한 행사들은 평화 통일을 향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얼어 붙어 있던 50여 년의 세월을 재회의 눈물로 녹아내리게 한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그렇지만 근래의 그 짧은 기간의 움직임만으로 치유하기에는 한반도와 우리민족을 갈라놓는 골이 아직은 너무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아직까지도 허물어지지 않은 마음의 벽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미술 시간에 본 내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준 통일 포스터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그 작품에서 구슬과 구슬을 췌 수 있는 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포스터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서로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50년이란 긴 세월동안 국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마음도 긴 벽으로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담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담 너머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얼마간의 노력으로 그 벽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통일의 문'을 열고자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달리 보면, 포스터에 표현된 실은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열린 교류'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농구팀과

예술 공연팀이 오가고, 금강산 관광도 가능해지면서 이미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실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통일의 문을 열어주기에는 아직 너무 짧고 가늘다는 생각이 든다. 진화나 편지, 인터넷 등을 통해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자유롭고 폭 넓은 교류를 할 수 있다면, 한반도를 연결하는 실을 더 굵고 튼튼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열린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린 교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열린 교류'를 위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교류 방식을 좀 더 개선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남북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등 그동안 있었던 남북간의 접촉은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었으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 교류였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라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을 이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인만큼, 이제 어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학생들과 국제 교류 체험학습을 하는 것처럼,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만남의 기회'는 꿈을 키워 가는 학생들이 마음의 벽을 넘어 서로 간의 유대감도 돈독히 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 장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성취해야 할 일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통일'이라는 목걸이를 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반도를 드리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우리 역사에 슬픔과 아픔을 심어 준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남북의 구슬을 꿰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국토도 하나가 될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우리의 땅과 마음에 그려진 휴전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우리 민족이 '통일'의 목걸이를 완성하는 그 날이 곧 찾아오기를 고대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대전여고 1 정미라

안녕? 오랜만이야. 항상 이맘때쯤 너에게 편지를 띄우니깐 한 1년만인가? 오늘도 우체통엔 네 편지는 보이지 않더구나. 헛된 바람인 줄 알면서 늘 우체통 앞을 서성거리는 나. 이제 때면 오지 않는 너의 편지에 지쳐 버린 건지, 아니면 통일은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허우적대는 철없는 바보가 되어버린 건지,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좀처럼 바로 서질 않아.

통일! 난 솔직히 지금까지 통일을 반대했었어. 통일이 되면 우선 남·북한의 사상 대립의 난관에 부딪히게 될 거야.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인 심한 경제차이가 일어나겠지. 또 하나의 큰 문제는 53년 동안 38선을 경계로 각기 다르게 변해버린 남·북한의 풍습과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이런 것들이 내가 통일에 대해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지뢰들이었어.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

작년인가? 우리 가족은 '이산가족상봉' 장소에 가게 되었어. 아빠께서는 텔레비전이 아닌 이곳에서 직접 사람들의 탄성·환호·눈물·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뭔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이곳을 여행 장소로 꼽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쨍쨍 햇볕이 내리쬐고 날씨는 무더운데, 바닷가에 가지 않고 왜 이곳에 왔는지 처음에는 무척 실망을 했었어. 하지만 잠시 후 사람들의 뜨거운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난 그만 녀을 잃고 말았어. 53년만의 한 맺힌 설움을 푸는 이산가족의 모습이란…….

사람들은 가족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제자리에 주저앉거나 쓰러져 버렸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의 얼굴을 오직 가슴깊이 남겨져 있던 사진 한 장으로만 닮고 닮도록 익혀둔, 그 그리운 얼굴을 오랜 시간동안 보지 못함으로 인해 한 순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한탄에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나 봐. 그래, 이게 바로 우리민족의 참담한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싹뚝 잘라 버려야 할 남·북의 경계선.

이 작업을 너와 내가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 '그 동안 나의 사고는 한 순간의 이익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 키워낸 잘못된 열매의 결과이구나! 그래,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해. 어려운 정치적인 통일용어를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산가족이라는 단어만큼은 확실히 인식하고 남과 북의 장벽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고...

반갑게도 요즘 통일로 가는 길이 하나 둘 열리는 것 같아 참으로 기뻐. 남북 정상회담, 대북 경수로 이행, 금강산 관광산업, 남·북한 철도 건설 등.....

이건 결국 너와 나의 만남 또한 멀지 않았음을 뜻하겠지?

갑자기 이산가족상봉 장소에서 모자간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이젠 나이가 지긋해서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한 아저씨를 어린 아이인양 가슴에 꼭 안고 말씀하시던 내용이 생각이 나.

"한 울타리에서 너와 함께 하늘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를 향한 애미의 마음을 강이 알고, 바람이 알텐데, 어찌하여 세상은 야속하게 널 내 품에 안겨주지 않는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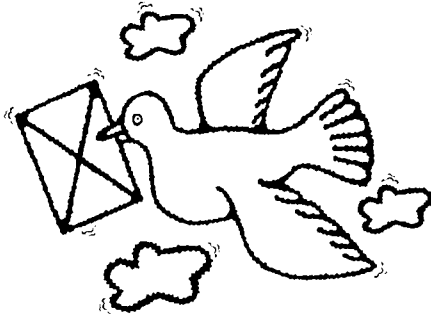
아픈 가슴을 참아내며, 애써 흐르는 눈물을 삼키시던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는 남과 북한이 서로 각자의 평행선으로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이 넓고 넓은 하늘아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우물 안 개구리가 다 보는 하늘보다 반이나 작은 거야. 그 작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울고 웃지. 너와 내가 지금 보는 반절의 하늘을 당장은 이룰 수 없겠지만, 영영 끊어진 하늘은 아니기에 다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

저 보자꾸나.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내 콧가를 스친다. 이 바람은 북에서 불어오는 걸
까? 우리 서로 조금씩 끈을 당기자. 조금씩 당기다보면 그 끈에 서로 모인 가
족의 모습도 보이고, 갈리지 않은 한반도도 보일 거고, 무엇보다 넓은 우리들
의 하늘이 담겨있겠지?

그럼, 친구야.

편지가 아닌 서로 손을 맞잡고 대화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렴. 안녕.



통일 기념 박물관을 찾아서

성룡초 5 조준호

“준호야? 준비 다 됐니? 가차 시간 늦겠다.”

“응, 누나! 내 모자 좀 끼네 줘.”

나는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배낭을 메고 나섰다.

오늘은 6월 25일!

우리나라 통일 경축일인 ‘통일절’을 맞아 우리 가족은 개성에 있는 ‘통일 기념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다.

더구나, 올해 3월부터 ‘대덕 연구 단지’에서 황해도에 있는 ‘전자 통신 연구소’로 직장을 옮겨가신 작은 아버지 덕에도 들르기로 해서 사촌 형과 동생을 만날 생각에 더욱 신이 났다.

“아빠, 저기 기차 들어와요.”

“그래, 어서 타자.”

‘통일 기념박물관’이 개성에 세워지게 된 동기는 어렵게 통일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먼 옛날 삼국을 통일했던 고려의 후손답게 민족의 정기가 세계 속을 짙짙 뻗어 나가라는 뜻으로 옛 고려의 도읍지에 세웠다고 한다.

“야, 정말 꿈만 같구나! 이렇게 통일이 되어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니, 아직도 실감이 잘 안나.”

아버지께서 감격에 겨운 듯이 말씀하셨다.

“아빠, 북한이라는 말이 이상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진은 남한인가요?”

“대한민국을 북한, 남한 구별해서 부르는 게 어색한가 보구나.”

“준호가 태어나기 전, 통일 이전에는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휴전선 부근과 그 이북 지방은 꼭 다른 나라 같았다. 가족끼리 서로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할 수 없었고,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생겨서 서로 상대방을 감시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경계를 하고 있었지. 지난 주말에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옛날 영화 봤지? 그 영화가 바로 통일되기 전의 우리나라 실정을 짐작하게 한다.”

나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며 꼭 영화나 책 속의 이야기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기차는 어느새 개성역에 도착했다.

역에는 작은 아버지와 사촌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남호 형?”

“응, 준호야, 잘 있었니?”

우리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사촌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 기념박물관’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개성은 유명한 관광도시답게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와집들이 많았다. 꼭 고려시대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통일 기념박물관’을 견학하며 옛날 우리나라 통일 전의 여러 모습들을 더욱 생생하게 직접 볼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6·25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50년 만에 노인이 되어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우는 대형 사진이었다.

‘정말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었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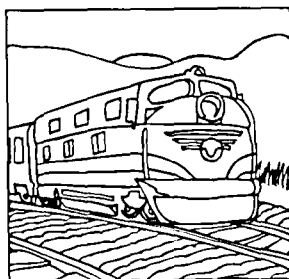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 그나마 소식이 끊겨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살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나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그분들이 하늘나라에서라도 가족들을 꼭 만나서 행복하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우리는 작은 아버지께서 사주시는 황해도 지방의 벌미로 점심을 먹고 작은 집에 잠깐 들렀다.

“형, 개성 초등학교는 어때?”

“응, 좋아 처음에는 사투리가 많아서 좀 이상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
“우리 반에도 평양에서 전학 온 친구가 2명이나 있어. 아주 친해.”
“준호야, 방학 때 또 놀러와. 그래서 우리 금강산도 가보고 평양에도 가서 유명한 감자 국수도 먹어보자.”
“진짜? 와! 신난다!”

“준호야, 저녁 먹어라. 피곤하니? 왜 잠이야.”
“어, 여기 개성……!”
“엄마! 우리도 개성, 평양, 금강산 마음대로 가게 될 날이 오겠지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다 나를 끌어 안아주시면서,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소망하는 일은 꼭 이루어지는 법이란다.”
오늘도 엄마의 품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마치 내가 꿈속에서 가족들과 개성 체험학습을 갈 때처럼.



할아버지의 무덤

신일여중 2 최은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뚜뚜뚜뚜…….”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뚜뚜뚜뚜…….”

아마도 작년 여름방학 때 쯤이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모임에 가시고 안 계셨었는데,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소리에 난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하게도 받기만 하면 뚝 끊기는 전화, 난 불길하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기 이전에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밤중에 나의 단잠을 깨우는 것이냐’는 생각이 문득 들어, 어디 한번만 더 해 보라지 하며 심오하게 굳은 마음을 다지고 있을 때, 어김없이 다시 울리는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집어 들었다.

“도대체 누군데 장난전화야!”

“……, 은선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그럼 좀 전에도 할아버지가 전화한 거였어요?”

“으응, 고맙다. 은선아. 네가 너무 고마워, 고마워…….”

계속 흐느끼듯 ‘고맙다’는 말만 연발하시는 할아버지 이유를 되물어도 할아버지는 계속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 하실 뿐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불미스런 예감에 휩싸여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음날 바로 시골로 내려갔다. 밝은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 의해서 나는 '아무 일도 없구나' 하고 내리짐작하고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할머니는 손으로 어느 곳을 가리키셨다.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서 눈을 옮겨 보니 비닐하우스 안에 앉아계신 축 처진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

나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다. 내가 할아버지를 향해 가려하자, 할머니는 나를 붙잡으시고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시곤 말씀하셨다.

"네 할아버지, 어제부터 이상하더라. 기분이 영 아닌가봐. 불려도 대답 없고, 꼭 시체같다니깐. 무슨 일 있나……."

순간 어제밤 일이 생각났다. 깊은 밤중에 걸려 온 전화에서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던 할아버지, 침체된 우울했던 할아버지의 음성……. 흠어졌던 피클이 점점 짜 맞춰지는 듯한 예감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 비닐하우스 안의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는 '왔어?' 라는 말을 대신하는 슬픔이 묻어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그 후 할아버지와 나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잠시 뒤 난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깐 그 생각난다. 기억나요? 작년에, 내가 노란 풍선편지 띄웠던 거."

"그랬지. 고마워, 고마워……."

"아휴~ 또 고마워?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지요?"

아무말 없이 한숨만 내쉬는 할아버지. 무언가를 말할 듯 말 듯 요동하는 할아버지의 입을 보고선 난 궁금한 마음을 잠시 억누르고 할아버지가 말을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로 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어색하게 침묵만 유지했던 시간을 깨고 할아버지가 나지막히 말문을 여셨다.

"전화가 왔어.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전화했던 그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 당신의 부친이신 최희도남께서 '1992년 4월 사망' 확인 됐다고……. 당신 아들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당신의 생사를 판단하는 가없는 모습을 보기는

싫으셨던 모양이지. 오히려 이제는 마음 편해졌어. 한결 나아. 그나저나 고맙다. 은선아. 할아버지는 네 덕이라 생각하마.”

할아버지는 가눌 수 없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 때문에 가족과 아픈 이별을 해야 했다. 그 때문에 늘 힘들어하시고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작년 이맘 때, 북으로 풍선편지를 띄웠었다. 노오란 풍선 안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붙이고 연락처를 적은 종이들을 꾸역꾸역 넣어서, 더불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소망들도 함께 넣어서 말이다. 그 풍선편지가 북으로 잘 도착한 것일까? 그 후로 1년이 지난 후 거짓말 같이 소식이 왔다. 할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바라던 꿈같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내게 고맙다고 하셨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짐차 하나 둘 씩 이해가 되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말이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여차피 다한 목숨, 단 한 가지 욕심내 바라옵건대 하늘에 묻혀지고 싶구나. 내 무덤이 하늘이라면, 그렇게 당신 평생 소원대로 분단 없는 현실아래 함께 잠들 수 있잖니. 할아버지는 하늘에 잠들고 싶구나. 단 한번만이라도, 한 순간만이라도 조국의 현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뭐가 어려워요. 우리 할아버지 소원인데 안 되도 되게 해야죠.”

“나 참, 그래. 그럼 은선이가 할아버지를 하늘에 물어주렴?”

나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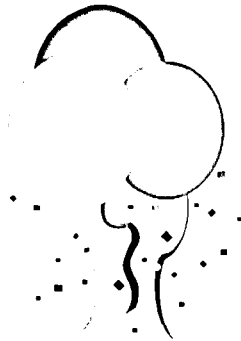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온통 새까맣죠? 자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빛바래진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한 옛 시간들, 비록 짧았지만 소중한 추억들……. 마치 파노라마처럼 쭈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곤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손 맞잡고 눈감아 보세요. 그러면 두 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과 함께 잠들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증조할아버지가 그리우실 땐 하늘을 보세

요. 푸르른 하늘만큼은 분단의 현실을 벗어나 할아버지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에 충분할거예요.”

“고맙구나, 고마워…….”

난 할아버지를 향해 씩웃 웃어보였다. 내가 만들어 준 하늘의 무덤. 아니, 무덤이라 하기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잠든 그 곳이 할아버지는 마음에 드시는지 작은 이슬방울로 보답해 주셨다. 하늘을 바라본다. 오늘따라 밤하늘이 왜 이리 맑은지, 유난히 초롱초롱한 별들도 보인다. 모두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만남을 도와주듯이 밝은 빛을 내고 있다. 하나이면서 하나이지 않았던, 둘이 아님에도 둘이어야 했던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 또한 밝게 비춰주고 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제 같은 하늘아래 행복하세요.



하나를 위하여

둔원고 1 김윤희

몇년전, 일요일 저녁 시간이었다. 가족이 모두 모여 밥을 먹다가 한 탈북자 아저씨의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다.

아저씨는 18평의 작은 영세민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다. 방 안에 썰렁하게 놓여있는 TV와 냉장고에서 아저씨가 느꼈을 외로움과 허전함이 가득 묻어나오는 것 같았다.

“지내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30년 평생, 제일 호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며 가구 모두 남한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한 달에 75만원 정도 보조금도 나오고요. 북한에서 이 정도 살면 엄청난 부자랍니다.”

아저씨의 소박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아저씨는 이 질문에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었어요. 하루에 세끼를 다 챙겨먹는 날이 손꼽을 정도였으니깐요. 남한에 처음 와서 매일 쌀밥에 고기를 먹는 이 곳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에게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이 하루 식사가 되어 버렸고 어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하루 24시간 모자라도록 일을 하며 살아간답니다.”

나는 잠시 수지를 내려놓았다.

“한국에 오셔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아저씨는 이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하셨다.

“한국인과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아직도 적응하기가 힘들답니다. 신문을 봐도 한자어가 대부분이어서 몇 번 씩 다시 읽어봐야 겨우 뜻만 대충 파악이 되고, 가끔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이 낯설고 어색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 온 뒤 살이 8kg이나 빠졌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비싸 뭘 사먹는다는 것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가끔 촬영할 때에는 NG나 큐 사인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의식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 여기 저기 이력서를 내봤지만 다시 연락이 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인적 사항이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젠 자장면 배달시키는 일조차 꺼려질 만큼 한국인과의 대화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탈북자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아저씨는 시간 날 때마다 한국어 연습을 하셨다. 제일 처음 공부했다는 애국가를 천천히 외워보는 아저씨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입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 북한은 점점 남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에 쌀을 얼마만큼 보내고, 소를 몇 백 마리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북측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종 언론에서 북한의 어둡고 처참한 현실을 자꾸 부각시키니 우리도 모르게 동정심이 발동해 후진국 식량 돕기 하듯 북한을 도와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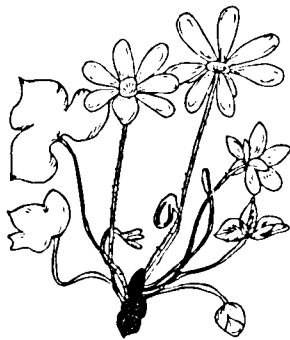
촬영이 끝나고 작별의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저씨는 금세 스탭들과 친해져 헤어지기 아쉬워하셨다. 식사하고 가시라며 스탭의 옷깃을 잡는 아저씨의 모습에서 정 많은 한국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음을 느꼈다. 그렇다고 실제로 20여명의 스탭들 식사를 아저씨께서 모두 대접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말이다.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는 선함까지 우린 닮아 있었다. 사소한 것 하나지

만 그들과 우리가 아직까지 닮아 있다는 것에 당장이라도 통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북과 우리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긴 하였으나 우리는 단합과 화합의 민족이다. 70~80년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보여줬던 한강의 기적이 그러하고, 2002년 6월 월드컵 때 보여준 붉은 악마의 신화가 그러하고, 지난여름 장마와 대구지하철 참사때 보여준 국민의 정성이 그러하다. 5천년 역사의 우리민족이 고작 50년의 골을 넘지 못해 이대로 무너지야 되겠는가?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깨달아 북한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의식을 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 모두가 단합하고 화합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의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비록 둘이지만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가 되어 한 대통령을 선출하며 하나의 국기를 들고 하나의 국가를 부르면서 하나의 국화를 심을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안경

매봉초 6 신현범

“현범아,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단다. 너를 제일 보고 싶어하실 텐데 이번 주말에는 꼭 가서 봐야지.”

“할머니는 왜 맨날 내 얼굴만 잡아당기시나 몰라.”

불멘 소리로 내가 투덜거리자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현범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 때도 되었구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할머니에 대한 긴 얘기를 해주셨다. 할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북으로 시집을 가셨었다.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친정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오다가 6·25전쟁이 나서, 남편과 아들이 있는 북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 남겨지셨다고 한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시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다시 고향을 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에 아버지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 보여서 긴장을 하고 듣고 있던 나는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네 얼굴이 북한에 두고 온 아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구나.”

두고 온 아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할머니께서는 내 얼굴을 보며 아들을 그리워하신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 어찌나 TV에서 북한 소식이라도 나올 때면 눈물을 흘리

며 밖으로 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뻐셨을까?

‘할머니 죄송해요. 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찮아만하고…….’

문득 나만 보면 얼싸안고 놓아주지 않으시던 할머니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께서는 그 동안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얼마 얼굴도 잘 모르고 자랐을 아들이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오죽 보고 싶으셨으면 내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시면서 아들 얼굴을 잊지 않으시려고 하셨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처음엔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린 자식과 생이별을 했으니 오죽하셨겠니? 나라도 너를 두고 휴진선 너미에 남았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게다. 그 늙은 전쟁이 뭐지…….”

학교에서 배웠던 6·25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아버지, 그리고 바로 할머니의 이야기였다는 것이 놀랍고도 가슴아팠다. 전쟁의 상처로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 외에도 살아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안타까운 것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이라도 가려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대문에서부터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 들어가는 나를 할머니께서는 힘없는 미소로 반기셨다.

“어이구, 우리 현범이 얼굴 좀 보자. 요샌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질 않네. 우리 현범이 얼굴을 잘 봐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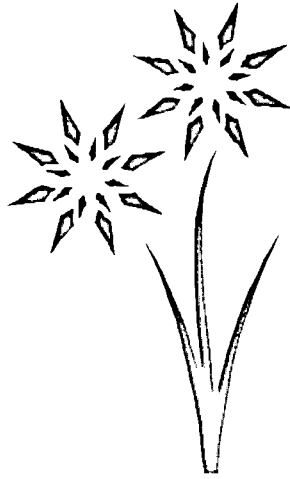
“어머니, 형님 보러 가셔야지요. 현범이 얼굴이 아닌 진짜 형님 얼굴을 보셔야지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지만 할머니 손을 잡고 씩씩하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금강산 가셔도 잘 보이는 안경 맞춰 드릴게요. 큰아버지 만나셔도 잘 알아보실 수 있는 안경으로요. 그러니 꼭 건강하게 일어나셔야 해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돌아오는 차 속에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간절했다. 반짝 반짝 빛이 나는 안경사이로 할머니의 웃으시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그 날, 통일이 되는 그 날, 할머니께서 안경을 쓰시고 큰 아버지를 찾아가실 그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통일의 전제조건

갑천중 3 김진

임진강을 가로지르며 민족분단의 애환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회색빛 철교인 자유교. 이 다리를 건너 30분이면 갈 수 있는 북한을 반세기에 걸쳐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추석이면 실향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내고, 철조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망배단이 있는 임진강.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무심한 기러기들만이 푸른 임진강과 끝없이 펼쳐진 장단반도의 초원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애절한 문구와 함께 철도중단점이 있는 이 곳은 현재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서서히 남겨지고 있다.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JSA”라는 영화를 보고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파란색 UN깃발 아래서 남과 북이 판문점과 판문각에서 서로를 응시하며, 무표정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치적으로 그은 인위의 선을 지키면서, 그림자까지도 넘어 오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단의 현실을 잘 묘사한 영화였다. “JSA-공동경비구역”. 이 수혁 병장과 북한의 오 경필 중사가 이념과 체제를 떠나 서로 진정한 친구와 형제가 될 수 있었지만, 분단이라는 공통변수에 의하여 남과 북이 이질적이고 적일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은 나에게 통일과 분단이란 무거운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주었다. 반세기에 걸친 남과 북의 분단.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통일된 독일의 배틀린 장벽이 허물어지듯 국토의 중앙을 굶고 있는 철의 장막인 휴전선이 낡아 날이 올 것인가?

지금 판문점에서는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예비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세기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제와 이념의 문제로 떨어져 있으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그들의 서러운 눈물과 한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애환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민족, 동포이면서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와 역사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두만강과 압록강이 한강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민족의 역량을 통일과 번영이라는 공생의 길로 만들어 가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세계의 초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아쉽게도 우리의 순수한 바람과 소망만으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와 정치적 환경과 변화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수용하거나, 동정을 하지 않는다. 통일을 위한 대북 지원과 경수로 건설, 남·북 철도 연결사업,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빗장을 풀려고 해도 좀처럼 풀이지 않는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과연 통일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민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통일이 될 것인가? 통일이 된다면 하루 빨리 휴전선을 헐고 우리 민족이 서로 만나 한민족이 되고 분단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 단일민족으로 세계에 위상을 떨칠 민족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한다면 민족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고, 지금의 안보 비용을 그만큼 민족을 발전하는데 투자한다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일류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통일을 생각하면 몇 년 전에 본 중국영화 “황비홍”이 생각난다. “황비홍-男兒當自強”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이제는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중국 정조 말 영국과 포르투갈이 중국의 상해와 난징에서 식민지 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교두보를 확보 할 때, 서구의 침략에 맞서 “황비홍”이라는 영웅이 중국을 구한다는 영화 내용이었다.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황비홍”이 부채를 펼치면서,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 힘이 없으면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도 국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인 우리나라가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힘과 능력,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능동적으로 정책을 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에 의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번 6월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와 거래를 위해 신명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과 공훈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온 민족이 단결하여 오늘의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왔다.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통일이라는 초석을 쌓고, 우리 국민이 단결한다면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이야말로 순국선열들에 대한 우리의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반세기에 걸친 통일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정주영 현대회장이 소 떼를 몰고, 자유교를 건너 북한에 갔었고, 한반도가 아래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한 부산 아시안게임 등,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평화의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민족이 공생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과 함께 의식 수준의 선진화를 우선 이루어야겠다.

반목과 질서보다는 세대와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허물어 보듬어 안아 서로를 이해하여 노·사가 함께 하고, 여·야가 함께 하는 화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반, 우리학교, 우리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일이란 과제를 풀 수 있을까?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우리 세대부터 맑고, 건강한 사고와 청명한 정신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 된 우리민족의 대통합을 이룰 때 통일은 결코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세와 남북통일

유성고 2 송현신

남북한이 분단 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통일은 먼 이야기였다. 아니 먼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 같은 역사와 언어, 핏줄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왜 그런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같은 민족간의 동란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1990년대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극소수의 나라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문화교류는 남북한의 긴장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평화 통일이 눈앞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에게 분단을 가져다 준 냉전은 이미 끝이 나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한반도는 남북이 각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갖고 대립을 했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념대립이 갈등의 발원이 되던 시대도 이미 끝이 났고, 또 북한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자체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왜 이렇듯 우리를 대립구조로 이끌었던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냉전이후에 국제정세에 새롭게 대두된 패러다임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에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주도하고 우리의 통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자국중심주의이다. 즉 각 국가들이 경제나 정치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도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는 주변국들이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이들 국가들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지금의 한반도 상태를 긍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통일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더 좋으면서 반대하는 극우파가 있으며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서 남북통일 문제에서 우위를 잡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뤄질 때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다.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의 MD시스템에 반대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평화를 지지하는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껏 통일의 문제를 강대국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거나 언젠가는 이뤄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아왔다.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인식하고 많은 회담과 교류를 통해 통일의 입지를 닦아야 한다. 또 대외적으로 우리의 통일이 주변국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 그들의 호응을 얻어내야만 한다. 이런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일 한국의 미래는 영원히 우리의 소망으로만 남을 것이다.



● 울산광역시

-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 165
- 시련과 아픔의 벽을 넘어 / 167
- 꼬레 뚜 꾸르 / 169
- 그리운 고향땅 / 172
- 끝없는 민족애가 들끓으리니 / 174
- 아버지의 다리 / 177
- 통일의 그 날까지 / 181
- 우리는 한민족 / 183
-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186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다운초 5 정예진

얼마전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서 나는 독재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재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죄 없이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전제의 잣더미 속에 쌓여서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후세인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남겨준 것은 식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고통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라크 국민들과 똑같이 고통 받고 학대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얼마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분노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사상적 이유 때문에 공개처형과 인간으로서는 차마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인민들에게 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 한 동포입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분쌍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어야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나 자신의 안전과 행복 못지않게 통일은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햇볕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여 하루 빨리 통일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햇볕정책만이 통일을 앞당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들의 요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 회담에서 북한이 대

놓고 남한을 협박하고 공격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북한에 대하여 너무 많이 양보만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북한에게 항상 양보하고 그들의 요구만 들어주었다가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와 북한이 평등한 관계에서 의논하고 협상해서 이루는 통일이 진정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육로로도 개통되었습니다. 육로로든 수로로든 다녀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북한주민들이 힐벗은 생활을 한다는 것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쌍한 북한 주민들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우리와 똑 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통일이 된 뒤에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행복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잘못된 사상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희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겠지만 죄없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량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한이 맺혀 핏줄을 찾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보십시오. 우리와 북한은 핏줄도, 얼굴 모양도,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지금은 비록 생각과 사는 모습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주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가 다시 통일이 된다면 동양에서 아니 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하나 된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꼭!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시련과 아픔의 벽을 넘어

상복중 3 정선재

어린 동생이 제 머리통보다 큰 지구본을 들여다보며 놀 때면 나는 웬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저러온다. 둥그런 지구본 속에는 허리가 반으로 푹 잘려 버린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호랑이는 반세기동안의 상처로 지금도 가슴속이 멍들어 가고 있다. 아직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내 동생은 그런 한반도를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리키며 연신 “대한민국”을 외쳐댄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얼굴엔 미소를 한 가득 머금고…….

동해바다 저 먼 수평선 너머로 영롱한 태양이 한반도 전체를 끌어안고 서서히 기지개를 편다. 그렇게 한 많은 대한민국의 아침이 수평선을 넘어 저만치 커져 있다. 여기저기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준비로 분주하지만 가깝고도 먼 곳, 그 곳에서는 아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철조망 사이로 풀잎들만 우울한 초록빛을 내고 서로의 사이를 막아버린 철조망만 세월이라는 물질 속에서 조금씩 녹슬어 가고 있다. 가끔 풀벌레 놀러 와서 푸른 꽃 소식, 붉은 꽃 소식을 서로들 전해주면서 반가운 손길을 내밀지만 무거운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어느새 얼굴만 붉히고 만다. 형제의 이마에 서로 흉을 들이대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서로의 가슴에 다시는 빠지 못할 대못 하나를 박아 두고 말았다. 가슴 속 무거운 짐 하나를 안고 눈물로써 살아 온 반세기라는 시간동안 아픔을 달래 왔던 우리, 하지만 매년 6월이면 씻지 못하는, 아물지 못하는 상처로 슬픔과 아픔의 바람을 맞보아야만 했다. 언제쯤이면 6월의 악몽이 깨끗하게 씻겨질지 기약도 없는 바람을 몇 번이고 속으로 되새

기곤 한다.

얼마 전 북한은 또 한번 NLL를 침범했다. 신문에서는 영종도의 꽃게잡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대서특필로 다루었고, 너무 먼 곳까지 서로 다른 삶을 살아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대통령이 내세웠던 햇볕정책은 어디로 사라지고 또 다시 50년 전 그때처럼 서로의 적이 되어 총 칼을 들어야만 하는가? 물음표에 부질없는 또 다른 물음표 하나를 더 남긴다. 각종 방송 매체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종종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의 비리, 북한의 NLL침범, 무슨 회장이 북에다 얼마를 쥐어주었냐는 등.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서로 부대끼다보면 작은 정이라는 이름이 싹트진 않을까? 바보 같은 희망으로 다시 한번 더 손을 내밀어 본다. 서로 다른 사상 때문에 하나라는 이름표를 달지 못했던 우리. 반만년의 역사가 무색해 질만큼 지금까지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던 우리. 너무 멀리까지 오진 않았는지 내심 걱정이 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 도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는가? 과거의 미움이란 흘러 가버린 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인 것 같다.

가끔 소설바람 속에서 소설책 한 권을 읽다가 소설 속 북녘 하늘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한반도라는 땅 덩어리 위에서 살고 있는데, 작은 오해와 불신이라는 벽을 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동안 너무 어긋나 버린 길을 걸어왔기에, 꼬여버린 매듭을 푸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갖 힘든 고초와 순탄하지만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가 아닌가? 그때마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곤 했지 않은가? 내일이 되면 다시 태양은 한반도 위에 떠오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시련과 아픔의 벽을 넘어 미소와 평화의 이름으로 한반도 호랑이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까? 오늘도 어린동생은 반으로 쪼개진 한반도를 가리키며 대한민국을 외친다. 언젠가 동생의 말이 현실이 되어 돌아 올 날을 조용히 그려본다.

꼬레 두 꾸르

중앙여고 2 김선아

“**꼬레 두 꾸르**”(그냥 한국어요.)

‘빠리의 택시기사’로 잘 알려져 있는 홍세화씨는 그의 책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국적을 묻는 프랑스인, 특히 남쪽인지 북쪽인지 묻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했다. 책 속에서 홍세화씨는 그 질문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다고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묻는 줄은 몰랐었다. 게다가 홍세화씨가 느꼈을 감정도 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곧장 “남쪽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기에 단지 그냥 한국인이고 싶은 그분의 절실한 심정은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다. 그저 눈으로만 훑을 뿐이었다.

내가 자란 세대는 -물론 아직도 자라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강력한 반공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지금이 ‘휴전’ 상황인지조차 모르고 자란 평화의 세대이다. 그렇기에 ‘통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몸으로 느껴본 적도 없는 것이다. 그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따라 부르며 막연히 ‘통일=해야함’이라는 공식을 세웠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유아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조차도 사춘기를 맞으면서 -머리 좀 굽어졌다고- 막연하던 그것조차 ‘통일따위’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바뀌는 것이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별다른 관심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거기다 TV뉴스에서 보여지는 무조건적인 북한지원, 끌려 다니는 듯한 대북 외교가 이러한 생각을 더 부채질한다. 사실 나 역시도 ‘통일’에 대해서 별다른 필요성이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을 보며,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남한에 흡수 통일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뿐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선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며,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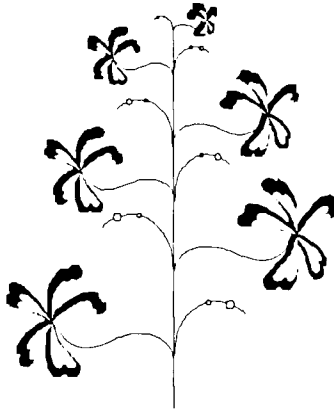
첫째로, 끊어진 역사의 흐름에 있다. 우리나라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로 쪽 지도층만 바뀌었을 뿐, 단일 국가의 전통을 이어왔다. 물론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에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고, 풍습이나 복식 등은 유사하여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런 우리 역사가 20세기 초,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헤쳐내지 못하고 휩쓸려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은 끊어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허브(HUB)국가로 꿈꾸는 우리나라로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국가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철도물량이 적어진다 해도 '대륙을 잇는 열차의 종착지'라는 타이틀은 분명 세계의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이름이 될 것이다.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갖춘 통일 한국은 틀림없이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이 지하자원이라던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은 통일 한국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윤택유가 되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반세기를 가족격정으로 전전공공한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세기를 고통의 나날 속에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되지 않겠지만 조금의, 일할의 도움이라도 되어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과도 같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이는 인권존중의 실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말이다. 이렇게 통일은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은 왜 통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느낄 수 있어야 하며, 통일의 절차 역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민족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

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가슴 속에는 시대의 아픔을 몸소 경험해야 했던, 반 세기가 다 지나도록 마음 한번 편할 날이 없었던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새긴 채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배려하면서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곧 현실이 될, 세계 속에 당당히 'Corean'이라고 함께 외치는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의 조국, 하나의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을 그리며 말이다.



그리운 고향땅

연암초 4 김지은

통일! 하면 온 세상이 하얗던 작년 겨울방학 때 다녀 온 강원도에 있는 통일 전망대가 생각난다. 우리는 통일 전망대에 가기 전에 먼저 교육도 받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고 출발했다.

말로만 들던 조국 분단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6·25 이전에 원산에서 양양까지 운행했던 동해 북부선 철로도 보았다. 기차가 달리지 않아 철로가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옛날에는 북한을 마음대로 다녀 참 좋았다는데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 내 마음은 저 철마를 타고 북쪽의 산하를 누비며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한민족임을 느끼며 통일을 하자고 외치고 싶었다. 통일 전망대에서 해금강도 보고 '송도'라고 하는 작은 섬도 보았다. 눈이 내려서인지 경치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분단국가라는 온갖 시름도 잊은 채 말이다.

이 곳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었다. 대부분은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아버지, 할머니셨다. 멀리서나마 고향 땅, 가족들의 향기를 맡으러 오신 것 같다. 땅이 꺼질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주름이 깊은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다들 너무 쓸쓸하게 보여서 내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들을 수 없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탈북자들이 그리운 가족과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쳐 오는 것을 보았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이라도 부모 형

제를 만나고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해서란다. 갑자기 입술이 앞을 툭 튀어나오고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졌다.

‘같은 한민족인데 우리가 왜 마음대로 만나지 못할까? 알미운 휴전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일까? 우리 마음 아프게 하려고?’

전쟁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고향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버린 것이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분수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몇 차례 있었지만 지원자 모두가 상봉할 수는 없어 다음 다음 기회를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부모 형제와 이별을 하여 만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나는 갑자기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다 모여 살고 또 이렇게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이 곳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이산가족 중의 한분이시겠지? 저분들은 얼마나 가족이 그리우실까? 어떻게 저분들은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셨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있을까?

즐겁게 다녀온 여행이었지만 분단의 아픔을 느껴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프고 허전했다. 통일 전망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도 차를 타고 가고 싶고, 북한 어린이들과 서로 친구 되어 공부도 같이 하고,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고 싶다.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백발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께 깊은 주름살을 펴 드리고 환한 웃음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튼튼히 하여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들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끝없는 민족애가 들끓으리니...

중앙여중 3 김해은

오래 전부터 깊었던 6·25의 아픔은 복잡한 일상에 묻혀버리고, 반 백년이 넘는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통일의 염원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꿈은 다시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 잊혀진 듯했지만 늘 그곳에 있어 온 통일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의 가슴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멸의 목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직접 피 흘린 전쟁만큼의 큰 아픔은 아닌 것이다. 만약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어느 날 헤어지게 되어 언제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큰 그리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서 '만남'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운명적 공동체이다. 지난 겨울 우리 모두가 보았다. 6천만 아니 진 세계의 눈시울을 적셨던 이산가족의 상봉은 비단 부둥켜안고 울던 그들만의 슬픔이 아니었다. 같은 땅, 하늘 아래 살고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슬픈 우리 조국의 현실에 다같이 슬퍼하고 다같이 아파했다. 이산가족의 가슴에 묻어둔 큰 상처는 이미 그들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였음을 우리 모두는 보고 확인했다. 이렇게 분단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픔은 우리의 가슴에 끝없는 생채기로 남아, 앓고 또 앓아서 치유되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될 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의 상처가 영구히 굳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 작은 화해의 몸짓일지라도 통일의 씨앗으로 점점 자라 큰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 줄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될 통일의 피와 살이 될 것이다.

통일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남을 가치 높은 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이렇듯 통일을 이루는 일은 그리 멀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어렵고 복잡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는 민족애가 들끓어 오를 수 있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산이다.

여러 방면의 사회적 문제들의 개방과 개혁이 통일 질서를 지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마음의 벽을 넘어 한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통일의 순환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실정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알아서 우호관계 유지를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한편으로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건네어 많은 봉사 와 헌신을 통해서도 통일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름답고 참다운 통일의 자세는, 우선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며 21세기의 새 역사의 길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 진정한 대화와 만남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삼고 그에 대한 범국민적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큰 일일수록 그것을 성취하고 난 뒤의 느낌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통일의 힘과 의지는 오랜 세월을 걸쳐 끝없는 길을 걸어왔으나, 항상 일관된 목소리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었다.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외교전을 펼친다든지 하여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민족적 책임감을 회

피하는 부끄러운 생각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민족으로 인정받아 왔다. 서구인들이 우리를 유대인보다 현명하며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세계를 주름잡는 주역이 될 것이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라고 생각하니 통일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절실해져 가는 것 같다. 내가 바라는 통일은 아름다운 통일이다. 김구 선생께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듯이, 통일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로 되어 가며, 소중한 소망이 꽃피워 다시는 지지 않을 큰 희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은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답다. 2002 아시안 게임의 공동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음을 띠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리며 자랑스런 우리 하나된 모습으로 역사 속에 크게 빛내어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날까지,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끝없는 민족애가 들끓으리니, 한 민족 한 마음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길 함께 걷자…….’

우리 모두의 바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 통일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서, 후에 통일이 되어 크나큰 슬픔, 고통, 외로움을 모두 씻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움이 이어져 하나의 큰 성취를 이룩해서 통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키운 소망들이 커져가면서 ‘통일’을 이루게 해주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의 다리

현대고 2 김새봄

내가 일곱 살 시절, 유치원 운동회에선 부녀, 부자지간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었다. 모두들 아빠와 함께 뛰는 데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기만 했다.

“엄마~ 아빠랑 뛰기 싫어~ 엉엉엉~”

우리 아버지께서는 발뒤꿈치에 상처가 깊게 패여 있으시다. 그래서 늘 소독한 솜을 그 패인 곳에 채워 넣으시고 붕대를 감으신 뒤에야 양말을 신으신다.

겉보기엔 평범하시지만 걸으실 땐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신다. 아마 어린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나보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채, 이모부와 함께 달리기에 참가하였다.

시간이 흘러 내가 열세 살이 되던 해, 우리가족은 울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이삿짐을 챙기던 중에 푸른색 패물함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황금색 태극패와 메달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성함이 똑똑히 적혀있는 상장도 발견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의 다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진 국가 유공자셨다. 6·25 세대는 아니시지만 한창 북한과 감정이 좋지 않던, 냉전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다. 같은 동족의 얼굴을 향해 총을 겨누고 쭈뼛하게 지뢰도 심어 놓았던 때다. 서로 감시하고 못미더워 했다. 틈만 나면 서로의 땅 가까이 다가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곤 했다. 아버지께서도 뒷사람의 지시를 받아 몰래 북한을 감시하고자 북한 땅 가까이로 가셨다 한다. 그 때 잘 못 밟은 지뢰에 아버지를 비롯해 같이 갔던 여러 사람이 다치고 돌아가셨다 한다. 그 상처가 바로 내가 그렇게나 부끄러워했던 오늘의 아버지를 있게 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이념전쟁이라 할 수 있다. 독립 후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경계로 남, 북이 갈라져 각각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만약 이때 신탁통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니,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념 속에서 신탁통치를 받았다면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는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시작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의 결정과 더불어 종결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양쪽 군인만 해서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5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생겨났다. 국토는 총과 대포에 엉망이 되었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 잘려진 한반도의 허리에는 지뢰밭이 생기고, 총을 든 군인이 생겼다. 그리고 수십 년 간 한반도의 허리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에 의해 피가 나고 서로에게 거누어진 총에 의해 싹어갔고, 이산가족의 눈물에 의해 깊은 상처로 남았다.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한반도의 잘려진 허리에 약도 바르고, 붕대도 감아주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돌봐줘야 한다. 그 약의 이름은 통일…….

오늘 친구와 통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나의 질문에 친구는 짧게 “관광!” 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북한에는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금강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도 있다. 그리고 고려와 고구려의 도읍지가 있었던 만큼 문화유산도 꽤 많다. 오염된 남한과는 달리 분명히 깨끗한 공기와 물, 산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통일이 되면 해금강에 제일 먼저 가고 싶다. 수학여행때 갔던 통일 전망대에서 본 -아주 어렵קות하게, 아주 작게 보였던- 해금강! 걸어서 20분 거리라고 하지만 걸고 갈 수 없었던 해금강…….

“그리고 통일이 되면 국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 나라에선 젊은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서로를 감시한다고 쏟아 붓는 국방비가 통일이 되면 필요가 없어지니깐! 그 돈을 사회 복지에 쓰면 참 유용할거야.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를 지원자만 가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젊은층의 인력이

확보되겠지?”

덧붙이자면 북한의 지하자원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유공자분들의 아픔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단일민족이야 라고 외치지만 이렇게 달라져 있는 데 어떻게 진정한 단일민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전쟁은 얻는 것 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많지만 평화와 공존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이제 어리석게 잃기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받아들이자. 이미 일어난 지 오래인 전쟁을, 반 백년을 갈라진 채로 살아온 세월을 더 이상 원망해도 소용없으니깐. 다만 이제는 잘려진 한반도의 아픔을 돌보고, 치료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많은 교류를 가지고, 대화로써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0년대와 달리 90년대 들어서서 북한과 많은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 가족 상봉, 평양 예술단의 서울 공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유도 선수인 계순희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이었다. 계순희 선수가 승을 거둬줄 때 마다 함께 환호하고 기뻐했으며 아쉽게 저서 걸승진출이 좌절 됐을 때 모두들 슬퍼하고 아쉬워했다. 만약 계순희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건 아닐 것이다. 계순희 선수가 우리 민족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순희 선수가 걸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 울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꼭 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북통일이 결코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활발한 교류로 떨어져 있던 시간들을 천천히 조금씩 이해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제각기 다르다.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남북간의 왕래는 허락하되, 두개의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정부를 세움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 꿈꿈이 생각해 보았다. 통일이 되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하나의 정부냐, 두개의 정부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 백년을 다른 체제 안에서 살아 온 남, 북을 갑자기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도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왕래만 하고 두개의 정부를 유지하자니 완전한 통일이 아니고……. 아직 고등학생인 내 짧은 생각으로는 쉽게 걱정이 나지 않는다. 다만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고, 민족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걱정이 낮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박봉우 시인의 시 '휴전선'의 한 구절을 적어 붙까한다.

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지금 우리 민족은 히읗 좋은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민족이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가족이다. 지금은 종전이 아닌 휴전의 불안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남,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아픈 다리로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통일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다.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모습이다.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뚝뚝하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한민족이라고 말해보자!

통일의 그날까지!

무거초 6 고병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반으로 두 동강 내어 같은 민족이 갈라져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좁은 땅에서 더 좁은 땅으로 나누어 살아가고 있다.

난 같은 민족이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끔씩 치루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볼 때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시지만 꼭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느껴져 그 때마다 눈물이 찢끔찢끔 난다.

이제 통일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옛날 삼국시대의 신라 그 이후 고려가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도 옛날 조상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

또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앞서 통일한 독일, 베트남 같은 나라는 한반도가 반으로 50년 동안 갈라져 있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하고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우리도 통일을 한다면 국토는 22만km로 영국, 루마니아와 비슷하고 인구는 7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통일이 되면 군대 병력의 수와 군사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경제력이 아주 좋아져 세계 10위권 진입이 가능해 지리라 생각된다. 비무장지대는 관광지로 이용해 외국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고 스포츠는 남북단일팀으로써 강력한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국제적 지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이 되면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의 강대국 한반도가 되는 것이다.

몇 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풍악호를 타고 38선을 지나 금강산 관광을 갔었는데 금강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했다. 동물모양을

똑같이 닳은 바위, 거울이라 아름답게 얼은 비룡폭포, 수북이 쌓이고도 하늘에서 펄펄 쏟아 내리는 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북녘 땅에서 2박 3일간 다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 가족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자유로이 휴진선을 넘나들어 이렇게 멋진 금강산 구경도 하고 백두산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멋진 구경을 2학년 때 보고난 후 어린 마음으로 '통일이 빨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왜 통일이 빨리 안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5학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북한이 싫어진 적도 있었다. 같은 민족이라지만 우리 남한이 나누어 준 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권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고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고 어린이들 교과서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넘겨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같은 한민족이니 통일을 하면 오해도 풀리고 같이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일해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통일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으자!!

우리는 한민족

동평중 3 김양희

한동안 우리나라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이산가족들의 아픈 담고 안타까운 만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몇 십 년만에 만난 이산가족들의 눈물 고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그들의 벅찬 감정을 느낄 순 없었다.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가슴 아파 왔다. 그것은 그들의 눈물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제 치하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조국의 광복을 염원했던 우리가 어찌서 지금처럼 오랜 시간 갈라져 눈물을 흘리며 만나야 하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광개토대왕이 요동, 만주까지 영토를 넓히고,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4군 6진을 만들어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는 등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대단한 민족이었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때에도 다른 나라에 굽히지 않고 애국심과 충성심을 마음깊이 새기며 백의민족으로 불리어져 왔던 민족이었다.

그런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누렸지만 곧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남·북으로, 철조망을 사이에 둔 채 갈라지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그와 동시에 한마음이었던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길 위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우리 남한은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적인 나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북한은 소련으로 인해 공산주의로 발전해 갔다.

북한에서는 굶어죽는 아이들이 생겼고 불건을 훔치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이것이 한민족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인가?’, ‘어째서 우리민족이 이렇게도 달라져 버린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옛 조상들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십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곳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현재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다. 중1때 나는 가족들과 ‘통일진망대’ 라는 곳에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또는 저곳에 살고 있을 가족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으로 그곳을 갔다. ‘과연 북한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오백 원 동전을 망원경에 투입하고 망원경을 통해 본 북한은 초록빛의 나무들로 둘러 쌓여있는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곧 망원경에 비춰지던 북한은 깜깜한 암흑속으로 파묻혀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망원경에서 손을 떼고는 더 가까이 걸어가 보았다. 은빛의 구불구불하면서도 뾰족한 철조망이 있었다. 그 철조망은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철조망을 바라보았던 나는 조국 분단의 아픔을 느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다. 집을 돌아가는 길에도 북한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난 언제쯤 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한 국토인데도 그 곳을 가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를 원통하게 만들었다.

교과서 속의 문제들은 가끔 우리에게 물어본다. 어째서 통일을 해야하느냐고 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해야한다.’ 라며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나 또한 그러하다. 교과서나 대중매체에서 통일해야 한다며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시켰지만 이유를 확실히 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난 이 글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던 우리들이 억울하게 두 개로 나뉘어져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우리가 통일된다면 국가의 힘도 강해지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에 경제력도 키질 수

도 있다. 스포츠 운동 또한 더 발전할 것이다. 남한, 북한이 하나가 되어 올림픽 경기에 나간다면 3등이었던 것도 2등으로, 2등이었던 것도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백두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발달한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그 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난 이 글을 쓰면서도 바라고 있다. 남한,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나라'라는 통일된 말을 쓸 수 있기를 말이다. 내 주위엔 아직도 이유 없이 북한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통일하고 싶다면 이러한 생각부터 버리고 한 핏줄, 한 민족을 사랑하려 애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나라의 광복을 부르짖었던 애국자들을 말이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위해 몸을 바쳤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하나의 민족으로 살길 바란 것이다. 이러한 애국자들의 생각을 마음 속 깊이 새기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북한과 타협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은빛 철조망을 잘라 북한 땅, 우리들의 땅을 밟아 보고 싶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효정고 3 서러정

몇 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6월하면 6·25전쟁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아직도 월드컵의 열기가 식지 않은 함성소리이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아픔의 상징이었던 6월을, 더 이상 빨간 피로 물들여진 그 날의 아픔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붉은 악마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축제의 환호성만이 있을 뿐이다. 호국·안보의 달이라는 6월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진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6월은 유난히도 사건이 많았던 달이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달도, 효순이·미선이의 비참한 죽음과 그 추모의 촛불 집회가 있었던 달도 6월이다. TV에선 너도나도 월드컵 1주년 특집 방송을 보도하느라 시끌벅적했다. 우리가 TV속 그날의 감동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을 때, 전쟁의 후유증으로 병실에서 그리고 밧 평 남짓 안 되는 소외된 공간에서 고통으로 눈물 짓는 호국 보훈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소외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 하나 없다. 심지어 그들의 전쟁 참전을 비난하는 이들까지 있다.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지켜준 것이 누구인가? 밧 밧치는 총알 사이를 뚫고 목숨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던 그들이 있었다. 자신의 사사로운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 내 조국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준 것은 아픔이었다. 백만 원도 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병원비에 집세까지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뼈뺏하게 지낼 수밖에 없

다. 우리가 준 것은 가난과 무관심뿐이었다. 참진용사 수의 1/10이 될까 말까 한 수가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현실 속에서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외칠 자격이 우리에게겐 없다.

미국의 경우 참진 용사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보처리과정 중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지 국가의 무관심이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미국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너무도 무관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 참혹한 폐허 속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냉대 속에 후유증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는 또 한 번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 보훈 정책을 강화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 살고 있을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따뜻함과 안락함의 여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모두의 염원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평화와 하나됨의 조국을 선사해야 한다.

피로 물들여진 폐허 속 비극의 잔상위에 고통으로 일그러진 호국 선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민족의 허리가 잘린 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헤어져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붉은 물결의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한다. 이 길만이 호국 선열의 정신을 기릴 수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하나된 조국 아래 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 경기도

- 연어를 기다리며 / 191
- 북한을 다녀와서 - 꿈☆은이루어진다 - / 193
- 통일의 추억 / 200
- 할아버지와 통일동산 / 203
- 통일이여 어서 오라 / 205
- 한민족 한 핏줄 / 208
- 외교관 정남희씨 / 212
- 장두홍 할아버지의 이력서 / 214
-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통일 / 217

언어를 기다리며

안양 과천초 5 김애린

나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의 창립 회원이다.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어린이에게 식량도 보내주고 의약품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다.

어깨동무는 창립 이후 전국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은 뒤 이 돈으로 식량이나 의약품을 사서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해왔다. 우리 아빠는 여러 어른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들을 식량난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어깨동무라는 단체를 만드셨다. 어깨동무가 탄생된 뒤 아빠는 나와 내 동생에게 북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지 설명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 어깨동무 활동에 동참하자고 하셨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던 동생은 물론 1학년인 나는 아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노는 데에만 열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굶주림에 지친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가져오셨다. 빼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다 눈이 쾅한 북한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나와 동생은 너무나 놀랐다. 나는 그제서야 아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친구들을 꼭 돕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어깨동무에 가입해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어깨동무에서 신문을 내기로 했다. 그 신문의 이름은 "안녕? 친구야"였다. 어깨동무는 많은 어린이 회원들에게 "안녕? 친구야"라고 써 보라고 한 뒤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신문 제목으로 채택한다고 했다. 1학년인 나도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다 정성스럽게 써 제출했다. 내가 쓴 글씨가 결국 어깨동무 신문의 제목으로 선정되었고 나는 너무나 기뻐했다. 2003년 6월 중순인 지금까지 어깨동무 신문이 50번 이상 나왔는데,

제일 앞에 크게 씌어진 “안녕? 친구야”라는 글씨가 바로 내가 쓴 것이다.

어깨동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학년 때 강원도 고성에 갔던 일이다. 그 때 나는 아빠와 여러 어른들과 함께 고성군 현내면 고진동에 있는 비무장지대 계곡에서 연어 새끼를 풀어줬다. 이 계곡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어진 계곡이어서 연어가 커서 다시 돌아오면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가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나는 여자 어린이 대표로 연어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연어야, 북녘으로 흐르는 남강을 지나 넓은 바다에서 꿈을 마음껏 펼친 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렴. 그 때는 남과 북의 친구들이 반갑게 너를 맞아 줄 거야.”

나는 내 손가락만한 연어 새끼 수십 마리를 풀어준 뒤 옆에 있던 시인 아저씨에게

“이 연어들은 언제쯤 돌아오나요?”

하고 여쭙어봤다. 아저씨는

“애린이가 5학년이 되는 4년 뒤에 멀리 북태평양을 거쳐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온단다.”

어느덧 4년이 지나 내가 5학년이 되었다. 그 때 내 손가락 만했던 연어 새끼들이 이제 어른 허벅지만한 크기가 되어 바로 그 곳에 다시 돌아와 놀고 있겠지. 돌아오는 여름방학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내가 연어 새끼를 풀어주었던 바로 그 계곡으로 달려가 엄청나게 커진 어른 연어를 보고 싶다. 아마 이 어른연어들은 벌써 북한 땅으로 헤엄쳐 들어가 북한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을 다녀와서

-꿈☆은 이루어진다-

의정부여중 3 이상화

이라크 전쟁의 시작으로 모든 이의 관심이 이라크에 쏠려 있을 때, 나는 우리나라지만 쉽게 갈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의 청소년들과 부둥켜안고 울고 있었다.

지난 3월초에 RCY 담당 선생님께서 뜻밖의 공문을 받았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여러 번 쳐다본 공문에는 '남북 청소년 적십자 나무심기' 라고 또박또박 써있었다. 그러나 공문이 왔다고 해서 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래 내용에 '남북 관계에 따라 행사 취소 가능' 이라고 써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벽찬 감동은 나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저 꼭 갈 수 있기를 바랄뿐이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부푼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기도 했다. '어떤 모습일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등 어찌 보면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중요한 것들이었다.

3월 20일, 행사는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되었다. 우선 대한 적십자사로 향하였다. 다 모인 남측 청소년 대표들은 총 10명이었는데 초등학교 둘, 중학생 셋, 고등학교 셋, 대학생 둘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곳에서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노르웨이 적십자사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고 있던 중, 한국 적십자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여 그것이 북한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북한 분단 이후로는 최초로 남북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행

사에 임하라고 하였다. 설명을 들은 후 방북교육을 받았는데 북한을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교육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한다. 우선은 각 나라의 호칭은 남측, 북측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교육 도중 북한 청소년들과 악수를 해도 되냐는 질문에 다소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다. 교육을 받고 느낀 것이 있다면,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 하나에 따라서 이번 행사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속초 항으로 가기 위해서 속초로 출발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하루가 밝았다. 일찍 식사를 하고 속초 항으로 떠났다. 그리고 강원지사 봉사자 분들의 박수 속에서 수속을 밟은 뒤 승선하였다. 북한에 도착하기까지는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 동안 일행들은 북한 청소년들이 환영인사를 나와 줄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였다. 나 또한 그랬듯이 모두들 원하고 있었음이다. 이런 저런 상상과 설렘 속에서 어느새 북한에 도착하였다. 적십자 일행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아쉽게도 청소년들은 볼 수 없었지만 북한 적십자회에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북한 일행이 머무는 숙소에서 환영의 만찬을 준비해서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말이다. 막상 만찬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았다. 만찬장소는 금강산여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는 내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드디어 버스의 문이 열리고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일행들에게 호들갑을 떨곤 했다. 문이 열리고, 북한 청소년들이 똑같은 옷차림에 일렬로 서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서대로 악수를 하였는데 남학생들은 악수를 건네지 않아 여학생과만 악수를 나누었다. 오기 전에 방북교육에서 들었던 듯 개방된 듯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언니들에게 물어보니 다 악수를 했다고 하여서 혼자 뽀루뽀루 했었다. 그리고는 내일 만나면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만찬회장으로 들어서서 나는 어느 여학생 옆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나를 ping ping 울게 만든 향이라는 친구이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여 손만 만지작거렸는데 향이가 먼저 말을 걸어

왔다.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간단한 소개부터 하였는데 이름은 최 향이였고 평양에 산다고 하였다. 나이는 12살 아니 남측 나이로는 13살이었으며,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향이의 소개를 듣고 있는데 향이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왔다고 대답하자마자 나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말았다.

“그 곳, 효순이랑 미선이 장갑차 사건하고 관련 있는데 아니에요?”

하고는 나에게 말을 한 것이었다. 어떻게 향이가 그 일을 아는지……, 너무나 놀랐었다. 내가 놀랜 표정을 짓자 얼른 화제를 돌려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 때 약간 섬뚱했었는데 화제를 돌려주어 얼마나 고마웠던지……, 학교에서 그 아이들도 우리가 배우는 과목과 비슷하게 배우고 있었는데 영어와 컴퓨터도 배운다고 하였다. 서로의 취미를 묻고 잘하는 과목을 물어보는데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고 하니 영어로 대화해 보자고 하기에 몇 가지 대화를 영어로 나누기도 하였다. 비록 자기소개와 언제 이곳에 왔냐는 것이었지만……, 향이의 취미는 노래 부르기였고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 꿈은 성악가였다. 이 노래 아느냐며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를 부르던 향이의 모습은 무척 진지해 보였다. 얼마를 대화했던가? 드디어 향이가 나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았다. 물어볼 때마다 “언니, 언니”라며 언니라는 호칭을 불러주는 향이를 보며 너무나 정이 많이 가는 아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잠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저 “내일 봐요”라는 말로 다가오는 내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드디어 우리가 이 곳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 왔다. 버스를 타고 식수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역시나 그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별로 식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향이와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나 혼자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다. 내가 속한 조는 우리 측 대학생 오빠와 북측의 대

학생 언니 한 명과 열 살의 장 철이라는 소년 이렇게 4명이었다. 남자들이 샅을 들고, 나는 물 조리개를 들고, 언니는 땅을 다듬는 일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 철이라는 아이가 삼질을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었는데 어찌나 삼질을 잘하던지 대학생 오빠보다도 더 잘 해서 언니와 나는 오빠를 놀리기도 했었다. 그렇게 우리 조는 다섯 그루를 심었다. 내가 심은 묘목을 바라보면서 잘 자라기를 빌어 주었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감쌌는데 바로 향이었다. 정말 감동이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을 뿐더러 태연하게 나를 찾는 모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려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점심식사를 따로 하는 바람에 그 손을 놓아야만 했다.

점심식사 후, 우리는 금강산에서 재회하였다. 그러나 조 편성에서 향이와 나는 또 갈리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향이가 안타까운 듯 내 옷소매를 잡고 이쪽으로 오라고 잡아끌었다. 나 또한 향이와 같이 등반하고 싶었기에 선생님께서 말씀드려서 결국 같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음을 지었다. 서로 뭔가 통한다는 사실이 재밌기라도 한 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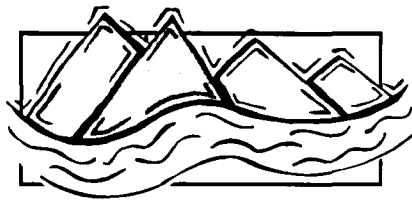
우리가 등산할 곳은 '구룡연'이라는 곳이었는데 꽤 오래 걸린다고 하여서 겁이 났다. 우선 올라가기 전 북측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준비해 온 간식을 주었는데 그 쪽도 우리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었다. 과자, 물 등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다. 들어있는 것 모두 쉽게 구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많은 눈으로 둘러싸인 금강산의 맛있는 경치를 보며 일행 모두 입이 벌어졌고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아직 눈이 녹지 않아 우리는 2-3m정도 높이 쌓인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다. 길의 폭이 좁아서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기가 힘들었지만 나는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자고 하면서 약을 쓰고 올라갔다. 그런데 길이 너무 좁아 계속 다리가 눈 속에 빠지곤 했는데 향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먼저 앞서가나 했더니만 오른손을 뒷짐 지듯이 하고는 내 손을 올리라고 했다. 나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눈길을 헤쳐 산에 올랐다. 산을 타고 흐르는

물은 너무 맑다 못해 초록색을 띄고 있었다. 정말 옥처럼 아름다운 색이었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때 향이가 옆에 쌓인 눈을 한 움큼 쥐어 나에게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는 재밌다라는 듯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에 흐르는 때문지 않은 순수함과 장난기가 내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고 북측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구룡언에 도착을 하였다. 그곳에는 하얗고 길다란 물줄기를 가진 폭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나 멋있던지……, 아직 눈이 많이 안 녹아서 폭포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경치도 대단한 볼거리였다. 잠시의 휴식과 기념 촬영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이 너무 험한 탓에 올라올 때부터 내려가는 게 걱정이 되었는데 스키를 타듯이, 조심하면서도 재미있게 내려왔다. 그래도 열 번 이상은 넘어진 것 같다. 그렇게 등산을 마치고는 숙소로 일찍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남측이 준비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었다. 운동화는 축축하여 불편했지만 북측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맘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다. 얼마 후 약속 시간이 되자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다행히 식사는 향이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어찌나 좋았던지. 음식은 중국식으로 나왔는데 남북한의 음식 이름을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그 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 향이와 함께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삼일포'였다. 이 곳은 읍기와 침강으로 인하여 생긴 연못 같은 곳이었는데 어떤 문인이 이곳에 왔다가 그 경치에 취하여 삼일동안이나 묵고 갔다하여 삼일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향이와 함께 삼일을 더 머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내심 어제처럼 산길이 가파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높지 않아 산책코스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향이와 얘기 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모두들 친해져서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사진도 찍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

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단풍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과상이 차려져 있었고 모두들 둘러앉아서 차려진 다과를 맛있게 먹었다. 또한, 아직 자유로운 편지왕래는 할 수 없지만 동일을 대비하여 향이와 나는 서로의 집 주소를 교환하였다. 잠시 후, 게임을 하자고 우리 쪽이 제안을 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무척 간단한 게임들이었는데 모두들 웃고 즐기면서 하여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아마도 이 게임이 북측에서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우리 쪽에서 준비한 게임이 끝난 후 북측에서는 차례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설주라는 아이가 먼저 '반갑습니다' 라는 노래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얼마나 잘하던지 모두들 넋이 나갈 정도였다. 그렇게 설주가 3곡을 부르고 다음 차례로 두 명의 친구들이 나왔다. 그 중에는 향이도 있었는데 향이의 모습을 지켜보느라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해 너무나 아쉬웠다. 다음엔 제일 나이 많은 친구 셋이 나왔는데 다른 아이들보다는 역시 성숙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노래에 북측아이들이 모두 우리들보고 나오라고 손짓하는 바람에 신나서 나갔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을 줄이야……. 노래 제목은 모르지만 '다시 만나요' 라는 노랫말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때 바보같이 내가 먼저 울어버렸다. 엄마가 울면 정말 밋다고 해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와 비렸다. 내가 울자 향이도 울기 시작하였다. 그 때 나는 정말 향이의 진심을 알았다. 향이도 여태껏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쉽게 우리들은 헤어져야 했다. 나는 향이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고 꼭 서로의 꿈을 이루자고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향이를 부둥켜안고 연신 나를 잊지 말라는 말만 되새기고 있었다. 단지 며칠 동안 사귄 친구지만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앞서서인지 눈물만 계속 흘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비스에 올랐다. 창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배웅해주는 향이에게 RCY 핏지를 손에 꼭 쥐어줬다. 그렇게 우리는 멀어져가고 있었다. 연신 멀어져 가는 그들에게 나는 "다시 만나요"를 외치고는 남아있던 눈물들을 모두 쏟아내어 비렸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눈물이 나올 것만 같다. 지난 2박 3일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고 그 정해진 시간이 너무나도 야속했다. 조금만 길었다면, 하루만 아니 몇 시간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쉽고 그 이별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 나는 그들의 마음과 눈물을 느꼈기에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 그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을 만났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보답해줄 수 있을 테니……. 통일이란 단어를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렇게 무관심했던 나! 이제는 나의 일, 나의 과제, 나의 꿈이 되어 버렸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더 성숙해진 모습의 향이를 만나기 위해서…….



통일의 추억

수원 대평고 2 박진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용일…….”

손주 녀석들의 노랫소리에 따라 나도 모르게 흥얼댄 노래이다. 가물가물해져 가는 기억 속에 잊혀져 가던 노래 한가락……。 예전엔 껍이나 많이 불렀는데 그것도 역시 가물가물해져 확실한지 모르겠다. 내 나이 일흔. 벌써 통일이 된지 50 여 년이 흘렀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과 미소 사이로 보이는 누런 이와 굽은 허리, 희끗희끗한 머리가 50년 세월을 대변해 주는 듯 하다.

오늘은 나의 칠순 잔치이다. 손주 녀석들은 내 생일을 축하하겠다고며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손주들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50년의 세월이 희미한 늙은이의 기억 속에서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모두 어우러져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이런 남·북한이라는 구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나는 50년 전 통일의 그날. 얼기설기 엮어져 있던 철망들이 걷히고 그리워하던 서로의 나머지 조국의 흠을 밟던 그 때의 벅찬 느낌이란……。 다시 생각해 보아도 가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서로 같은 모습으로 반세기 동안 다른 생활을 해오며 분단의 아픔을 느꼈던 우리들이 하나된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너나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날의 감격은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각국의 매스컴에서는 우리의 통일 소식을 간판 뉴스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반도 통일을 겉으로는 축하하듯 떠들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우리 민족의 피맺힌 반세기를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다시 맺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리 생각한다는 사실이 분하고도 원통하였다. 그래서 더욱 '잘 살아 보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마음 하나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젊은 날의 나는 몰랐었다. 통일 이후 하루가 다르게 불어오는 세금은 통일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하였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어 가고 있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지만 원망스런 마음이 싹트고 있었으며, 서로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남한의 기술력, 경제력과 북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때 묻지 않은 자연 경관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고, 국민들 또한 모두 한 마음으로 한민족 특유의 단결력을 과시하며 힘든 세월을 잘 참아냈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인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리만의 영향력을 굳건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도 컸지만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의 나의 남편은 북쪽에서 살다 통일을 하여 수원에 새로운 터를 마련한 사람이다. 70이 넘는 나이에 이야기하려니 부끄럽지만 그 당시 우리는 남북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뛰어넘는 큰 사랑으로 결혼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커플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였다. 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부터 조미료 그리고 조리 방법까지 내가 익혀 온 많은 것들 대신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차이 역시 그와 나의 대화에 단절을 가져오곤 했다. 하지만 그이도 나도 열심히 노력하였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북한어 학원에 등록한 나와 우리 음식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 그로 인해 나는 1남 1녀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지금까지 잘 살아 올 수 있었다.

반세기 동안 떨어져 살던 우리 민족은 다시금 지내 온 시간만큼의 세월을 함

께 하며 서로에게 동화되었다. 지금의 우리에게겐 남과 북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어색하다. 그보다는 대한민국, 한민족이란 말이 더욱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
 겨져 있는 것이다. 예전 내가 다니던 북한어 학원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다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배울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통일국어 편찬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로 전
 해 들었다. 신혼초 나와 남편의 큰 문제였던 남·북한의 이질적인 언어가 이
 제는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아 간다는 소식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 나
 야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지만 나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두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왔기 때문이다. 우
 리 세대는 분단의 아픔과 헤어짐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 아이들에겐 안정된 삶
 의 터전을 물려주고 싶은 게 늙은이의 작은 욕심이다. 그저 흘러간 역사가 될
 지 모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날 위해 손주들이 준비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가물가물한 기억이
 지만 오랜만에 힘껏 불러보아야겠다.



할아버지와 통일 동산

고양 강선초 6 서민휘

지난 1월 초쯤이었나?

“통일 동산 가시려구요?”

두툼한 점퍼를 입고 어디론가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께 건네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통일 동산에 가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하시는 듯 체비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조용히 도와 드렸지만 영문도 모른 채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을 듯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강바람과 대적하며 통일 동산으로 가야 하는 나와 동생은 그런 할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늘 불평이던 내가 이제는 먼저 가자고 조르는 이유는 매해마다 할아버지를 통일 동산으로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구정, 증조할머니 댁을 방문했었던 때였다. 그 때 증조할머니께서는 노환으로 아들인 할아버지조차도 알아보시지 못하셨다. 그런데 그런 증조할머니께 할아버지는

“엄마, 그거 기억나요? 나 어렸을 때, 엄마 혼자서 나랑 동생들 데리고 아버지도 없이 막 남으로 내려 왔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다. 내 귓속을 울린 그 목소리에 난 할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에 있다는 것과 증조할아버지의 유골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해마다 통일 동산에 가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

해하지 못했던 나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으로 빌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 7차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지원조차 하실 수 없다. 북한에 가고 싶은 이유가 살아 계신 부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친척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 곳에 아버지의 유골이 북한 땅에 있고, 그곳에 할아버지의 고향이 있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할아버지는 지금처럼 통일 동산에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고향 땅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몇 주전에 다녀온 예기봉에서 북한 땅과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 사람을 보았다고 마치 U·F·O라도 발견한 듯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나에게 그곳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떤지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시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반세기 전에 한반도 허리에 검게 드리워진 철조망,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얽매어 두는 것인지 마치 악마의 머리카락 같은 그것이 원망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들 둘의 싸움이 남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이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것이 싫고, 이제는 없어져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할만한 시간인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인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아직도 그 자리를 꿰뚫어 지키고 있는 저 철조망도 싫다.

50년 전, 넉넉하고 따스하게 정을 나누며 살았을 우리 민족의 얼뎠 아우성과 혼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데 아직도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난 이것들이 슬프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이 추운 날씨에도 떨리어나마 고향 땅을 보시려고 집을 나서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다. 나와 할아버지의 작은 염원이 하늘 높이 올라 할아버지의 고향 사이를 가로 막고 서 있는 저 원수 같은 철조망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내년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통일 동산에 가고 싶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남양주 별내중 2 임소진

수학여행지로 처음 간 목적지가 통일 전망대였다. 통일 전망대에 여러 번 가보긴 했어도 직접 설명까지 들으면서 관람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전망대에 서니, 넓은 동해바다를 끼고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라는 송도가 보였다. 맑은 날에는 동해바다에 낚시하러 온 북한 어부들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눈앞에 보이면서도 갈 수가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했다.

제작년, 한참 '공동경비구역 JSA' 라는 영화로 사회가 술렁이고 있을 때, 나도 그 물결에 휩쓸려 친구네 집에서 함께 그 영화를 봤다. 그 영화에서 북쪽 병사와 남쪽 병사가 판문점 중앙에 그어져 있는 한 선을 가운데 두고 서서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종류의 선은 우리 집 바로 앞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선이었다. 북쪽 병사가 남쪽 병사에게 평양 말투로 말했다.

“야 그림자 넘어 왔어야”

남쪽 병사는 그림자를 열린 남쪽으로 끌어와 버린다. 어느 날 보초를 서던 두 병사는 서로 침 뱉는 장난을 시작하다가 급기야 경계선을 넘나드는 침 뱉기를 하면서 서로 키득거리며 친분을 쌓았다. 그 선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선도 아니다. 그 선을 누가 그어놓고 서로 못 넘어가게 한단 말인가? 북쪽 병사와 남쪽 병사 사이에 한 발짝을 남겨두고 그어진 선, 그 터무니없는 선이 같은 핏줄들을 50년씩이나 갈라놓은 휴전선이라는 것이다. 그 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는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엔,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통일에 대해서 영화를 본 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

던 크나 큰 감동을 받았다.

북한의 초소에서 두 병사가 서로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남한 병사가 울며 “그래, 결국은 우린 적이야”라며 총을 서로 겨누고 외칠 때 내 마음 한구석이 꿈틀거렸다. 마치 그 외침은 우리들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우린 애초에 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간섭으로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빠진 우리 민족, 꼭 서로가 갈라져야만 한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같은 조상의 자손으로 모두가 한 핏줄인 우리 민족이 서로 적이 되어 아직까지 이를 갈며 싸운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진작에 하나가 되어 서로 손잡고 나아가 선진국 사회에 우뚝 서야 한다.

세계는 달라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의 상징이던 러시아도 자유를 찾은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철조망을 세워놓고 자유의 길을 막아놓고 있는 것이다. 같은 민족끼리 언제까지 그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운데 세워 놓고 많은 국방비를 소비해 가며,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라는 노래는 과연 언제쯤이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 꿈에도 그리던 북한 땅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밟아볼 수 있게 되었고, 끊어진 녹슨 철도의 복구사업도 해가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에 치해 있어 실직자가 생기고, 생계 위기가 급박한 상황에서 서도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북한에게 끊임없이 식량을 보내왔다.

몇 년 전, 이 땅의 두 지도자가 만난 이후 우리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걸 기억한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부모 형제들이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상봉을 마치고 다시 남북으로 흩어질 때 그들은 또 한번의 헤어짐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들 뿐 아니라 TV 중계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 다 눈시울을 적셨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통일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새들도 마음껏 남북

을 오가는데 왜 오직 우리 민족만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 친지를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 민족만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문화를 이어왔다. 따라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성을 곳곳이 지켜 온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단 상태에서 민족끼리 계속 이를 갈며 서로 미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채 50년씩이나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정치, 문화, 경제,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더욱이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심어 왔으므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자꾸만 통일성을 잃어가기 전에 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통일이 꼭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에 대해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부터 자기 맡은 일을 하나하나 책임감 있게 해 나가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도 항상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소원하며 민간인 중심의 대화의 창을 많이 열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조금씩 불어 넣다보면 통일이 좀 더 앞당겨지진 않을까?

혹시나 통일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찾아 올 수 있진 않을까? 어쩌면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휴전선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휴전선의 철조망이 하루빨리 걷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통일을 소원하고 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

오늘도 나는 통일이 올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 오라' 라는 노래를 가슴 깊이 새기며 간절히 부르고 있다.

'통일이어 어서 오라' 고.....



우수상

한민족 한 핏줄

광주 남한고 1 황지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동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이제 얼마 후면 6·25전쟁 기념일이라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나 보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동생은 통일이 뭔지 알고나 그러는지 계속해서 콧노래를 부른다.

“너 통일이 뭔지는 알아?”

“북한친구랑 손잡고 노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한바탕 골려주었다. 아직 어리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생을 골려주는 것이 여간 재미있지 않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통일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다. 휴전선을 없애고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로 합쳐져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이 통일이라는 건 누구나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통일이 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어찌면 북한친구와 손잡고 노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는 동생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사실이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또래의 아이들과 심지어는 어른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저 낯설기만 하고 나오는 먼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 심할 경우에는 통일될 경우 나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서 통일하지 않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한참 전의 일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워낙 뜻 깊었던 일이다 보니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다. 2000년 5월 25일.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숙제하고 게임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TV를 켰다. 내가 오락프로그램을 보자고 아빠를 조르지만 오늘도 채널전쟁에서 아빠가 승리하셨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9시 뉴스를 보시는 아빠를 나는 심술이 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여러 일들을 차례로 보여주고 난 뒤 첫 소식을 알려 주었다.

“북한 학생 예술단 서울 방문”

북한 학생 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더니 아마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았다. 기사 내용은 꽤 흥미로웠다. 북한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짝짝막막하게 보여주었다. 눈, 코, 입 생김새는 모두 나와 똑같고 특별한 차이점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어린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사회를 보는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노래도 잘 불렀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았다. 그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나 되어서 투정이나 부리려고 하는 내가 창피하게 느껴졌다. 공연 준비로 고생한 탓에 잘 먹지도 못해서 몸은 빼빼 말라 있었지만 공연하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고 공연이 모두 끝난 뒤에 예술단 아이들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관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관중들을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장면이 나에게는 픽 감동적이어서 눈시울이 붉어지다가 끝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술단 아이들처럼 성숙하게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만큼 잘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힘겨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 그 짧은 기사 한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질 않지만 나에게서 커다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그 때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느낀 것도 많았다. 직접 가서 공연도 보고 예술단 아이들 손이라도 만져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그 날 내가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동포애였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예술단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고생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예술단 아이들이 북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에 살면서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좀 더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바로 동포애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아마도 내가 예술단 아이들이 북에 가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 통일이 되면, 꼭 통일이 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고 동포애라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뜻 깊은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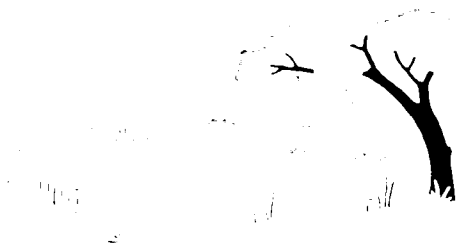
북한이 우리와 한 민족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북한을 한 민족 한 핏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북한을 돕고 입으로만 한 민족 한 핏줄을 외쳤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지난 날 동안 나는 북한에 대해 낯선 감정과 적개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이제야 한민족임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한민족 한 핏줄임을 깨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모두들 간절히 통일을 원하고 북한 주민들에게서 동포애를 느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국가에서도 햇볕정책으로 사료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소도 보내주는 등 많은 일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그런 손길들이 국민의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한낱 정책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민족 의식이다. 내가 예술단 공연을 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빠진 것

이다. TV에서 탈북자가 나오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낯선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생과 아무런 기약도 없이 남한 땅에 밭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것을 구경거리 난 듯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또 6·25사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원수라 부르기까지 한다. 6·25사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탈북자들이 했을 고생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나 자신도 조금만 느껴보려 한다면 그 때 느껴지는 그 따스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바로 동포애이고 한민족 의식이 아닐까. 그런 따스한 동포애와 직개심을 없애는 한민족 의식이 더해졌을 때 햇볕정책을 비롯한 여러 지원활동들이 정책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 이상 통일은 낯설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운명인 것이다. 그 통일을 앞당겨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북한을 남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로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민족 한 핏줄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통일은 우리 앞에 나타나 있을 것이다.



외교관 정남희씨

성남 탄천초 6 김기은

남희는 오늘도 어른들이 보는 매일신문을 펼쳐봅니다. 그리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찾고 싶은 기사가 나옵니다.

“외교관 김씨?”

남희는 짙막한 기사를 가위로 오려냅니다.

“남희야, 빨리 준비해. 학교 가야지!”

성격 급하신 남희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 지르십니다.

“아휴, 엄마. 줘 기다려봐!”

남희는 기사를 붙인 공책을 쑤셔 넣고 학교로 향합니다.

남희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남희의 부모님은 남희의 꿈을 그리 시원찮게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나 ‘큰 사람이 되려면 세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요즘 남희는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는데 맛을 들였습니다. 모두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남희는 ‘외교관이 되면 할 것들’에 새로운 목표를 넣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이지요. 며칠 전 남희는 텔레비전에서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보고 돈을 모아 북한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외교관이 되면 북한의 지도층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때르르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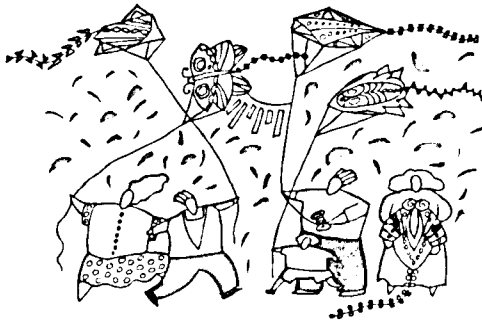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오늘은 불쌍한 북한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빵’을 나누어 주겠어요.”

사랑의 빵을 받아든 남희는 이 빵 가득 들 돈이 북한 어려운 아이들을 때
불리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희는 사랑의 빵 안에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 넣었습니다. 부
엿에 가서 사랑의 빵을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남희의 설득
으로 모아진 가족들의 동전이 사랑의 빵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남희는 책상
에 걸터앉아 눈을 감고 내 또래의 북한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상
상하고 속으로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장두홍 할아버지의 이력서

용인 수지중 3 장승우

성명: 장두홍
출생: 1910년 6월10일 (94세)
호적: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세선리
현주소: 경기도 광명시
학력: 소학교, 중학교
전직: 상업
월남: 1950년(41세) 한국전쟁 때
취미: 텔레비전을 통해 북한소식 듣기
소원: 가족 상봉 및 남북통일

장두홍 할아버지는 나의 증조할아버지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올해로 94세이고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왼팔과 왼쪽 다리를 못 쓰신다. 그런데도 증조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신다. 텔레비전 속에서 북한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다. 이때 증조할아버지의 눈은 유난히 빛이 난다.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리이다. 세선리는 함경북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산이 있는 평온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 작은 시골에도 영향을 미쳤다. 증조할아버지는 공산당이 싫어서 가족을 이끌고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증조할아버지의 동생은 그냥 세선리에 남

아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하셨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는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늘 동생을 걱정하시고 북한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한다. 편안한 한국에서 동생과 함께 지내지 못해 몸과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다. 난 동생이 한 달간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을 때 많이 그리웠는데….

증조할아버지의 이별은 너무나 길다. 동생을 그리워하는 증조할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할아버지께서 중국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 중국에서 할아버지는 작은 증조할아버지의 생사여부를 알아보려고 수소문하셨고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은 강제 이주 당했거나 숙청 당했을 것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소식에 증조할아버지는 더욱 상심하셔서 한동안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2000년 남북직접자회담 합의에 따라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이 교환되었으며 총 1170여명의 남북한 가족, 친척이 재회하였다. 5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얼싸안고 울고 웃는 장면을 보신 증조할아버지는 마치 자기 일처럼 같이 우셨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보셨다. 이때 증조할아버지도 다른 이산가족들처럼 통일부에 가족상봉 신청을 했으나 상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제3차 이산가족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2001년 3월 15일자로 생사·주소가 확인된 3백 명의 서신 교환도 이루어졌는데 증조할아버지는 실제로 동생에게 편지를 쓰셔서 통일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로부터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왔다. 이 때 증조할아버지의 팔에 이상이 왔다. 아마도 동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나 보다.

이후 6차 이산가족 상봉(2003.2.20~25)까지 많은 이산가족들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났으나 증조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지켜보시면서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증조할아버지는 편찮은 몸으로 금강산 여행을 하고 싶어 하셨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북한 땅을 밟아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서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요즘,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과 핵 관련 소식과 마약밀매로 무기를 구입한 소식, 북한 어선이 NLL 침범소식 등을 접할 때는 걱정을 하셨고 남북한 철도공사를 재개한다거나 쌀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증조할아버지는 기뻐하셨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만큼 북한소식에 의해 삶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기력이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꿈을 이뤄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준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알뜰지만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관용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세계의 시선이 북한에 몰려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제3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며 불안요소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따가운 세계의 시선을 감싸주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학생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면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장두홍 할아버지의 이력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함경북도 운성군 세선리에서 산과 물을 즐기며 미소짓는 그날로 증조할아버지의 이력서가 끝날 것이라 믿고 싶다.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 통일

부천여고 1 김혜경

중학교 때, 기다리던 소풍의 장소가 통일진망대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인지 나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 때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민족분단의 슬픔이라는 말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짧고도 긴 소풍을 끝마치고 난 후의 일이다.

아무리 저변에 다녀온 곳이라도 소풍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마력이 있는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지난 번 다녀온 추억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달려가면 손이 닿을 곳, 소리를 지르면 금방 대답을 해줄 것만 같고 총과 칼과 같은 단어는 슬쩍 비켜갈 것 같은 땅. 어렴풋한 기억의 샘에서 허우적거리다 이내 잠이 들고 말았다.

“우와, 혜경아 저기 봐. 여기서 저것 구경하고 가자.”

“무슨... 우리 저것 보고 가야지, 안 그래? 혜경아,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

역시나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친구들은 단지 이곳엔 소풍을 왔을 뿐이고 그 외의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친구들의 장단에 어울려 즐겁게 웃고 떠들며 돌아다니기에 바빴다. 그런데 그 때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뭘 그렇게 보냐고 하는 친구들이 이곳 저곳 내가 시선을 집중한 곳을 잡아내기 바쁠 때에도 나는 한 곳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저분은 우리 할머니만큼이나 세월을 겪어 보내셨을까? 그 할아버지를 그토록 오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그 이름 모를 할아버지께서 다른 사람

은 염두에 두지 않으신 채 망원경으로 갈 수 있지만 갈 수 없는 땅을 바라보시다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도 차츰 가던 길을 멈추고 서럽게 울고만 계시는 할아버지를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이리라.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숨겨두었던 슬픔을 들추어내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그것에 발길을 멈추고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꺾어보지는 않았지만 듣고 자란 기억에 의해 우리는 왜 보통 사람과 다른 바 없는 사람이 왜 우리와는 다른 심정으로 여기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위로해 줄줄은 안다. 하지만...

“어... 어서 가자. 우리 저기도 구경해야지.”

역시 친구들은 보통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친구들 손에 끌려가는 보통사람이란 집단의 일부일 뿐이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우리는 유리창 너머 뉴스에서만 볼 수 있던 한마디로 미지의 세계처럼만 느껴지던 곳을 새삼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굳이 친구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먼 행성의 끝자락에나 붙어 있을 줄 알았던 땅은, 우리의 눈앞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가까웠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옆어지면 코가 닿을 것 같은 땅, 그리고 너무 가깝지만 너무 멀고 갈 수 없는 땅..., 하늘에 둥둥 땅이 떠있어서 못 가는가 보다. 아니면 용암으로 덮여서 그런가? 그렇게 느꼈던 미지의 세계, 북한은 초등학교 소풍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방금 전 느끼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의 슬픔이 나에게 급절로 돌아오는 것인지 울컥하고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마음만으로는 이미 백번 천번 만번 달려가 서로 모든 것을 묻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의 아픈 마음이 단 한순간 햇살에 눈이 녹듯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고도 먼 곳은 철과 총과 보이지 않는 강한 벽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모이라고 한 시간이 다 되어 모였을 때, 그 때 한 일은 웃고 떠드는 것 대신 속으로 다시 한번, 서럽게 울만큼 그 동안 가슴이 아팠을 할아버지 일과 또 다

른 많은 가정들의 슬픔을 되새겨 보았던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처음 올 때 느낀 감정과 달라져 갈 내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 날은 내가 중학교 소풍을 간 날이었고 통일전망대를 다녀온 날이었고 민족분단의 아픔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본 날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동안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나와 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와 우리민족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다. 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아픔은 느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념 속에서도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을 통해 나 또한 울었고 아파하고 통일을 빌었다. 언제 오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나 애태우는지...,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곁에서 바라고 희망하고 갈망하는 단어가 되었다. 비록 내 할머니, 할아버지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이었을 분단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앞으로 있을 통일을 준비하고 이끌어내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외교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는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 희망을 걸어볼 생각이다. 한반도 호랑이의 허리를 두동강 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니와 혈육의 정을 때어놓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빨리 하나가 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강원도

- 한마리의 새가 되어 / 223
- 동생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 / 226
- 큰 덕 갔던 날 / 229
- 노루의 비명 / 232
- 마음까지 하나되어 / 234
-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 238
- 내 작은 소망 / 241
- 통일은 멀지 않았다 / 243
- 통일, 우리 민족의 영원한 소원 / 246

한 마리의 새가 되어

고성 명파초 6 최해순

우리 마을 명파리는 금강산이 보이는 마을입니다.

요즘도 많은 수학여행버스와 관광버스가 우리 마을에 있는 금강산 통일 전망대를 찾아오고 갑니다.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금강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먼 길을 애써서 찾아 왔는데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을 지나 바로 금강산까지 가는 기차 길을 닦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흐리거나 비오는 날에도 가까이에서 금강산을 보고 금강산의 산새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와 기러기 까마귀 떼들을 보면서 나도 새가 되어 저 곳을 가보았으면 하는 상상도 해 보았지만, 이제는 동해의 푸른 파도와 아름다운 산자락이 어울려 빛어낸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을 가로 질러 기차가 힘차게 달리며 남과 북을 오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옵니다.

이렇게 금강산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이제 우리 모두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은 2002 월드컵과 같은 오 필승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힘을 모은다면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거저 얻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의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북한에 사는 우리 민족들을 다르게 보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가짐에서 그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북한 사람들은…”이란 말로 시작해서 신기한 듯 말을 하곤 합니다. 단지 다른 건 말투와 사는 모습뿐인데 우리는 마치 외국인을 본 듯 신기해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면서 실제 마음으로는 우리의 민족이란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단지 신기하게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북한의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몇 안 되는 공산주의 체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눈에는 조금은 불쌍하고 이해가 안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나라가 신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욕한다면 우린 당연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북한의 문화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그 문화에 대해 비난하거나 욕설을 한다면 그건 내 자신을 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장점을 찾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 식의 잣대로 보아 무시하게 된다면 통일의 꿈은 물론 더욱 사이가 나빠져 또 다른 분상사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작은 것들부터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몇 십 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서로 다른 말투와 말을 쓰다보니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따라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북한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며 웃고 즐기지만 만약 북한의 동포들이 그걸 본다 해도 웃고 즐거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며 비웃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이유 없이 우린 웃고 즐기기 위한 거지만 이제는 북한의 말을 이해하도록 노력 하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당장은 손해 보는 것이 많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남한에선 북한을 도와줘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해도 서로 돕는다면 더욱 큰 이익이 우리들에게 돌아 올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훗날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나라, 평화가 꽃피고, 이산의 슬픔이 없는 땅, 그것은 바로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월드컵의 신화를 만들어 냈듯이 통일도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어깨동무 하며 함께 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명파리는 금강산이 보입니다.

금강산으로 소풍을 갑니다. 해당화 핀 모래사장을 지나 선녀와 나무꾼이 살고 있는 금강산으로 나는 소풍가는 꿈을 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노력하면 통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생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

원주중 2 최승환

체육시간에 배운 것이 실력의 전부랄 수 있지만 은근히 나의 실력을 과시할 겸 새로 산 라켓으로 동생과 배드민턴을 친 일요일 아침, 동생에게 못 친다고 투덜대며 몇 번 라켓을 휘두르고는 팽개치고 말았다. 나의 상대가 되어 받아치기 편하게 넘겨주려고 애쓰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침묵만이 감도는 서먹한 분위기 탓에 이리저리 방황하다 텔레비전을 켜고 신문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평소 아침이면 3종류의 신문을 탐독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학생이 되면서 스포츠와 오락관련 기사를 꼭 읽고 현관문을 나서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지각을 염려하시는 엄마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리고 신문을 읽던 나는 9.11테러 기사와 빈라덴이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서 전쟁과 국제문제와 남·북 관계 기사에 흠뻑 빠져 요즘에는 신문기사를 놓고 아빠와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하는 등 우리나라 통일 안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의 이라크 전쟁이후 온 국민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북한 핵문제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경제 협력, 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 집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큰소리치는 나는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분단의 역사와 유월의 아픔을 느끼며 통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뉴스를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평화와 통

일에 보탬이 된다면 올림픽정신에 걸맞게 우리나라 평창으로 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는 스크랩하는 가위질과 마음이 바빠졌다.

동생과 함께 친 배드민턴이 생각대로 되질 않아서 서먹하고 속상했던 것이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남과 북의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람 부는 놀이터라는 주변 환경과 능숙하지 못한 나의 실력도 문제지만 동생을 배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 나의 부족함을 뉘우치는 게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도 서로를 배려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운데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키워가야 진 세계에 향기를 전하는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아빠가 나에게 바람을 헤치며 부드러운 셔틀콧을 보내듯이 주변의 거센 저항과 이기적인 주장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열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건강한 청소년의 본분을 깨닫고 정직한 땀을 흘리며 생활할 것을 다짐 해본다. 셔틀콧을 잘 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날아가는 단순한 놀이기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라켓을 세게만 휘두르면 셔틀콧은 화가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 천방지축인 셔틀콧과 내가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셔틀콧을 맘 내키는 대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1년 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의 함성이 지구촌 구석구석 메아리치게 했다. 이방인들의 시선 속에서 한마음이 된 우리는 꿈을 이루어 냈다. 운동경기에서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한반도기를 흔들다가도 갑자기 전쟁분위기의 기사를 접할 때가 있다. 금강산 관광을 잘 다녀오고, 철도를 연결하자고 잠긴 분단의 철조망을 속 시원하게 열어놓다가도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하는 북한의 속마음을 어린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진실을 숨기고 정직하지 못한 언행으로 신의를 저버리는 북한의 숨겨진 속셈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손에는 총을, 백두산 으스스한 숲 속에는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를 숨겨 한라산을 겨누고 있다.

지난날 우리 금수강산을 지키고 한줌의 재가 되어 말없이 세워져 있는 국립

묘지의 비문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징검다리를 건너듯 조심스럽게 북한에 다가서야 한다. 가볍고 불뾰없어 보이는 셔틀콕을 다루는 데도 나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만 했다. 힘들게 뛰어다닐 용기가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평화와 통일의 희망만큼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막대한 골목에 몰린 북한을 똑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평화로운 운동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울려 퍼지는 통일 열차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기술과 힘을 준비하고 키워야 할 것이다. 6·25의 비극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려는 안 된다.

현충일에는 온 가족이 대전 국립묘지를 참배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돌아오는 길에는 분단의 반세기를 이어온 슬픈 역사의 비문이 지워지도록 철조망 없는 푸른 하늘을 향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하나뿐인 귀여운 여동생 승연이와 다시 셔틀콕 날릴 생각이다. 창공을 가로지르는 하얗고 부드러운 셔틀콕의 몸짓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의 밝은 미래이길 기도해 본다.

“셔틀콕아! 높이 날아라. 통일열차 달릴 그 날까지…….”



큰댁 갔던 날

북원여고 2 남현우

지난 가을 큰아버지 댁에 놀러갔다. 큰아버지께서는 워낙 산을 좋아하셔서 우리가 큰댁에 가는 날이면 언제나 좋은 산이나 강으로 데려가 주시고는 하셨다. 그 날도 어김없이 큰아버지께서는 다래를 따러 가자고 하셨고, 우리는 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상쾌한 바람과 스치가는 풍경이 나의 현실 속 답답함을 잊게 해주는 듯 했다. 이윽고 도착한 산은 정말 아름다웠다. 단풍이 울긋불긋 수를 놓고, 자연은 마치 우리의 자리가 원래 자연 속, 바로 이곳이었다고 말해주는 듯 했다. 우리는 어느새 두 명씩 한 조를 이루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어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이곳 저곳을 둘러보시며 단풍 구경하시고, 큰아버지와 나는 다래를 찾으러, 아버지와 내 동생은 도토리를 주으러 갔다. 큰아버지와 나는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다래는 찾을 수 없었다. 내가 풀이 죽어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는 다래가 많이 있을까요? 다래뿐만 아니라 온갖 희귀한 식물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큰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현우야, 너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야 한 핏줄이니깐 통일이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꼭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큰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니?”

“약간은 그래요.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요. 가까운 예로 독일

의 통일을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융화되어 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해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심지어는 다시 분권을 노린다는 설까지 들린다고 해요.”

통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솔직한 나의 답변은 그랬다. 단지 영토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이 시간을 조금 늦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통일을 아무런 대책 없이 미루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그 날까지 미루자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은 북한을 돕는데 매년 쓰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누가 세금을 낼까? 우리 또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지할 수 없어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질 수도 없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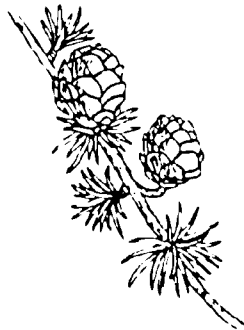
“그래, 단기간의 통일을 생각하고 물어 본 것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너는 통일의 필요성까지 호리케 보고 있는 것 같구나.”

큰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셨다.

“너의 말대로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문화교류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해 그렇지,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선은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단다. 큰 아빠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민방위 훈련이다, 반공 교육이다 해서 얼마나 북한을 적대시 해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한 핏줄로 생각하여 쌀을 보내잖아. 또한 너의 말대로 경제적인 혼란도 크겠지. 그렇지만 통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단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과의 중간지역으로서, 무역이 더욱 발달하겠지. 또한 영토도 넓어질 거야. 물론 북한의 영토까지 하나의 나라로써 보고 넓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만주지역까지 우리의 세력이 더욱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만주지역에 우리 조선족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다는 거 알지? 만일 우리가 통일이 되어 그들을 끌어안는다면 비록 중국의 영토라고 하나 그 구성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영토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지. 어때? 이래도 통일이 손해 보는 것일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좁은 식견과 편협한 생각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것으로 아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통일에 대해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 반의 피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가슴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머리로 하는 통일도 필요하다. 물론 정신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통일을 경제적인 부담과 혼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를 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실질적인 이득과 손해를 따져 본 다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몇 년간은 힘들겠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노루의 비명

철원 동송초 6 서혜수

지난 토요일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에서 30분 정도를 달리니 이름 모를 꽃의 향기가 진하게 퍼지고 이리 저리 휘어진 오래된 나무들의 무성한 숲이 펼쳐진 원시림이 있었다.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다.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곳이 왜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개발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꽃의 향기가 너무 신비롭게 피어 올라 아빠에게 조르기 시작하였다.

“아빠, 우리 내려서 저 숲에 들어가 봐요. 꽃의 향기를 가까이에서 맡고 싶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셨다.

“아빠! 왜 그냥 지나치세요? 잠깐 내려서 꽃의 향기 좀 느끼고 가요.”

동생과 내가 다시 조르자 차를 세우시고 창문을 여시더니 표지판을 가리키셨다.

“저 곳을 보거라”

칠조망 울타리에는 삼각형 철판에 빨간 글씨로 ‘지뢰’ 라고 쓰여져 있었다.

“아빠, 지뢰가 뭐예요?”

라는 나의 물음에 아버지께서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폭탄이란단다. 참...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저런 자연을 구경이나 해보지..., 요즘 환경이 나빠져서 저런 곳이 어디 있나. 통일이 와야 할 텐데..... 후, 나도 너희들에게 손상되지 않은 자연을 구경시켜 주고 싶단다.”

지뢰. 아빠가 말씀하신 것은 밟으면 평하고 터지는 폭탄. 파랗파랗 돌아나는

산나물 뜯던 할머니들의 다리가 잘려 나가고, 트랙터로 논을 밀던 농부 아저씨가 기계와 함께 산산조각나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그 지뢰말인가!

며칠 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뛰놀던 노루 한 마리가 지뢰를 밟아 공중 분해되는 현장을 목격한 군인 아저씨의 처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너무 무서웠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노루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 대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노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쌍함에 눈물이 흘러 내렸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농부 아저씨들이 그리고 노루가 처참히 희생되는 지뢰밭. 우리의 땅인데 이런 무서운 폭탄이 왜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지뢰밭이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라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말인가!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단 말인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저 칠조망을 걷어 내고 지뢰가 없는 자연의 숲 속을 걷고 싶다. 싱그러운 이 향기의 주인을 찾아 뛰어 다니고 싶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합성을 지르며 뛰어 보고 싶다.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다.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도 함께 가보고 싶다.

나는 오늘 백마고지에 올라 꿈을 세웠다.

백마고지 앞에 펼쳐진 저 넓은 빈 땅을 우리 남·북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야생의 동물들과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자연 학습장을 만들겠다고 말이다. 또 이 휴전선을 개발하여 남북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여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고, 모든 이들에게 여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음까지 하나 되어

대담중 3 최은애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다. 나는 창문을 열다말고 우두커니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아직도 작년의 월드컵과 재작년에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기억이 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산가족 상봉……, 나는 정말 그 방송을 감명 깊게 보았다. 남과 북이 서로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어언 50년 동안을 떨어져 살아 온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동시에 헤어짐의 안타깝고 가슴 찡한 사연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었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얼른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들을 단 며칠이 아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텐데……, 그들은 한 가족인데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힘들었던 일제의 암흑시대에서 벗어나 겨우 다시 빛을 찾은 지 5년 후, 6·25전쟁은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할아버지 댁에 가면 가끔씩 6·25전쟁 이야기를 들곤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직접 전쟁을 겪으셔서 전쟁의 처절함과 고통,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생동감 있게 이야기 해 주신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쟁의 아픔은 잊어야 한다. 이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때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 이 관광은 우리민족이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얻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작년에 우리학교에서도 금강산에 다녀왔다. 나는 솔직히 금강산에 간다고 할 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에 탔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가 없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지는 것 같

다. 같은 민족인데, 그냥 집 뒷산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편하게 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떨었는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부터 몇 년 전에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뜨겁게 두 손을 맞잡던 그 순간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후로 1년, 경의선 복구공사가 시작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남북의 정상들의 만남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통일 쪽으로 바꿔놓게 되었으며, 이렇게 점점 통일의 문턱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통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전선이 갈라놓은 남한, 북한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땅덩어리만 하나가 된다면 그걸 바로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말로는 통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땅덩어리는 하나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남과 북으로 편을 나누어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통일이란 땅덩어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마음까지 하나 되는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변하며, 어떤 일들이 생길까?

우선 이산가족이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힘들게 50년 동안 떨어져 살던 분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아주 먼 친척이신 큰 엄마께서도 전쟁때 북한을 가게 되셨다고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얘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댁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도 원래 고향이 북한이라고 하신다. 난 그 얘길 듣고 항상 다정다감 하신 그 할아버지에 대해 아주 조금이지만 경계심이라고나 할까 그런게 생기는 건 왜일까? 그 할아버지께서도 고향이 그렇고 무척 가고 싶으실 것이다. 이렇게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만나서 그동안 못한 것도 하고 참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경계가 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될 것이다.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여럿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해야 어떤 일이든지

잡된다. 북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선진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또, 북한 학생들과도 사귄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우리학교에서는 도·농간 교류학습을 했다. 그것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시골에 있는 학생들끼리 그 집에 찾아가서 놀고 공부하면서 서로가 체험하지 못했던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것을 하면서 문득 생각난 것인데... 북한 학생들과 남한 학생들과의 교류학습도 괜찮을 듯싶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북한학생들과 정이 더 들고, 생활도 어떤지 더 빨리 알게 되고 좋을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북한학생과 손잡고 뛰놀고 싶다는 말을 항상 하곤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꼭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요즘 부쩍 '정말 전쟁이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한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생겼다고나 할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통일만 된다면 이런 걱정은 없어질 것이다.

정말로 통일이 된다면 내가 생각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평화적 통일이 되기를 꼭 바라야한다. 나는 솔직히 몇 년 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일이 된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잠자고 이러는 생활이 피부에 닿을 만큼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꼭 통일을 해야 한다. 이 지구상에 한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앞에서 생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이같은 개개인의 상상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수천의 노력과 끈기로 실현되는 것이다. 바늘과 실은 떨어져서 재 구실을 하지 못하듯이 남한 없이 북한이 북한없이 남한이 최강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한겨레, 한민족인데 왜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학생이기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즉,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이제 사라졌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다.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영월고 1 김빛나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며 부딪기며 살고 있는 이곳을 좋아한다. 이곳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함을 받았던 민족의 나라이다. 자연의 혜택을 받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민족에 대한 단결심이 어떠한 민족들 보다는 뛰어나다. 분명 이 곳 사람들 하나 하나는 애국자 일 것이다. 땅은 작지만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나라인가?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이다. 1945년부터 북위 38도선을 기준하여 남북으로 분열 된 후 1950년의 6·25전쟁과 같은 극단적 분쟁의 위기가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예전에는 같은 처지의 독일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곧 서독과 동독의 이해와 협력으로 그들 간의 얽은 가로막고 있던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지금 이곳에선 통일에 대해 '독일이 했던 통일을 우리가 못할 소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되었을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 후 독일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우리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속에서 사라 질 수도 있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얼굴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 결혼 후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

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 하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티격태격할 시간에 둘은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티격태격할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은 티격태격 하기에 그동안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썼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이 알게 된다면 통일 후에 분쟁은 사라질 것이고 좀더 발전되고 진보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편견이라는 렌즈를 빼야한다. 어린이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은 편견이라는 렌즈를 모두 끼고 있다. 한 죄수가 있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하지만 힘든 감옥생활 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죄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멀리 했다. 그는 외톨이가 되었고 곧 세상에 화가 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 그는 마켓에 들어가 자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던 주인을 끌어내어 죽이고 싶었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한 어린아이가 손에 막대 사탕을 쥐어 주며 “아저씨 배고파?” 라고 하는 것이다. 그 죄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북한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을까? 그들을 편견이라는 렌즈를 낀 상태에서 멀리하고 과거를 들춰내서 상처를 준다면 통일이 가까워질까? 더군다나 우리는 남남이 아닌데 남남처럼 상처를 주어야 할까? 편견이라는 렌즈를 빼기가 힘든 일인 줄은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 편견을 준 것이 북한 진체인지 아니면 북한의 소수 사람들인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편견을 하나하나 빼버린다면 통일 후에는 모두 같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한다. 통일이 된다면 독일이 겪었던 시련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 서독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저조한 동독과 통일 후 생긴 많은 시련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이다. 시련들

을 극복해 나아간다면 독일은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나누어진 것들을 모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것들을 똑같이 되게 하거나 다양한 여러 요소를 서로 관련지어 떨어질 수 없게 함이란 뜻으로 쓰인다. 통일을 한다면 조국통일, 의견과 행동의 통일, 말과 실천의 통일을 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난 통일을 좀 다르게 생각한다. 통일이라는 뜻이 무엇이건 그건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단이란 것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 아픔을 씻어 주는 것이야말로 통일이 아닐까? 국가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부국강병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 위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통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단의 아픔을 언제나 느끼고 있는가? 분명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 배울 때나 통일에 대한 어떠한 것을 듣거나 볼 때만이 느낄 뿐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이면 통일에 대한 것들을 잊게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해 가장 필요한 준비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한다.

내 작은 소망

영월 문곡초 6 김준호

“준호야, 잘 다녀오너라.”

담임선생님의 배웅을 받고 영월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교육청 마당에는 벌써 다른 학교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절 버스를 타고 철원으로 떠났습니다.

“야! 신난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 그 아이처럼 소리만 내지 않았을 뿐 무척 신이 났습니다.

철원으로 가는 길에 살펴 본 우리 강원도의 산과 들, 강이 픽 아름다웠습니다. 중학생 20명과 초등학교 20명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은 2박 3일 예정으로 통일수련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다.

어느덧 철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통일수련원은 빨간 벽돌 2층집으로 웅장하였습니다. 아카시아 꽃 냄새가 코끝을 향기롭게 자극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열명이 방 하나를 배정받고 들어갔습니다. 짐심을 먹고 우리는 철의 삼각 전적관과 멸공OP, 끊어진 철길, 금강산 90km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나는 멸공 OP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 땅엔 마을은 보이지 않고 푸른 나무로 덮인 산만 보였습니다. 녹음이 짙은 산은 말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없이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국군아저씨를 보니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준상아, 저 곳이 북한 땅이래.”

“준호야, 북한의 산도 우리나라 산과 똑같구나.”

군인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시며,

‘야, 이 녀석들이…, 앞으로 군대 갈 녀석들이 그것도 몰랐어?’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나이는 군대에 가야 돼. 내 동생 군대에 다녀오더니 진짜 사나이가 되었었지.”

그래서인지 내 생각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말입니다.

피곤한 몸을 눕히고 잠을 청한 이튿날 다음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철원수련원을 떠나 제2땅굴, 철의 삼각 전망대, 병영체험, 월정역, 샘뚝 및 칠새도래지, 망배단, 구철원시가지, 백마고지 전직지, 노동당사 등을 끝고루 둘러보았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

생각하니 나도 몰래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 이신데, 올 추석에 보면 백마고지에 다녀왔다고 자랑할 각오입니다.

이번 철원 통일교육 수련원에 다녀와서 나는 몸과 마음이 부쩍 컸습니다. 특히 캄캄한 땅굴 속에서 우리나라의 캄캄했던 80년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2000년대에는 우리가 남과 북을 하나로 엮어 통일의 빛나는 새 역사를 열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도움을 받지 않고 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위 구절을 옮기는 내 머리위로 청년이 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손에 손 잡고 노래하는 모습이 상상의 날개되어 떠올랐습니다.

통일은 멀지 않았다

치악중 2 장해인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지도에 3·8선이 생긴지가 50년이 넘었다. 늘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도 가끔씩 할아버지의 고향 얘기를 들을 때면 북한에 대해 생각하곤 하였다.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시고 가족을 등지면서 남쪽으로 넘어오신 할아버지. 며칠 전에도 50년 전에 다치신 다리로 병원을 다녀가신 그 분을 뵈고, 이번 도덕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 남한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던 많은 노력들과 사건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을 논할 때면 베를린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독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서로의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문화까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굳은 의지만으로 뭉쳐 끝내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 독일의 통일 소식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스스로의 민족적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처음 통일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사실 나는 통일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깨질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어떤 회장님이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간 것도 그렇고, 쌀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도 속이 상했다. 왜 우리나라는 민족 스스로 통일을 이루지 못할까?

그러는 가운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 문제로 미국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통일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통일이 이루어지면 생기게 되는 이득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이산가족'이 없어질 것이다. 얼마 전까지 꾸준히 실시되고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6·25전쟁

으로 분단된 아픔은, 국토로 손실된 아픔도 크지만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아픔은 실로 말할 수 없다. 통일이 된다면 이산가족들이 모두 활짝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둘째,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 들어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전쟁의 여부가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전쟁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이 올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보다야 둘이 낫지 않겠는가? 통일이 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방해로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얹잡아보고 간섭을 심하게 했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간섭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신문의 칼럼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정신을 정리 할 수 있었다.

첫째, 도와주며 지내자.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식량을 보내주고 웃도 많이 보내주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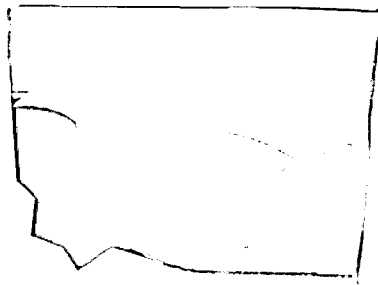
둘째,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자.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를 하고 서로 좋게 지낸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지금 취재진들에게는 제대로 여행허가, 취재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믿음을 가져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자.

셋째, 마음의 벽을 허물자. 북한을 좋게 생각한다고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편견과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남아 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북한의 문화를 좋게 생각하자.

너무 막연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나부터 이런 자세로 통일에 대한 자세를 바

꿔야겠다고 다짐했다. 얼마 전 수학여행에서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다녀왔다.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북한 땅을 저 만치서 바라만 보며 안내원 언니의 설명만 듣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웠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분단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 우선, 금강산을 제한 없이 남한에 있는 여느 산처럼 자유롭게 등반해보고 싶다. 그리고 중국의 땅을 건너서 백두산을 가기보다는 북한의 땅을 밟고 백두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 또 북한에 있는 유적지들과 말로만 들었던 여러 명승지들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싶고 정말 춥다던 중간진의 차가움도 한 번 직접 느껴보고 싶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통일은 그다지 먼 곳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충분히 근래에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통일에 한 발자국씩 다가서기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 본다.



통일, 우리민족의 영원한 소원

경포고 2 정희연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제일 큰 화제거리로 북한의 핵 문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에 관한 도발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났다. 그 전쟁 후, 남은 것이라곤 오로지 부서지고 파괴된 건물과 상처받은 아이들뿐이었다. 미국은 갖은 사탕발림으로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이 전쟁은 미국의 무서운 탐욕이 일으킨 결과라고 난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뉴스로 보면서 난 몸서리를 쳤고,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6·25……, 그 무섭고도 잔인했던 민족상잔의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바보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요새 북한은 정말 핵무기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지 미국을 도발하기 위해서인지 자꾸 핵문제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엄연히 도발이다.

북한과 미국 아니, 미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결과는 분하고 슬프게도 미국의 완승이 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것이 힘없는 약소국의 비애이다.

이런 실정인 지금, 북한은 과연 미국과 핵 문제로 분쟁을 벌일 여유가 있겠는가? 그럴 시간에 우리 두 나라, 남과 북이 합쳐지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통일을 바라는 세대보다 통일을 반대하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한 팔로 물건을 드는 것이 더 힘이 들 것인가. 양 팔로 힘을 모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더 힘이 들 것인가? 비록 잠깐 그 팔 한쪽이 잘려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잘려나간 팔 한 쪽을 붙이려면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해도 결국엔 한 몸이었기에, 결국은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이어 붙여야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작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라도 통일을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 25일 그 날이 다가온다. 그 끔찍한 전쟁이 왜 일어났었는가?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감히 힘을 합치고 서로 손을 잡아도 모자랐었던 그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이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갈라져 싸웠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니었던가?

벌써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50년이 훨씬 넘었다.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많이 이진화 되어버렸다. 언어, 전통, 가치관……, 그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 이대로 또 다시 몇 십년이 지나 외국인이 우리 한반도를 본다면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 '외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이진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슬프고 참담한 현실이다.

아직 내 나이 18세. 만으로 17년 밖에 살진 못한 나이지만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만큼의 나이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일지라도 난 여기서 우직해지고 싶다.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에 이미 일본, 우리가 '왜'라 부르며 무시하고 야만족이라며 경멸해 있던 일본에게 큰 치욕을 겪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것만 옳다 생각하고 내 나라, 내 문화, 내 것…, 무조건 내 것만 옳다 생각하였기에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늦어버렸고 그 결과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겐 적어도 기회가 있었다. 다른 나라,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흡수하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

회를, 그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우리 발로 차 버리고 우리 스스로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가?

우리 민족은 원래 예로부터 한 민족이었고 자랑스러운, 누구보다 소박하고 착했지만 반면에 그만큼 강한 나라였다. 우리나라가 왜 이리 되었는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 위대한 단군의 자손이라 불리었던 우리 민족이 왜 이리 되었는가?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일단, 우린 다시 합쳐져야 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친철히 반쪽으로 동강난 우리의 몸을 다시 이어야 한다. 끈끈한 우리의 피로, 질기고 강한 우리의 힘줄로, 바위보다 단단한 우리의 근육으로, 우리의 반쪽 난 몸을, 우리의 허리를 다시 이어 붙여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의 동강난 허리를 다시 붙여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다시 그 옛날의 찬란했던 문명을 되살릴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 그 힘겨운 가시밭을 우리가 먼저 내딛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에게는 오늘날의 이 굴욕과 패배감을 맛보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봐라, 우리는 한때 일본의 속국이었고, 한때 미국의 그늘아래 가려 힘 없이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를 봐라.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난 역사시간이 제일 싫다. 언제나 우리나라의 약함을 보아야 하고 우리 민족의 어리석음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나라 남·북한이 다시 합쳐진다면 우리는 분명, 몇 십 년, 몇 백 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신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힘은, 우리 민족의 힘은 크고 강하기 때문이다.

통일……, 그 달콤하고도 아픈 그 단어……. 하루빨리 우리가 합쳐져 통일이란 그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 날이 오길 난 간절히 바란다.

● 충청북도

-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 251
-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들 / 253
- 남한에서 온 놀새 떼입니다 / 256
- 한 발자국만 / 259
- 내 어린 날의 꿈 / 261
- 뫼비우스의 띠 / 263
- 손을 뺐으면 잡힐것 같은데 / 266
- 마음으로 이루는 통일 / 268
- 만약에 내가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 270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석교초 5 박의준

우리는 해마다 6월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선생님께서 6·25를 맞이하여 통일을 염원하시며 가르쳐 주신 노래이기에 열심히 크게 따라하는 불렀지만 4학년 때까지 노래의 가사를 의미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작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몇 십 년만에 헤어진 부모와 형제 그리고 부부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몇 십 년만에 만나서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그 어떤 슬픈 드라마나 책보다도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평소 잘 읊지 않는 나였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분들께서는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그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늘 통일을 꿈꿔오셨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TV 프로그램은 나에게 있어서 평소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쳤던 통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와 북한은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통일을 못하는 것일까? 독일도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어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왜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북한과 우리 나라는 정치체제가 달라서 서로 마찰되는 것이 많아 통일이 쉽게 되지 않고 있으며 또 통일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

는데 아직 통일을 해서 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 나라는 50년 이상이나 떨어져 지내왔기에 북한과 남한의 문화는 서로 차이가 있어서 다른 문화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면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내려면 통일은 아직 이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통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작년에 온 국민이 땀땀 뭉쳐 멋지게 월드컵을 해냈듯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어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여 한민족이 둘로 나뉘어 살고 있는 우리 나라와 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산가족, 비록 지금 일부의 이산가족만 남북회담의 성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헤어져 사는 아픔을 가진 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은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훌륭한 기술력으로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활용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금강산과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멋진 관광코스를 선보여 외국사람들이 휴양장소로 이용함으로써 많은 외화도 벌 수 있고 또 스포츠나 문화활동 등의 국제무대에서도 서로 협동하여 더욱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민족은 더욱 발전해 나감으로써 통일 국가로서의 성공을 보여줄 것이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뿌듯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다.

‘나누어진 것을 모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우리민족의 50년간의 제일 큰 과제, 통일은 온 국민이 땀땀 뭉쳐 조금 더 노력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한다면 우리 나라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의 꿈을 이루었듯이 통일의 꿈☆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들

안내중 1 김수연

2주일전 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은 법교과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나누어 주시면서 여섯 장으로 잘라서 그 종이에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한 명씩 써넣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종이에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차례대로 써넣었다. 여섯 장으로 자른 종이에 차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한 장에는 아빠, 또 한 장에는 엄마, 그리고 언니, 동생들이 나의 종이를 채웠다.

그리고 난 후 선생님께서는 자신과 종이에 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배에 탔다고 생각하고서 배가 침몰하려고 하여 한 명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중 한 명을 버려야 하다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버리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내 머리 속에서 수 없이 맴돌았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버려야 된다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나는 언니를 버렸다.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언니를 버리고 난 후 선생님께서는 또 한 명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한 명씩 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엄마였다. 만약에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엄마랑 내가 배에 있는데 배가 침몰해서 또 한 명을 버려야한다면 우리가죽을 위해 힘들게 고생하신 엄마를 살리고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엄마는 나에게 없어서 안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종이에

자신들의 가족이 먼저 쓰여져 있었다. 누구하나 가족이 빠져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 이렇듯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족이 먼저 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보라. 남과 북으로 갈라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슬픔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을 말이다.

나는 항상 가족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산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된 일이 생겼다. 언니가 우리 충북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게 되어 그 때문에 청주로 합숙훈련을 하러 간 것이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 달이라는 걸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동안 언니가 막상 합숙훈련을 떠나고 없으니까 보고싶고,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이 머릿속에서 차례차례 지나쳐갔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다. 이처럼 한 달이란 시간도 길게만 느껴지는데 무려 50년이란 긴 세월을 소중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소식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초등학교 때 내가 다닌 초등학교가 통일교육시범 학교라서 판문점으로 견학을 간 적이 있다. 판문점을 경계로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가슴에 총을 겨누고 살아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까지 하였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 며칠 전에는 숙제 때문에 신문을 보고 있는데 '남과 북의 아리랑 한자리에'란 제목의 기사가 내 눈에 들어왔다. 신나라 레코드는 올해 정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음반으로 남과 북의 아리랑 총 15곡을 담은 '남북 아리랑의 진실'을 최근 출시했다고 한다. 남과 북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전 50주년인 올해 이 음반의 의미가 더욱 클 것 같다. 이 음반에는 북핵 위기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과 북의 교류도 많아지고 이산가족상봉도 많아지는 걸 보면 남과 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통일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될 관문이 많아서 아직 그 관문을 못 통과한 것일 뿐, 통일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모두 없어선 안될 소중한 사람들이다. 한민족 한 핏줄로서
지난 시간 분단의 아픔을 빨리 지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자. 통일은 반
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남한에서 온 놀새 떼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노력-

한국교원대부설고 1 이다혜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렸던 특별공연에서의 감동의 무대를 나는 잊을 수 없다. 평양 특별공연은 남한 가수들의 합동 공연으로 펼쳐졌는데, 공연의 후반부 자신들을 ‘놀새 떼’라고 소개한 윤도현 밴드의 공연 모습은 내게 우리민족의 끈끈한 정과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이날 윤도현은 끝 곡으로 민요 ‘아리랑’을 부르던 도중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노래대신 눈물을 쏟아내는 윤도현에게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그후에 신문에서 그의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아리랑을 부르다가 애잔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아마도 그 할머니의 눈빛은 손자 같지만 한 남한 청년에 대한 따뜻함과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아파 해야하는 현실에 대한 서러움이 더해졌을 것이다.

내 주위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거나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난 평소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또 절실히 느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공연에서 강인하고 강렬해 보이기만 했던 록 가수가 흘린 눈물은 너무나 순수했고, 내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민족이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이로운 점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원대한 목표이자 소원인 통일이 된 후의 모습들을 말이다.

우리 아버지는 등산을 참 좋아하신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우리 나라의

산중에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한다.

“백두대간을 따라 북한에 있는 산들을 등정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찾아올까?”

하고 말이다.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은 오래 진부더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인 동시에 우리민족의 기반이 되어왔다. 남북이 하나가 될 미래에는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 있는 산에 올라 텐트도 치고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오순도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지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순간이 될 것 같다.

어느덧 진달래가 만발하는 4월이 되었다. 학교 뒷동산에도, 우리 집 마당에도 화사하게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바라보다가 김소월 님의 시 ‘진달래꽃’이 떠올랐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김소월 님의 고향은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약산은 평안북도에 위치한 산인데 봄철에는 진달래꽃이, 가을철에는 단풍이 화려하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면 약산의 진달래꽃도 구경하고 싶고, 김소월 님의 고향 땅도 밟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 화려한 자연광경을 외국에 알릴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별로 특별한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 외국과 달리 반 애국적 행위로 보여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지금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이라 하여 북한과 대립하고 있으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우리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계속 뒤쫓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의무적인 군복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열정적이고 배울 것도 많으며 한 국가 내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20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우리의 진보가 조금씩 지연되는 것이다. 너무 단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는 분단국가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남북한이 하나가 된 훗날에는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군복무보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 자유롭고 평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통일 후의 모습들을 상상해보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참 많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정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해결해가려면 통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1년, 일본에서 남북 선수들이 단일 팀을 이뤄 중국을 격파하고 우승을 일구어냈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나' 하나의 힘이 아니었다. '나'와 '너'가 뭉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해냈던 일이었다. 우리 한민족은 '나' 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 혼자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비로소 하나가 될 그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그날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밑바탕이 되어야 할 목표는 우리의 염원인 통일이 아닐까 한다.

한 발자국만

이수초 6 윤혜명

“다음 장소가 영화 촬영장이지?”

5학년 가을소풍으로 여러 곳을 견학하게 되었다. 방송국을 견학하고 멀리서 63 빌딩도 보았다. 서울에 처음 온 것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다.

다음 견학장소는 영화 촬영장이었다. 영동이 워낙 시골이라서 영화도 잘 못 보았는데, 영화 촬영장에서 조금이라도 볼 테니 괜찮을 듯 싶었다.

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다. 나도 그 틈에 섞여 파도처럼 밀려나왔다. 영화 촬영장은 정말 신기했다. 민속 박물관 못지 않은 초가집 세트가 한 쪽에 마련되어 있었다. 동네 골목도 있었고, 각종 영화 소품들을 모아놓은 전시장도 있었다. 특히 내 눈길을 끈 것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장이었다. 그곳은 정말 생생하게 만들어져서 군복의 안룩달룩한 무늬가 박힌 건물을 봤을 때는 정말 머리가 곤두설 만큼 짜릿한 느낌이 들었다. 북한이란 그런 걸까?

“야, 그러지 마.”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남과 북을 마음대로 넘어 다니자 내가 못하게 말했다. 웬지 모르게 섭득했기 때문이었다.

“피곤하다. 잠이나 자야겠다.”

영화 촬영지 견학을 마치고 버스에 다시 올라탔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분이 지나자 꿀아 떨어졌지만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북한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 금강산 말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

정말 눈물이 그렇그렇 맺힐 뻔하였다. 모두 단군의 자손, 한 핏줄인데 분단의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겪은 뼈아픈 고통을 8월 15일 광복절에 겨우 해방하였지만, 몇 년 후에 6·25가 터지면서 분단이 된 것이다. 그 후, 남과 북의 말, 생활 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른다. '모퉁이 차기' 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많다. 하지만 지금 통일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이해하고 조금씩 고쳐 나가준다면 언젠가는 우리민족의 문화가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또 우리 나라는 인구 7천만명의 인구 대국이 되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풍부한 인력과 합쳐져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국방비를 국가발전 기금으로 전용하면 세계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 나라 국민의 간절한 소원이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통일국가를 지켜왔지만 대한민국의 분단은 50년이 넘었다. 우리민족의 영원한 소원, 바람인 통일! 남과 북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지 말고 통일해야 한다.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이 열려 한 발자국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날, 나는 그날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미리 미리 준비해 놓아야겠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잘 보고 왔어?”

아빠께서 물으셨다. 나는 힘차게

“네” 하고 말했다.

“영화 촬영지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지가 제일 좋았어요.”

아빠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한껏 뽐냈다. 오늘 간 곳과 함께 내가 차안에서 생각했던 것들도 이야기해 드려야겠다. 통일이 빨리 되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내 어린 날의 꿈

내토중 1 이지현

“지현이의 장래희망은 뭐니?”

곰돌이 앞치마를 두른 마음씨 좋은 선생님의 질문에 당찬 유치원생 한 명이 자랑스럽게 소리친다.

“여군이예요.”

유치원 참관수업 때, 장래희망을 주제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하던 선생님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식간에 웅성대기 시작하는 관람석의 부모님들과 ‘여군이 뭔데?’ 등의 질문을 남발하는 꼬마들을 바라보며 더욱 기분이 좋아져 으쓱대는 아이, 바로 내가 일곱 살 때의 일이다.

내 장래희망은 ‘여군’이었다. 그 어린 때 보았던 까까머리 군인들이 어찌나 멋있던지 장래희망을 바로 여군으로 정해버렸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나 나름대로 그 장래희망에 꽤 진지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쯤이야’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애국심도 있었다. 물론 여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단지 군인들이 멋져 보여서 만은 아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우리 나라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우리 나라를 꼭 통일시키겠다는 사명감(?)이 나를 여군이 되라고 부추겼다.

어릴 적 내 꿈은 천하통일도 아니요, 세계평화도 아니요, 오직 우리 나라 남북통일이 나의 꿈이요, 나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장래희망은 여군이 아니다. 나는 어린 날의 순수함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사랑으로써 선택한 여군보다 나의 낙(樂)을 위해 선택한 ‘작가’와 ‘언론인’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샌가 여군이 되어 통일을 하겠다던 나의 모습은 하나의 추억이 되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였다.

그 후, 작년 여름에 통일글짓기 수상자들끼리 독립기념관으로 견학을 간 적이 있었다. 건물 주위의 나무들은 한 여름의 싱그러움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었으며 간간이 드리는 매미소리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의 오전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종알대던 우리들은 '독립기념관' 그 자체로도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모두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를 둘러보니 그 큰 규모에 걸맞게 전시물들도 대단했다.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사용하였던 각종 유물과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을 보며 나는 지금껏 잊고 있었던 그 옛날의 소중한 꿈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슴속에서 조용히 밀려오는 통일을 이루고 싶었던 어린 적의 꿈! 나는 그때, 꿈결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싸우던 그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었던 것일까? 그 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우리 나라의 통일을, 그 고귀한 마음을 내 살갓으로 직접 느꼈던 것일까?

비록 지금의 내가 앞장서서 남북통일을 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해 놓은 통일의 발판 위에 순국선열들의 핏줄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통일로 가는 계단 하나를 쌓아 올리고 싶다.

하루빨리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인 저 이북너머 성천에서 달콤한 찹쌀떡 향기를 맡으며 봄을 맞이하고 싶다.

뫼비우스의 띠

제천상고 2 조영순

“대~한민국”

지난 2002년 열기가 뜨거웠던 한·일 월드컵은 48년만에 첫 승이라는 쾌거를 넘어 4강 진출이라는 큰 기쁨과 환호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이 빛이 났던 것은 월드컵의 4강 진출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해가 다 가기 전 10월 부산아시아안 게임에서 한번 더 우리는 월드컵의 흥분을 이어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부산아시아안 게임이 월드컵만큼 큰 환호를 안길 수 있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외치는 우리들뿐만이 아닌 하늘색 한반도기를 필리키며 같이 환호해주는 우리네의 동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곳의 한반도가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어느덧 50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아픔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 전쟁이후 30년이 지나고 태어난 난 한반도의 분단이 낫설지 않고 당연한 일인 줄만 인식하며 살아왔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나로서는 분단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얼마나 큰 고통인지 느끼지 못하며 초등학교 시절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요를 아무 감정없이 불렀고, 매년 칠쭈제 행사에 나가면 서슴지 않고 통일 열차만을 그려냈다. 왜 그때 난 모든 것을 머리로만 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었는지…….

며칠 전 ‘윤리와 사회’ 숙제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반대하는 병역 거부자들이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한다 하여도 우리 나라의 지금 현실로는 그들의 모습들이 옳게 만든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

신의 편의를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구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분단국가를 말하는 것……. 즉, 고향을, 혈육을 지척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어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총을 겨누어야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서로를 선뜻 받아드리기에 우리 한반도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린 것은 아닐까? 같은 민족 사이의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 매년 새해 아침이면 통일진망대로 많은 그리움의 응어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세계 곳곳에서는 새해를 축복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의 분위기로 빠져들지만, 오직 한 곳만은 새해의 축복이 아닌 꼭꼭 눌러왔던 익숙한 그리움들을 눈물로 토해내는 애절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밖에는 달리 보고싶은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풀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곳, 하지만 몇 말만 내딛으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지도 모를 그 곳, 철조망 앞에서 깨끗한 한복의 차림으로 세배를 올린 그들은 50년째 불러도 대답이 없는 가족들에게 그리움 몇 방울 흔적을 남기고서야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간다.

희망은 절망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던가? 지난 2000년, 뜻하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누이를 얼싸안고 눈물을 토해내는 환갑이 넘는 남동생, 자신의 부인을 눈앞에 두고도 50년의 긴 시간이 만들어버린 낯설음에 말 한번 건네지 못하는 늙은 남편, 아들을 볼 생각에 떨린다며 쪼글쪼글한 두 손을 내내 주무르다 아들을 보지도 못한 채 정신을 잃었던 한 할머니. TV에서는 그 긴긴 세월의 한을 단 사후에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 주었다. 그렇게 그들의 애절한 표현방식은 저마다 다 달랐지만 그들의 그리움 가득 찬 눈망울은 단 한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노라고……. 이제 내 가슴속의 큰 응어리는 모두 비워버렸노라고…….

이렇게 한반도는 분단의 국가이긴 하지만 서로를 너무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한 민족, 한 동포이다. 북한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처해있을 때 남한은 많은 식량을 보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길었던 장마철로 인해 수해가 많았던 80년대 남한 또한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생활필수품들을 지원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 날을 이룩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 적일 수밖에 없다.

뫼비우스의 띠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중앙선을 따라 잘라도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연결된 띠가 되는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뫼비우스의 띠이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랜 세월 휴전선을 둔 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긴 했지만 결국 우린 나누어도 둘이 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한민족이며, '나'와 '너' 이기보다 '우리' 일 수밖에 없는 한 핏줄인 것이다. 서로에게겐 아직도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적이지만, 그 총 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들의 눈은 그리움으로 축축이 젖어있어 우리가 적이어야 하는지…….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야 하는 한 동무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은 아직도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 안에서 헤매고만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안과 밖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손을 뺄으면 잡힐 것 같은데

이원초 4 육근영

안녕?

나는 묘목으로 유명하고 작년에는 너희 나라에도 많은 묘목들을 보내주기도 했던 옥천 이원에 사는 4학년 육근영 이라고 해.

솔직히 이곳의 많은 친구들은 북쪽을 많이 못살고 가난하고 불쌍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 또한 너희들은 사랑도 없고 이해심도 없는, 가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정말 가난뱅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아. 나라도 그 곳에 살았다면 나는 더 비극적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오기도 했었어. 그리고 잠시 잠깐 그 곳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단다.

친구들아!

내가 약속 한가지 할게. 통일이 되는 날 우리가 만나면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컴퓨터도 하게 해줄게. 정말이야.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만족하지는 않아. 우리도 이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더 강하고 힘센 나라가 돼서 미국의 간섭도 없고 소련, 중국의 간섭 없이 통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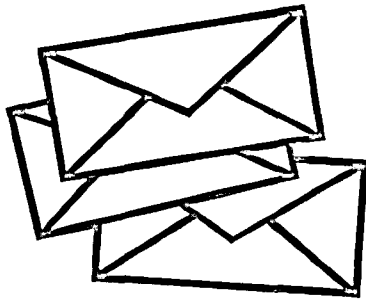
올해도 내가 다니는 이원초등학교에서 이원묘목축제가 열렸어. 앞에서 말했듯이 어린 과일 나무들을 너희 나라에 많이 보냈다고 들었거든? 그 나무에서 여는 열매들을 보며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

어른들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한단다. 너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나와 같은 또래일텐데 힘들게 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친구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정말 보고싶다.

통일의 그때까지 잘 지내고 건강하렴.

2003년 5월 12일
옥천 이원에서 근영이가



마음으로 이루는 통일

별방중 3 윤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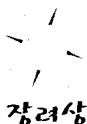
통일이란 무엇일까 하고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통일의 말처럼 그냥 두 나라가 화해하고 한 나라로 거듭나게 되면 그게 통일이 모두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서로를 미워해도 그것이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통일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실려있고 가끔씩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나라가 정말 통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통일을 하면 과연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통일이라면 적어도 우리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우리들이 더욱 불행해진다면 우리들은 통일을 이룬 것을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때에는 우리들이 통일을 이룬 것을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우리 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허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힘들게 살기도 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북한이 얼마나 살기 힘들 길래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대통령도 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나라일을 돌보는 사람들도 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잘 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일을 바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산가족들은 가장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남한·북한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민족끼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게 되면 북한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남한과 북한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의 분단현실……, 다른 이들에게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를 알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름도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많은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정부, 국어 등……. 지금은 한 민족인데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들이 통일된 후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도 한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서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이 아닌 마음속으로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말입니다. 언젠가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화해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나 저는 화해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후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을 갈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 전혀 께끄러움이 없이 오고가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휴전선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들 앞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내가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왔다고 생각하면서
수학여행지에서 한국의 친구에게로 보내는 편지

옥천상고 2 박은지

유진에게

유진아, 안녕? '반갑습네다!' 하하.

지금쯤 벌써 수학여행 이틀째가 지나가는 밤이야. 오늘은 금강산을 구경하고 왔지, 뭐. 체력이 워낙 부족한 나는 금강산의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말이야. 잠 없는 미란이는 지금 옆에서 아주 푹 잘 자고 있어. 산에 다녀와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었나봐. 하긴 우리 둘은 오늘 난리도 아니었어. 산에 안 올라간다고 때쓰고, 등산을 할 바엔 차라리 우릴 죽이라고 온갖 난리를 다 쳤었지. 결국은 올라가게 되고 말았지만 말야.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에 왔는데 정작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 장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잖니?

그런데 유진아, 너 그거 아니? 가을의 금강산은 정말이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란 걸. 설악산 단풍도 참 멋진 풍경이지만, 일만 이천 봉 금강산에는 역시 비할 바가 못돼. 말로만, 사진으로만 본 금강산은 그저 네모난 틀 안에 갇힌 일부일 뿐이었지만, 직접 가서 느끼고 눈으로 보니 그 거룩하고 신비한 모습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단다. 아직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별로 미치지 않아 자연의 순수함이 더욱 빛나는 곳이어서 정말 '아름답다' 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 후후. 그런데 엄청 서운한 점이 한가지 있는데 사진을 별로 못 찍게 하는 거 있지? 촬영 제한지역이 너무 많아. 너한테 이 아름다운 곳을 사진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은데 말이야.

아, 그래도 걱정하지마. 내가 사진은 못 찍어도 너 주려고 금강산 단풍잎은 몇 장 따왔지!! 하하. 내가 예쁘게 코팅해서 옥천으로 돌아가면 우편으로 보내줄게. 이 편지와 함께 말이야. ^^ 여긴 편지를 써놓기는 해도 보낼 수 있는 곳이 없거든. 그래서 결국 이 편지를 보내는 날은 내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일 거야.

그리고 보니 어제 처음 북한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 그때 한 200명되는, 옷 잘 차려입은 북한 꼬마 아이들이 우리들이 지나가니까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를 보호-실은 감시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인민군-적당한 말을 못 찾겠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멍뚱멍뚱 눈만 굴리고 있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나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그 애들의 손 한번 잡아보는 것조차 내겐 허락된 일이 아니었지. 그지 나도 그 애들과 같이 멀리서 신기한 듯이 그 애들을 바라봐 주는 수밖에는…….

북한의 현실은 한국에서도 많이 듣고 배웠으며, 또 수학여행을 오기 전에도 주의사항처럼 귀담아 들던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눈앞에 닥친 광경을 보니까 많이 놀랍더라. 우리가 간 곳은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여서 그런지 힐끗고 초라한 이들은 별로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북한은 항상 그렇잖아.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면 가난한 자도, 장애인들도 절대 그 주위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잖아. 그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려 노력하기에 급급한 북한, 그 이면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만 있는지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

이제 겨우 북한에 온지 이틀째에 불과하지만 유진아, 난 북한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알게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궁금하겠니? 그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념의 뒷면에 철저히 감춰진,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민족의 현실뿐이지. 왜 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 안에서 같이 살고있는 한 민족의 삶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르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반면, 그

들은 쌀 한 톨이 귀해 굶어 죽어 가는 인민들이 늘어만 가는 걸까? 겨우 이 삼천리 밖에 되지 않는 좁은 땅 안에서 말이야.

내가 지금 북한에서 직접 체험하여 배운 건 말이야. 단 한가지인 것 같아. 백문이불여일견 이랬지? 바로 그거야. 북한은 하나의 핏줄로 엉켜 있어서 우리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한 민족이라는 거. 북한의 핵이 어떻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새롭게 다시 느끼고 깨닫게 되었어. 사실 한국에서는 북한과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마스크와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고 가슴에 와 닿는 점도 없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직접 이렇게 북한 청소년들과 눈을 마주치고 보니 눈물부터 배어 올라오더라.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헐벗은 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안타까워서 말이야. 다가가려 해도 먼저 다가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이 난 이제 두려워졌어.

유진아, 정말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찌지? 북한말과 우리말은 계속 이질화되어 가는데 영원히 이렇게 분단되어 살다가 정말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리면 어찌지? 아주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우리가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날이 오면…….

통일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도 많아. 사실 우리 또래만 해도 그래.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꽤 있잖니? 또, 남북이 휴전되어 갈라진 채 5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남과 북이 서로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실감할 수 없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낯설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

유진아, 나는 정말 북한에 직접 와 보고서야 많은 점을 깨닫게 되었단다. 우리의 형제, 자매인 북한 민족을 절대로 지금처럼 비인간적으로 살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고. 몇 년이 흐르고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흐르더라도 북한의 현실은 변할 것 같지 않아. 현재의 통치체제와 이념이 유지되는 한 그들은

영원히 부자유스럽고, 인간성이 억눌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어찌면 북한은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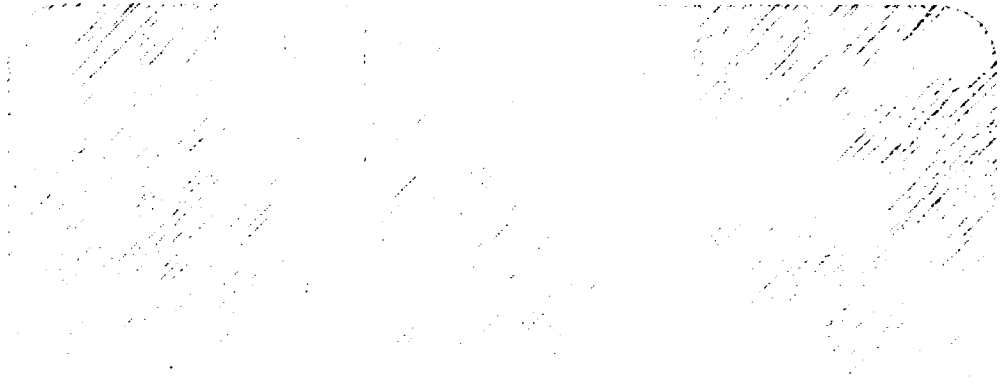
유진아! 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먼 오지의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 애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도 나하고는 그다지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런데, 나와 한 민족이라는 북한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차마 보기 힘들었던단다. 나와는 그래도 한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정말로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서신교환을 할 수 있고, 일년에 한두 차례씩이라도 상호 방문과 만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남북한 이질화와 단절감을 조금씩 극복하고 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 단계적으로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겠지. 아직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지만, 머지않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화해할 그 날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른단다.

유진아, 너도 기회가 되면 꼭 북한에 한번 와 보도록 해.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통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일은 없어. 나도 그러했거든.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아직도 진할 이야기가 참 많이 남아있지만 이 짧은 편지만이라도 너에게 남북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럼 건강하고 나중에 내 편지 받으면 연락해! 행복해라.

금강산에서 귀여운 은지가



● 충청남도

- “콩콩따리 콩콩따, ‘통일’ 콩콩따” / 277
- 하나라는 이름으로 / 280
- 통일은 차이의 인정에서 부터 / 284
- 하나되는 그 날 / 290
- 믿음으로 하나되는 움직임 / 293
-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 / 297
- 작은 통일 / 300
- 진달래 피는 마을 / 303
- 외할아버지의 소원 / 306

“쿵쿵따리 쿵쿵따. ‘통일’ 쿵쿵따”

우강초 6 이지용

신나는 점심시간.

오늘도 ‘쿵쿵따 클럽’ 회원들은 운동장 가의 등나무 밑에 앉아 게임을 시작하였다.

“쿵쿵따리 쿵쿵따. 반장 쿵쿵따. 장손 쿵쿵따. 손기척 쿵쿵따.”

“앗 싸! 지용이 틀렸다. 벌칙 받아라 벌칙.”

“무슨 소리야! ‘손기척’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노크’라는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꾸며 대지마! 사내자식이 몇 대 맞는 것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해? 자. 잔소리 말고 맞을 준비나 하지지!”

병은이의 말에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물러들어 ‘인디안 밥 위위위!’를 외치며 내 등을 쳤다.

나는 눈물이 왈칵 났다. 등이 많이 아픈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분명히 맞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도 내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억울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킁킁거리며 한참을 웃다가 내가 우는 것을 보고는 움찔 놀라며 위로하러 들었지만 난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에 들어와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한참을 엎드려있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지용이 어디 아프니?”

하시며 내 옆으로 오서서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 눈이 빨간 것을 보니까 울었네? 우리 씩씩한 지용이가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들어볼까?”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고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랬었구나. 지용이가 무척 섭섭했겠는걸. 지용아! 그런데 그 문제는 친구들의 잘못만도 아닌 것 같다.”

선생님께서 당연히 내편이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 나는 다시 속이 상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잘못 한 건가요?”

나는 불만에 차 불멘소리로 말했다.

“물론, 지용이 잘못도 아니야. 잘못이 있다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 잘못이지.”

“왜요?”

“남북한이 갈라져 50년이 넘게 따로따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 같을 수가 있겠니? 봐라. 네가 친구들에게 말한 ‘손기척’이란 낱말은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 대신에 ‘노크’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너를 아프게 했잖니?”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신중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나오는 버릇인 손짓을 많이 해가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어디 언어만 달라졌겠냐.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테고, 풍습도 많이 달라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같은 민족인데도 말이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민족이 되겠네요.”

언제 들어 왔는지 ‘콩콩따 클럽’ 회원 중 푹푹이란 별명을 가진 원빈이가 말했다.

“그렇겠지. 분명 그럴게야. 원빈아! 너의 염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

“통일이요.”

“야, 임마! 그것도 그냥 통일이면 안돼. 평화통일이 되어야지.”

병은이가 나를 보며 겁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냥 통일은 안 되고 꼭 평화통일을 이루어야지. 선생님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딱딱한 재자들을 두어서. 아, 참!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들부터 통일을 이루어야 겠다. 자, 너희들끼리 스스로 평화 통일을 이뤄봐.”

하시며 선생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앞으로 가셨다.

“지용아, 아까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내가 무식해서 생긴 일이니까 용서해 주렴.”

“나도.”

“나도.”

병은이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내 속이 좁아서 생긴 일이야. 나도 미안해.”

나는 친구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친구들의 손을 잡으며 남한과 북한도 우리들처럼 따뜻한 평화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날 우리 ‘콩콩따 클럽 회원’ 들은 여전히 등나무 밑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콩콩따리. 콩콩따 손기척 콩콩따. 칩화비 콩콩따. 비똥 콩콩따 통일 콩콩따…….”

어느덧 우리의 언어 통일은 흰 구름이 되어 북녘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하나라는 이름으로

서산중 3 박수인

2003년 3월3일, 우리 학교에 탈북학생이 3학년에 편입하였다. 우리 나이로 18세,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고등반 2년을 마친 학생이며,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숨어살다가 2002년 우리 남한으로 넘어 온 '형'이다.

그러나 '영민이 형'이 보여주는 학교생활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같은 3학년 학생들(우리들은 그를 형이라 부른다.)에게 끼친 영향은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느낄 정도이다.

'영민이 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파격적인 모습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절도 있는 생활태도, 너무도 철저하게 몸에 배인 예절, 각뚝한 인사성, 수업시간에 남을 압도하는 성실성, 뛰어난 사교성 등.

예를 들면, 금년 3월 하순에 우리 학교 학생 그룹사운드에서 보컬 오디션이 있었는데 그 형은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정말 멋지게 불러 뽐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가끔은 우리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모든 북한 청소년들이 저런 모습일까, 아니면 영민이 형만의 객관화된 모습일까…….

나는 호기심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기 위해 그 형과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속되는 그와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형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서 처음은 먹고살기도 편하고 재미있게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짐차 앞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으며, 그렇다고 북한에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옥 같은 북한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 차라리 죽기보다 못한 일이었으니까.

남한을 가겠다고 아버지께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반대를 하셨단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가는 길에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지도 못할 걸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야 아버지가 허락하셨고, 목숨을 걸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영민이 형은 우리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라.”

문득 작년 수학여행 때 통일 전망대에 가서 겪었던 일이 생각났다. 통일 전망대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비디오를 통해서 역사 자료를 보았다. 역사 자료를 감상한 뒤, 드디어 통일 전망대! 꿈에도 그리던 북한 땅을 보니 내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뻛고 신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들뜬 기분도 잠시, 난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저 흉물스러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간절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저런 철조망 하나도 끊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진정 내 눈에 보이는 북쪽의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전시된 사진들, 북한의 옷과 장신구들도 우리와 비슷했다.

작년 이맘때쯤에 통일 전망대에서 깨달아야 했던 ‘저들도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2003년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내 옆에서 영민이 형과의 생활을 통해 또 다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 영민이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못 만나는 걸까?

언젠가 읽었던 「비명을 찾아라」 라는 소설이 떠올랐다. 만약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과연 수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가상

현실을 그린 소설이다. 그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 계속 머물렀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침략 당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일본인들 속에 묻혀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만큼 통일에 대한 간절함까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에 북한의 핵 보유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는 소모적인 싸움은 그쳐야 한다. 도도히 흐르는 21세기의 물결 속에서 우리만이 그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아니 앞으로도 영민이 형과 우리는 졸업하는 그 날까지 정말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가짐을 우리 국민, 민족에게로 넓힌다면 우리 남과 북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잃었던 반쪽을 다시 찾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사람이 한쪽 눈, 한쪽 귀만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 듯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리워할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7천만 겨레의 통일 염원, 그 씨앗은 우리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뿌리내리고, 통일 한반도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걸 안다. 우리 민족의 도달점인 '통일' 그 곳은 비록 멀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 바로 앞에 있기도 하다. 우리 남과 북은 지금 길모퉁이에 서있다. 비록 통일이 평탄한 대로 끝에 있지는 않지만, 구불구불한 길과 여러 개의 길모퉁이를 거치며 도달한 통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치, 영민이 형이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따뜻한 남쪽 나라' 자유를 찾아 온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길모퉁이를 돌면 우리 앞에는 '민족의 평화 통일'이라는 신세계가 환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연젠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생각해 본다. 서로 사랑하는 고슴도치 한 쌍이 있는데, 겨울이 와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를

껴안는 순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로 상대방의 몸을 찔러 아프게 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즉, 서로 떨어져 있자니 찌고, 둘이 껴안고 있자니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 라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자니 갑작스런 체제붕괴가 걱정되고, 문을 굳게 닫고 있자니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 찔리는 아픔은 순간의 아픔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형이 동생을 다독거리듯이 우리가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저들을 설득하고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낸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남이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우리의 손에서부터 시작되고,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남과 북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날을 맞이할 것이다.



통일은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광천정보고 3 황아람

우리가 분단된 뒤 통일은 7천만 민족의 염원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동안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대책 없이 우린 통일이 오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50여 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기다림에 지쳐 사랑은 원망이 되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으며 원망과 증오, 헛소문만 무성한 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같은 피를 나눈 동포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싼 동정심과 약간의 구호물자에 그쳤다. 진실한 가슴으로 한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차가운 철조망이나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남과 북이 살아온 환경의 차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장애물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그렇듯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땐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민주주의 사회체제에 길들여진 우리로서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실상들이 생경해 보이고, 그러한 생경함들이 세월을 거치면서 확대 포장되고 두려움을 양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변화에 민감하다고 한다. 우린 모두 통일이 되었을 때 변화될 우리의 삶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지켜 갈 수 있을까하는 물음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두려움과 회의에 젖어 있었다고 하겠다. 막연한 염원과 일회성 행사처럼 지나가는 안일 속에서 민족적 모순은 심화되고, 통일이 마치 남의 일처럼 누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식의 타자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 왔

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처럼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통일을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의 결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통일은 모두가 염원하고 기다려야 할 역사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풀어내고 감당하며, 구체적 행위로 걸음을 차근차근 옮겨 놓아야 할 민족적 소명이기도 하다.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과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인식 하에서만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의 문제는 단일 민족으로서 당연하게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그것의 성사여부 또는 결과물에 따라 한반도의 '발전' 또는 '퇴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반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급격하게 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결부시켜,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손익 관계를 따져가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혹자는 통일을 이루게 되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으며, 동북아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고, 통일을 이룸에 따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단 비용을 줄여 국가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기대는 남북한이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경우에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통일이 되면 기존에 존재했던 분단 모순은 사라지겠지만 통일의 부산물로 계급 갈등, 지역 갈등, 지배 엘리트와 다수의 대중간의 갈등 등이 가중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 이러한 갈등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통일국가의 강한 국가능력일 것이다. 국가 능력이란 국가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강한 국가능력을 가진 국가는 통일이후 발생할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통일국가가 강한 국가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에 있을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는 국가에게 힘을 제공, 국민들에게는 통합적 이데올로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사회적 혼란에 휩싸일 것이며, 남북 간의 사회통합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 '어떻게'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예견되는 갈등의 요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서로간의 이해를 위한 오랜 교류와 협력의 상호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국민 모두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역사적 현장을, 그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였다. 두 정상들은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왔던 남북한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4일 밤 11시 40분에 5개항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에 서명하였다.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냉전이데올로기로 인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내딛어진 셈이다. 바야흐로 합의된 내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다양한 남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다른 분야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남북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향후 남북한 예술교류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은 독일 통일의 예일 것이다. 독일은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문화의 동질성 회

복을 위하여 동방정책을 내세웠다.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동서독 경계선 개방과 통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기습', 혹은 '미래의 기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독일은 통일 이전에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접촉을 약 30년 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문화의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고 통일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독일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향후 남북한 문화통합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천적 방안에 관하여 지금까지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냉전의 산물로서 국토와 민족이 양분된 것은 한국과 독일을 비슷하게 보지만, 독일의 경우 민족 간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며 예술에 대한 견해가 같다는 점이 있었다. 하지만 남북의 격차는 독일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남북한의 통일이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계적으로 한 발자국씩 진행되는 것이 옳바르다고 할 수 있다.

동서독의 예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통일에 대한 엄청난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정도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부작용을 극복하기에도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된다. 통일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을 정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상태까지 진행되는 동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일을 남북한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맥락으로서 물리적인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소위 '준비하는 통일'로서의 통일, 통합은 현재 남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자체 내의 변화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

체제 통합은 남북한의 제도적 통일의 결과로써 나타나며 구체적으로는 남북한의 상이한 제도와 정치, 경제 제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서독의 제도가 동독으로 일방적

으로 이식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집진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통합은 어느 경우에도 급진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성질을 띠고 있다. 그것은 사회 통합의 대상이 무형의 정신적 가치, 의식이 됨으로써 변형을 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일방적인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져올 위험성은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2등 국민화', '내부 식민지화' 그리고 인위적인 '남한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북한 주민들에게 뿐 아니라 남한 주민들에게도 통일에 따른 사회 갈등의 증폭과 비용의 증대로 상호간의 대립과 질서를 낳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으로서 통일, 통합을 바라보고 차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천년 전통의 뿌리를 지닌 한민족 문화가 50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냉전과 경계설정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만큼 각기 변해 버린 것이다. 물론 1985년에 처음 경험한 남북한 합동 공연 이후, 그 동안 남북한에서는 서로의 예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경우 여전히 북한의 예술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이하게 여기는 시각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의 '차이'를 비판만 해왔지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배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통일이 상호의 인정과 나아가 차이까지도 포용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차이를 인정한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사회 안에서도 매우 다른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듯이, 남한과 북한의 문화도 문화 다원론적 입장에서 상호 포용하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상호 이해관계가 구축되는 날, 통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나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릴 그 날이 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들기보단 맞서 이겨내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면 통일의 그날은 멀지 않았을 것이다. 후손들에게도 반쪽뿐인 분단국이 아닌 하나된 한반도를, 이산가족에게는 그리움에 사무친 사랑하는 가

죽들을, 실항민들에게는 따뜻한 고향을 찾아 우리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찾아
올 날이 멀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가 하나 될 그 날을 애타게 기다려 본다.



하나되는 그 날

전의초 5 차민지

따스한 햇볕이 화단에 핀 장미의 붉음을 더해주고 있는 토요일 오후, 미리 과제로 제시된 북한말 바로 알기 스피드퀴즈를 하게 되었다. 말이 빠른 재원이가 ‘아이스크림’ 하자 대뜸 ‘얼음보숭이’가 튀어 나왔다. ‘삐삐-주머니 종’ 막상막하의 대결 속에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그만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여기 저기서 ‘야, 빨리해’ 하는 말이 튀어나왔지만 한번 얼어 붙은 내 입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으으’만 연발했다. 결국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상대팀은 놀라운 빠르기로 30개를 모두 해결했다.

그러나 막상 결과는 우리의 승리였다. 풀기는 많이 풀었지만 서두르다보니 틀린 답이 많았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흡족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무조건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도 그렇단다. 무조건 서두른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천천히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꼭 통일은 된단다. 오늘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

하시며 우리들에게 크게 확대한 우리나라 지도를 나눠주셨다.

“자, 남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의에서 부산까지 가장 가까운 길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계산하여라.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다녀올 수 있는지도 계산하여라. 그리고 여자들은 전의에서 평양까지 가장 가까운 길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계산하여라. 분명 평양이 부산보다 멀 것이다. 그러나 부산보다 평양을 더 빠른 시간에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자 아이들은 고속도로를 찾아 풀칠을 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서울까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올라갔지만 그 위부터는 꼬불꼬불 지도에 그려진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너무 멀고 답답했다. 그리고 한참을 가던 우리는 굵게 그려진 붉은 선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휴전선인데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렇지. 오늘 너희들이 해야 할 통일 숙제는 바로 그 휴전선을 없애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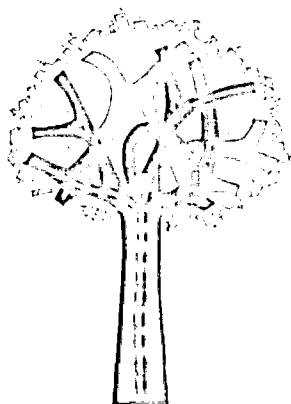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던 우리는 모두 갑자기 조용해졌다. 휴전선을 없애는 방법이라니? 한참만에야 선생님의 뜻을 알아차린 우리는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합치면 돼요’, ‘쌀을 많이 보내줘요’, ‘이산가족 상봉 횡수를 더 늘리면 돼요’ 여기저기서 자신에 찬 대답이 나왔다. 그 때 우리 반 재치꾸러기가

“선생님! 우리가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돼요”

우리는 모두 ‘와’ 하며 큰 박수를 쳤다. 선생님께서도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화이트로 붉은 선을 쓰옥 지우시고는 대신 고속도로를 그리기 시작하셨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손길을 따라 의정부를 지나고 고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개성을 지나 황해도의 남천과 서흥을 지나서 순식간에 평양에 도착했다. 우리가 만든 서울-평양간 고속국도가 탄생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를 길게 선으로 이으셨다. 그러자 50년 동안 남북의 허리를 갈랐던 휴전선이 헐리고 남북을 이은 우리나라의 심장을 지나는 긴 고속국도가 힘차게 뚫렸다. 그 길을 따라 많은 차들이 오고가고 50년 이산가족의 소망이 풀리고 있었다.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 누리 북 누리 갈라진 우리 누리.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뿐일세’ 누군가의 입에서 굿거리장단을 타고 남 누리 북 누리 노래가 흘러나왔다. ‘통일의 큰 춤 추며 하나 되는 그 날까지, 남

녃 땅 북녃 땅 통일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통일을 노래 불렀다. 우리들의 노래 소리는 학교를 퍼져나가 저 멀리 북녃 땅까지 울려 퍼졌다.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런데 굳셈이는 눈으로 바라 본 선생님의 눈에도 반짝 눈물이 맺혀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아, 선생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게만 느껴졌던 선생님이 친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내 짝꿍 유경이의 얼굴에도 물기가 번져 있었다.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통일의 큰 춤추며 하나 되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통일이 한 발짝 성큼 다가 와 있었다.



믿음으로 하나되는 움적임

인주중 2 이현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 위에서 북한의 모습을 보는데
웬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의 꿈은 벌써부터 통일을 이루었건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 시인인 이영재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그리움에 눈물로 읊은 이 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가셨단 말입니까
정녕 가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그 비보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만날 때까지
꼭 살아 있겠다고 하셨는데…
너의 작품, 너의 사진, 편지를 보는 것이
일과이고 락이라 하시며
몸도 건강하고 기분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기실 어머니가 아닌데
그 약속을 안 믿을 아들이 아닌데
아, 약속도 믿음도
세월을 이겨낼 수 없었던 말입니까

리벨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분렬이 너무도 모질었습니다. 무정했습니다.”

‘이 길로 쪽 가면 꿈에도 그리던 북한일까?’

이런 기대를 걸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자꾸만 걸어가고 싶다. 저 푸른 하늘의 새처럼 훨훨 날아올라 휴전선이란 철조망을 지나가고 싶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국가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왜? 우리는 반세기가 넘어가는 동안 분단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내 꿈은 통일이다. 새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던 내 꿈은 휴전선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 왔다. 나의 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물바다에 등실등실 떠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도 휴전선에는 언제나 큰 위기가 닥칠지 몰라 뜬 눈으로 밤 세워 지키고 있다. 지금은, 그래도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고 금강산도 갈 수 있지만, 아직도 서로의 신뢰가 부족하단 말인가….

벌써 50 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그 세월 속에 서로의 존재를 묻은 채 통일되지 않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있는 동안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정치 방식도 달라져 한민족의 모습을 잃어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니 관심이 없었나. 혹은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라고 하며 통일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때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다. 우리는 인주, 금성이라는 초등학교로 나뉘어져 같은 반이지만 초등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난 경쟁과 우열을 다투었다. 하지만 점차 서로의 장점들을 보고, ‘서로 돕고 웃으며 살자’라는 급훈처럼 인주중학교 학생이라는 하나됨에 지금은 힘을 합쳐 우리 학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작은 물줄기가 하나하나 합쳐져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도 힘을 합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을 하면 이

로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소망하는 것은 첫째, 남과 북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휴전이 무슨 뜻인가? 바로 전쟁을 잠시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은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금 같은 때에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전쟁이라는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한다. 앞으로도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쟁의 위협, 테러, 납치 등의 우리 민족의 고통과 불행이 계속 될 것이다.

둘째,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인구수가 더 많지만 북한은 남자보다 여자 인구가 더 많아 통일이 되면 결혼 못하는 남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월드컵처럼 세계적인 경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경기를 치룰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선수도 많을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 응원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넷째,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만남 뒤의 헤어짐은 더 큰 아픔을 안기는 것 같다. 아직도 만나야 할 이산가족이 많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오늘도 새는, 바람은, 구름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곳을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동포들의 땀을 식혀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데 진정 한 핏줄 한민족인 우리는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는 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 전망대 위에서 휴전선에 부딪혀 돌아온 내 꿈을 다시 날려보았다. 나의 꿈을 새와 바람과 구름에 실어 저만치 날려 버렸다. 나의 꿈은 북한까지 잘 도착했을까? 깃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제는 노랫말을 바꾸어야겠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나는 통일은 결코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 곧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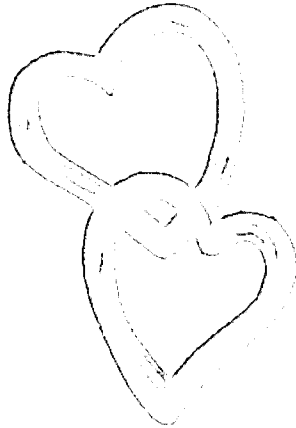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 드디어 통일을 이루다. 대한민국! 휴전선이 사라지다.’

'50년 만에 분단의 벽을 허물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그 날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다.

한 핏줄이니까, 한 형제니까, 하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라고 불리는 그 날을 기다릴 것이다. 통일을 꿈꾸며



이 세상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

논산 대건고 2 김민규

나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무거운 짐을 졌다. 인간의 힘으로 그어놓은 하찮은 철선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스스로 수많은 족쇄를 채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닌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 지구 어찌면 이 우주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남과 북 이제는 통일이라는 열쇠로 진정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응어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50년간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에서 아무 것도 우리 뜻대로 하지 못했다. 미군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구실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자주국가이며 우리에게겐 능력이 있다. 더 이상 장갑차에 짓밟히지 않아도 되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반쪽 뿐인 허상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쪽, 그것은 비통하게도 강대국에 의해 역시 허상으로 북쪽에 존재한다. 이토록 많은 치욕, 고통을 우리는 받고 또 받을 것이다.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시대가 도래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태어나면서 진 짐이 바로 이 위대한 의무이자 생존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선택인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자존심 싸움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 50년이란 세월이 보여주듯 끝없는 강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생활은 무의미하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은 영원한 3류 국가, 민족이 됴으로써 세계 강대국들의 힘 겨루

기의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만 안방 싸움으로 뒤쳐질 수는 없다. 민족적 역량을 세계로의 진출에 써야 한다. 남북한 모두 지쳐있는 이 시점,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시점이다. 검은 발톱을 숨기고 우리의 조국 강산을 노리는 이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만의 앞날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곧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통일을 의미함은 물론 세계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개이다.

난 생각한다. 이 땅의 7000만 아니 지하의 수억 명이 한민족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가 터져 사라질 것이라고. 통일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대할 만하다고 나는 믿는다. 대륙과 연결,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뻗은 지정학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의 자주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는 보고싶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은 그 말 자체보다 더 큰 자신감을 준다. 예전 같으면 군대에 있어야 하는 청년들이 원탁에 앉아 민족의 앞날을 논의하는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변화일 것이다.

그리 쉽지 않은 반세기 동안의 분단의 회복, 우리의 교육은 민주주의가 언제나 옳다는 논리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 놓는다.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다. 난 그래서 공산주의의 계획성과 추진력,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정부체제가 나오길 바란다. 결혼과 같이 반려자로서 균등하게 서로의 약점은 보듬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였듯이 지구 유일의 이상적 정치체제의 탄생. 어찌면 분단은 이 같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위한 단계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뤘야 한다. 이 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주장을 당당히 펼 수 있다면 통일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동지는 없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을 그다지 원하는 않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잠재적인 힘을 가진 국가로 통일을 하면 그들의 이익에 득이 될 것 없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룩해야만

한다.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의 실수로 받은 광복 후의 그 쓰디쓴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받은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통일을 원했던 수많은 노력들..., 아직 우리는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다. 진정으로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민족의 한, 통일을 이룬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통일

온양 동신초 6 홍지수

아카시아 향기가 싱그런 바람을 타고 풍겨 왔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오는 길에 만난 2반 아이들이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려 신경이 쓰였다. 또 오늘 선생님께서 내주신 '통일 신문 만들기'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저녁을 먹자마자 통일 신문을 만들었다. 하얀 4절 도화지를 보니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엄마께서는 북한노래 배우기 코너를 만들어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노래 '휘파람'을 넣어 보자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통일'과 '백두산'을 시제로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하셨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통일'을 검색어로 이곳 저곳 찾아보니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양 나라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빼서 신문에 붙였다. 사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때 문득, 두 분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내가 2반 반장이랑 얼굴 붉히고 싸운 일이 떠올랐다.

지난 주 체육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2반과 3반이 편을 갈라 피구 시합을 했다. 한판은 지고 한판은 이기는 대결 끝에 마지막 판에 일이 터졌다. 우리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정훈이가 2반 아이들 중에 한 명 남은 미경이를 향해 있는 힘껏 공을 던지는 순간, 미경이가 그 공에 맞아 '퍽'하고 쓰러지더니 못 일어났다.

“와! 이겼다, 이겼어!”

반장인 나는 뭘 듯이 기뻐다. 우리들은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고 환호성을 질렀으나 2반 아이들은 쓰러진 미경이를 부축하고 터벅터벅 교실로 들어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2반과 등을 돌리고 지내게 되었다. 특히 우리 반 반장인 나는 2반 반장인 술잎이와 원수처럼 지냈다.

그런데 일은 다음날에 더 커졌다. 화장실에 '비겁한 3반 놈들, 지옥에나 가라' 는 낙서와 욕이 여기 저기 써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본 우리들은 우르르 2반으로 달려가 공부 끝나고 한판 붙어보자고 패싸움을 걸었다. 그 날 다행히도 선생님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싸움은 나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서로에 대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아 복도에 보이지 않는 금까지 그어 놓고 지금까지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나는 조금씩 후회를 하고 있다. 2반에 있는 단짝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져 말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으니 안타깝기만 했다. 1학년 때부터 4년 반이 넘도록 형제처럼 친구처럼 함께 지내왔는데 별 것도 아닌 일로 핀을 나눠 싸우고 말도 안 하다니 우리가 너무 속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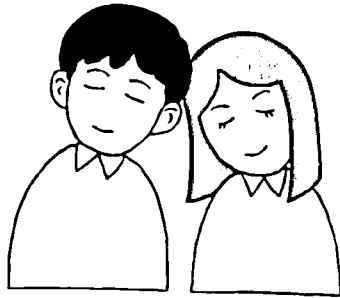
우리는 싸운 지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보고 싶고 후회가 되는데 우리편측은 어떠한가? 한 핏줄로 이어온 한 형제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또 50년 동안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겠는가? 다행히 요즘 우리는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렇게 가고 싶었던 북한 땅도 가볼 수 있게 되었다. 조금씩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통일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나는 두 분이 손 맞잡고 환짝 웃고 있는 사진 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라고 써넣었다. 드디어 통일 신문이 완성된 것이다.

나는 2반과 있었던 일을 후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다. 서로 함께 했던 예전의 일을 생각 하다가 2반 반장에게 화해의 E-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술잎아, 나 소영이야. 지난 번 피구 시합할 때는 우리 반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친구가 다쳤는데 우리는 이긴 것만 기뻐했으니 말이야. 휴전선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던 남한, 북한도 지금은 화해를 하고 통일을 약속하는데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금을 그어 놓고 싸우면 되겠니? 이제 서로 화해하고 작은 통일을 이뤄보자. 작은 통일이 하나, 둘 모이면 정말 우리의 소원인 큰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내일 웃는 얼굴로 만나자.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소 띤 얼굴처럼…….’



진달래 피는 마을

천안 두정중 1 심우중

나지막한 산자락에선 진달래가 지천이고 노란 개나리가 울타리마다 제 모습을 뽐내는 이쯤이면 산 빛은 노란 초록빛으로 새 봄을 맞는다.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봄빛이 다시 짙은 녹음을 키우고, 어느덧 새 옷 갈아입고 외출하신 산자락엔 흰 눈이 온 산을 덮고 또 다른 새봄을 깨운다.

바로 그 해 봄도 그렇게 찾아왔단다.

아무런 징후 없이 더위가 막 시작될 무렵 우리 겨레가 겪게 될 엄청난 소용돌이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봄이었다. 10대 소녀이셨던 우리 할머니의 기억 속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지났다. 10년이면 번하는 강산이 다섯 번을 탈바꿈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의식도 참 많이 변하고 있다며 할머니께선 놀라워 하셨다. 또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걱정을 하시기도 한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화해의 의사를 보내도 그들은 언제든지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별다른 체험이 없는 나는 가끔 그런 할머니의 기우를 이해 못할 때도 있었다.

이라크 전이 막 시작되기 전 갑자기 외신에서는 한반도의 안보가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내다 봤다. 우리가 곧 전쟁을 치를 것 같은 분위기였고 급기야 난 미국에 계시는 이모의 안부 전화도 받게 되었다. 정말 황당한 노릇이었다. 전쟁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니…….

전쟁이래곤 책을 통한 역사로만 느끼며 살던 나에게 이 일은 실로 웃기는 이

야기이면서도 게임을 통해 전쟁의 작전 명령권자로의 환상을 키웠던 난 또 한편으론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이라크의 포화 속에서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래서 만약 한반도에서도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참전하여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전쟁은 단순한 게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무지는 할머니의 체험담에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지고 말았다.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전쟁의 피폐함이 불과 50여 년 전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물론 많이 듣고 배우며 자라기는 했지만 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특별한 것이었다.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전쟁의 참상은 단순한 10대 소녀의 감상을 넘어 몹시 리처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투쟁의 삶이었으며, 치절한 생존을 위한 비극의 체험이었다고 하셨다.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진공공했고, 가까운 이웃끼리 하룻밤 사이에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 찾아내어 해치며, 형제가 뿔뿔이 헤어져 전선에서 서로의 적이 되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혔다. 이러한 이야기는 허구의 세계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 내게 전쟁은 상상 속에서나 펼쳐지던 전략과 작전의 세계였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나의 할머니가 실제 놓여 있었다니.

이라크 반전집회와 파병 반대 운동을 지켜보며 우리 가족의 의견도 양분이 되었다. 부모님은 파병 반대 쪽이셨고, 6·25를 겪으신 할머니의 의견은 완고하셨다. 절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이라크 파병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도 하셨다. 커다란 모순이었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다. 난 눈치껏 우리의 자생력에 대해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표류하는 느낌이다. 주인공은 우리인데 주인공도 너무 많고 사공도 너무 많다. 정작 주인공인 우리는 떠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내가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정작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을까? 진작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우리가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이 전 세계에 절대로 핵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노라 천명을 하며 취임을 한 우리로서는 이제와 자주국방을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빨강과 파랑으로 나뉘는 소득 없는 다름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깊게 그어 놓은 휴전선을 두고 오히려 세계 이웃들이 시끄러워도, 나는 지난 겨울 백두산을 동반한 가족 여행 길에 두만강 가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순진한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았던 우리랑 닮은 아이들의 모습이 가슴 저리게 생각나는 것이다. 다른 생각 없이 그 아이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친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던 아이들, 친근하면서도 웬지 안타까운 모습을 느끼게 했던 아이들…….

다시 우리 산야에 진달래가 지천이 피었다. 그 아이들과 이골 지골 뛰어다니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진달래 따먹으며 놀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진달래가 유난히 붉은 것은 우리의 맘이 하나 되기를 진달래도 간절히 원해서는 아닐까? 진달래 피는 마을에 하나된 우리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꿈을 기대해 본다.



외할아버지의 소원

천안 두정고 1 김소명

오늘은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하다. 큰 외할아버지의 생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기 위해 가족은 아침부터 서둘렀다. 기쁜 난입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들뜨지는 않았다. 밝은 햇살을 받으며 외할아버지 댁으로 이동하는 차안……. 이것 저것 생각에 잠겨있을 때 어느덧 우리는 툇개이트를 미끄러지듯 빠져 나와 외갓집 근처에 다다랐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환하게 웃어드려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귀염둥이 손녀 왔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나에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던 많은 친척 분들도 너무나 반가워하시며 우리 가족을 맞아주셨다. 우리들은 간단히 점심을 먹고 오늘의 주인공 큰 외할아버지를 뵈기 위해 모두들 강원도로 이동을 하였다. 명절이나 큰 외할아버지의 생신 때마다 찾아오던 이곳,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우리 큰 외할아버지는 가까우면서도 갈 수 없는 먼 곳, 북한에 살고 계신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다. 6·25 전쟁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북으로 가시게 된 큰 외할아버지. 휴전되고 그 이후로도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큰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북한과 가까운 이곳을 찾곤 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하시는 외할아버지. 몇 해전부터 북쪽을 향해 절을 하시는 외할아버지……. 이제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외할아버지의 전쟁시절 겪었던
피난 이야기들……,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언제 들어도 코 끝이 찡해져 온다.

“내 어렸을 땐 형님과 함께 금강산에도 놀러 다니고, 정말 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내 살아서 형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 볼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텐데……, 내 고향에도, 맘껏 뛰어 놀던 내 고향에도 가보
고…….”

설움에 할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끝내 말을
잇지 못하시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에 신청서도 내어보
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었다. 너무나도 가까운 땅, 강원도에서 바라보
면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이 북한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는 그 북한인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고개를 돌려 버렸다. 언제나 남
한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항상 형님께 죄
송하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가 오늘따라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가족과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보고싶는데……, 할아버지는 그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물보다 진한 피를 갈라놓는 이런 비참한 일
이 바로 우리 현실이다. 매일을 만날 수 없는 가족을 그리며, 그리고 고향을
그리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비극이요,
아픔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
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관심을 가지
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이산가족이 아니었다면 나도 통일에 관심이 없
었을 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북분단 현실에 대해
서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
라 우리 민족 모두의 몫인 것이다. 평생동안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개입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지난 해 6월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낸 그 함성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버릴 만큼 단합된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 통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피를 나눈 한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것들에게 우리 힘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동족 상잔의 아픈 과거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아픈 상처들을 이대로 안고 살아가기엔 상처가 너무나 크다. 나도 아직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는 못한다. 막연히 통일을 이루자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제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산가족들과 실향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오늘도 가족과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 지금은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정겨운 고향을 바라보시는 외할아버지의 두 눈에 고인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눈물 없는 행복함이 가득한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가까운 곳 북한에, 외할아버지의 고향에 가는 그 날을 꿈꾸며……,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 경상북도

-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 311
- 사진속의 금강산 / 313
- 지나쳐 버린 참새처럼 / 315
- 아! 금강산 / 318
- 할아버지의 눈물 / 322
- 천새를 아니? / 325
- 통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 / 329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332
- 우리의 통일 / 335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약동초 5 이소영

“애들아, 내일은 선생님이 출장을 가니 서로 협동하며 사이좋게 공부하도록 해라. 숙제는 6·25에 관한 포스터 그리기 구상이란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에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쿵다쿵다 뛰는 가슴을 안고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가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올라가고, 의자를 뒤집어 놓고 마구 뛰어다니고……, 개구쟁이 박지혜는 신이 나서 남자 아이들을 놀리고 다녔다. 그러다가 지혜와 유경이가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졌다. 목이 굽히고 머리에 흠이 나고 서로 욕을 하며 큰 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옆 반 선생님께서 오시게 되었다. 유경이와 지혜가 혼나는 동안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싸움을 말리지는 못했고, 또 같은 반 친구끼리 싸웠으니 다른 반 친구들 보기에 도무척 부끄러웠다.

‘싸움은 언제나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포스터의 주제를 ‘전쟁의 끝은 상처뿐입니다.’로 잡았다. 바탕 그림은 집이 불타고 팔다리가 부러진 모습, 무엇보다도 슬픈 이산가족의 모습을 그려 넣으려고 애썼다. 유경이와 지혜의 싸우는 모습처럼 말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픔과 미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그리기 숙제를 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지난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보도장면이 떠올랐다. 그때의 6월은 온통 기쁨으로 흔들렸다. 그때 텔레비전

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첫발을 디딜 때 방송하시는 아저씨께서 말씀 하셨다.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55년 동안 걸려서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엄 마도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열 번은 더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남북한 칠 천만 겨레가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신문이 며 방송들도 화해와 협력과 만남의 하늘 길, 통일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며 기 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어머니께 보내도 못 가는 육 백 통의 편지’ 를 쓴 신헌민 이창남 아저씨도 있 을 것이다. 또 일 천만 이산가족은 가슴이 우리보다 더 뜨거웠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박 3일 동안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욱하지 않으 며, 평화적으로 서로 도우며, 무엇보다도 이산가족들도 만나게 한다는 많은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 오셨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고 궁예의 옛 성터가 있다는 휴전선의 비무장 지대를 이 세상에 단 하 나뿐인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는 통일의 그림은 너무 멋진 것이다. 물론 통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이라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통일 을 향한 평화의 밑그림을 차곡차곡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 한이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힘도 튼튼히 하고 우리 주위 도 살펴보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내일도 학교에 가면 개구쟁이 우리 반 친구들은 또 싸울 것이다. 나도 저번 남북정상회담처럼 사이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고싶다.

‘유경아, 지혜야 싸우지마. 너희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니? 남한과 북한도 화해를 하고 평화를 택하는데 이렇게 싸워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진교에서도 앞서가는 최고의 반이 되지 않겠니?’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것이다.

남북한 모두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되어 비무장 지대 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꿈꾸어 본다.

사진 속의 금강산

영천여중 2 조영숙

아침부터 7교시나 되는 피곤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에 맡겨둔 사진을 현상해왔다. 한 장에 160원인 것이 제법 비싸다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하나하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기에 기분 좋게 돈을 내고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간에는 집에 할머니와 나뿐이었다. 사진을 보고 싶은 들뜬 마음에 얼른 가방을 풀어놓고 시원한 거실에 앉드려 하루의 피로를 풀며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사진을 보며 즐거웠던 수학여행을 떠올리며 있을 때, “숙이 왔나?”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진을 본다고 인사도 못 드리고 앉드려 있었던걸 깨닫고는 아차 싶은 마음에 얼른 달려가 인사드렸다.

할머니께서는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이곳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 나는 할머니께 시원한 물을 떠다 드리며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이라며 보여드렸다. 할머니께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사진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고개만 끄덕이시며 사진을 넘기시던 중 할머니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진은 바로 안개 속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해금강의 모습이었다.

“여기네요, 통일 전망대구요. 망원경으로 북한도 보고 금강산도 봤어요.”

하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할머니께서는,

“뭐라꼬? 진짜 북한을 봤단 말이지?”

하시며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 그러시고는 여전히 산은 푸르냐며, 여전히 바

다는 깨끗하냐며, 공기도 좋고 시원했냐며 내게 이것 저것 물으셨다. 모두 대답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대답해드렸다.

“느거 큰할아버지가 북한에 안 있었나. 공부한다면서 올라가 갔고는 일주일도 안돼서 전쟁이 나뉘서 큰할아버지는 챙길 겨를도 없이 느거 할아버지랑 기 내려왔다. 느거 할배랑 큰할배는 동네서 소문날 정도로 친했는데 고마 그레 떨어져뻗다. 그래서 느거 할배 맨날 형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골병 다 들어 뵈고 상봉시켜준다 카길래 찾아보니깐 거서 돌아가셨다 카드라.”

아무 것도 모른 채 15년을 살아온 나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저기 함경도에 엄마랑 언니랑 나뉘고 왔다. 나는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와갔고…, 에휴…”

하시며 말 끝을 흐리시고는 눈물을 훔치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 동안 정말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들렸던 민족분단의 고통이 멀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주인공이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다. 그 동안 너무나 무관심했던 내 자신에 대해 뒤우치면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닦아드렸다.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좋으네…, 아직도 좋으네….’ 하시며 금강산이 찍힌 사진을 보시며 옆에 보이는 산등성이를 손으로 타 내리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할머니의 하얀 손을 꼭 잡아드리며 나중에 꼭 같이 가 보자고 약속하였다.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이따금씩 금강산의 사진을 한번씩 꺼내어 보신다. 그리고는 ‘죽지 말아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시며 되뇌신다.

할머니의 바람처럼 열린 통일이 되어 할머니처럼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나의 한반도를 그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지나쳐버린 참새처럼

영일고 2 이은지

“으악, 이게 뭐야?”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에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나의 발 앞, 내 시선이 머무른 그 곳에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의 주검이 누워 있는 것이다. 학교 생활에 바쁘고,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 참새의 그 주검 앞에서도 잠시 놀랐을 뿐 금방 덤덤해진 나였다. 곧이어 하필 내 집 앞에서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것도 잠시였고, 이내 참새를 뒤로한 채 걷는 나의 머릿속엔 금새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 있었다.

다음날, 대문을 나서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그 참새를 다시 보았고, 어제의 놀란 기억으로 잠시나마 다녀올 수 있었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저녁에는 그 기억으로조차 돌아가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참새였는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참새였기에 지나치는 잠시 동안만이나 불쾌감 속에서도 슬픔이란 걸 조금은 느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성가시게 뚜릿해 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 참새의 죽음만이 슬픈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세 가구가 모여 사는 골목길이지만, 그 참새의 주검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골목길을 드나드는 순간순간 항상 참새는 내 눈에 띄었다.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도 참 무관심하고 무신경해.’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이런 나 역시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춰보질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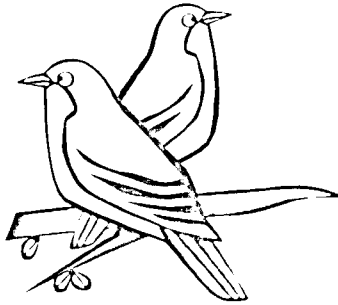
몇 주가 흐르고 길목에 쪼그리고 앉아 낮춰보는 시야에 선명히 들어오는 앙상한 참새의 몸뚱아리. 햇볕에 말라서 길목 위에 붙어버린 비참한 모습의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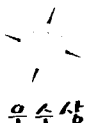
새……. 이런 참새를 본 나였지만 역시 손길을 뻗지 못하고 금세 뒤돌아서 버렸다. 뒤돌아서서 나의 머릿속엔 문득 지나쳐버린 참새 같은 존재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나의 입장에 서서만 살았던 시간들, 오로지 나만의 생활과 삶을 위해 애써왔을 뿐…,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 동안 조금이라도 이웃의 하소연에 귀기울여 보았는지, 옆에 놓인 '바보상자'에서 떠들어대는 먼 이웃나라 애기처럼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웃 사람들의 아픈 그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는 있었는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생각일 뿐 적어도 나에게는 조금도 절실하진 못했다. 어쩌다 TV에서 본 낯선 풍경들이지만, 이 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울어대는 사람들의 마음 속 한구석에 시퍼런 한 맺힘을, 서로 껴안고 온 방송국의 화젯거리 된 것들을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 나는 그 동안 전혀 동정도 감동이란 것도 함께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순간에 지나가는 잔잔한 파장 정도로만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얼싸안고 우는 사람들 속의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렇지 않게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까? 나처럼 차가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자신들의 일들이 우선이고 말로만 해대는 통일이란 것에 대해 잠시만이라도 머리 숙여 생각해 보았다.

아무도 선뜻 내밀지 못한 손길 때문에 아픈 상처를 가진 그들이 '말라 붙어 버린 참새'가 되기 전에 이제라도 시선을 돌려 보아야할 듯 싶다. 무심코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돌아선 그 발길을 되돌려 뚫려버린 그 싸늘함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 함께 감동도 느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먼저 손을 뻗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어야할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이웃들에게 희망도 하나 둘씩 생겨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참새를 보았다. 너무나 바싹 말라버려 땅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참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본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 우리집 마당에 그 참새를 묻는다. 이젠 춤지도 쓸쓸하지도 않겠지…….





우수상

아! 금강산

평은초 5 장미예

우리 학교는 단 세 명의 학생밖에 없는 작은 분교이다. 학생은 나와 3학년인 김대훈, 1학년인 서정수이다. 그리고 선생님이신 강병희 선생님과 이진기 선생님 그리고 학교 아저씨 한 분이 모두인 작은 학교이지만 아주 정다운 학교이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가게 되었다. 우리처럼 분교에 있는 어린이들은 무료로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다면서 이진기 선생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금강산을 가신다고 하셨다.

‘우와~ 내가 금강산에 가게 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 기분이 좋다!’

6월 21일 새벽, 잠이 쏟아졌지만 기쁜 마음으로 영주에서 출발을 했다.

‘북한에 가는 게 꼭 외국에 가는 것 같다. 매일 TV로만 보던 금강산은 어떤 곳일까?’

난 잠을 자면서도 금강산에 대한 꿈을 꾸며 갔다. 잠을 깨었을 땐 강릉 휴게소에 멈추어 잠시 쉬고, 다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다.

드디어 설봉호라는 글씨가 큼지막한 배 한 척을 찾았다. 설봉호는 우리가 탈 무지 크고 하얀색의 예쁜 배였다. 난 배 안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짐도 정리하고 출발 준비를 끝냈다. 배가 뽕뽕 기적소리와 함께 배가 금강산을 향해 출발을 하였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배 멀미를 하는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어우~ 어지러워. 빨리 가서 자는 게 낫겠다.’

선생님, 대훈이, 정수와 나는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북한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기보다 크네. 그런데 그냥 우리 나라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내리니까 금강산은 ‘반갑습네다’ 라는 노래로 우릴 반겨 주었다. 우리와 똑같은 말로 불러주는 북한 노래가 웬지 징겹고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우린 먼저 금강산 온천을 한바퀴 둘러보고, 온정각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하나에 1\$ 우리 돈으로 치면 1200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사먹는 셈이었다.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우리 나라안인데... 북한 돈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닌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에서 느낀 짐은 규율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 규율은 1. 쓰레기 버리지 않기, 2. 식물을 꺾지 않기, 3. 침 뺏지 않기 등이었다. 이 규율을 안 지키면 벌금도 내야하고 심할 경우 우리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롭기도 했지만 이렇게 규율이 엄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금강산이 오염되지 않고 그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평은 유원지에 한번씩 학교에서 쓰레기를 주우러 가곤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엄한 규율을 지키도록 한다면 평은 유원지도 오염도 안되고 잘 보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북한 사람들이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짐은 본받아야 할 것 같았다.

둘째 날, 우린 해금강과 금강산에 가게 되었다. 해금강에서는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뒤에는 금강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산에는 토끼나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 분상처럼 생긴 바위, 여러 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많이 있었다.

‘바위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올라가다 보니 폭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폭포는 밑이 잘 안보일 정도로 깊었다. 금강산을 올라가는 도중에 아주 가끔씩 약초를 캐는지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북한 사람들을 아주 멀리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

게 안내원 아저씨가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다. 또 그 사람들도 일부러 우리를 못 본척하면서 지나가 버렸다. 정말 외국 사람도 아니니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었는데..., 왜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너무 속상했다. 마치 우리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벌금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벌금을 내거나 벌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거라고 하셨다. 우리 아빠가 밭에 일하러 가실 때처럼 호미도 옆에 들고 편한 옷을 입고 지나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았는데..., 왜 말도 못하고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는 걸까?

얼마 뒤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오르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었다.

‘저 바람은 날 반겨주는구나! 너는 날 반겨줘도 벌금을 안 내겠지?’

우리는 안내를 해주는 구조원 아저씨를 따라 다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정수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 정수가 다람쥐를 잡으려다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다. 만일 구조원 아저씨께서 정수의 바지를 잡지 못했더라면 정수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날 우린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공연장에 들어갔다. 공연장에 들어가니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다가 공연을 하던 아저씨가 나에게 공을 던져 보라며 주었다. 난 있는 힘껏 공을 던져서 그 공이 멀리 갔지만 그 아저씨는 그걸 잡아내셨다.

‘와 어떻게 저걸 잡아냈지!’

몇 시간 뒤 공연은 끝났지만 아주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다.

우린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배를 타고 가며 ‘이제 다시 내가 북한과 이 아름다운 금강산에 와볼 수 있을까? 다시 온다면 통일이 된 후라야 가능하겠지? 언제쯤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때는 우리 돈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구조원 아저씨들의 안내 없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북한 사람들에게 정답게 말을 붙일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서 통일이 되어서 이번

에 함께 오지 못한 우리 할머니나 부모님과도 함께 모시고 금강산에도 가고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도 꼭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었다.

몇 시간 뒤 속초에 도착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강릉 휴게소에 들러 밥을 먹고 갈려고 했다. 마침 휴게소의 TV에서는 한국 : 포르투갈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조마조마한 순간에 박지성 선수가 드디어 한 골을 넣어서 우리가 16장에 올라가게 되는 기쁜 순간이었다. 난 기쁨을 금치 못해서 막 소릴 지르기까지 했다. 순간 나는 정수를 구해준 구조원 아저씨도 이 순간, 이 경기를 보고 있을까 궁금했다. 아마 보고 있다면 그 아저씨도 우리처럼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눈물

계림중 1 조재현

저희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북한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면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 하실 때면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할아버지의 생신 때의 일입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크게 해드리고 싶어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께 대접해 드린 적도 없는데, 어찌 내가 크게 잔치를 할 수 있겠나?”

하고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부모님께 보답해 드리지 못한 은혜에 몹시 죄송스러운가 봅니다. 결국에는 가까운 친척들만 함께 모여 오순도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잔치를 마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웃고 계셨지만 할아버지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마음속 깊이 피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조상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득 담아 차례를 지내고 다 정리하지도 못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아주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임진각으로 가지꾸나, 어서 서둘러라.”

임진각에 가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북한 쪽을 바라보며 차례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할아버지께서는 조금 아쉬운 듯한 목소

리로

“우리도 다음에는 여기에 와서 차레를 지내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진각에 가서는 비무장 지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고 제 3 땅굴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북한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라산 역에도 갔었는데 그 곳에는 북한 지역의 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사진을 관람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한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어린 시절을 저는 할아버지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적으로 돌아가 그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그러가듯 저에게 해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도라산 역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통일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무장 지대와 북한 쪽을 망원경으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곳 저곳을 보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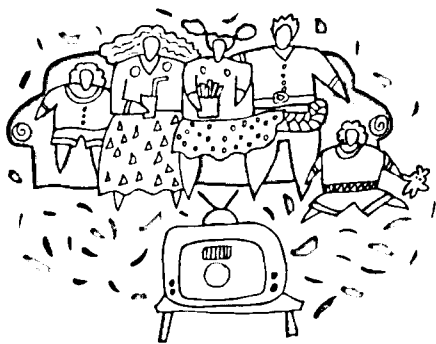
“재현아, 저기 저쪽이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란다. 아직도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저기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그 눈빛과 목소리에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배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그리움에 목이 매어오시는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위로의 말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동안 북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가까운데도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걸까? 우리가 한 걸음 다가 가면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고 또 다가가면 또 물러서고……, 내 눈앞에 비치는 것이 북한인데, 할아버지의 고향인데, 저렇게 가까운데, 어째서 우리의 손과 발에는 닿지 않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최근 북한에게 조금 다가선 것만 같았는데, 요즘 핵 문제로 북한은 다시금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비극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임진각에 가게되면 그때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할아버지의 눈물도 마르겠지요.



철새를 아나?

의성여고 2 석혜지

철새를 아나?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살 곳을 바꾸어 사는 새란다. 아름다운 철새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더운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철새들은 따뜻한 먼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자 드디어 길고 긴 여행을 떠났단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철새들의 비행은 계속되었지만 그 먼 길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 힘든 날개 짓이 반복되어 힘들었지만 철새들은 포기하지 않고 힘찬 날개 짓을 계속했어. 그런데 어느 날, 철새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어. 왜냐구? 철새들이 날개 짓을 계속하며 날고 있는데 큰 독수리 무리가 철새들의 무리에 끼어든 거야. 철새들은 독수리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지. 하지만 도망을 다니면서 길을 잃은 거야.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지. 하지만 철새들은 다시 함께 비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찾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찾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철새들에게도 겨울이 왔단다. 처음에는 서로를 찾겠다는 생각에 모이도 먹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눈이 오고 매서운 바람이 불자 추위와 배고픔에 잃어버린 친구보다는 모이와 따뜻함을 생각했단다. 어느 날인가 추위가 풀리자 따뜻해지고, 눈이 녹아 모이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어. 그동안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고생하던 새들은 열심히 모이를 찾아 나섰지. 드디어 철새들은 모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어. 냄새를 맡자마자 철새들은 있는 힘을 다해 모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지. 그리고 큰 나무 밑에 놓여있는 모이를 발견했어. 그런데 철새들 눈에 보이는 건 모이뿐이 아니었어.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철새의 한 무리

를 발견 한거야. 서로 반가워하고 부둥켜 안아주어야 했지만 그러기에는 배고픔과 추위가 너무 길었던 거야. 결국에는 철새들은 서로 모이를 먹으려고 싸움을 시작했단다. 하지만 그 싸움은 서로를 지치게만 한 뿐이었어. 서로가 서로를 부리로 쪼자 피가 나고 깃털이 빠지게 되었지. 하지만 이 싸움은 승리를 한 팀도 진 팀도 없었어. 지쳐 쓰러져서 모두가 힘이 없어 모이도 먹지 못했지. 그러다가 철새들은 생각을 했단다. 왜 이 싸움을 했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철새들의 마음속에는 모이에 눈이 멀어 서로를 공격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서로의 소중한을 다시 깨닫게 되었단다. 그러자 철새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왔단다. 다친 새들을 서로 보살피주고, 모이를 발견하면 나보다 다른 철새들에게 배풀었지.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도 서로 꼭 안아주면서 그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날씨가 풀린 어느 날 철새들은 여행길에 다시 올랐단다. 다친 새도 아픈 새도 다 나아서 모두가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상처도 낫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주었던 거야.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둘로 갈라져 남한, 북한 이렇게 불리고 있지. 한 민족 한 핏줄이 이렇게 떨어져 산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철새들처럼 사랑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할 텐데 말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고 불러보았음직한 이 노래처럼 어서 하루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무조건 “우리 오늘 통일하자.” 이렇게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루어서는 안 돼. 그러면 철새들이 모이를 놓고 싸운 것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6·25 전쟁 같은 분상사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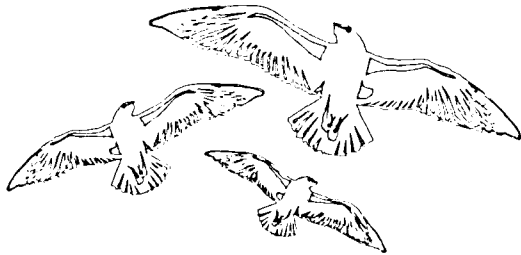
옛날 신라라는 나라를 아나? 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통일해서 통일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단다. 물론 통일을 한 것은 아주 대단한 업적이지만 후대에 이르러 훌륭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단다. 그 이유는 지금의 중국, 당시의 당나라의 세력을 빌려서 통일을 이루었던 거야. 그러자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당의

욕심 때문에 신라는 한 번 더 고난을 겪었어야 했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통일은 절대적으로 남과 북이 이루어야지 외국의 세력이 끼어들어서는 안 될 거야. 이런 짐을 명심해서 과거의 오짐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까?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북한 친구들이 있겠지. 함께 공부를 하고, 운동장에서 함께 뛰놀고, 북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50년 만에 만나서 부둥켜안고 우는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이 있단다. 우선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야. 국방비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단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쓰고 있단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휴전선도 없어지고 따라서 휴전선을 따라 출지어있는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모든 대한민국 남자가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를 다녀와야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필요한 군사가 줄어들어 원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국가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건설되면 아주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고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DMZ 지역을 계속 보존한다면 관광지로 유명해지겠지. 그러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우리는 관광대국을 이룩할 수도 있게 된단다. 지금까지는 사진으로만 봤던 북에 있는 유적지와 유물들을 통일이 된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보고 직접 느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역사 연구는 남북을 통합해서 더 자세히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겠지. 또한, 문화도 더 더욱 발전을 하게 될 거야. 전통주의적인 북의 문화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의 문화가 결합하여 조화를 이룬다면 문화를 재창조 할 수도 있겠지.

지금 살펴 본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니? 통일은 이산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거야.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푸른 하늘을 향해 평화의 비둘기를 높이 날려

보낼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 천새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부터 기르자꾸나. 휴전선이 없어지고 철쭉꽃이 한반도를 뒤덮을
날을 위해…….



통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

금천초 5 김지연

독일이라는 나라 모두 아시죠? 독일도 우리 나라처럼 분단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의 자유의사로 통일이 된 나라지요. 지금은 통일이 된 나라이고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독일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우리 나라도 국민 모두의 힘을 합쳐 통일을 하게 된다면 막상 국기는 어떻게 정하지?, 나라 명은 무엇으로 바꾸지?... 같은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 좋은 점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이산가족을 상봉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6·25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들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헤어진 채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슬픈 일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이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과 힘을 합쳐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나라를 경제 선진국으로 만들고 세계에 우리 한민족의 지력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이며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수입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광지를 외국에 널리 알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이나 백두산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관광을 갈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책에서만 공부해온 유적지를 찾아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남북 단일화로 같은 선수가 되어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이고 한 나라인데 적이 되어 싸워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 선수단일화로 공격, 수비, 기술 같은 것도 더 좋아져서 여러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안정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바이어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안정된 나라가 되고 전쟁의 공포감이 없어집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외국 바이어들은 믿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경제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고 일자리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나라와 국민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라에서는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이해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많이 하면서 국민의 슬픔을 느끼고 통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식량난을 막기 위해 식량과 비료 같은 것을 보내주고, 어려운 점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면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잘 살지 못하는 편입니다. 한민족으로서 그런 북한을 도와준다면 남북통일에 점차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진정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많이 하고 북한을 도와준다고 해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통일은 헛걸음이 되겠

지요. 그래서 서로의 경제, 문화,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큰바다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도 통일을 기원하는 작은 마음을 모아 큰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하면 좋은 점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희망을 가지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이 진정으로 진달되어 우리 나라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기원하는 것이 통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법전중 3 정은지

우리 민족은 누구나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이념의 대립으로 인하여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일어나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며 적대시하였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이제 남북한은 서로 신뢰와 화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민족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한 접근은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쌓여온 오해와 불신을 벗어내는 데에 필요한 일이다. 서로의 차이와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나누면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솔직히 나누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였다. 오늘날의 무기는 더욱 다양해지고 강력해졌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의 피해는 6·25 전쟁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사회 내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야 한다.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숙과 민주화의 진전은 민족통일애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안정과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침략적인 행위도 막을 수 있는 안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쟁 없는 평화는 구호나 말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간의 평화를 지키려는 결심과 아울러 굳건한 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역량은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통일문제와 평화문제를 합리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우리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되듯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도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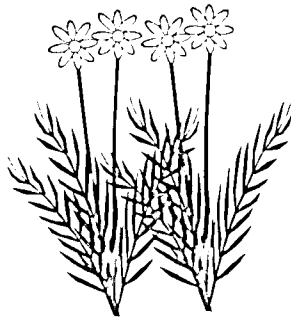
한편, 우리가 우방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통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분단과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북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주변 국가들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남북의 통일과정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 마당에서도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주장하여야 한다. 수십 년간 갈등해온 남북한에는 아직도 불신이 남아있으므로 남북한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평화적

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 중학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통일문제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러면 일상 생활에서부터 그 실천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곱지 않은 말을 하다가 싸우기도 한다. 심지어는 잘못도 없이 힘센 아이들에게 당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듯 우리가 학교생활에서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간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일과 평화,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통일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어느 누구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띤 마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

선화여고 2 이귀자

우리 할머니의 옷장에는 같은 한복이 두 벌 있었다. 차이점이라면 하나는 하얀 부분이 누렇게 세월을 땀다는 것이다. 내가 왜 두 벌이 같은 것이 있는지 할머니께 여쭙어 보니,

“그것 말이나. 낡은 것은 네 할아버지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만해주신 것이고, 새것은 네 아버지가 똑같은 걸로 해준 것이지. 다음에 북에 계신 네 할아버지를 만날 때 입으라고 말이다.” 라고 하시던 할머니의 표정은 이내 어두워 지셨다.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기억이 궁금해서 이것 저것 여쭙어 보고 싶었다.

“너희 할아버지? 참 자상하신 분이었지. 그런데 얼굴은 이제 하얗구나. 그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꿈에도 잘 보이지가 않는구나.”

할머니는 난리 툽에 급하게 내려오시다가 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 챙기지 못한 채 헤어져야만 했던 사실이 가장 안타깝다고 하셨다.

“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이라면 결코 반복되어도, 유지되어도 안 되는 것이란다. 반대로 통일이 우리에게 더욱 안정된 미래를 주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니까 이루어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할머니의 표정은 곧잘 어두워지셨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 때가 생기셨다. 부모님은 할머니에 대해 걱정이 높아 지셨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접어두셨던 재봉틀을 다시 꺼내셨다. 직접 고르신 고운 옷감으로 할아버지의 한복을 지으신다고 하셨다.

“며칠 전 네 할아버지를 꿈에서 뵈었다. 여진히 늙으신 그대로였는데 걸치고 있는 옷은 피난 때 그대로더구나. 그래서 새 옷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웬지 곧 할아버지를 뵈실 것 같구나.”

하시느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얼굴이 되셨다.

“탈탈탈……”

재봉틀 소리에 잠을 청하고 깨던 몇 주일, 할머니는 피곤하신 몸으로 할아버지의 한복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 한복은 보통 것과는 달리 특이한 점이 있었다. 허리띠가 아주 굵고 조끼와 바지 색이 같아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허리도 안 좋으셨고, 화려한 옷도 좋아하시지 않아 상·하가 같은 색으로 하셨다고 한다. 옷장 속에 할머니의 보물 1호로 군림하던 할아버지의 한복은 결국 바지에 주름 한번 지어보지 못한 채 할머니와 우리 곁을 떠났다. 할머니는 끝끝내 할아버지의 생사여부 조차 아시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한복을 품에 안고 가신 할머니의 임종은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대한민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주제 아래 뜨겁게 돌아올랐다. 아버지도 전화를 통해 할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보셨고, 할아버지도 몇 년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결코 우리 가족만이 바라지는 않았던 통일 한국은 지금 통일 일보직전에 있다. 남한이 반보, 북한이 반보만 내딛거나, 남한 국민이 뜻을 모아 한발 다가 손운 내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로 위에 말이다. 하지만 그 ‘한발’이란 얼마나 민감하고 높은 것인지, 약간만 빗나간 마음을 비치면 우리의 발은 저 지뢰밭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깨끗한 의식으로 북한과 화합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을 평화통일이라고 하던가. 통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손익계산에 개의치 말고 가시 같은 철조망이 거뒤틀리고, ‘휴전선’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 그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달력에는 6번째 국경일이 붉은 색을 자랑스

럽게 발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산의 고통으로 흘린 눈물바다는 결코 쓸모가 없지만 재회의 감동으로 흘린 눈물바다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리라는 것을…….



● 경상남도

- 백두산 / 341
- 통일의 길 / 345
- 백두산 / 348
- 백두산까지 / 351
- 백두산 / 354
- 혼신일체 / 358
- 통일친구 두산이에게 / 360
- 통일을 위한 날개짓 / 362
- 다시 올라가자 / 367

백두산

김해 삼성초 4 이재현

지금 남과 북은 분단으로 되어있다.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만 분단으로 나누지..., 왜 우리 나라까지 분단으로 나눌까?

만약 지금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 이웃들도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를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내가 가보고 싶은 백두산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올라가서 엄마가 말씀하셨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 해보고 싶다. 난 북한 어린이와 함께 손잡고 걸어보고 싶다. 우리 반에서는 남자와 손도 못 잡겠지만 북한 친구라면 남자라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TV에서처럼 머리에 빨간 꽃을 달고 있는 여자 아이일까? 아니면 우리처럼 머리로 묶고 옷도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닐까?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 아이들을 만나서 백두산도 가보고 북한 어린이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보고 싶다. 북한은 남한과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6·25 전쟁부터 53년 동안 보지 못했더니..., 도시락, 소풍, 아이스크림... 등 말도 바뀌고, 난 잘 살고 있는데 북한에는 굶어죽는 아이도 많고..., 북한 어린이들은 불쌍하다.

그런데 참 궁금한 점이 있다.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까? 통일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 통일이 되는 방법을 알면 통일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텐데..., 어제 컴퓨터로 통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거의 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통일이 어떤 것인지만 선서처럼 적어놓은 것뿐이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뿐이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직어야 할까? 하고 걱정도 많이 하였다.

하지만 난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 북한 어린이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원래 하나인데 왜 분단으로 나뉘어 살까? 원래 하나인데 2개의 분단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분단으로 사는 게 너무 싫다.

두번째로는 이산가족 때문이다. 난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지만 아들 딸은 북한에, 엄마 아빠는 남한에 있다면 하루 하루를 눈물과 슬픔으로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건 슬프고 힘들고, 엄마 아빠도 나랑 떨어져 사는 게 슬픈 것이다. 내가 수련회에 갔을 때에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캠프파이어 때에 엉엉 울었기 때문이다. 난 단 하루동안 가족을 못 봤지만 이산가족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 못 볼 것이다.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슬프다.

전쟁은 왜 일어난 걸까?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남과 북이 나뉘어지지지는 않았을 텐데... 6·25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데... 또 이렇게 분단이 되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여러분!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기쁜 것이다. 공부하다가 뛰쳐나와 “와! 통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통일이 된다면 먼저 북한에 가보고 싶다. 두번째로는 백두산에 북한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가서 백두산 경치를 구경해보고 싶다. 세 번째로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산가족이 만나서 우리 가족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캠페인을 하나 만들고자 할 것이다. 바로 ‘전쟁 그만두기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 못하게 전쟁을 그만두게 해줄 것이다. 전쟁하려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다시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캠페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많다. 하지만 다 이룰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 통일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소원인 것 같기 때문이다.

난 벌써부터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 통일이 되면 만들고 싶은 캠페인, 통

일이 되면 가고싶은 곳... 등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은 왜 빨리 오지 않는 걸까? 통일이 빨리 와야지만 나와 우리 가족, 이웃,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고 행복해 할텐데... 통일은 내 마음을 모른다. 내가 뭘 어떻게 할건지 아무 것도 모르고... 남과 북 사이에 다가올 생각조차 못하는 통일이 알맙다. 하지만 통일이 남과 북 사이에 다가온다면 알미운 마음이 싹~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빨리 왔으면... 한다.

통일은 정말 거북이다. 53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나라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늦게 올까? 오기 싫어서 아주 천천히 오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아직도 온 준비를 안하고 있을까? 또 멋진 통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늦어지는 걸까? 뭐 때문일까? 아주 먼 나라에 있을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까? 가까운 곳에 있다면 왜 안 오는 걸까? 빨리 통일이 되어 백두산 천지의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온천에도 들어가서 아토피가 있는 내 피부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 보내고 싶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나라에 있는데... 휴전선 따윈 치워버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서로 손에 손잡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나의 기쁨을 나누며 여행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이상하다. 같은 나라에 같이 살더라도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옛날에는 총과 칼을 맞대어 싸웠지만 53년이 넘는 지금까지 화해도 안 하다니... 나랑 친구랑 싸워도 하루 안에 화해하는데... 우리 엄마께서도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하셨다. 이산가족의 슬픔과 죽은 분쌍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힘없는 백성들도 생각 못하나 보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데 말이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

매년 6월이면 어치구니없게 죽은 조상들도 생각한다. 죽은 조상들도 얼른 화해하고 통일하면 어치구니없게 죽었다고 슬피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같이 기뻐해 주실 것이다. 우리 나라가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우리 조상님도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내가 지금 직고 있는 글을

보시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통일님! 빨리 와주세요! 먼 나라에 계시더라도 썩~ 날아와 주세요! 전 언제나 통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안 오면 안돼요! 알겠죠?”

난 정말로 통일을 원한다. 나보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조상님들과 우리 나라 사람과 이산가족... 등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왔으면 좋겠다. 안 오면 내가 데리고 올거야!



통일의 길

밀양 동명중 2 민초롱

우리 외조부께서는 2년 전 백두산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 물론 북녘 땅이 아닌 중국 땅을 밟고 백두산을 오르신 것이었고,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위를 비행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서해를 건너 중국 동부를 날아 빙 둘러 가신 것이었다. 단군이 자리잡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세월동안 단일 민족을 유지하면서 한 나라, 한 체제 안에서 오순도순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이 땅 한반도는 지금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이제는 서로의 땅에 밭도 닿게 할 수 없으며 숨을 뱀어놓은 그 하늘조차도 마음껏 가로질러 날수 없는 가슴아픈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도 분단이 된 것일까?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직후,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결정되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지역은 소련군이, 남한지역은 미군이 점령하였으며 그로 인해 38선이 그 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 단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분단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독립투쟁 과정에서나 정부수립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됨으로써 외세가 우리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결과가 되었고, 이것도 국토 분단의 비극을 가져온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남한에 대해 기습 남침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3년간의 전쟁이 계속되다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지금까지 분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분단 상태를 오래 지속해오면서 그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어려움,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민족적 역량 신장의 어려움, 동북아시아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로의 진입의 어려움 그리고 휴전체제로 인한 경제 손실과 심리적 불안감 등 수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이라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통일비용이란 것도 말이 비용이지, 만일 통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투자비용 또는 통일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군사비 지출이 줄어든다. 둘째, 체제경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다. 넷째, 대륙과 연결되어 생활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

남북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다. 먼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한반도이다. 지금도 250km의 휴전선에는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 상태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통일은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 동족상잔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절실하며, 남북한간 불필요한 대결과 경쟁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를 막고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자리잡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겨레로서의 삶을 위해서이다. 남북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이념체제를 초월한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다. 아직도 혈육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이산 1세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남북한의 문화적 장점을 합치게 하여 우리 나라를 미래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남한은 전통문화를 현대화한 면이 강한 반면, 북한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온전하게 보전하려는 면이 강해 남북한 상호보완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여지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통일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무대와 활동영역을 넓혀 주고 우리의 좁혀진 시야도 넓혀 줄 것이다. 경의선 연결을 통해 이어지는 국토의 연결로 북한에 널려있는 고구려, 고려, 발해 등 역사문화 유적지에 수학여행을 가고,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 명산에 등반도 하며, 기차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까지 배낭여행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제도의 통일보다 마음의 통일을 먼저, 북한의 변화를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며,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서까래로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한 다음 완전한 통일로 가는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는 통일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해야 통일 이후에 후유증이 적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을 것이다.

민족적 고통과 막대한 분단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있어 왔다. 그 중에서 남한과 북한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 중의 하나가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이 두 합의서는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합의이며, 그 내용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와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민족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전쟁의 공포에 싸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한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한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광복 전후의 불행했던 과거를 뒤돌아보고 이를 극복하여 민족의 통일을 향해 힘차게 진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하루빨리 하나됨을 소망하며 이 글을 줄이고자 한다.

백두산

용마고 1 김상혁

어릴 적 내 방에는 백두산 정상을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있었다.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아버지의 대학시절 추억거리 중 하나였다. 나 역시 어린 마음에 그리 특별한 것 없는 산 사진 정도로 취급했고 어느새 그 사진 역시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져 백두산 사진을 보게되면 당연한 듯이 통일에 대한 문제나 북한과의 정치문제 등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어릴 적 그저 그런 산 사진으로 취급할 수 있던 때가 개인적으로 그리워질 때가 많다. 사실 백두산 정상을 찍은 사진만 보고도 남북분단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면 흔한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본다면 씩씩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떠들어대고 교육받았으면 겨우 산 정상을 찍은 사진 한 장 정도로 이런 문제를 떠올리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 정도로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남북문제가 가지는 영향력은 대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얼마 전 군사정권 시절의 문서기록 창구가 공개되었다. 1,2급 기밀로 취급되던 사항 중에는 박정희대통령 정권당시 추진되어 오던 행정수도 이전계획, 일명 백지계획서가 있었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한 이유 중 하나가 수도 서울이 너무 북쪽에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 국방정책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부지선정 기준에서도 교통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있는 충청도 지방이 떠올랐는데, 재미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당시 부지들이 항구로 통하는 교통은 편리하되 바다로부터는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형 지형을 선정한 것인데 이는 북한과의 전쟁상황을 대비한 부지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부계획을 보면 더욱 명백해 지는데 공습에 대비한 지하시설들과 북측 주력 전투기의 작진반경과 폭격능력 등을 계산해 도시를 계획해 놓았다. 처음 이 공개문서를 볼 때는 마냥 신기해서 감탄하며 보았다. 그러나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면 비정상적, 혹은 압담하기 그지없는 계획임에 틀림없다. 행정수도를 처음부터 전쟁에 대비해 설계하다니! 그것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의 공습이 아닌 바로 동포라 불리는 북한의 공습에 대비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 처음부터 충청권이 행정수도 부지로 떠오른 자체가 뭔가 잘못된 처사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정확한 한반도의 교통, 경제의 중심지고 그 지리적 조건이 완벽하다. 그럼에도 서울의 위치가 이러쿵 저러쿵 들먹여지는 건 한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이다. 분명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교통,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할만한 해결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한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의 해결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디좁은 한반도를 전반으로 잘라서 생각한 좁고 웅졸한 생각이다. 말로는 중장기적 대책이며 정책이지만 민족으로서의 애정과 의무를 포기한 우리만의 대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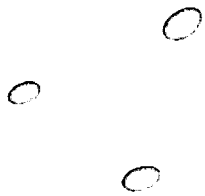
마치 대한민국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좀 특별한 이웃국가 정도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내외 활동에서 북한과 남한은 서로를 애써 무시하며 화해보다는 관찰을, 진실보다는 침묵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결정이나 외교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북한에게 발목이 잡히고 있으며 국가적인 사업이나 큰 국민행사 등에 있어서도 언제나 북한을 신경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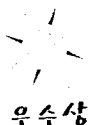
비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생활 안에서 남

북관계 변화나 북한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평생동안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에 대해 교육받고 생각하고 떠올리면서도 점점 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스스로의 삶과 그리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해가고 있다. 마치 국가의 축소판이 개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현상이다.

백두산의 천지연의 물이 달문을 지나 흘러내려 간다. 그리고 천지연의 물은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주변으로 흘러든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도 이런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항상 충만해 주변으로 퍼져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걸어서 백두대간을 관통해 백두산을 오를 때가 올 것이고 개마고원과 백두산 기행문을 써낼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백두산 천지연의 사진을 보고 도덕책을 읽는 듯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치 천지연의 물이 달문을 넘듯 자연스럽게 백두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까지

신어초 6 장진규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왔던 끈질기고 다부진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군사력이 월등히 강하거나 국토가 그다지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 하나만큼은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약 50여 년 전 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눈앞에 두고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분할 진주함으로써 한반도의 허리에 선을 긋고 남과 북으로 분단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가기를 빌었지만 결국은 '분단국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그 후 50년 동안은 서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만 하염없이 달려왔습니다. 남한은 자주국가로서 문화적·기술적·정치적으로도 고무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이념의 공산국가로서 문화·기술보다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도 여러 번 가졌고 북한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축구경기도 가져보는 등 여러 가지 문화교류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에는 한동안 그 얘기만 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의 뉴스로 통해 보면 가족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동안의 고통의 눈물이고, 그때의 기쁨의 눈물이고, 후에는 통일이 되면 또 만나자는 약속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자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할아버

지, 할머니들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상봉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가난한 북한의 서민을 위해 성금 모금을 할 때에 모금함에 천원 짜리 지폐를 넣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살 짜리 꼬마아이에서 연세 80의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남과 북의 축구경기를 볼 때에는 월드컵의 경기를 볼 때보다 더 흥분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남과 북의 축구경기였으니까요. 결과는 0:0으로 공평히 비겼지만 한 핏줄이라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서 더없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북한과 더 떨어진 느낌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뜸해지고 북한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의 뉴스에서 북한이 남한에 협박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북한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을 얼마나 돕고 아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적힌 책을 읽다가 통일에 관련된 것을 읽고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서로 아끼고 이해해줄 때에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북한이 왜 남한에 그런 말을 했을까? 북한에 남한이 잘못된 것이 있었나? 그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채 하기 전에 북한에 실망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북한과 통일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만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통일을 위해 일하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보며 나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통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통일을 하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된 한반도의 법

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고 물가도 여러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적인 통일을 한 후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쉼새없이 달릴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반환 점을 빙 돌아 '백두산'이라는 도착점에 닿을 때까지... 그 후에는 세계 정상의 높은 위치에 서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백두산

창녕여중 3 차지윤

막상, 백두산을 주제로 글을 쓰려니까 막막하고 아득해지는 기분이 든다. 나는 백두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못한 관계로 나의 개인적 느낌을 쓰려 한다.

백두산, 나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예전부터 참 좋아했다. 뭔가 웅장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할 것 같은, 그런 자연적인 느낌의 이름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듣기로는 백두산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산이라 했다.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훑어주고, 겨울에는 강서리 꽃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백두산이라..., 상상만으로도 기쁨이 느껴지는 곳이다. 나의 백두산에 대한 간절함은 통일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더해가게만 한다.

지금 내 발치에 개미 한 마리가 바쁘게 기어간다. 이 개미는 분명, 백두산에도 있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백두산 골짜기를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운인 것 같다.

대-한국!! 지난 유월의 뜨거웠던 그 감동이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다. 우리가족은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광판 앞을 떠나지 못했다고 해야 더 알맞은 표현이 될 것이다. 나도 학원수업에 불참하면서까지 시내의 전광판 앞에서 태극전사를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나중에는 목이 아파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응원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아픔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한 골, 한 골이 터져 나오는 스릴과 8강, 4강을 돌파하는 기쁨이란 피가 거꾸

로 솟는 듯한 흥분과 함께 엄청난 열기를 만들어 냈다. 운동장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거리라는 거리는 모두 붉은 물결에 잠겼고, 그 붉은 물결에 우리도 덩달아 붉어지는 듯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형 태극기! 정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그토록 멋있고 웅대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사람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 태산을 이룬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니요,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되어 보고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열정 앞에 내가 대한의 딸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던 한 달이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단결심이란 그 어느 민족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런 정신으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만 같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남·북한 통일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세기가 지나도록 둘로 나뉘어진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권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통일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너무나 작은 것이라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도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경제적인 면이나 국민의식 수준 등의 여러 면에서도 독일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나에게는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부러움을 느낀다. 우리가 하지 못한 동포를 감싸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독일은 해냈으니까. 우리의 단결심으로 하지 못한 일은 없다. 우리는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옛말에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각자 행동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계열에 서있었지만 이대로 라면 절반의 발전밖에 없다. 우리는 몽치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우리가 몽치야만, 통

일을 해야 만이 더욱 더 발전하고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물론, 많은 발전 없이도 살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내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깨달은 것은 1년 전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사회수업 과정 중에 통일학습이 있어서 한 교시는 북한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학급친구들 모두가 멀티미디어 실에 모여 북한의 실태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관람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북한의 식량난을 그나마 잘 아는 쪽에 속해있다는 생각에 무관심한 채로 딴 짓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자신의 몸도 추스르지 못해 아들을 버려 두는 어머니와 겨우 탈북에 성공했지만 어려운 살림을 살고있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 그리고 휴전선에서 탈북에 실패해서 생긴 시체들을 치울 여유도 없는 동포들을 보며, 정말 할 말을 잃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의 비참함이란 생지옥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것이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은 모두가 초점 잃은 눈에 넋이나 간 표정을 하고 있으며 몸은 말라버린 나뭇가지 마냥 그렇게 초라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네 가족이 반 바가지의 밀가루로 보름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말이다.

나는 비디오 시청을 하면서 평소애 '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못하는 거야?' 라거나 '오늘은 밥맛도 없는데 그냥 매점에서 뭐나 사먹어야지' 등의 생각으로 급식을 숟가락도 대지 않고 그대로 버렸던 일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버린 밥만 해도 몇 사람이나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죄의식마저 느꼈다.

마지막으로, 나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말하자면, 나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나이나 말투라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는 친한 친구라는 것이다. 비록 철조망이 그 허리를 자르고 있지만, 지도에서 보이듯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으니 단짝 친구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무의 가지가 갈래로 갈려져 있지만 그 밑동은 하나이듯이 뿌리를 박고있는 이 땅, 한반도가 한 덩이듯이

북한 동포와 우리는 다른 곳에 서 있을 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글을 마친다.



혼신일체

함안고 2 안후영

작년 여름, 나는 학교의 도움으로 금강산을 다녀왔다. 서울도 한번 안 가본 나에게 이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북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한참동안 멍하게 동해바다를 바라본 것이 생각난다. 배 한 척만 없으면 또 다른 내 조국에 갈 수 없다는 안타까운 생각과 어른들의 고정관념의 산물인 북한의 나쁜 이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나는 드넓은 동해바다를 하임없이 바라보았던 것이다.

도착 후의 검문은 앞에서 말한 나의 불안한 마음을 증폭시켰다. 갈색 군복에 무표정하지만 웬지 두려운 얼굴, 왼쪽 가슴에 달린 빨간색 바당의 김일성 배지, 상당히 이질적인 북한 주민의 모습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고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다.

금강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명의 남녀 한 쌍이 서 있었다. 복장을 보아하니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아닌 듯 했다. 그들은 금강산에서 감시원으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었다. 북한의 주민을 처음 본 나로서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검문소에서 만난 군인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두려운 마음에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 대열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 그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색하지 않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그들에겐 국토의 분단은 서로의 대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이야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어쩌면 우리는 백두산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천지처럼 머릿속에 갇혀있는 고

정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백두산 하면 천지만을 생각한다. 백두산은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일컫는 말이지, 정상 위에 있는 호수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북한을 이야기하면 북한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만 꺼낸다. 극단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개인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가 백두산의 중턱을 모르듯,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모습에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아마 그 모습은 동질감일 것이다. 국토가 분단이 되들 핏줄은 끊어질 수 없고, 떨어져 있던 몇 십 년의 세월보다 긴 것이 함께 살아온 반만년의 역사, 바로 동질감의 이유일 것이다.

따로 떨어져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본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월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으며 오해와 비난 속에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단지 고정관념만이 상대방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조화의 상징인, 태극기의 태극무늬의 뜻을 내 사촌 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나의 사촌 동생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라고 대답했다. 어린아이라며 우리는 남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서 우리는 대책 없이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혼신일체라는 말이 있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라는 것이다. 육체는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영혼이 없으면 시체라는 이름을 얻으며, 영혼은 자신에게 형태를 부여하는 육체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한민족인 것이다. 누가 육체고, 누가 영혼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굳이 말한다면 육체는 한반도이고, 영혼은 한민족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의 제거 없이는 둘은 결합할 수 없다. 정리를 하자면 통일의 이유는 실리 추구가 아닌, 서로 함께 살아가고픈 마음이며,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좀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멀리서 백두산 전체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통일친구 두산이에게

안청초 5 정다운

안녕~

나는 진해에 사는 정다운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음……, 난 너의 남한친구야! 너는 나의 북한친구이고 말야. 한순간 우리는 친구가 되어버린 거네……. 난 너를 볼 수 있어. 어떻게냐고? 비밀이지만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눈을 감고 바람이 되어봐! 너의 앞사귀들이 나의 손을 잡고 있잖아. 그렇지?

너를 보며 너의 앞사귀와 꽃들을 어루만져준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가장 큰 장애물, 휴전선이 있기 때문이야. 너도 휴전선 들어보았니? 바람 친구에게 들었을 것 같지만 자세히 가르쳐 줄게.

우리는 한민족인데 6·25 라는 전쟁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치열한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많아지자 우리는 휴전선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선을 긋게 되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냐. 그 선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단다. 이산가족은 전쟁 때 어떤 사연으로 남과 북에 가서 휴전선이 생겨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말해.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네가 사랑하는 씨앗이 있어. 그런데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먼 곳으로 날아가 영영 만나지 못한다면 너의 심정은 아프겠지? 마찬가지로란다. TV에 나오는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가슴이 아파 와.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그럼 당사자는 얼마나 아플까? 너의 마음도 나와 같을 거야. 이제 알겠지? 분단의 아픔을…….

지금 내 옆에는 바람 우체국 아저씨가 너에게 편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북한

말과 다른 남한 말을, 너를 위해 바꾸어 말해주시기 위해 나뭇잎 사전을 찾으시느라 나뭇잎을 사랑사랑 흔들고 계시네. 그리고 보니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다른 말이 많이 있지. 일단 통일이 되면 이것부터 고쳐야돼.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속담이 떠오르는 거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너만은 이 생각에 동의하리라 믿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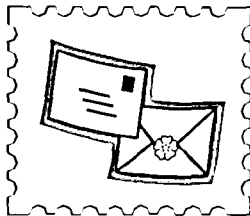
통일이 된다면 나는 지도를 찾아 그어 있는 선을 지울 거야. 그리고는 모래사장 모래에 합쳐진 우리 나라 지도를 크게, 아주 크게 그릴 거야. 그러면 파도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꾸 지우겠지?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단다.

두산아, 백두산아!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 줄래? 그리고 아픈 기억의 이산가족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잎으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겠니? 그 씨앗이 커질수록 휴전선은 지워지고, 나뉘어졌던 한민족이 손잡고 웃을 날이 올 테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큰 통일은 아니지만 마음의 통일을... 초록 요정들이 우리보고 응원하고 있잖니! 한번 해보는 거야!

2003년 6월 13일

백두산이에게 남한 친구 다은이가



통일을 위한 날개짓

대방중 3 박은비

곱게 핀채진 하늘밑, 오목조목 모여 있는 집들 가운데 눈에 띄는 빨간 지붕은 예희네 가족이 살고 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예희는 팔망팔망한 눈망울을 가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이다. 일에 찌든 아빠도,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힘든 엄마도, 매일 야단맞는 언니도 예희의 재롱을 보면 마술에나 걸린 듯 피로가 풀린다. 그런 예희가 오늘은 웬일인지 입을 툇 내밀며 집에 왔다. 무엇이 예희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엄마! 나 오늘 혜진이랑 싸웠어! 이제 혜진이랑 절대로 얘기 안 할거야!”

“우리 공주님이 무슨 일로 싸웠을까? 엄마한테 들려줄래?”

“오늘 선생님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통일되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근데 혜진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 내내 싸웠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뺨양던 예희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졌다. 이때, 소파에 누워 만화책 보던 언니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통일 되서 좋고 나쁘고가 어딴냐? 그냥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니? 역시 애들이란...”

“치! 모두들 예희만 미워해! 다 미워!”

기분이 상해 울상 지은 예희는 언니가 너무 밋고 분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몇 번 훌쩍거리던 예희는 웃음을 머금고 잠에 빠졌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따사로운 햇살이 포근히 감싸주자 예희는 깜짝 놀란 듯

잠에서 깨었다. 바깥에 펼쳐진 풍경에 놀란 예희는 창에 얼굴을 바싹 붙였다. 초록양떼 우리에게 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것일까, 끝없이 펼쳐진 나무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기분이 좋은지 예희는 그 큰 눈망울을 자꾸자꾸 푹땡땡 거렸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차타고 예희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집에 가지.”

“우와~ 할아버지 집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산이 있었구나!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산이 여기예요?”

“으이구, 바보야! 여긴 그냥 마을 주변에 있는 작은 산 밖에 안돼!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산은 백두산이라구! 학교에서 안 배웠니?”

가만히 있던 언니가 또 예희를 약올리자 예희는 울컥했지만 그래도 백두산이 궁금했는지 다시 묻는다.

“아빠, 예희는 백두산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지금 가면 안돼요?”

“예희야, 우리는 백두산에 못 가. 백두산은 저기 멀리… 저 멀리 있단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예희는 다시 입이 푹 튀어나왔다. 앞에서 킁킁 웃는 언니가 예희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이때, 예희의 눈에 떨리서 일하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예희 왔어요. 언니가 하루종일 예희 괴롭혔어요. 언니 혼내주세요.”

“우리 예희 못 본새 많이 컸는걸? 언니랑 사이 좋게 지내야지.”

할아버지는 아빠보고 먼저 집에 가있어라 하시고 예희와 함께 손을 잡고 구불구불한 시냇길을 걸었다.

“아!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예요? 선생님이 물어 보라 했어요.”

“할아버지 고향은 저기 멀리 있어 갈 수 없는 곳이야. 선생님이 그걸 왜 물어셨을까?”

“오늘 통일에 대해 공부했거든요. 멀리 있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백두산이죠? 예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내일 할아버지 고향에 가요. 예희는 너무 가고

싶어요.”

“백두산도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할아버지의 고향은 북한에 있는 함경도야. 백두산… 그 곳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갈 수 없는 나의 추억…….”

“그 곳? 근데 할아버지 고향은 북한인데 왜 여기 살아요?”

“6·25전쟁 때문이지… 전쟁 중 피난 가는 길에 가족과 헤어지고 할아버지 혼자 여기 오게 되었지.”

“나쁜 북한 사람들!”

“아니, 북한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야. 설사 그들이 정말 나쁘다고 해도 한 핏줄을 가진 우리는 북한을 사랑하고 믿어줘야 돼. 전쟁도 북한보다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으킨 거야. 우리 예회는 북한이 밍나 보지?”

“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 아이들은 너무 더럽고 이상하잖아요.”

“예회야, 같은 민족끼리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못써요. 함께 마음 아파하고 도와줘야지.”

예회는 부끄러워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곳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곳이 어딘지 궁금해진 예회가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붉어진 콧등 위, 눈 속에 비친 반짝이는 것을 본 예회는 그냥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은 뒤 가족들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옥수수물을 먹었다. 조용히 켜둔 TV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뉴스가 나오자 아빠가 소리를 올렸다.

“아이고, 망할 녀석들. 자기들 도우려고 보낸 돈으로 핵이나 만들다니, 쫓쫓… 저래가지고 언제 통일하겠누.”

할머니가 혀끝을 차며 말하자 아빠가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화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이제 겨우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갔나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말았네요.”

가만히 있던 예희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통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반에는 통일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은데…….”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야. 한 민족이 통일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니? 떨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거야. 통일이 되면 북한과 우리가 처음엔 조금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생산력이 합치면 어느 나라가 부럽겠니?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통일이 불가능해. 북한과 우리의 너무 다른 경제능력 때문이야. 통일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약 40배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통일을 귀찮게 여겨 거부하는 젊은 층이 많이 생기게 돼.”

엄마의 말이 끝나자 아빠가 입을 열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을걸.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인데도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변질되었어. 예를 들어 우리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지. 그런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해.”

어른들의 말이 답답했던지 예희가 소리쳤다.

“그러면 폭탄을 ‘꽝’ 던지면 되잖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힘이 센데……”

그러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할거라면 예전에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망설이는 것은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야. 우리민족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뜻을 함께 할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북한 아이들에게 성금을 보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때, 가만히 있던 언니가 입을 열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

처럼 민족의 교류도 자주 있어야 해. 우리가 금강산에 여행가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우리 나라에 여행 와서 자연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아! 또 한가지 있고 있었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민족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위 여러 나라에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

“우와~ 우리 언니 똑똑하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 뱃속에 있는 예희 동생이랑 우리가족이 북한에 가는 날이 언젠가는 생기겠죠?”

엄마는 예희의 손을 엄마 배 위에 올리고 말했다.

“우리 예희가 많이 컸네. 그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순 없지.”

가족들의 대화는 엄마의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방에 들어가려던 예희가 할아버지에게 살포시 물었다.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가 가고싶다던 ‘그 곳’ 이 어디예요?”

“그 곳의 높은 산봉우리에는 우리민족의 기상이 담겨있고, 넓게 쌓인 눈 속에는 우리민족의 혼이 담겨있고, 그 곳의 깊은 수심 속에는 우리민족의 열망이 담겨있지. 우리민족의 희망이 담겨있는 그 곳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오르고 낮을 때 우리는 57년간 소망해왔던 우리의 유일한 한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단다. 지금 우리는 힘들게 그 곳을 오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상에 도착할 거야.”

예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결국 그 곳이 어딘지 모르는 예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아빠한테 백두산에 가자고 한번만 더 올라야지…….’

다시 올라가자

통영고 1 장민호

언제나 그랬다. TV속에서, 사진 속에서 그 곳은 늘 푸르름을 간직했다. 눈이 채 녹지 못하고 새하얗게 덮어버린 후,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백색의 빛을 받하던 그 곳. 얼어버려도, 차갑게 얼어버려도 깊은 푸르름을 영원히 간직할 듯 싶던 '천지' 라는 이름의 그 호수. 그 위를 가볍게 어루만지는 바람까지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고 따스해 보였다. 그렇게 그 이상의 공간은 '백두' 라는 이름으로 어린 나의 눈동자를 매웠다. 그렇게 난 1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하나, 멈추어버린 사진이고, 화면임을 알아버린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시간의 흐름을 역행한 채 마지막의 그 푸르름을 담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젠 더 이상의 따스한 곳이 아닌 갈 수조차 볼 수조차 없는 그런 곳임을 알아버렸다. 홀연히 백두산이… 쓸쓸해 보였다.

우리민족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라 볼 수 있는 백두산은 민족의 정기를 품고 그 정기를 발하던 그 장대한 기쁨이 언제부턴가 끊어져버린 듯하다. 평화로움과 따스함이 공존하던 그 곳은 쓸쓸함이 묻어 나왔다. 떨어져버린 한 석인 울음이 스며 나왔다. 그 푸르던 천지의 물은 흘러내린 7천만의 눈물처럼 슬퍼 보였다. 우리 자신을 하염없이 채찍질을 하듯이 바람은 비수가 되어 꽃혔다. 백두산이 갈라져 버린 우릴 원망이나 하는 듯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른 이에게 그렇게 가까운 회초리를 가하고 있었다.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 천지에 오른 이들은 느꼈을 것이다.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 그것은 단지 원망의 손길만이 아닌 것이다. 우리 민족의 마지막 경고이자 부닥이었을지도…, 옛 선조의 이름으로….


예전에 통일전망대에 올라간 적이 있다. 내가 갈 수 있는 북녘의 땅과 가장 가까운 곳…, 아직 철모르던 아이였지만 그 기억이 뇌리에 스친다. 내 눈에 비친 메말라 버린 땅, 듽성한 산,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 멀어져버린 걸까… 칠조망 하나로 돌아서 버린 이념의 대립 속의 우리민족. 나는 차갑게 굳어버린 500원 짜리 동전 하나로 망원경을 통해 북녘의 땅을 더 가깝게 보았다. 허나, 난 끝까지 볼 수 없었다. 망원경 탓이 아니었다. 구름이 가득 낀 흐린 날씨의 탓도 아니었다. 오직 단 하나, 묻혀져버린 자와 잊혀져버린 자의 절규, 잃어버린 자의 원망 그리고 슬픔 속에 죽어간 모든 영혼의 메아리… 눈물이 나를 가렸다.

돌아오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텅 빈 하늘과 파도치는 동해바다를 바라보았다. 슬퍼 보였다. 하늘도… 바다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늘은 갈라져 버린 듯, 바다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해 더 큰 파도를 일으켜 내는 듯했다. 분명히 그들은 울부짖고 있었다. 내심 참회의 마음이 일었다. 참회의 마음은 더 커져 나를 뒤덮었다. 난 또 다시 소연해졌다. 이때 내 나이 중3의 어느 날이었다.

백두산의 의지였을까… 과거의 슬픈 기억마저 그는 이끌어냈다. 다른 이들도 느꼈을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작은 소망을…

백두산은 이제 예전의 그 기운을 잃은 듯하다. 반만년 동안 이어 내려왔던 민족의 정기마저 끊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릴 놓지 않았던 그 정기를 살려야 한다. 백두산을 살려야 한다. 정치사상의 대립은 이제 버려야 한다. 민족의 대대적인 화합을 이루고 복지국가의 이상향을 그리며 다시 우린 멀어져왔던 길을 돌아 가야한다. 너무 멀리 떨어졌지만 우린 돌아 가야한다. 백두산의 마지막 남은 정기를 위해 옛 선조의 염원을 위해 우린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손에 손을 마주 잡자. 각지 짝 끼고 한 걸음에 우린 올라 가야한다. 다시 그 푸름의 물결과 백색의 빛이 발하는 곳으로 올라가자. 다같이 올라가자.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신의 고향인 백두산의 품으로 다시 올라가자.



● 전라북도

- 북한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 371
- 할아버지의 소원 / 373
- 6월에 그리는 통일의 꿈 / 376
- 금강산을 다녀와서... / 380
-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 / 382
- 하나가 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 / 386
- 손 내밀어 주는 마음 / 389
- 우리 모두의 소원 / 391
- 맑게 웃음 지을 날을 기다리며... / 394

북한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익산 여산초 6 정준영

친구야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산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정준영이라고 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어제 우리 나라가 축구에서 일본을 이겼기 때문이야. 봤니? 안정환 선수가 일본 골대에 슛하고 골을 넣는 모습을, 너도 응원했다고? 물론이지. 너도 분명히 우리 나라를 응원했겠지. 지금 우리 나라는 월드컵 1주년이라서 축구에 대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어. 물론 너도 우리 나라가 당당히 4강에 진출한 월드컵을 보았겠지?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단일 팀이었다면 혹시 우승 후보에 오르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만약이지만 말이야.

나는 텔레비전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상봉하여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지난 1박 2일이라는 학교 야영 기간동안 가족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 단 하루를 떨어져 지내도 보고 싶은 마음인데 50년 동안이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서로 떨어져 지낸 가족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텔레비전에서 비춰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사이로 흐르는 그 메마른 눈물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반도를 가운데로 그은 선하나. 그 선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1950년도에 서구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2003년이 된 지금도 우리

민족을 둘로 쪼개 민족의 아픔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참 슬픈 현실이지? 그보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는 거야. 너는 아니라고? 물론 그렇겠지.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하여,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여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어. 마치 외국 사람처럼 서로 다른 피를 가진 사람으로 말이야.

그렇지만 형제가 하나의 부모 밑에서 자라 피로 맺어졌듯이 우리들이 형제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기에 이제 그만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받아 들여야할 때야.

어렵다고? 어렵기는……, 너와 나같은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두고 통일을 기원하면 되지 않겠어?

친구야, 다음 월드컵 때는 우리 같은 팀이 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을 하러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는 단일 팀이 되어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어 우승컵에 도전을 할 수 있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 우리 그날까지 파이팅 하면서 서로를 잊지 않고 잘 지내자. 그럼 부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

2003. 6. 2

익산 여산 초등학교 정준영이가

할아버지의 소원

고창 해리중 3 김명선

“죽기 전에… 북녘 땅 냄새를 꼭 한 번 맡아 보고 죽어야 힐턴디. 언제쯤이 나 가볼 수 있을랑가… 할망구도 자알 지내고 있겠제… 쫓쫓쫓”

할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토방에 반쯤 걸터앉으시고는, 칙칙산중뿐인 북녘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며 이러한 말들을 들릴 듯 말 듯 말씀하실 뿐이었다. 그리고 그리실 때면 이김없이 손마디 틈바구니에는 항상 담뱃대가 들려져 있었다. 아마도 북녘 땅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셨던 모양인 것 같다. 어릴 적, 나는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보아왔었다. 그래서 때론 할아버지의 무릎에 살포시 앉으며 넌지시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아무 것도 없는 산만 쳐다보면서 담배만 빼금빼금 피워?”

“응… 저 산 너머 너머에 누가 살아.”

“누가 사는데? 근데, 산속에서 혼자 살면 안 무서워?”

할아버지께서는 내 말이 우스운 모양이셨던지 히히 웃으시곤 말씀들을 이어가셨다.

“히히히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녀, 저 산 너머 너머에 있는 먼 동네에서 살아.”

“아, 그렇구나. 근데, 누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내 팔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하지만 어린 손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얼른 소매로 눈물 방울을 훔치셨다.

“누가 살고 있나하면…, 니가 궁금해 히는 느그 할매여…”

“와! 정말? 정말로 저 산 너머에 있는 동네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

할아버지께서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다.

“그럼 우리, 내일이라도 당장 할머니한테 가보자! 응? 할아버지이~”

“글씨다… 아직은 몰라도, 저 북녘 땅서 기차가 칠푹뚱뚱 허고 오면은 갈 수 있을 것이여.”

“할아버지 정말이야? 정말로 기차가 여기에 오면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언젠데?”

“나중에… 나중에 곧 갈 수 있을 것이여… 그 때, 할아버지랑 손잡고 할머니 보러 꼭 같이 가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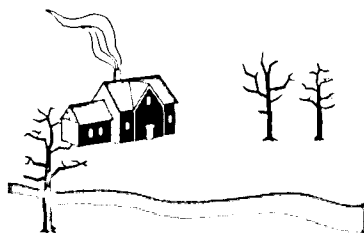
“응! 할아버지. 빨리 할머니 보러 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진정으로 할머니를 꼭 만나러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나와 꼭 할머니를 같이 보러 가자는 약속만 남기시고 그렇게 어느 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다. 그 후로, 나도 할아버지처럼 북녘 땅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늘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북녘 땅에서 힘차게 달려올 기차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북녘에서 달려오는 기차 소리는 없이 세월만 물처럼 흘러갔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녘과 북녘의 철도를 잇는 공사도 착수하게 되었다. 지금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본다. 남녘과 북녘을 가로막고 있는 길고 긴 철조망 하나 때문에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멀기만 했던 북녘 땅…, 하지만 이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산가족들의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한과 그리움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처럼 만날 수 없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다가 마음에 담고 있던 한과 그리움의 응어리도 풀지 못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신 이산가족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 남녘과 북녘의 이산가족들의 마음속의 한을 풀어 줄, 더 나아가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남북 평화 동일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마음에 이산가족들과 내 마음이 쓰리기만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이 언제부터인지 점점 흐지부지해지고만 있다.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고는 하지만, 이산가족들은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리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말이다. 이러한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단 한명의 이산가족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면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차츰 차츰 가까워지고 있는 북녘 땅,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가까워질 북녘 땅. 그곳 북녘 땅과 이곳 남녘 땅에는 모든 한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민족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 남녘과 북녘이 서로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무엇 있으랴. 남녘 동무, 북녘 동무 한 마음 한 뜻으로 두 손 맞잡고 걸어 나아간다면, 할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녘과 북녘을 오갈 기차소리가 곧 들려올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세계사를 다시 쓰게 될 평화 통일을 이룩하고 우리 앞길에 찬란히 빛날 새 역사가 쓰여 지리라.



6월에 그리는 통일외 꿈

전주여고 3 김혜영

가로수의 잎들이 푸름을 더해가던 지난 4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오빠는 집을 떠나 군대에 입대했다. 자라오면서 한 번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기에 오빠의 군 입대는 나와 우리 가정에 커다란 빈자리를 만들었다. 부모님께서 훈련소에 오빠를 데려다 주고 오시던 날, 어머니의 두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오빠에게 공부를 배울 때 많이 혼나고 그래서 섭섭한 적도 많은 나였지만, 오빠가 없는 텅 빈집에 들어올 때마다 허전한 마음은 달랜 길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나깨나 오빠 생각에 훈련소에 있는 기간 내내 밤잠을 설치시기가 일쑤였다. 식탁에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오빠가 밥은 잘 먹는지, 훈련이 고되지만 않은지 늘 오빠 생각 뿐이었다. 다행히 오빠는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강원도로 배정을 받았다. 이제 적응이 되어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진화도 왔다.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빠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었고, 우리 집은 평온을 되찾아 갔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신문이나 TV에서 북한 어선들이 꽃게 잡아 철을 맞아 서해 북방 한계선을 잇달아 침범하면서 서해상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일어나고,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 어선을 쫓아내기 위해 경고 사격을 한 데 이어 함참이 대북경고 성명까지 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 뉴스를 보시고 어머니는 또 오빠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다.

오빠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솔직히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TV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도 귀가 쫑긋 서곤 한다. 왜 우리는 한겨레 한민족이면서도, 이렇게 총부리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안타까운 싸움을 끝도 없이 하는 것일까? 예를 존중하고 깨끗한 선비 정신으로 민족문화를 계승시켜 온 단일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피로써 얼룩지고,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되어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산가족의 슬픔과 한을 세월 속에 묻은 채 냉전만을 거듭하는 것일까?

오랜 냉전은 남과 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체제로 변모시켰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상한 두 민족으로 갈라지게 했다. 그래도 우리는 경제 부흥에 힘쓴 결과, 잘사는 나라, 윤택한 살림을 하는 국민이 되었지만 군사 발전에만 매달려온 북한은 급기야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북한은 핵개발과 무기 수출의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면서, 국민의 살림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자 이로 인한 불만을 무마하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남한은 지속적으로 안보를 위협받아 해외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남과 북이 모두 얻을 것이 없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한 주변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참가한 G8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 및 핵무기 확산 금지 약속과 핵 계획의 안전 검증 가능한 해체가 논의될 정도로 지구촌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북한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미국과 이라크 전에서 보았다.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 인명이 살상되고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저항 한 번 못한 채, 힘없이 죽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었다. 이처럼 무서운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오직 평화 통일을 이끌어 내는 길뿐이다. 그러려면 북한을 고립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보다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논리를 민주화 방향으로 일치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된 과제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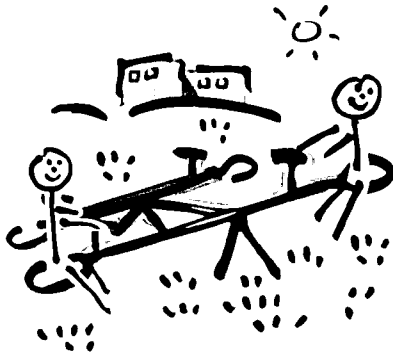
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믿어주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신의 벽을 허물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자.

경의선 철도나 금강산 육로 관광처럼 휴전선과 38선에 평화의 오솔길을 만들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노라면 어려운 문제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서서히 영킨 실타래 풀리듯 풀릴 것이다. 그러다 보면 중국에는 궁극적인 통일도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빠르고 무섭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삼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북한을 설득하고 다독여서 다자회담의 장으로 불러내어 서로가 원하는 기대치를 절충하고 만족시키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혜를 모으자.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문화의 교류 또는 민간단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 막혔던 물꼬를 튼다면, 남한이 결코 적이 아닌 동지이고, 형제임을 깨닫고 북한은 남한의 진심을 반드시 알아 줄 그 날이 올 것이다.

북한 동포의 궁핍한 생활을 돕자는 적십자사와 민간단체의 운동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이 굶주릴 때 우리만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입으로만 통일 운운한다면 이야말로 울리는 징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고 매도하기 이전에 사랑과 이해와 애정으로 대하여 우리를 신뢰하고 따르게 하자. IMF 이후 회복되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북한을 돕느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도 적지 않지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우리 조상들의 진한 정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남과 북이 함께 깨닫고 노력하노라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그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찬란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이 하나되는 빛나는 통일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한참 학문을 연마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집을 떠나 낯설고 물 설은 타향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군대에 간 아들이 그리워 눈물짓는 어머니가 이 땅에 다시는 없도록 하자.

1년 전, 오빠와 함께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던 그 시절이
그립고 그럴수록 오빠가 간절히 보고파진다.
오! 필승 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금강산을 다녀와서...

전주 북일초 5 문성혜

2002년 2월 RCY에서 저는 남다른 느낌으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고 꿈에만 그리던 일만 이천 봉이라는 금강산을 향해 설레는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시간을 꼬박 기다리다가 부모님께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한 뒤 드디어 비스에 탔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탓으로 깜빡 졸다가 주 의사항을 잘 못 듣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잘 못 찍어 10달러라는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괜찮다 하시며, 힘내라며 그 많은 벌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선생님께 죄송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한 동포끼리 벌금은 웬 말?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은 눈으로 덮여 있고 눈으로 덮인 설경은 정말로 멋져 보였고 땅의 향기에 다 동포애를 느끼며 한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습게만 들리던 북한 사람들의 말도 직접 들어보았고, 학교 가는 모습, 일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남쪽과 다를 게 없는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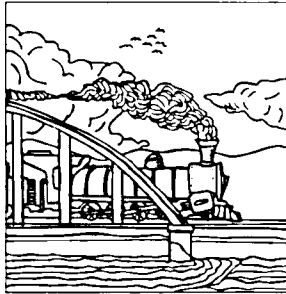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쪽 친구들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친구들이 생활하는지도 궁금했지만 말을 잘못하면 잡혀간다는 말에 반가운 인사말만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금은 언제쯤 지워질까? 하고 지도를 펼쳐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선은 왜 하나 두고 있는 건지……, 한 동포끼리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선 하나를 지우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통일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쯤 통일은 되려는지……. 아직도 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가 되어 다음에 금강산을 여행할 때에는 통일열차를 타고 가족과 같이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마음놓고 정을 나누며, 또한 규칙이 없고, 규정이 없이 친구와 악수도 하고 마음놓고 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토끼와 남한 토끼도 서로 악수하고 어깨동무하며 깡충깡충 뛰어 놀고 모든 친구들과 동물들도 화합하는 그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염원하고 기다리며…….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

전주 중앙중 1 오은혜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산, 금강산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아 본다는 설렘으로 내 마음은 한껏 부풀었었다. 느낌이 무척 새로웠다. 설봉호를 타고 꿈에 그리던 금강산에 도착해 보니 아름다운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북한의 검사소 앞에는 '금강산 관광객들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환영한다.' 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 말을 대하고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러웠다. 어디선가 '반갑습니다.' 라는 북한의 노래가 들려왔다. 아! 북한 땅이라니..., 우리 민족의 선음과 아픔이 배어있는 북한 땅! 힘겹게 만물상을 올라 금강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금강산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 때 보았던 북한에서의 장면 하나 하나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다시금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그 추억 속엔 거의 두어 시간동안 함께 산자락을 내려오면서 꽤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순수한 북한 청년 오빠의 모습도 새겨져 있다. 통일이 되면 전주에 가서 "은혜야!" 하며 부르겠다던...

언젠가 엄마께서는, 마치 숫자 8과 같은 동그라미 두개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고는 이게 무슨 그림처럼 보이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거울을 좋아하는기 때문에 눈사람 같다고도 말했고, 또 해가 바다 위에 떠오르는 광경, 오뚝 오뚝 오뚝이처럼 보인다고도 말씀드렸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웃으시면서 김구 선생님의 눈에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비칠지를 물어보셨다. 나는 그제야 엄마의 뜻을 헤아렸다. 이 그림은 남·북의 휴전선이 가로막혀 등허리가 잘린 우리 조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김구 선생께서는 백범일지에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도, 마지막 소원도,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이 말이 금강산에 올라 더욱 가슴 가득 우리 민족 모두의 과제요 소원으로 전해져 온다.

보아라! 50년 간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지내는 이산가족들이 울고 있고,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 사이를 흐르는 드넓은 저 임진강도 울음을 삼키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통일이다.

나에게 있어 통일이란 의미는 너무나도 새롭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꼭 금강산에서 만난 그 북한 오빠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오빠는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나에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김 샷갓의 시도 읊어주고, 나의 꿈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잠시 동안 나누었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금강산에서는 북한 사람을 만나도 이름을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북한 오빠의 이름도 모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순수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던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한민족 한 동포인데, 왜 이름조차 물어볼 수 없는 것일까?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북한의 소박한 마을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해맑게 웃으며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대던 북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했던 모습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순수했던 그 때 그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통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 북한으로 불리어야 하는가? 한 형제끼리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국토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의 숨결과 혼이 나뉜 것이다. 우리는 반쪽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분단된 한국의 발전은 발전이 아니며, 행복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기며 살아갈 수는 없다.

어렸을 적, 나는 '새 박사 원병오 이야기' 라는 책을 읽었다. 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원병오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박사님도 6·25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사님은 쇠찌르레기란 새의 발에 편지를 써서 북한으로 날려보내 부모님과 소식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나는 무척 부럽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를 꿈꾸는 새들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저 멀리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눈물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은가.

언젠가 뉴스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3일 동안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고 헤어질 때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니, 마치 내 일처럼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50여 년 전에 헤어진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50년 만에 다시 만난 아픔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는 온 국민의 꿈인 통일이 이루어져, 자유의 함성이 울리는 그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금강이 시작되는 곳도 장수의 어느 산 속 계곡의 한 방울 물줄기에서부터이지 않는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그러한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물줄기가 큰 강으로 흘러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는 생각이 든다. 흐르면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웅덩이에 고이게 되는 물줄기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물줄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금강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강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큰 강으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은 마치 강의 지류가 하나가 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강으로 만나 이제는 함께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남한이라는 물줄기와 북한이라는 물줄기가 세상의 큰 강까지 흐르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

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이 서로 도와가며 큰 강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

장수고 2 전미선

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제 8회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통일 글짓기 대회가 벌써 8회나 되었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년 6월이 다가오면 한번씩 열리는 통일 글짓기 대회! 이 대회가 올해로 8회라면 우리들이 8년 동안 이 대회를 가져왔다는 말이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에는 큰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몇 차례 남·북이 문화적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의 만남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루속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통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매순간을 살아가면서 남과 북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람들은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한 땅위에 철조망을 두고 경계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더 크다. 나 역시도 철조망이 땅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에 아무 생각없이 '남과 북은 갈라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이 확 바뀌었다. 역시 남과 북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반 친구인 현주는 지난 5월 3일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청소년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그동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온 세계의 시선이 전쟁 속에 빠져 있었고, 그 기간에 일본 아이치현의 한 사립학교에서 위와 같은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친구가 일본을 다녀온 내용을 발표하고, 그 행사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와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

데 비디오 시청과 동시에 국제회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내용에 빨려 들어갔다.

무엇보다 나의 관심을 끈 내용은 일본에서 현주의 발표 내용을 통역해 준 '송아궁'에 대한 이야기였다. 친구의 의견과 발표를 관중들에게 통역해 준 송아궁은 우리의 민족이었다.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의 피를 나눈 우리 민족, 철조망 사이로 갈라져 만날 수 없는... 멀게는 한 민족이요, 가깝게는 가족과 같은 친구였고 나와 같은 나이에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예쁜 얼굴을 가진 여학생이었다. 국제회의에 현주와 송아궁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너무도 보기가 좋았다. 인솔하신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관중들에게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 수십 년을 두 민족으로 지내 온 남과 북을 대표해서 나와 나란히 앉아 있는 두 학생에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찍은 친구의 여러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나는 한 장의 사진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현주와 송아궁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아무런 제스처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는 브이도 없었다. 어깨동무라도 했으면..., 손이라도 잡고 찍었으면 하는 나름대로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다. 나란히 서있는 두 사람의 사이에 조그만 공간으로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서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을 연상시키게 했다. 사진 속을 들여다보며 나름대로 그런 상상을 하다보니 어느덧 내 머릿속에는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철조망 사이에 두고 맞잡았던 손이 어느덧 아무런 장애물의 방해 없이 잡혀있었다. 물론 이걸 단지 나의 상상일 뿐이고 허공 속의 그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나의 상상과 그림에 불과했던 그런 모습들이 꼭 우리에게 올 날을 소망해본다.

우리는 하나가 분명하기에 손을 잡아야 한다. 아니, 잡을 수밖에 없다. '하나

가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 라는 나의 글 주제에 나는 너무도 정감이 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손에 다른 하나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는 같은 곳, 같은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남과 북! 어느 누구의 눈에든 걸음으로 보이기에는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면일 뿐, 우리는 내면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칠조망이 있고 나뉘져 있다는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일 뿐이다. 남과 북이 살고 있는 땅덩이는 결코 갈라지지 않았다.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혈연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칠조망을 사이에 두고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아 온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 칠조망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남과 북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사랑의 온기로 칠조망은 힘없이 녹아내릴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가올 하나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에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음줄..., 손이 있기 때문이다.



손 내밀어 주는 마음

순창 동산초 6 김길준

내가 꼬맹이였던 시절, 항상 골목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 해질 무렵까지 아이들과 신나게 자전거를 타며 놀곤 하였다. 하루는 마을 뒤에 있는 비탈길에서 이걸 타고 내려오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킁킁대며 자전거를 끌고 비탈길 위에 올라갔다.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으며 내려오자 바람이 쓱-쓱-쓱가를 스치는 소리가 났다. 자전거의 속도가 점점 붙는 것이 느껴졌다.

“이야!”

자전거의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지자 나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바퀴에 걸리는 느낌이 났다.

“우당탕탕, 철퍼덕!”

나는 자전거를 탄 채로 한순간에 길 옆에 있는 도랑으로 처 박히고 말았다. 바퀴 사이에 밧이 낀 채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으앙!”

놀라고 아픈 마음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넘어진 채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느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아가, 웬일이냐?”

아저씨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옷과 자전거도 탈탈 털어 주셨다. 그날 나는 무척 당황스러우면서도 쑥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하지 못한 채 아저씨를 따라 울먹이는 채로 집에 왔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아저씨가 그 도랑에서 날 꺼내주시느라 걸어올린 바지 밧단이

다 흙탕물에 버렸던 까닭이고, 집으로 오는 내내 울먹이던 나를 환한 웃음으로 달래주셨던 까닭이었다. 끝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나의 수줍음이 오늘까지도 못내 아쉬웠던 까닭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TV에서 북한 주민의 대부분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가 TV를 통해 나오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또한 북한과 같이 못 먹고, 못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듣자, 그때의 그 낯선 아저씨가 떠올랐다.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도와주셨을 때의 고마움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잊혀지지 않건만, 하물며 같은 피를 나눈 우리 민족이 서로 어려운 시기에 돕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우리 반에서도 투표를 해보면,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친구들보다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우리 서로가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함께 밀고 당기며 힘을 모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소원

정음 감곡중 3 김예랑

어느 날 연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야, 지우개 너 뭐해? 내가 글씨를 잘못 썼는데 지우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찌자는 거야?”

그러자 지우개가

“연필, 너는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이야!”

이렇게 연필과 지우개의 사이는 조금씩 벌어져 갔다. 연필은 자기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실수를 해도 도와줄 지우개가 없었으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우개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자 속상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우개는 그냥 인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되어 연필과 친해지려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주위의 자, 펜 등 다른 친구들이 나서서 둘의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연필은 자꾸 실수를 하게되자 마음먹고 사과하며 지우개에게 잘해주고 결국 둘의 사이는 다시 좋아지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국인 대한민국은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민족, 한 나라였다. 서로 왕래도 하고 도움도 주고받으며 잘 지내다가 지도자들의 다른 사상과 주변 국가의 강요로 뜻밖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길로 향하게 되었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국민이 서로 합심 단결하여 더욱 번창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북쪽에 있는 나라는 오로지 사상만을 강조하게 되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 친구들하며, 먹을 것을 찾아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고 남

의 나라에 가서 구걸을 했지만 전쟁무기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정책에는 손을 놓아버렸다.

마치, 네모난 바퀴가 달린 수레가 굴러가듯 안정적이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반 백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아오더니 결국 그 나라도 이제 살길을 찾아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래도 남쪽에선 그 나라를 위해 식량도 보내주고 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상봉도 여러 차례 주선하고,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제 양쪽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아서 통일의 테이블을 꾸을 것 같다. 중간에 멈춰 서버린 철마도 이제는 너른 별판을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연필과 지우개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한 나라의 백성이었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헤어져 지냈던 분단의 고통이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데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까지는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이란 단어와 분단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이 두 단어를 많이 듣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듣고 또 말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여 크게 외치고 싶은 단어일 것이다.

나는 솔직히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통일을 이룩하자!", "우리의 과제는 통일이다!" 하고 외쳐대도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이 알맙고 싫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구호 물자와 식량을 보내주고 엄청난 수의 소 떼를 보내주어도 받을 것만 받고 실속을 채우면서 정작 통일 얘기만 나오면 외면하는 게 너무 얄미웠다. 어린 마음에 북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건 어릴 적 이야기이고 지금은 나도 간절하게 통일을 원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고 이

쪽 땅, 저쪽 땅 갈라서자고 하지도 않았다. 단지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서 놀다가 세상에 나온 것이고 그들이 국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그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처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 속에서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배고픔에 작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다. 가끔 TV나 책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단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죽어가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하고 또 잡혀서 북한에 강제 송환되면 수없이 맞아서 죽거나 불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북한 정부는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의 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50년 세월을 살아 이제는 너무 늙어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가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몇 번 이루어졌지만 1회당 100명씩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운 가족들을 애타게 부르다가 생을 마치고 마는데 북한 정부는 이런 모든 이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온 세계가 하나로 모인 '지구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어 많은 사람이 다녀오고 얼마 전부터는 육로 관광이 개통된 금강산과 우리 민족의 용감한 기상과 옹혼이 서린 백두대간의 원류인 백두산이다. 그밖에도 북한 땅에서 해보고 싶은 일과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통일만 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와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나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금강산에 현장 학습을 다녀와서 기행문도 쓰고, 드높은 백두산에 올라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지금은 멈춰 서버린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가고 다시 광활한 중국 대륙을 거쳐 모스크바, 시베리아까지 친구들과 같이 기차여행을 할 수 있기를…….

맑게 웃음 지을 날을 기다리며...

정음 배영여고 1 이다정

지난 설날이었다. 아침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나서, 두둑이 용돈을 받고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나오던 때였다.

“깨갱, 깡.”

“멍멍, 으르릉!”

갑자기 마당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마당에 가 보니 할머니께서 누렁이가 낳은 새끼 강아지를 들고 계셨고, 그것을 본 누렁이가 할머니께 짖어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알고 보니 평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던 동생이 새끼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어미 개인 누렁이가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짖어댔던 것이었다. 결국 호통으로 개를 쫓아내고 새끼 강아지를 손에 든 채 택시를 탔다. 택시가 출발하려던 찰나 갑자기 누렁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겁이 나서 차 걸음으로는 오지 못했지만 누렁이가 저 멀리에서 짖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나는 동생을 잘 타일러 새끼 강아지를 놓아주었다. 그 강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미 개를 향해 손살같이 달려갔다. 그리고 서로에게 몸을 비비며 핥는 것이었다.

그 후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그 모습이 TV를 통해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보았던 이산가족 상봉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 개들도 불과 10여분 정도의 이별 후의 상봉에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50여 년 정도를 보지 못하고 지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바로 그때, 당시 이해되지 않았던 그들의 눈물과 오열이 이해가 되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기

빠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이상의 더 큰 의미가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서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리고 또 다시금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들은 그렇게 한스런 눈물이 나오고 오열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다.

50여 년 전에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것도 슬픈 일인데, 헤어진 가족이 있는 남북한으로 가족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솔직히 나도 '통일' 하면서 입에 '통일은 해야지' 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지만 그다지 통일의 절대성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온 게 사실이다. 오히려 주변에서 들려오는 통일에 대한 견해에 부정적으로 잠정적이거나 수긍하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오늘 누렁이의 가족 사랑을 보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한낱 미물인 개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같은 단군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가진, 어찌 보면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믿지 못해서 대립하고 있다니……. 서로 돕고 화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망정, 그동안 통일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 달아올랐다.

'북한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관광단지로 조성하자,'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등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떠나 한 핏줄이기 때문에, 모두 먼 친척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은 필요하다. 언제까지 한 가족이었던 우리가 서로 대립하며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애써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김구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는 이념이 서로 다른 적대관계에 놓인 적이 이전에 한 핏줄을 가진 동포들이다.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혹은 소수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고통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서로의 몸을 비비며 떨 듯이 좋아하던 두 개처럼 모든 가슴의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지을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어서 속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전라남도

- 작은 실천은 통일의 열쇠 / 399
- 못 지킬 마지막 약속 / 401
- 그리운 그 산! 그 땅! 그 품! / 405
- 내 작은 힘도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리라! / 412
- 꽃게탕 나눠먹어요 / 414
- 이젠 통일 노래 그만 부르고 싶다 / 417
- 하나되길 바라며... / 420
- 할아버지의 고향 / 422
- 꿈속의 결혼식 / 425

작은 실천은 통일의 열쇠

대불초 3 김준혁

“반찬이 이게 뭐야? 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죄그만 게 반찬 투정은……. 세상에 굶어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반찬투정이야?”

“맨날 말로만 불쌍한 애들 도와야 한다고 나리지. 평소에 하는 건 이 모양이면서……”

끼내봤자 본진도 못 찾을 소리는 왜 했는지…, 식탁에서 눈물이 속 빠지게 혼이 난 나는 밥을 다 뜨지도 못하고 입이 한 다발은 나와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궁시렁 거리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다.

“이리와 봐.”

엄마는 날 데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난 화난 걸 풀어주기 위해 엄마가 컴퓨터 게임을 시켜 주시려는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눈만 커다랗고 몸은 비쩍 말라있는 내 또래의 북한 아이들이었다.

“엄마, 이게 뭐야?”

“뒤킨, 네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투정할 때 쌀밥 한 숟가락도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이지. 네가 하루에 군것질하는 돈 500원이면 이 아이들 며칠이나 배불리 밥을 먹는지 알기나 해?”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왜 이럴까? 아마 칠없이 군 내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나 보다. 한시간 가량 본 아이들의 사진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난 반찬투정을 하는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잡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

들…….

언젠가 TV에서 북한으로 많은 쌀과 비료가 북한으로 실려 가는 것을 보시던 어머니는 어려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난 김치랑 밥, 거기에 생선까지 올라와 있는 밥상을 보며 반찬투정을 하고 또 먹고 싶은 반찬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달라며 엄마를 보채기도 했던 내 행동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문득 내가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의 아이들은 김치는 커녕 맨밥 한 숟가락도 얻어먹지 못하고 기아라는 것에 허덕이고 있구나! 직접 가서 먹을 것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의 불룩하게 나온 배도 아프지 않고, 초짐 없는 눈도 초롱초롱해질 수 있을까?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엄마 말처럼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굶어 죽는 북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통일이란 것도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 모두 편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먹을 것이 없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나도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해 보아야겠다.

못 지킬 마지막 약속

-만산지기 할아버지의 편지-

무안 현경중 3 광미영

칠
 후 같은 어둠 속……, 한밤의 고요를 깨는 할아버지의 흐느낌은 마른 기침과 함께 자지러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고질병이 되어버린 해소기는 할아버지의 남쪽 역사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50년도 훌쩍 넘은 세월을 굳건히도 사시더나……, 이제는 남은 기력도 쇠잔하여 한 가닥 희망조차 더 붙들지 못하고 가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 할아버지께서 흐느낌 같은 신음소리를 연신 뱉으시며 고단한 육신을 눕히지 못하는 것은 텅 빈 막대처럼 늙어 가는 육체의 고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집안의 살림살이가 퍼지면 퍼질수록 가슴 깊이 파고드는 지독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해소·천식을 고질병으로 달고 사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께 그보다 더 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지난 방학 때의 일이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나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 문치를 열어보게 되었다. 남쪽에 내려올 때 들고 왔다는 요상한 디자인의 가죽 가방이 늘 궁금했던 참인데 드디어 용기를 내었던 것이다. 겉모양과는 다르게 잘 정리된 가방 속에는 노란 봉투처럼 퇴색한 봉투들이 만지면 부서질 듯한 고문서처럼 간직되어 있었는데, 겉봉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은 당신의 필체로 '신작로 옆 밭빼기', '물 건너 방죽 앞 논배미'……,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훌쩍 단신 내려와 하나씩 장만한 땅문서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곽창수 - 곽창훈 보거라”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을 때 나는 그만 늘

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 ‘창남’이라는 아버지의 함자는 알고 있으나, 창수와 창훈이는 누구일까? 봉투를 열자 툭! 하고 떨어지는 사진 한 장……, 호기심에 후다닥 편지장을 열었지만 자꾸만 머뭇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맨 윗줄의 제목부터 읽기 시작했다. 군데군데 동그랗게 퍼져버린 글씨지만 그래도 문맥을 잇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곽창수, 곽창훈 내 아들들아……”

큰 아들 창수야 자근아들 창훈아……

한시도 잊지 못한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이 애비는 이 곳 남쪽에서 잘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끼니는 거르지 않고 잘 살고 있겠지?

가끔 텔레비에서 그쪽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불러치면 가슴이 미어진다.

너희들도 저렇게 살고 있진 않을까.

굶어서 죽지는 않았을까?

이 못난 애비

니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집을 나서던 날

니 애미에게 했던 약속

이젠 지키지 못할 것 같구나!

돌아간다는 약속……

돈 벌어간다는 약속……

꼭 지키고 싶었는데……

이젠

육신이 따라주질 못할 것 같구나!

40년 세월도 훌쩍 넘었으니……

너희들도 이젠 어른이 되었겠지?

장가를 갔다면 손주들도 두었겠구나!

그런데 지금껏 만날 수 없었다면
 내 생전에는 어려울 성싶구나!
 너희들도 이젠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못 알아본다면……
 자식을 위해 한 일이 없는 애비가
 어찌 천륜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하늘 아래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부디 죄 많은 애비를 용서하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삼팔선이 무너진다면……
 니 동생 창남이만이라도
 꼭 만나보도록 해라……

문장 한 줄 한 줄을 다 맺지 못한 할아버지의 언문은 이것이 끝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아이들 손바닥만한 크기의 빛 바랜 흑백 사진을 살펴보았다. 대동
 강변인 듯한 곳을 배경으로 중앙에는 큰 카라 양복에 중절모를 눌러쓴 젊은
 신사가 서있었고, 그의 양손에는 칠없어 보이는 사내아이 둘이 매달리듯 포즈
 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왈칵 눈물이 솟을 것만 같았다. 동네 어른들이 왜
 할아버지더러 '피난민 광가'란 호칭을 쓰셨는지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
 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들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께 가방 속의 일들을
 물었지만……, 아버지는 이내 긴 한숨만 뱉으실 뿐 말씀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난 생각했다. 3·8선은 누구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무죄도
 몇 번은 삭았을 그 긴 세월동안 한반도의 허리를 꿰뚫고 있을까? 그게 얼
 마나 냉혹한 것이기에 하늘도 막지 못한다는 천륜조차 갈라놓고 있을까? 평
 생 농사일밖에 모르시고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이념을 택했기에 가슴

에 이토록 무거운 한을 키우며 사셔야 했을까? 아무리 자문해 보아도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비단 우리 할아버지만의 문제는 아니리라. 고향 땅이 가깝다는 이유로 주문진 북쪽에 통일촌에 모여 산다는 이산가족들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분단 1세대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의 아픔을 치료할 묘안은 진정 없을까?

그들에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앉아 지난 월드컵 때 느꼈던 뜨거움으로 두 손을 잡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 것이다. 어렵다, 다르다 말하지 말고 오천년을 함께 한 동맥을 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 되리라.

오늘도 마루 끝에 앉아 우두커니 지는 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절대 퍼지지 않을 듯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할아버지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운 그 산! 그 땅! 그 품!

고흥 녹동고 2 박혜진

여행을 다녀온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나의 금강산은 잊혀지지 않고 나를 흔들고 있다. 금강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설봉호를 타고 여행은 시작되었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북한 땅에 발을 내딛었다. 약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서 첫 발을 내딛은 그 땅은 '금강산 관광객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환영한다.' 라는 북측 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오는 홍보물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여행기간 3일 내내 하루 두 번씩 여행 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동하는 중에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안 되고, 머리를 내밀어도 안 되고, 쓰레기를 버려서도 안 되고,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며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해야 했다. 지킬 것이 많았던 그 낯설고도 포근했던 땅에서의 여행은 느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두고 온 것도 많다.

금강산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양보다 질로 따지자면 최상의 여행이었다. 친절한 승무원들과 조장님들, 편한 잠자리, 맛있는 밥, 아름다운 산-금강산을 아름다운 산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 제주가 밍다. - 맑은 물, 숨을 탁 띄워주는 맑은 공기까지……. 금강산의 모든 것을 보고 오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아름다울 것이라 믿는다. 금강산은 천하제일이었다.

아침에 북한이 바다에서 눈을 떴고, 깨끗하고 에메랄드빛이 감도는 바다는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의미 있었다. '이 바다가 북한바다, 저 산이 북한 산, 저 땅이 북한 땅, 이 하늘이 북한 하늘, 저 사람이 북한 사람, 저 건물이 북한 건물…….', '나는 오늘 저녁 북한의 바

다 위에서 북한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받으며 자는구나.’ 나에겐 모든 것이 그렇게 다가왔다. 생김새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금강산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판담과 구룡폭포이다. 그런데 꼭 이름이 붙여진 곳이 아니더라도 돌 하나, 흙 한줌, 봉우리 하나하나까지도 금강산의 일원이라 생각해서인지 심상치 않게 보였다. 어느 책에선가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나는 생각한 만큼 보였다고 해야겠다. 금강산은 영험함 그 자체였고, 그 영험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금 이 순간도 금강산에 다시 가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다. 내가 좀 유별나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들은 대로 꾸밈없이 감정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유난을 떨 정도로 금강산을 온 몸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천하제일 명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았다. 매끈한 돌, 구름이 자욱한 상판담, 비취색 물 -우리가 갔을 때 금강산에 물이 많았는데 그 정도 물의 양은 여름철 장마 후 정도의 양으로 굉장히 많이 흐르는 것이라고 조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건 눈이 녹아서 그런단다. - 나무들까지 금강산의 모든 것들이 온 몸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산을 많이 올라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달랐다. 그 아름다움을 글로 술술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머릿속에는 그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찌면 그런 물 색깔이 나올 수 있는지. 이끼가 끼서 초록색을 띠는 물과 다르고, 깊은 바다색도 아니고 정말 옥이 바위를 굴러서 웅덩이를 만들며 흐르는 듯한 그 모양새는 산에 올라서 내려올 때까지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르는 내내 이 아름다운 산에서 어디에 눈을 두고 올라가야 하는지 모르게 만들 만큼 화려하고도, 부담가지 않게 생긴 산은 나의 눈을 분주하게 했다. 등산이라기보다는 산행이었고 반 정도는 아주 썩썩하게 올라갔는데 상판담에 오를 때는 정말 힘들었고 올라가도 계속되는 난간과 계단에 가볍고 들뜬 마음으로 불러대던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은 거의 울먹거림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멋

진 장관을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꺾끗이 올랐다. 절반은 경치를 구경하고 절반은 상팔담의 높이에 몸돌 바를 모르며 -상팔담은 정말 높아서 오르며 아래를 보면 아찔했다.- 그렇게 올라갔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들어진 광경을 선사해 주었다. 구름이 자욱이 낀 가운데 -안개처럼 보였지만 상팔담에 오르기 전에 봉우리마다 구름이 얹혀 있는 멋있는 광경을 보았기에 그 흰 것이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여덟 개의 자그마한 웅덩이에는 옥이 흐르는 듯하고 구름까지 얹혔다 가는 그 광경은 정말 멋졌다. 올라간 보람을 마음껏 느꼈다. 이곳이 옛날 팔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는 곳이라고 한다. 정말 선녀가 내려 올만 했다. 마음껏 상팔담 구경을 한 후 사진으로 남기고 그렇게 내려왔다.

내려와서 오분 정도 걸으니 구룡폭포에 이르렀다. 도착한 첫날 온천장 2층에서 북한화가들의 그림을 보았는데 그 중 한 그림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서인지 낯설지가 않았다. 이곳엔 금강산을 지키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아! 그 이름도 멋지다. 구룡폭포! 우리나라 4대 폭포 중 하나라고 한다.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하얗게 쏟아지는 물이 비취색이라 더욱 신기했다. 그 색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물에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런 색깔을 띤다고 하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금강산의 아침 이슬에 산신령님이 옥을 부셔서 뿌려주셔서 그 옥이 부서지고 부서져, 이슬이 모이고 모여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흉내 내지 못할 색이 나온 건 아닐까? 잠깐 생각해봤다.

배고픔을 달래며 맛있는 점심을 먹을 생각으로 부지런히 구룡폭포에서 내려왔다. 내려올 때는 조장님과 함께 금강산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금강산 가이드 하려면 공부 잘 해야 해요?”에서부터 “월급은 많아요?”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조장님께 물었더니 조장님 말씀이 대학을 나오면 더 좋고 체력도 좋아야 하고, 암기도 잘 해야 하고-금강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던 그 많은 설명들이 암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배 안에서 일체 단절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신단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으셨다. 난 정말 열심히

히 물어봤고 두 분 조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렇게 수다 떨고 금강산 가이드를 하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그렇다고 실없는 소리가 아닌 그 꿈을 안고 내려왔다. 점심식사를 하려고 목란관에 다다랐을 때 조장님이 “어쩍 우리 후배가 될 지도 모르겠네.”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며 격려의 “파이팅”을 해 주셨다. 이 년 넘게 가져온 국어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순식간에 불같이 일어난 금강산 가이드라는 꿈으로 바뀌고 있었다. ‘금강산 가이드 딱 일년 만하고 국어선생님 하다가 통일되면 북한에 와서 국어선생님하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야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내려와 고풍 배를 참으며 나를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먼저 먹은 아이들이 냉면은 먹지 말라는 말을 해서 비빔밥을 시켰다. 한참을 기다리는 데 비빔밥이 떨어졌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냉면을 먹게 되었다. 북한에서 냉면은 알아주는 음식이라 친구들의 말에도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별로였다. 다른 아이들이 냉면을 한 수저 뜯까 말까하고 가버린 바람에 속상해 하던 북한 언니들의 모습을 본 나는 그걸 그냥 안 먹을 수 없었다. 육수가 비리다고 하길래 다른 그릇에 좀 비워내고 열심히 말았는데 목란관의 언니가 왜 거저는 안하냐고 물었고, 나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친절하게도 거자와 식초 같은 걸로 간을 맞추어 주었다. 나는 열심히 먹었다. 무슨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먹었던 것 같다. 목란관 언니들이 “냉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했을 때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웃음을 띠며, 이 곳 음식이 남한 음식과 달라서 아이들이 잘 못 먹는 것 같다고 대답까지 하며 부지런히 먹었다. 새로 비빔밥을 해서 갖다 주는 배려 때문에 친구들은 비빔밥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목란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원래가 호기심이 많고 별별 것에 관심이 많은 나는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나이는 몇이세요?”, “결혼은 하셨어요?”-이걸 물어보고 나는 친구들로부터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거기 있을 때도, 돌아와서도 소리를 들어야 했다.- “웃음이 예쁘세요.” 그렇게 조금씩 안면이 트였고 조금씩 친해졌다. 나와 내 친구들보고 몇째냐고 물어봤고 나는 말이같이 보인다고 했다. 진짜 북한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식사 끝나고 나는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다. 상팔담에서 부탁 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수줍은 웃음으로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니 더 친해진 기분이었다.

조금 뒤 우리는 그곳을 나왔고 다음에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실록에 남기거나 기네스북에 오르거나 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민족성이라는 것과 통일 필요성, 동포애를 유감없이 느끼고 배웠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고 누가 설명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배웠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언니들이 곤란할까봐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참는다고 참고 삼킨다고 삼키며 그렇게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언니들이 배웅해 주었는데 괜히 울컥했고 빨리 가야한다는 친구들의 성화에 따라 나가긴 했는데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목란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입 근육이 떨렸지만 그것도 무릅쓰고 되도록 활짝 웃으며 다시 사진 한 장을 부탁했고, 그 언니 두 명과 나, 이렇게 셋이 사진을 찍었다.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다른 언니에게 말하길래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주위에 눈들이 많으니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이었다. 그렇게 안에서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적시면서 안았다. 그 품은 참 따뜻했던 걸로 기억된다. 사진 찍자고 부탁한 것도 나고, 먼저 눈물을 보인 것도 나였지만 마음이 뚫혔기에 용기내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에게 대단한 인연의 끈이 묶여 있었던 것 같다. 비록 남과 북으로 갈려 이해야 끈과 끈이 만났지만 말이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그 짧은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북에 둔 언니를 만난 것 마냥 히말ลัย, 체제 없이, 남한사람 북한사람이라는 명찰 없이, 남의 눈 의식할 줄도 모르고 그 언니들과 나뉘어 없는 것처럼. -그 안에는 우리 셋밖에 없었지만 투명한 유리로 밖에서 다 비쳤다. -대강 생각나는 건 통일을 꼭 이루자고 손잡고 맹세한 것과,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가을에 오시라는 언니들의 들뜬 목소리와, 올해 안에는 못 올 것

같다는 서글픈 내 목소리와, 서운해하던 표정들과, 이름이 예쁘다는 칭찬과 우리를 감싸던 민족의 한, 서글픔, 이별의 아쉬움들이 있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 같다. 언니들은 스무 살이고 이름은 경희와 복순인가 금순이었다. 벌써 이름이 헛갈린다. 우리들의 만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도,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슴에 고이고이 담아왔는데 꼭 성의 없었던 만남이었던 것 마냥 이름이 헛갈려 너무 서운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 머리가 너무 밍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불분은 것 마냥, 친언니 동생인 것 마냥 그렇게 가까워졌고 그 짧은 시간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이가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그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정말 소중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리곤 이 경험을 혼자 가슴에 두고 새기기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로 한 것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저절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꺼내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것들을 나는 깨우치고, 나의 눈망울을 흔들리게 했고, 나의 가슴을 크게 울렸다.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다. 금강산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특별하고 소중하며 잊을 수 없는, 나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것을 끄 집어낸 신선하고도 진지하며 솔직했던 경험이었다. 목란관에서 끝까지 나와 배웅해 주던 언니들에게 나의 손은 땀을 줄을 몰랐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셔틀버스에서 터뜨렸다. 통곡에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하다. 실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조금 뒤 교예단 관람을 하였고, 공연이 끝났을 때 또 눈물을 흘렸지만 목란관에서 그 언니들과의 만남보다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다. 그렇게 흥분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삼일포와 해금강을 갔다. 어느 왕이 하루를 머물고 가려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삼일을 머무르고 갔다 해서 삼일포란다. 삼일포에서는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한가운데 징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도 짓고 뱃놀이

도 했을 그 모습이 그려졌다. 솔직히 특별한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했다. 진날보다 물도 덜 깨끗했고 물 색깔도 비취색이 아니었고, 어제 금강산의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해버린 내 마음을 삼일포는 어찌지 못했다. 진날의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강렬해서 삼일포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은 해금강엘 갔다. 파도 부서지는 모습과 기암절벽이 멋들어진 곳이었는데 바위에 파도 부서지는 모습이 멋졌다. 그렇게 삼일포와 해금강을 둘러보고 금강산 여행은 끝이 났다.

금강산 곳곳을 다 다녀보지 못해서 서운했고, 북한 땅을 떠나게 되어서 서운했고, 조장님들과 헤어지게 돼서 서운했다. 정말 아쉬움이 많았던 여행이었다. 남한으로 떠날 때, 손 한번 흔들어주지 않고 웃어 주지도 않던 부두근 처의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 손도 흔들어 주고 웃어 주었다. 잔잔한 감동이 흘렀다. 정말 여행의 모든 것이 좋았던 황홀한 여행이었다. 뭐니 뭐니 해도 둘째 날이 최고의 결정체였지만 삼일 내내 즐거웠고 갈라져 있던 조국 땅을 밟게 되어서 너무 뜻 깊었다. 아직도 생생한 우리 핏줄들의 모습과 목란관의 언니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럼고 또 그럼다. 얼마나 떠나오기 싫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정말 금강산 가이드를 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나의 금강산에서 딱 1년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나 돌아가리라. 금강산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금강산을 뒤로 한 채 글을 마친다. 목란관의 언니들이 건강히 잘 있기를, 수고하시는 조장님들이 건강하시길, 나의 금강산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나는 기다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금강산에 '일년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2박 3일 지내고 가려고 왔는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 해서 일년만, 딱 일년만 더 지내다 가고 싶게 만들었으니까 말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일년을 머무르고 싶다.

내 작은 힘도 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리라!

동복초 4 문소은

엄마께서 세계지도를 사주셨다. 세계지도를 꼭 훑어보다가 우리나라의 땅을 보았는데 마치 손톱만큼이나 작은 것이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였다. 땅도 작는데 땅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내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였다. 답답한 마음을 누르고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찬찬히 잘 살펴보았다.

‘휴전선’이라는 붉은 글씨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그 선은 누가 지도를 만들면서 실수로 그린 것 같았다. 꼭 지워버리고 싶은 선이었다. 사람도 중심점인 허리가 막힌다면 살 수 없듯이 땅도 갈라져 있으니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임을 알 수 있었다. 지도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 보니 내 가슴이 더 아팠다. 세계 속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점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풀어주고 싶었다. 또한 허리가 막혀 힘들어하는 땅을 풀어주고 싶었다. 북한에서는 가난에 시달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슬프기까지 하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만 된다면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다가가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휴전선’을 없애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월드컵 때에도 통일이 되어서 같은 팀으로 함께 뛰다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을 해보았다. 남한에서 사용되는 만원 짜리 한 장이면 북한에서는 한 가족이 며칠은 굶지 않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한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휴전선’만 없어진다면 기운 없고,

힘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았다. 처음에 '휴전선'이 생겼을 때는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고 기뻐하며 분단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 어느새 50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은 채 민족의 한만 가득 안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당시 나 같은 어린이가 지금은 호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명절 때만 되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종종 보곤 한다.

내 낫가에 휴전선으로 허리띠 질끈 맨 땅이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서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싶다고…….

이러한 통일에 대한 온 국민들의 열망은 드디어 남북한 정상을 한 자리에 만나게 했고 소수이긴 하지만 이산가족이 만났을 땐 온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난 처음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마치 남의 일같이 느껴졌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이산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슬픔이나 남북 분단의 현실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도를 보며, 또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통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전체가 아픈데 어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나의 태도도 바뀌게 되었다. 통일은 온 국민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단되기 훨씬 이전의 조상들의 징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역사와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도를 볼 때마다 더욱 다지게 된다. 민족통일은 온 국민이 이룰 과제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통일에 대하여 노력한다면 온 국민이 원하는 민족통일은 꼭 이루어져서 이산가족의 눈물이 그치고,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수치심도 없어질 것이다. 휴전선이 없어진 우리나라의 모습! 벌써부터 금수강산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나의 작은 힘도 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



우수상

꽃게탕 나눠 먹어요

화순 동면중 3 전영주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꽃게탕입니다. 날카로운 집게를 움직이는 싱싱한 꽃게를 사오셔서 곧바로 꽃게탕을 만드시는 엄마의 손놀림은 능숙하기만 합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들으신 엄마는 가만히 빙그레 웃으시며

“영주야,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맛있게 요리해 줄게.” 라고 하십니다.

통통한 하얀 살도 맛있지만 시원한 국물 맛도 끝내줍니다. 친구들에게 맛있는 꽃게탕 이야기를 해주면 “애늬이처럼 무슨 그런 걸 좋아하냐? 난 치킨이나 라면이 훨씬 맛있더라.” 하면서 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꽃게에 얽힌 슬픈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참 속상합니다. 솔직히 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었다는 것을 그리 크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친척 중에 북한에 사시다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사는 이산가족도 없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불편한 점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게탕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분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꽃게를 잡기 위해 북측 어선들이 북방한계선 NNL(North Limited Line)을 넘어 오는 횟수가 늘면서 또다시 서해상에서의 군사 무력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이 이처럼 꽃게를 잡는 일에도 발목이 잡히는 비극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꽃게는 6월초면 남하하고 6월말 이후엔 북상하기 때문에 6월초면 북한의 어

선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6월말이면 남한의 어선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남북한의 해군함정이 서로 대포를 쏘며 대치하여 우리나라 군인아저씨가 사망하거나 다치고 북한의 함정도 침몰 직진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꽃게 어획량이 3배 가량 높아지자 북한은 매일같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 조업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꽃게를 다 잡아간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북한 어선 여러 척이 우리 남한 쪽으로 넘어와 꽃게를 잡는 것을 보고 우리 남한 해군 고속정이 경고 포격을 가하고, 북한 고기잡이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며 엄중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5개 도서는 남한 관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도서 주변의 수역은 북측 영해라는 주장을 해, 남측이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NLL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적 무력충돌의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빠, 내가 좋아하는 꽃게를 북한이 잡아가지 못하게 바다에 거대한 칠조망을 퍼서 막으면 안돼요?”

하고 나란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는 아빠께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나에게 눈길을 던지시며

“북한에도 너처럼 꽃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칠조망을 쳐놓으면 그들은 얼마나 슬프겠냐?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굶주리면서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먹고 옥수수가루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만 배부르면 안되지.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야지.”

하십니다. ‘아, 나의 짧은 생각이여,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창피했습니다. 동생이나 친구들과와는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며 좋은 물건도 나눠 쓰고 나눠 먹는다고 칭찬을 받던 모범생인 내가 나 혼자만을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아빠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한발씩 양보를 하여 공동으로 꽃게를 잡으면 좋을 텐데……. 바닷길이 열려 금강산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육지길이 열려 기차가 다니고 고속버스가 곧 다닌다는 소식이 있는데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다를 같이 공유하면서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냐?”

난 지금까지 한번도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고기잡이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너를 이기거나 네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북한을 향해 막연하게 해왔었는데 이렇게 서로가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꽃게철이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는 남한과 북한이 한발씩 양보를 하여 공동으로 고기나 꽃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꽃게를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북한의 나와 같은 친구들도 같이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더 이상 총질하며 싸우지 말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여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다같이 잘 살자”는 생각으로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되어야겠고, 7천만 전체 민족이 나날의 생활 속에서 북한 동포도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걸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꽃게를 마음 편하게 같이 잡아 사이좋게 나눠 먹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꽃게탕을 끓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의 어떤 집에서든 맛있는 꽃게탕을 먹는 내 또래의 친구가 있겠지?

이젠 통일 노래 그만 부르고 싶다.

화순 이양중합고 3 이혜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마치 유행가처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듣고 불러봤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입에 담기만 할 뿐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옛날의 일로만 기억될 뿐 6·25 전쟁의 아픔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한 민족, 한 겨레끼리 피 흘리고 싸웠던 비극적인 사건 6·25……, 6·25 전쟁이 일어난지도 벌써 5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때의 아픔과 슬픔, 그 한을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연세 지극한 어르신들의 피맺힌 이산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몫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을 위한 행사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이산가족 상봉 행사, 금강산 관광 등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로 감동 그 자체였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날,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사람들과 TV를 보는 우리들 모두 눈물을 펴펴 쏟았다. 눈물이 마르고 치져 쓰러질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런가하면 아름다운 산, 금강산을 관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생의 한을 다 풀 듯한 행복한 모습 또한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다. 직접 가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금강산을 구경하는 사람

들의 감격적인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하였으며 내 마음도 이미 금강산에 가 있었다. 그러나 뿌듯한 감동의 시간도 잠시, 내 마음에는 할 아버지의 슬픈 영상이 떠올랐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양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을 왔는데, 도중에 남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셨단다. 그래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가끔 눈물을 흘리곤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도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다. 우리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영원일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는 일단 한 거래, 한 민족이 이산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굳어져 있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사람들에게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몇 달 전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있었다. TV 화면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들은 정말로 비극적일 수 없었다.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부모형제를 잃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어 가는 모습, 그 모습은 옛날 6·25 때의 모습이며 언젠가 일어나게 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서로의 이질감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가슴속으로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년 중 한번은 통일에 대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을 해왔었다. 이제는 통일이 되길 바라는 글을 쓰고 싶지가 않다. 단지 통일이 된 후 하나된 우리민족의 행복해 하는 모습과 통일의 기쁨을 글로 적고 싶을 뿐이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통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어릴 적 통일이 되길 바라며 남·북한 사람들이

악수하는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북한 아이들이 우리의 편지를 꼭 보리라 믿고 보냈던 편지 속에 담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익숙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간절하고 아름다운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는 부르고 싶지 않다.

이 노래의 가사가 통일을 이룬 기쁨으로 바뀌어질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나되길 바라며...

순천 대석초 5 김마루별

“별아, 엄마가 문제집 표시해 놓은 곳까지 풀어라”

엄마께서 외출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문제집을 펼쳤다. 다 풀고 채점을 해보니 몇 문제가 틀려 있었다.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며 풀고 있는데 중간에 답이 조금 이상한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쓰시오’였다. 그래서 난 답을 백두산이라고 썼다. 무엇이 틀린 것일까? 비록 백두산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도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을까? 지금은 38선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반도 허리에 걸쳐진 비극의 38선 때문에 이산가족도 생겨나게 되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기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이산가족의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었다. 5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이산가족들은 모두 다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 가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이산가족은 “1시간 되는 거리를 50여 년을 걸려서 왔습니다.”라고 했다. 난 부모님이나 오빠가 하루라도 없으면 무척 보고 싶고, 외로운데 50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산가족에게는 2박 3일이라는 시간도 마치 몇 분처럼 짧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가족과 함께 석류굴에 가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통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한반도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한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비록 종유석과 석순의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기는 해도 거의 합쳐질 것 같은 모습

이었다. 종유석과 석순의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남한과 북한의 사이를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만약 그 석순과 종유석이 붙게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는 비극적인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슬퍼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꼭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38선이 제거되어서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고, 남한과 북한이 아닌 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불려질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길 기원한다.



할아버지의 고향

법성중 3 장다정

아무도 없는 사막, 또는 무인도에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남겨졌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우선은 끝없는 막막함과 암담함에 사로잡힐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커질 것이다.

난 아직까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일은 없다. 하지만 살아 계실 동안 항상 외롭고 우울하셨던 할아버지를 보며 낯선 곳에 남겨진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곤 했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도, 자동차로 달리면 불과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철조망 때문에 고향을 갈 수 없으셨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결국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시고 작년 5월에 눈을 감으셨다. 어찌면 지금쯤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고향을 마음껏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늘나라에선 남과 북이 없을 테니까....., 그곳엔 군인들이 감시하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없을 테니까......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남한의 포로수용소에 계셨다. 전쟁이 끝나고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천 조각밖에 없는 채로 풀려나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흘러오셨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도, 가족이 그리운다는 말도 하신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 가족 모두 할아버지의 가슴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몰랐다. 평소에 말이 없으시고, 밖에도 잘 안 나가시고, 잘 웃지 않으신 것이 그저 성품 탓이려니 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올 때 넋을 잃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할

아버지를 보고서야 우린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슬픔을 알 수 있었다. 말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고, 고향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가족과 떨어져 하루만 고생해도 집 생각밖에 나지 않는데, 할아버지께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죽 하셨을까? 통일이 조금만 빨리 되었다면 할아버지께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고 좀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더 즐거운 노년을 보내셨을 텐데……. 할아버지께선 낯선 땅에서 그렇게 마음 고생만 하시다 끝내 통일을 보시지 못하고 가셨다.

나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다. 성별도, 성격도 다른 탓에 잘 다루고 싸울 때도 많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낸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남매이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우린 한 핏줄을 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같은 조상을 가진 한 민족이면서 50년이란 시간동안 화해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포용을 하고 이젠 무언가 되나보다 하고 잠시 기대를 하게 하더니 무슨 오해가 그리도 많은지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은 아직 멀기만 한 걸까?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교류도 자주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민족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휴전선이 없어지는 그날이 하루, 이틀씩 더 앞당겨 질 것이다. 남과 북이 나뉘어 싸움을 한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화해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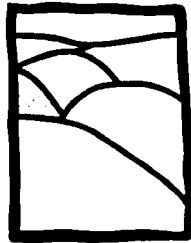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을 언제까지나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며 의무이다. 통일이 되면 당장은 힘들 것이다.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수십 년 동안 맺혔던 한과 설움이 깨끗이 풀어지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신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이산가족들에겐 잠깐 동안의 상봉이 아닌 평생 동안의 상봉이 될 것이고, 국토가 넓어지고, 인적 자원이 풍부해진 만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 발전을 비롯한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께선 끝내 통일을 보시지 못하셨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있을 때에 꼭 통일이 되리라 믿는다.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의 고향인 평안도 재령군 청천면 원내리에 꼭 가보겠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리워하시던 고향 땅에 왔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 고향 평안도에 손녀딸이 왔어요!”



꿈속의 결혼식

백제고 2 박하나

“지금부터 민주자유국가 대한민국의 통일 제 1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의 귀빈 여러분은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2020년 6월 25일 현재 나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주시하고 있다. 오늘은 갈라졌던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지 12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중년에 접어든 난 12년 전 기쁨의 눈물과 뜨거운 환희로 들끓어 올랐던 그날을 떠올린다. 생이별의 고통 속에서 숲한 날들을 눈물로 보냈던 이산가족들이 그 동안의 맺힌 한과 설움을 끝도 없는 눈물로 쏟아내어 보는 이들까지도 숙연하게 만들었던 영광의 그날을.

통일을 향한 전 국민적 열정과 소망이 한데 뭉쳐 커다란 에너지로 분출되면서 가장 먼저 모습을 달리한 것은 바로 남북을 하나로 잇는 철로였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뜻말이 사라진 자리에 자취를 감추었던 통일호가 너무도 당당히 그 위용을 자랑하며 평양으로 들어선 그날, 우리는 TV를 보며 환호했다. 그리고 늘 남북을 위협하고 긴장하게 하던 비무장 지대의 지뢰도 회수되었다. 남북이 서로 양보하며 서서히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행정의 중심은 평양으로, 국기와 애국가, 언어는 남한의 것으로… 모든 절차를 밟고 난 후에야 휴전선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상징물이 거 뒤졌다. 물론 잠시의 시간 동안 통일에 따른 후유증도 있었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통일을 이루어낸 우리 자신의 잠재된 역량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 낯설었던 서로의 언행과 행동들도 이젠 찾을 수 없다.

어느새 모든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평화의 만찬이라는 플래카드가 내 걸린 이벤트장으로 향했다. 해마다 진행되는 남남북녀, 남녀북남의 결혼식장이다. 자주 보는 결혼식인데도 볼 때마다 어찌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지. 항상 서약의 시간이 오면 모두가 숨죽여 운다.

“하늘이 노하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총을 겨눈다 해도, 친지풍파 속에서 서로가 멀어진다고 해도 서로의 아픔까지 영원토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대답하는 이들이나 보는 이들이나 모두의 가슴에 감격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돗개 한 마리와 풍산개 한 마리가 반긴다. 각 가정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애완동물이다. 그리 먼 길은 아니었지만 집에 오니 피로가 몰려왔다. TV를 켜고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다.

‘앗! 저기 보이는 건 내 모습 같은데?’

TV에 비친 건 관악대에서 즐기고 있는 내 고등학교 때 모습이었다.

“하나야, 얼른 일어나”

“응?...”

“우리의 소원 연주해야 돼. 빨리 준비해”

지금 난 TV속의 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시면서 제 50회 6·25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을 끝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그때까지도 무슨 상황인지 깨닫지 못해 어리둥절해 있는 나에게 옆 친구가 말했다.

“아무리 지루하다고 앉아서 자니? 방송 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그 모든 게 꿈이었다 말인가! 허탈했다. 30대의 내 모습도, 만찬도, 결혼식도 모두 꿈이었다니... 정말 생생했었는데...

내 꿈은 미래를 예견한 적도 정확하게 맞춘 적도 없다. 하지만 내가 꿈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이든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사라지고 긴 세월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 꿈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그들의 모습을 바로 내 눈앞에서 바라보며 함께 축하해줄 그 날이…….



● 제주도

- 사랑의 손뻘 / 431
- 하나되는 그 날을 위하여 / 433
- 통일을 위해 벉을 허무는 지혜 / 436
- 노무현 대통령께 / 439
- 삼판선에 피는 꽃 / 442
- 할아버지의 집 / 445
- 꿈의 꽃 / 448
- 하나되어 부르는 노래 / 451
- 손가락 꼬옥 걸고... / 454

사랑의 손백

서귀포초 6 김미성

일주일 전, 빗방울이 하나둘씩 창문을 타고 미끄럼을 타자 곧, 많은 빗방울이 춤을 추며 내려 왔습니다. 싱그러운 봄 햇살은 어둠에 살짝 걸려 있었고, 오직 검은 하늘 가득 등실등실 떠 있었습니다. 꽃과 새들이 정겹게 얘기할 것 같은 6월, 이런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70세 정도 사셨던 한 할머니입니다. 화창한 6월, 비가 내릴 때면 그 할머니 또한 6·25라는, 아픔으로 눈에서 이슬이 또르르르 흘러내릴 생각을 하니 하늘이 참 밍습니다. 할머니께선 6·25라는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동생을 만나지도 못한 채 지난 52년 동안, 많이 늙아 색이 누렇게 변한 남동생 사진을 보며 아픔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매번 신청하셨지만 할머니의 이름이 불렸던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52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지내시다 얼마 전, 남동생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로 그날이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말이에요. 옆집 할머니 댁에 놀러갈 때면, 할머니께서는 남동생 얘기와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남동생의 손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 남동생의 얼굴을,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남동생의 얼굴을 곧 행복한 얼굴로 보게 될 테죠.

음……, 할머니를 생각하면 전쟁이 떠올라요. 그 전쟁하면 지난 3월 20일에 벌어졌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떠오르지요. 그 전쟁으로 인해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 황폐된 땅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는 치참한

현장은 몸이 부르르 떨릴 만큼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한과 비참한 전쟁을 한다면 결국, 우리 한반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와 까만 잿더미만 남아 있을 것 같아 온 몸이 후들거리지요.

“ 짹, 짹 짹! 짹짹...”

옆집 할머니는 박수를 참 많이 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뼉을 치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나 그냥 한번씩 힘차게 박수를 치곤 했죠. 그 박수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손뼉은 한 손으로 칠 수가 없듯이 우리도 북한과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하면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일이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지난 2000년 6월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소를 보내주고 비료를 보내주었듯, 그렇게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사랑으로 북한을 대한다면 통일은 우리 앞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과 떨어져서 지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일이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오늘도 옆집 할머니의 얼굴과 그 할머니께서 치던 손뼉을 떠올려봅니다. 남동생은 못 만났지만 우리가 대신 통일을 이루어 할머니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겠지요? 사랑으로 북한을 대하고, 그 작은 정성을 다시 모아 보냅시다. 그러면 언젠가 북한은 왼손이 되고 우리 남한은 오른손이 되어 서로 사랑의 손뼉을 힘차게 칠 것입니다.

하나되는 그날을 위하여

제주동여중 2 고유현

연두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봄은 진초록 옷을 입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여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떠나는 것이 아쉬웠는지 봄은 5월의 끝자락에서 빗줄기를 쏟아냈다. 장마도 아닌데 먹장구름을 잔뜩 끌어안은 하늘이 뿌려대는 비 날씨 탓에 내 마음은 눅눅해졌다.

나는 뉴스를 즐겨보지만 뉴스 끝에 나오는 일기예보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비 날씨가 지겨워서 일기예보를 기다렸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다던 호우 주의보는 오늘밤을 기해 해제되었습니다.”

비가 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기상 캐스터의 목소리는 비 갠 후의 칭아함이 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을 상상하니 마음이 밝아져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나의 시선을 붙들어 댔다. 북부지방의 지도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고 기상 캐스터는 북한의 날씨를 소개해 주었다. 북한의 날씨를 대강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신의주·함흥·개성 등의 지명을 나열하면서 그곳의 기온과 기후변화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일기예보를 신경 써서 보지 않은 탓인지 일기예보에서 북한의 날씨가 소개되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다.

“엄마, 언제부터 일기예보에서 북한의 날씨가 소개되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부지방 일기예보가 소개된 건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가 그다지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북한에 부모, 형제, 자매를 두고 온 이산가족들이 일기예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지 마음이 쓰였다. 일기예보 시간, 북부지방의 지도가 텔레비전 화면에 클로즈업 될 때 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 때 엄마는

“유현아, 작년 5월 제주도민들이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본 뉴스가 생각나니?”

“감귤보내기 운동에 대한 답례로 북한에서 제주도민을 초청했을 때 말이죠?”

나는 ‘PYONGYANG’이라는 글자가 제주 국제 공항 전광판에 촌촌히 찍히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서 평양 순안 공항으로 직행한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체제가 다른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피를 나눈 형제들이 가장 먼 사람들인 양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직항 노선으로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백오십여명의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평양을 갔을 것이다. 하지만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을 것이다. 그 후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남과 북’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말이다. 50년이 넘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받을 굴러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한민족, 한겨레,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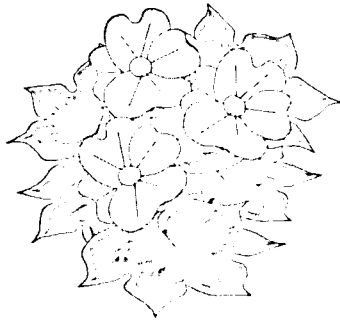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커다란 통일 독일로 우뚝선지 십 년도 훨씬 지났다. 이젠 그 누구도 서독과 동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 여러나

라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호랑이가 웅크려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38선을 중심으로 허리가 잘려있다. 통일이 되는 날, 우리 한반도 지도는 포효하며 넓은 대륙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되어있는 힘찬 호랑이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북한 지역의 날씨를 소개하는 일기예보를 하고, 국제대회에 남북이 한 팀으로 참가하고, 경제협력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 날이 오지않을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국토순례의 대장정을 할 수 있는 하나되는 그 날을 위하여!



통일을 위해 벽을 허무는 지혜

오현고 2 한승철

물이 흐른다.

이 물은 모든 곳을 돌고, 돌리면서 목이 마른 사슴에게는 갈증을 풀어주며, 척박하고 황량한 토지에는 생명의 티움을 선물하는 세상 터울의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어느날엔가 벽이 생겼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와 관심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 데에서 만들어진 오해의 벽이었다.

물은 멈추었다. 아니 더 이상 흐르지 못하였다. 그들이 서로 그들만의 입장과 시선을 중요시하며 만든 벽이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흐르지 못하는 물은 웅덩이로 전락했고 결국 악취가 나며 썩는 존재가 되었다. 목이 마른 사슴은 물이 그리워 눈물을 지으며 쓰러졌고 생명을 선물 받았던 토지는 두 눈앞에서 말라 가는 새싹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남북분단의 현실은 편견어린 시선과 서로를 이해함을 포기한 편협한 사고와 태도를 의미했다. 이는 우리민족에게 있어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치욕의 악순환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눈물지며 쓰러진 사슴과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하염없이 눈물짓는 이산가족이 무엇이 다를 것이 있으며 말라 가는 새싹을 두 눈앞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토지와 남북 한민족이 차디찬 철조망에 막혀 바라보기만 해야하는 현실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분단된 한민족인 우리에게는 분명 벽이 있으리라 보여진다. 그 벽이란 서로의 상반되는 정치이념에 대한 주장도 그 원인이나, 가장 큰 요인은 서로가 서

로를 이해함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만을 위함에서 일 것이다.

그 벽 아래에 흐르지 못하는 물.

한민족의 원동력이 되는 정서가 되는 물이다. 좋은 일에 같이 손잡으며 웃고, 슬픈 일에 같이 토닥거리며 위로할 줄 아는 정서적인 연대감인 것이다. 그리고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애통하게 여기는 이들이 애타게 그리워할 그 물이 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민족이 다시 흐르길 애타게 바라는 물이 제 갈 곳을 가지 못한 채 웅덩이로 썩고 있다. 이 물이 민족의 좋은 일, 기쁜 일은 물론 슬프고 힘든 일조차 날라주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물을 흐르게 하자.

우리는 분명 이 벽을 허물고 매워야 하며 다시 이 물을 흐르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이산가족의 슬픔 때문이다. 시중에 파는 상처부위에 붙이는 의료밴드처럼 붙이면 며칠만에 아무는 그런 상처이면 좋으련만 그들이 지닌 상처는 쉽게 아물기엔 힘든 상처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의 생사여부도 알지 못한 채 먼 북녘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의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마는 그 슬픔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음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본다.

남북 이념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이 벽을 허물고 매울 수 있는 길은 모든 이가 편견이 묻은 시선이 아닌 관심의 촉수를 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통일의 실현은 소통의 원리를 적용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소통이라 함은 서로의 같거나 아니면 판이하게 다른 모든 것을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남북통일을 위한 소통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 또한 자신의 테두리에만 갇혀버리는 것이 아닌 서로와 서로를 통합한 민족의 테두리에 가장 근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남북통일.

물론 긴 시간의 벽을 한번에 허물고 매울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서로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 여

겨진다. 그러나 어둡고 습한 무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속과 부담의 중압감이 아닌 사명과 책임의 육중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성숙의 기운으로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각자 갖고 있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 바로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의 발걸음을 떼는 일일 것이라 믿으며 글을 추스려 본다. 우리 모두 남북통일을 위한 분단의 벽을 허무는 지혜를 갖도록 하자.



노무현 대통령께

동화초 6 양수연

안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제주도에 사는 동화초교 6학년 양수연 이라고 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열심히 우리나라를 돌보시며 이것 하랴... 저것 하랴... 참 수고하십니다.

여름인 6월로 접어들면서 6·25 사변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저에겐 사실 큰할아버지가 북한에 계신답니다.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분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으론 매우 똑똑하셔서 교사로도 여러 번 일도 하셨고, 북한기자가 인터뷰 올 정도였다고도 해요. 저에겐 상상 속의 할아버지이자 존경하는 할아버지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사진 속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북녘 땅 한번 밟아보시는 게 소원이라며 그리움을 품에 안으신 채 돌아가신 거죠. 제가 무려 두 살 때의 일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일이죠.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저를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큰 형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게 안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님! 항상 뛰하라..., 저거 하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어깨가 만냥 짜리 금을 엮힌 것보다 무거우실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동화나라 책방에서 '몽실언니'란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엔 6·25전쟁의 고통과 피해 등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었지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슬퍼서 핑핑 울어버렸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게 너무 싫어요. 분단국가

가 뭐 길래 이산가족들에게 많은 슬픔을 주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슬픔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TV로 보시며 눈물을 쓰으 훔치내시는 걸 보았어요. 제 눈에도 그렇그렇 눈물이 맺혔지요. 이제 7차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아버지는 또 그러실 걸요.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요즘 '사랑의 빵' 모금을 하고 있어요. 100원이면 북한어린이 1명에게 국수 한끼를 제공한단 말에 더욱 힘내어 동전을 넣고 있어요. 군것질도 꼭꼭 참아가며 말이예요. 그 돈들이 아깝긴 해도 북한어린이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며 기뻐하지요.

이런 북한어린이들 생각하며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이란 노래를 학교에서 불렀어요. 문득 금강산에서 북한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놀고,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랐지요. 단 아쉬운 건 5분만 보지 못해 그러지만요. 꿈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한 꿈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사람들이 이 꿈을 '거짓말이다!' 라고 할 테지만, 저는 진실이란 걸 믿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꼭 믿어주셔야 해요. 약속~

노무현 대통령님, 어제가 현충일이었지요? 전 학교를 쉬니, 너무 들떠서 친구들과 맘껏 뛰어 놀 생각을 했어요. 앗싸~하면서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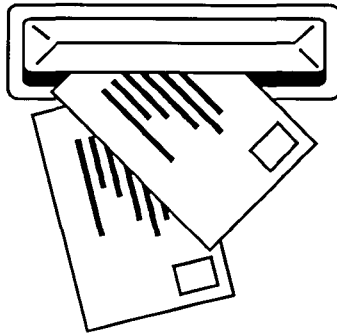
하지만, 4학년 동생이 태극기를 다는 거예요! 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부끄러워졌지요. 저는 6학년인데..., 4학년보다 못한 것 같아 서둘러 반성하고 묵념을 했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 방송작가예요. 요즘 편한 것만 찾는 사람들에게 6·25전쟁의 고통과 피해, 슬픔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꼭 봐주셔야 해요. 요즘은 남·북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서요? 참 잘된 일이네요. 독일도 동독·서독으로 나누어졌다가 통일이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음 좋겠네요.

노무현 대통령님! 항상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평안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3년 6월 7일 토요일
제주시에 통일을 바라는 학생
양수연 올림



삼팔선에 피는 꽃

아리중 2 오승희

한 민족이 분단되어 생활을 예이는 아픔으로 지내온 지도 어언 50년이 흘렀다. 나는 6·25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어서인지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껴보질 못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통해 이산가족의 한 맺힌 가슴앓이를 내가 겪은 일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진 슬픔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매년 6월 통일안보 행사 때가 되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그리워진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일이었다.

서울에 사시는 외할아버지께서

“승희 엄마냐? 아이들 데리고 언제 다녀갈래?”

하시며 그리움에 배인 목소리가 전화코드를 타고 전해졌다.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멀리 제주로 시집보내고 보고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어 항상 그리워하셨다. 엄마께서는

“아버지 방학 되는 대로 아이들 데리고 올라갈게요.”

하시며 울먹이셨다. 엄마도 항상 외할아버지 전화를 받으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우린 서울로 향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린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일산 신도시를 지나고도 한참을 달리니 한 폭의 그림처럼 임진강이 투명하게 흐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서울을 떠나 할아버지 고향인 연천에서 조용히 살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야 처음 알았다. 밤이 어두워서야 우리는 눈두렁의 맹꽂이 소리를 들으며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많이 아위어 계셨다.

이튿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우리들을 데리고 엄마의 할아버지 산소에 데리

고 가셨다. 산소로 오르는 길 입구엔 '여기는 삼팔선입니다.'라는 팻말이 쓰여 있었고 난 그제야 이곳이 북한과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미루나무들이 평화롭게 줄고 있는 언덕을 향해 오르며 외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꼭 잡은 외할아버지의 손에서는 그리움이 뚝뚝 떨어졌다. 성묘를 하고 나서 외할아버지는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발 아래로 개울물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제주에서 보는 농촌의 모습보다 훨씬 아득해 보였다.

"승희야, 외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하시며 외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헤어진 형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집안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안 보내주시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할아버지보다 다섯 살 정도 위이신 형님께서 학업을 중단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여 할아버지를 학교에 보내셨다고 한다. 6·25전쟁이 나기 며칠 전 장사를 떠나시면서

"형이 돈 많이 번어와서 좋은 학용품 사줄게."

라고 하시며 나가신 게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남북 직십자 회담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외할아버지도 여의도 KBS방송국 벽보에 엄마를 통해서 외할아버지 형님을 찾는 전단지들 수없이 붙이고 다니셨다고 한다. 아직도 살아서 돌아오실 것을 외할아버지는 꼭 믿고 계셨다. 그러면서 외할아버지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죽어서라도 형님 개신 곳을 보고싶어 고향에 옛날에 이 땅을 사 놓았단다. 내가 죽거든 북쪽이 보이는 곳에 날 묻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며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다.

그리고 일년 후 외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다운 저 먼 곳으로 가셨다. 그 소식을 우린 어김없이 제주에서 듣게 되었다. 외할머니의 전화로 엄마께서는 울부짖으시며 나와 동생, 아빠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도착하니 평소 자주 웃으시던 이모들도 외삼촌들도 눈이 빨갛게 부으신 채 가라앉은 목소리로 우릴 맞이해 주셨다. 엄마와 나는 외할머니를 위로하면서 외할아버지 산소엘 갔다. 산소는 삼팔선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푸른 언덕 위에 그리움을 듬뿍 담은 채 멀리 제주도로 시집보낸 엄마를 그리워하고 이승에

서 뵈지 못한 형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산소 가까이 가니 팔랑거리는 노랑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인 양 여겨졌다. 6·25때 이북으로 납치된 형님을 평생 보고싶어 하시다가 영혼으로도 만나 뵈고 싶어 저리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다니시는 것만 같아 가슴이 저러왔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북한 땅이 보이는 삼팔선 가까운 곳에 묻히시게 되어 우리가 옆에 없어도 덜 외로우시리라는 생각을 하며 그 곳을 떠나왔다. 응어리진 멍든 가슴을 가지며 평생 그리워하다 눈을 감으신 분이 어찌 외할아버지 한 분뿐이라?

아직 이 세계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일도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이산가족의 응어리를 떨쳐낼 수 있는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 지도를 내 앞에 펼쳤을 때 빨간 선이 중심이 아닌 푸른 평야와 파란 바다가 매꾸어 완전한 형태를 갖춘 한반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그리운 얼굴들을 보듬으면서 그리움과 눈물로 멍든 역사를 던져 버리고 사랑으로 물결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6·25전쟁에서 잃은 아들을 50년 동안 가슴에 묻고 현충일이 되면 아들이 묻힌 비석을,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이름 석자만 남거나 여린 백일홍보다 더 창백해져버린 시체에 지나지 않는 그들 앞에 한 떨기 꽃을 바치는 눈물겹고 힘겨운 삶을 끌어안고 목놓아 우시는 80세의 할머니를 TV에서 보았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적 통일은 꼭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찬란한 날들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가만히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본다.

할아버지의 집

대정여고 2 조보미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나의 잠을 깨우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을 뜨면서 나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올리면서 지친 내 몸을 일으켰다. 눈을 뜬 그 순간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었다. 잠깐 느긋한 마음을 갖기라도 하면 지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눈을 뜬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다. 할아버지께서 잠을 자지 않으시고 계시도 방에서 꿈쩍 않고 계시고 나도 등교 준비로 바빠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챙겨서는 학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학교로 들어서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눈을 뜬 그 시간에도 지친 상태였지만 학교가 끝났을 때에 나는 녹초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튼튼한 나조차 지쳐 오는데 주위 사람들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먼던 길이 가까이 들어서고 집이 보이고 언제나처럼 나는 말한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다정한 인사가 아닌 어머니의 한숨 소리였다.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드시면서 이런 말들을 하셨다며…….

"내 집에 가자……. 가… 거기… 가자…"

"집이 어딴어요?"

“저… 저기 있잖아…, 저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돈이 많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리 집에 가자고 하셨다고 했다. 나는 그 집이 어디냐고 어머니께 물었더니 북한에 사셨던 때의 그 집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크신 듯 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로 뇌출혈도 있으셔서 몸 상태도 안 좋으신 데다가 식사도 잘 안 드시고 잘 움직이지도 않으셔서 점점 더 상태가 악화돼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아프시기 전의 할아버지와 지금의 할아버지 모습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할머니께서도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계속 혼자 사시면서 당당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하셨다. 사고 이후의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예전에 할아버지가 아니셨다. 내 동생보다도 더 어린 행동까지 하시며 나를 놀라게 하시는 할아버지였다. 나는 그때까지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어찌면 우리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이다. 예전에 살고 계셨던 큰 집과 할머니, 그리고 재산들을 아직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 동안의 내 생각이 부끄러웠는지 어찌서 할아버지께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룻밤 사이에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된다면 당연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남북이 갈라짐으로 인해 무언가를 잃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순간 나는 재산처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도 잃은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 판자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사진도 붙이면서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크게 써서 몸에 걸어 계셨던 분들 말이다. 가족을 찾으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들을 몰라주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런 분들이 모두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소한 가족

들의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분들은 다리를 쭉 펴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처럼 말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나 관심거리가 되어 왔는데 그런 집으로 인해 몇몇 분들은 눈물과 함께 가족을 보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로서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말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좋게만 받아들여지는 않았다. 같은 민족 같은 땅인데 단지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멍이 지야 할까? 철조망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계속 뇌뒤편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조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나 또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아닐까? 아니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야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주는 혼란으로 인해 통일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 잠깐의 혼란 때문에 가족이 헤어진다는 이 현실을 눈감으려고 해서 안 된다. 내가 할아버지의 집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꿈의 꽃

신제주초 6 김소영

우리 반에 기원이라는 남자 친구가 있다.

이상하게도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기원을 슬슬 피했다. 아주 심한 말썽꾸리기도 아니고, 눈에 띄게 괴롭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반 학급 회장이라서 가능하면,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게 노력할 의무도 있었다.

6학년이 되어 처음 같은 반이 된 기원은 튀는 아이도 아니고, 평랑하거나 외톨이도 아닌데, 학습부진아여서 조금 동정심이 가는 아이였다. 나는 마지막 회장 역할과 모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기원이 모듬은 항상 꼴찌여서 청소도 하고, 분만이 많았는데 학력고사를 치르고 난 후 기원과 같은 모듬 짝과 수학학습도우미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은근히 기원이랑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똑바로 앉지 않고 내 쪽으로 기울어 앉거나 책상 밑에서 툭툭 건드리는 습관이 있어서 신경 쓰이게 하였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생각해서 내가 떨어져 앉곤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방해가 되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기원아, 바르게 앉아 줄래? 발도 가만히 해줘. 자세가 삐뚤어지니까 책상도 어긋나서 불편하고, 모듬 활동에도 피해를 주잖니?”

머리만 굽적거릴 뿐, 대꾸도 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아서 속상하고 화가 나려고 했다. 기원은 말을 할 때나 공부시간에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직도 자주 당하고, 모듬 활동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회장인 나까지 선생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친구를 미워한다는 생각

에 고민했다.

『기원이에게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너랑도 잘 지내고 싶어. 말할 때도, 공부할 때도 시선을 마주 보고 책상과 자세를 똑바로 해주면 고맙겠어. 툭툭 차는 것도 고쳐보도록 하렴. 내 부탁 들어주지 않을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기원의의 생일 날, 작은 선물과 함께 카드를 주었다. 다행히 기원의의 수학 점수가 쑥쑥 향상될 무렵, 모듬이 바뀌었다. 우리 반에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서 마패를 비밀리에 갖고 있는 친구가 칭찬 친구 한 명씩을 뽑아서 으뜸표랑 비디오 화면 모델을 시켜주기도 하는 재미있고 색다른 제도다. 드디어 기원이가 뽑히던 날, 방과후였다.

“저~ 소영아, 이 문제 좀 도와줄래?”

축하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 주었더니 슬며시 쪽지를 주는 것이었다.

『소영아, 네가 나를 친구로 믿어줘서 고마워. 다른 애들처럼 무시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고자질하지도 않고, 공부도 잘 가르쳐준 거 정말 고맙다.』

나는 요즘 명랑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기원을이를 보면 흐뭇하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았던 것이 다행스럽다. 만약 내가 기원을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했다면 친구가 되지 못했겠지? 매 학년마다 1기 회장과 진교 어린이 회장단까지 맡아보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하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고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된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 가면서는 더욱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잘 참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어느덧 6월이다.

아직도 가슴 고동치게 하는 1년 전 함성들이 생생하다. 아! 우리들의 꿈이 전세계로 펼쳐지던 감동의 순간과 물건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께

도 뿔뿔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그렇게 뿔뿔
몽친 힘이라면 통일인들 못 이루랴!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핵이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잘렸던 남북한 허리
도 다시 연결되고, 금강산도 우리를 반겨주는데 무엇인들 못 기다리랴... 한
때는 빼뺏어져서 빼그덕거렸던 기원이처럼, 남과 북 대화의 책상부터 바르게
점검하고 마음을 좋게 돌린다면 문제없을 것이다. 미움은 오해를 낳고 멀어지
게 하지만, 대화는 이해를 품고 화해를 낳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하나로 뭉
치면 어떤 꿈도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노
라면, 핵보다 더 큰 사랑과 전쟁보다 아름다운 평화로 통일이란 꿈의 꽃을 활
짝 피우리라!



하나되어 부르는 노래

중문중 3 공은주

TV에서 애국가가 들려온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서 그런지 고통, 슬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푸른 하늘 아래 저들의 모습은 전신갑주를 한 우리나라의 군인처럼 보인다.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큰 힘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들 모두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나에게 이러한 확신을 준 계기는 학교에서 열리는 노래대회를 통해서였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즐거운 노래 부르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반별 노래자랑을 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은 '하나되어'라는 곡으로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했다. 곡 선정자는 바로 나였다. 난 웬지 모르게 그 노래가 좋았다.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 반이 정말 하나되어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노래가사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연습할 때도 너무 즐거웠고 그뿐만 아니라 반내에서의 다툼도 없었으며, 우리 반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하나되어 이겼어…….'

아직도 그때 그 진율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나되어 이겼던 그때 그 순간을…, 서로 부대끼며 기뻐하고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을!

그때 알았어야 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되어 노래 불러야 한다는 걸…, 왜 몰랐을까? 하나됨이 그렇게 뜨겁고 아름답다는 걸…, 하지만 그때 난 1등 상을 탄 감격과 우리 반만이라도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통일이 됐을 텐데 말이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역시 즐거운 노래대회를 맞았다. 난 교만 일지도 모르는 자부심으로 당연히 우리 반은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1학년 때는 내가 있어서 1등 했던 거야. 내가 곡도 선정하고, 가르쳤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있으니 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말이다. 하지만, 다툼만 있었을 뿐 연습도 잘 되지 않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때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친구들을 닦할 수밖에 없었다. 노래도 못 부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반 친구들을... 문득 난 1학년 때 하나되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때는 정말 즐거웠는데... 맞아! 반 친구들 모두가 노래가사처럼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1등 할 수 있었던 거야. 나 혼자 반비등쳤지만 35명 모두를 하나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햇살은 남과 북, 우리 모두에게 비취지고 있는데 난 바보처럼 나에게만, 남한이라는 곳에만 비취지고 있는 줄 알았다.

‘왜 꼭 통일을 해야되지? 우리나라만 잘살면 되는 거잖아... 복잡하게 통일이 되는 것에 신경을 쓰느니 차라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뜻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한민족이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남과 북... 아직도 6·25 전쟁으로 죽었던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들의 가족이 살아있으며 이산가족들이 눈물로 밤을 세우는 일이 있는 한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의 힘으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것 같다. 비록 내 경험 속에서 나 스스로 느낀 감정일지도 모르지만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려면 한 목소리로 노래불러야 한다고 말이다.

오랫동안 온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무엇일까? 잦은 다툼,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했

다. 남한이 북한에 여러 도움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차례 걸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 학생 소년예술단과 평양 교예단의 공연도 서울에서 있었다. 난 아직도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돌아갈 때 눈물 흘리며 두 손을 꼭 붙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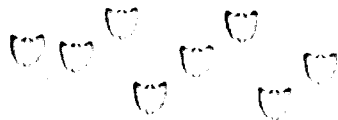
“다시 만나요-”

하는 말을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언제쯤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정말 하나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하나되어 노래할 그날이 말이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대고 있다. 1학년 때의 그 전율과 같은, ‘우린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이 말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희망만 있다면 남·북이 하나되는 건 즐거운 노래대회 1등 하는 것보다도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이니까…. 남북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것이니까 말이다.

2년 전의 그 전율,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순간을 다시 일어날 남과 북의 통일로 한번 더 느껴보고 싶다. 휴전선을 가로질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되어 노래부를 그날을 꿈꾸며 난 지금도 조용히 이 노래를 부른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하나되어 이겼어…….’



손가락 꼬옥 걸고...

제주여성 3 문혜림

“혜림아! 뭐하니? 3학년이 된 것이 그렇게 태평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어?”
창 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냥 아름답기만 할뿐인데 어디선가 아름다움을 깨는 목소리가 들어왔다.

“예…….”

나는 대답을 하였고……, 아마도 그것이 그 애와의 첫 만남이라고나 할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이라 하더라도 한 손에는 노란 악보를 들고 어깨에 길쭉한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동무 내려 급히 몸을 숨겨야 하는데 동무가…, 동무가…….”

‘뭐야? 저 말투? 그 말로만 듣던 북한? 흠… 모르겠다.’

혼자서 짧은 시간동안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와 그의 대화를 끝마쳤다.

“전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데…, 그쪽만 민망하지 않다면 저랑 같이 학교 가실래요?”

그는 마냥 입가에 미소만 가득 지었다. 여자들만 있는 학교인줄 모르고 가는 그는 웬지 솜사탕을 쥐고 가는 어린아이의 미소와 같았다. 우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학교이기에 그와 걸어갔다.

“그쪽은 왜 이곳에 왔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내래 이름은 그쪽이 아니라우. 내 이름은 강봉춘이라우. 이래봐도 어엿한 청년 19살이라우”

“하하하 봉춘? 19살이라고 하면서 아저씨 줄 알았어…. 나이에 안 맞게 왜

이렇게 삭아 보이냐?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니깐 학교에 연습하러 가는 건데…, 구경해.”

“연습하러 간답니까? 고름 총을 쓰는 연습?”

“앵? 무슨 총 쓰는 연습을 하긴……, 빨리 와봐 - 이리로”

학교 앞에 들어서자 운동장에서 깃발 연습을 하는 1,2학년 칼라가드가 보였다.

“무슨 일이 있나우? 저 무기는 무엇이라우?”

“뭐야? 하나같이 무기들만 생각하긴…, 흑사….”

나는 간혹 이상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웬지 우리는 친구라는 생각에 어느덧 벌써 친해졌다. 관악실에 들어오자 다른 친구들은 여자 관악실에 남자를 데리고 온 것에 놀라워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나중에 자세히 말해준다는 말 대신 링크 사인을 대신 보냈다. 나는 그 애가 조마조마해 하는 모습에 우선 관악실 옆 조그마한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이 악기는 플룻이라고 해. 내가 잘 다루지 못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악기지.”

“프…… 우울…룻? 소리가 너무 높다우 - 내래 총알 합계를 틀릴 때 선생님이 내는 소리와 같다우 -”

웬지 아직까지도 조마조마해 하는 모습과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무기와 연관짓는 말투는 조금은 그의 생활을 알 수 있게 했다. 나는 그가 걱정하는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부족한 실력이지만 플룻을 연주해 주었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 아마도 통일이라는 노래를 요청하는 듯 싶었다. 그 곡을 연주해주자 곧 노래로 흥얼거리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와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비록 가사는 엉망이었지만 말이다.

“내래 궁금한 게 이따우. 동무 나이엔 이런 것만 배워야 하나?”

“원래 고3 때는 공부가 중요해.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으니깐 하지만, 내가 발견하고 싶은 길은 이 악기와 함께 하는 음악의 길

이야.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넌 중요한 이 시기에 뭐 하는데?”

그러자 내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총 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보게 되었지만 손가락엔 잔뜩 피멍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야? 그럼 그냥 여기서 악기배우면서 살래?”

“안 된다우 - 내래 어무이가 아파 돈을 벌러 왔다우. 어무이가 내래 남한으로 넘어온 거 안 걸리게 하라고 했다우.”

“여기서 무슨 일하면서 돈을 벌고 또 어머니 어떻게 찾아볼 건데?”

“흐흫…….”

“너 나랑 약속 한 가지만 할래?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약속”

“으응”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다.

“혜림아 얼른 일어나라! 학교에 연습하러 간다며…….”

여러 번 엄마는 날 깨운 듯 싶었다. 목소리의 어조는 옥타브소리 못지 않았다. 그나저나 아직까지 그의 울음소리가 계속 내 귓속에 맴도는 이유는 뭘까? 맑은 햇살이 오늘따라 슬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오늘 하루종일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 생각이 난다. 나는 시계를 보면서 무엇인가 기다렸다.

사실 내가 궁금한 것은 북한의 실상이다. 사실 북한의 실상을 볼 때마다 실망으로 절망을 맺곤 한다. 하지만 내가 북한의 실상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결코 희망의 빛이 조금은 보일 것이라는 작은 기대 때문이다. 오늘 한 TV 시사프로그램의 주제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이다. 그 프로그램의 MC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것이라 나는 믿는다.

“조금 전 화면을 보았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어린 새싹들이 꿈울 펼쳐야 할때 옹지 못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좀 전에 본 화면은 나 역시도 놀라게 했다. 초등학교까지 구걸하기 위해 손을 벌리는 것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도둑질은 물론이었으며 어느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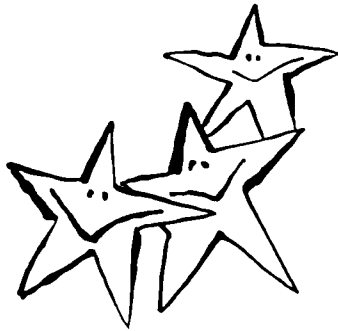
구 하나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기자가 북한 어린이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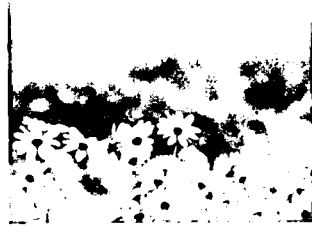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었다.

같은 민족이라고들 하지만 전혀 반대의 모습만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 만난 그 역시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따지고 보면 꿈속에서 만난 친구랑 나랑은 인생의 길에 꺾어야 하는 첫 장애의 시기인데 서로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도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목표가 보이는 길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바랄 것이다. 전혀 다른 목표가 아니라 조금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이라는 단어를 완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변함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제8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실바람에 실은 희망

- 산문집 -

초판인쇄일 2003년 10월

초판발행일 2003년 10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021

홈페이지 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현프린트

전화 02)2273-7142

